



# 사랑의 손길, 희망의 나눔

포스코 사회공헌 활동 백서 2003~2006

POSCO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사랑의 손길, 희망의 나눔

# 사랑의 손길, 희망의 나눔

## 포스코 사회공헌 활동 백서

2003~2006

포스코의 이니셜 P를 네 가지 색으로 표현하여 역동하는 바람개비 형태로 형상화하였다.  
주주, 고객, 지역사회,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나눔,  
봉사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포스코 봉사단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포스코 봉사단  
POSCO VOLUNTEERS

# 함께 해서 따뜻한 세상 - 포스코가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길만이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쟁의 법칙은 불가피하게 소외와 상처를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존중의 미덕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그늘진 자리에 빛과 온기를 제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래 오늘 이 자리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국가경제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숙명의 사명감으로 출발해,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의 책임감을 넘어, 이제 지구적 차원의 또 다른 성공신화를 창조하겠다는 새로운 세기의 목표를 설정하기까지, 포스코는 사회와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벽찬 도전의 여정 속에서 포스코는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가치의 끈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는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왔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포스텍과 포스코교육재단 산하의 각급 학교들을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은 일류사회의 토대라는 인식에 따라 메세나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포항과 광양에 프로축구단뿐 아니라 유소년 클럽을 운영하여 한국의 축구발전과 지역의 체육진흥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포스코청암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국가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진다는 믿음으로 기술공동개발, 경영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의 경영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간존중'입니다.

포스코는 인간존중의 철학을 좀더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3년 5월 포스코봉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이 백서는 올해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백서 발간의 뜻은 자화자찬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잘한 것은 더욱 잘하고, 부족한 것은 힘써 채우자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다른 많은 기업과 사회단체, 나아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공헌의 참뜻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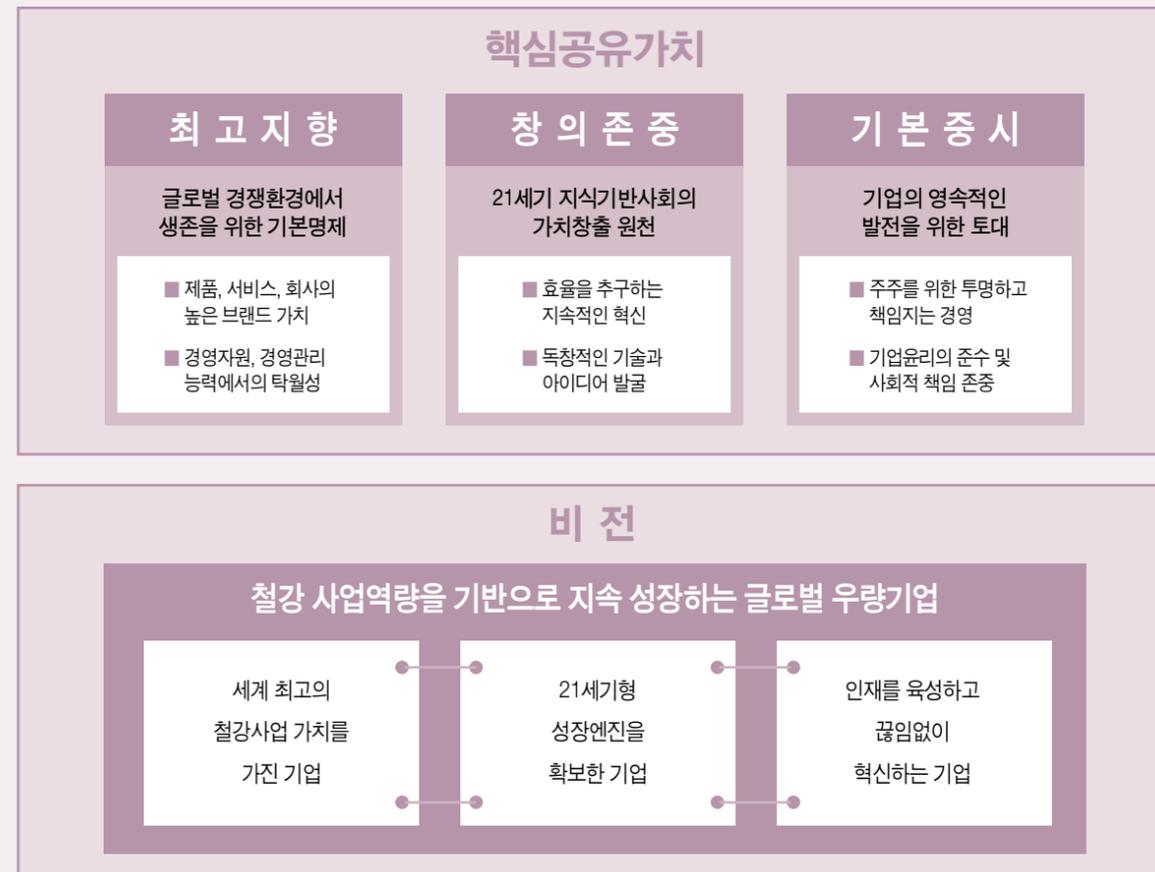
앞으로도 포스코는 다 함께 행복한 사회, 함께 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포스코봉사단 단장 이 구 택

## 경영이념

### 미션과 공유가치

우리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한다. 이를 위해 최고를 지향하고, 창의를 존중하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 받는 기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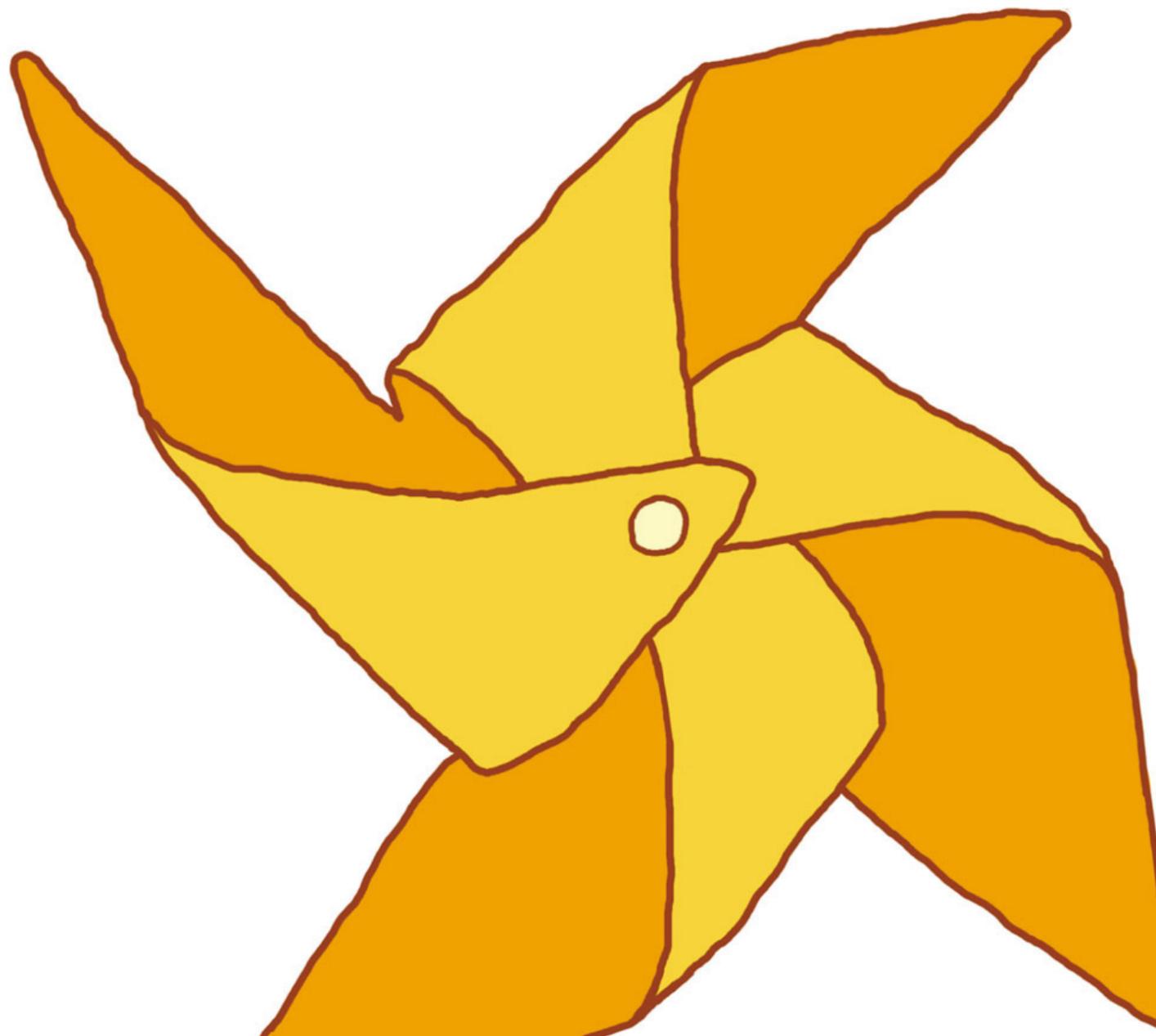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래 산업의 기초 소재인 철강재 공급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포스코는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투자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인재 양성, 문화 예술·체육 진흥, 지역협력, 중소기업 지원,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치열한 경쟁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유지하여 철강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인류의 복리 증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주주, 고객,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화합과 나눔, 봉사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보다 밝은 사회,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며”

포스코는 2003년 봉사단 창단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추진해온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목차

- 04\_ 봉사단장 인사말
- 06\_ 경영이념
- 08\_ 목차

## 포스코와 사회공헌 활동

- 12\_ 사회공헌 연혁
- 16\_ 화보
- 26\_ 사회공헌 활동 개관
- 34\_ 봉사단 활동 개관

## 포스코 사회공헌 활동 사례

- 40\_ 자원봉사
- 76\_ 자매결연 활동
- 106\_ 문화예술
- 127\_ 체육
- 136\_ 포스코 청암재단
- 148\_ 포스텍
- 158\_ 포스코 교육재단
- 168\_ RIST
- 174\_ 학술·교육
- 188\_ 사회복지
- 208\_ 상생경영
- 222\_ 계열사 사회공헌 활동 사례
- 238\_ 외주파트너사 사회공헌 활동 사례

## 포스코 사회공헌 활동 자료

- 246\_ 광고로 보는 포스코
- 250\_ 수상실적
- 251\_ 자원봉사그룹 현황
- 262\_ 자매결연현황
- 270\_ 계열사 봉사단 운영 및 자매결연 현황
- 272\_ 외주파트너사 봉사단 운영 및 자매결연 현황





## 포스코와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 연혁

화보

사회공헌 활동 개관

봉사단 활동 개관

## 연혁

|          |                              |          |                                       |          |   |          |                                       |
|----------|------------------------------|----------|---------------------------------------|----------|---|----------|---------------------------------------|
| 1980. 2. | 포항 효자아트홀 개관                  | 5.       | 포항직업전문학교 실습용 스크랩 지원(1989~2001년)       | 4.       | 산불 피해 이재민 복구비 지원                          | 12.      | 환호해맞이 공원 조성사업비 지원                     |
| 1982. 1. | 포항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 5.       | 광양시 금당동 육교 건립 기증                      | 5.       | 광양만 쇄물축제 개최                               | 12.      | 광주 비엔날레 무지개다리 건립 지원                   |
| 1983. 5. | 광양 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1983년 이후 지속) | 5.       | 동광양시체육회에 체육진흥성금 출연                    | 7.       | 포항·광양 어린이 철강캠프 시작(1993년 이후 지속)            | 1996. 3. | 포항문화예술회관 조형물 설치                       |
| 6.       | 경주원호지청 원호성금 지원               | 7.       | 전남 나주 수해복구 지원                         | 8.       | 자매마을 주민 초청 대전 엑스포 견학 실시                   | 4.       | '국제정보엑스포 '96' 참가경비 지원                 |
| 1984. 3. | 포항시 개최 전국소년체전 준비금 지원         | 8.       | 형산로터리 가변차선 설치비 지원                     | 9.       | 광양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 5.       | 가뭄 극복 및 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지원             |
| 11.      | 경주시 문예진흥기금 출연                | 9.       | 광양시 인근 지역 도서 및 교육 기자재 지원(1989~1997년)  | 10.      | 지역 초등학생 대상 컴퓨터 경시대회 개최(1993~1997년)        | 7.       | 경북 개도 100주년 기념 대중 제작 지원               |
| 12.      | 포항 CTS 부두건설 지원               | 1990. 5. |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 12.      | 포항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                           | 7.       | 밤 생산 농민돕기 운동                          |
| 1985. 2. | 전국소년체전 성화대 설치 지원             | 6.       | 남도학숙 건립기금 출연                          | 12.      | 대송 이주민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 11.      | 포항시 냉천도로 개설 관련 수목 기증                  |
| 3.       | 광양정수장 건립 기증                  | 7.       | 광영중학교 컴퓨터 31대 외 4종 구입 기증              | 1994. 2. | 광양시 산업도로 포장 및 보수                          | 1997. 5. | 지역내 전업 농민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                |
| 12.      | 포항시 효자 소방파출소 건립 지원           | 1991. 3. | 회사 창립기념 포항시 초등학생 대상 기념품 제공            | 2.       | 포항YMCA 주관 무료 한글교실 운영비 지원<br>(1994년 이후 지속) | 9.       | 대송 이주민 장학회 장학금 추가 출연                  |
| 1986. 6. | 전남 지역 개발성금 출연(1984~1986년)    | 5.       | 제철공단 파출소 방범차량 등 지원                    | 3.       | 성모자애원 보수비 지원                              | 11.      | 학원폭력 근절과 선도를 위한 행사 지원                 |
| 1987. 1. | 포항철강관리공단 조경비 지원              | 8.       | 포항시에 수재의연금 기부                         | 3.       | 포항 효자경로당 신축 부지 지원                         | 11.      | 백운아트홀 조형 육교 건립 지원                     |
| 2.       | 광양시 금호동 소방서 건립 지원            | 10.      | 개인택시 포항시 지부와 최초로 자매결연 체결              | 4.       | 산불 피해 산림복구 및 조림비 지원                       | 12.      | 중마정류장 조성 지방채 매입                       |
| 3.       | 광양 인문고(광양고) 설립기금 출연          | 11.      | 광영중학교 비디오 방영시설 기증                     | 4.       |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관련 포항 및 광양시 선수단<br>참가 지원      | 12.      | 지역 고교 3년생 대상 청소년 교양강좌 실시(1997년 이후 지속) |
| 9.       | 전라남도 개최 제68회 전국체전 지원         | 12.      | 태금중학교 과학교육용 실험기자재 지원                  | 5.       | 자매마을 농번기 일손돕기 본격 실시                       | 1998. 6. | 포항 남구보건소 신축 부지 지원                     |
| 1988. 4. | 쇄물축제 지원(1988~1993년)          | 12.      |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행사 후원                   | 5.       | 지역내 과학교사 초청 철강공정 설명회 개최(1994~1996년)       | 8.       | 지리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및 복구 지원             |
| 4.       | 쇄물백일장 후원(1988년 이후 지속)        | 1992. 2. | 지역 전문대 및 고교생 우수 졸업생 시상(1992년 이후 지속)   | 7.       | 광양 지역 가뭄 극복 성금 출연                         | 10.      | 태풍 '예니' 피해복구 지원 및 위문품 전달              |
| 4.       | 제27회 전남도민체전 지원               | 2.       | 내 고장 쌀 사주기 운동 실시                      | 12.      | 백운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 12.      | 포항YMCA '일하는 여성의 집' 교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      |
| 7.       | 평화통일 사업비 지원                  | 3.       | 지역주민 초청 회사견학 실시                       | 12.      | 포항시 남구 인덕동 자연부락 생활용수 공급용 배관 설치            | 12.      | 중앙일보 주최,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참가(우수상 수상)         |
| 12.      | 효자군경합동검문소 신축 기증              | 4.       | 포항 포스코갤러리 개관                          | 1995. 3. | 오지마을 순회 농기계 수리 및 예방정비(연 2회)               | 1999. 1. | 포스코 지역봉사상 시상(포항 및 광양, 연 1회 시상)        |
| 1989. 4. | 쇄물축제 내연산 등반대회 지원             | 7.       | 광양 백운아트홀 개관                           | 4.       | 경북과학교육원 포스코관 설치                           | 3.       | 우수 고교 초청 백운기 전국 축구대회 지원(1999년 이후 지속)  |
| 5.       | 연일대교 보수비 지원                  | 8.       | 지역농촌 농기계 지원                           | 5.       | 포항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및 무대막 설치 지원                  | 5.       | 러시아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
|          |                              | 9.       |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에 무동력 보트 기증             | 6.       | 동광양고 교육성금 출연                              | 9.       | 추석 천하장사 씨름대회 지원                       |
|          |                              | 10.      | 준양호 침몰 유가족돕기 성금                       | 8.       | 무공해 비누 제조기 제작 기증                          | 10.      | KBS '열린음악회' 지원                        |
|          |                              | 1993. 1. | 자매마을 농어촌 대상 순회진료 시작(포항 및 광양 지역, 월 1회) | 8.       | 제76회 전국체전 개최 지원                           | 11.      |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 지원                       |
|          |                              | 2.       | 자매마을 어린이 백혈병 수술 지원(헌혈, 모금운동 등)        | 9.       | 섬안큰다리 설치 관련 철강재 공급                        | 12.      | 중앙일보 주최,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참가(특별공로상, 봉사상 수상)  |

- 2000. 2. 러시아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 2. 인도 지진 피해복구 성금 출연
- 2. 경북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북신용보증기금에 기본 재산 출연
- 4. 북한 지역 양묘장 복구 경비 지원
- 4. 포항 지역 청소년장학재단 설립기금 출연
- 5. 구제역 예방을 위한 생석회 지원
- 5. 제1회 포항사랑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 6. 광주 비엔날레 행사 지원
- 8.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비 및 사업 부지 지원
- 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00' 지원
- 9.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지원
- 12. 중앙일보 주최, 전국자원봉사자대축제 참가 (우수상, 장려상 수상)
- 2001. 5. 제2회 포항사랑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 6. 재단법인 '한국여성기금' 에 기금 출연
- 7. 2001 포항 바다연극제 후원
- 12. 중앙일보 주최, 전국자원봉사자대축제 참가(봉사상 수상)
- 12. 광양 커뮤니티센터 건립
- 12. 전남 동부지역 범죄예방협의회 장학재단기금 출연
- 2002. 1. 2002 FIFA 월드컵 공식 후원
- 2.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 3. 바다의 날, 매화축제 등 지역 축제 지원
- 4. 2002 여성 취업 및 창업 박람회 후원
- 5. 제3회 포항사랑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 6. 노인정 건립 지원
- 9.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
- 10.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 한국 대표단 참가경비 지원

- 12. 제2회 강의 날 행사 지원
- 12. 광양시민의 날 행사 지원
- 12. 심장병·백혈병 어린이돕기 지원
- 2003. 2. 포항제철소 지역 사회공헌 활동 발전 Workshop 개최
- 2. 광양제철소·광양시 지역발전 Workshop 개최
- 2. 대구지하철 사고 위로금 기탁
- 3. Fortune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강기업 1위
- 5. 포스코 봉사단 창단
- 6. 포스코 윤리규범 선포
- 9. 전국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 기탁
- 10. 포스코 철강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선발(2003~)
- 11.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선정, '아름다운 기부 기업'
-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성금 기탁
- 2004. 1. 포항·광양지역 불우세대(220세대) 생활비 지원
- 2. 포항시 죽도시장 화재 복구 지원
- 2. 광양지역 사랑의 헌혈 실시
- 3. 자원봉사 전담부서(총무실 봉사지원팀) 신설
- 3. 제1회 나눔의 토요일 행사 실시
- 3. '아름다운가게-포스코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개최
- 3. 포항·서울 지역 사랑의 헌혈 실시
- 4. 포항시 신광면 산불 진화작업 지원
- 4. 북한 용천참사 성금 기탁
- 5. 포스코 나눔의 집 1호(포항시 해도동), 2호(광양시 광영동) 개소
- 5. 제1회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개최
- 6. 포항불빛축제 개최
- 7. 베네프 세어링 제도 시행
- 8. 포항지역 불우청소년 98명 후견인 결연
- 8. 광양지역 사랑의 헌혈 실시

- 8. 한국경제신문 선정, 제1회 한국사회공헌대상 특별상 수상
- 10.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시행
- 10. 포스코 주니어 공학기술 교실 운영 시작
- 11.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POSCO 나눔마당' 개최
- 11. 포항지역 사랑의 헌혈 실시
-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포스코 및 4개 출자사)
- 12. 중소기업 대상 '전액 현금지불 제도' 시행
- 12. 중앙일보 주최,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여(대통령표창 수상)
- 12. 경제정의연구소 선정, '제14회 경제정의기업상' 대상 수상
- 2005. 1. 포항·광양 지역 불우세대 생활비 지원
- 1.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Beautiful Office 캠페인 시작
- 1. 광양지역 사랑의 헌혈 실시
- 2. 서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구호성금 기탁
- 2. 광양제철소 '사랑의 집 고쳐주기' 프로그램 시작
- 2. 전경련·서울경제신문 선정, '2005 존경받는 기업' 대상 수상
- 3. 서울지역 사랑의 헌혈 실시
- 3.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폭설피해 복구 지원
- 3. 포스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창립
- 4. 포항지역 사랑의 헌혈 실시
- 5. 포스코 나눔의 집 제3호(광양시 태인동) 개소
- 6. 2005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
- 6. 중소기업 지원 상설조직·중소기업 상담센터 신설
- 7. 재난대비 긴급구호 KIT 제작
- 8. 광양지역 사랑의 헌혈 실시
- 9. 포스코청암재단 출범
- 9. 다우존스 지속가능 기업 (DJSI) 선정
- 9.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 체결
- 9. 자원봉사 사이버교육 런칭

- 9. 태풍 '나비' 피해 울릉도 긴급구호팀 파견
- 9.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복구 성금 출연
- 10. '철강과 향만의 도시, 광양만 대축제' 개최
- 10. 포항지역 사랑의 헌혈 Relay 실시
- 10. 지진피해 파키스탄 구호키트 전달
- 11. 전국 대학 전공학문 연계 봉사활동 발대식
- 11. 한국메세나협의회 주관, '2005 메세나대상' 수상
-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웃돕기 성금 기탁(포스코 및 6개 출자사)
- 12.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POSCO Day' 개최
- 12. 전남 장성군 남면 폭설피해 복구 지원
- 12.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수상
- 2006. 1. 포항·광양 지역 불우세대(240세대) 생활비 지원
- 1. 테마형 나눔의 토요일 운영
- 2. 광양지역 사랑의 헌혈 실시
- 2. 경북대·한양대와 '산학협력 교육과정 Program' 협약 체결
- 2. 전경련·서울경제신문 선정, '2006 존경받는 기업' 대상 수상
- 3. (주)장우와 '장애인 중심기업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 3. 포항지역 직장보육시설 '포스코 어린이집' 개원
- 3. 실업극복국민재단과 '사랑나눔 무료 간병사업' 협약 체결
- 3. 포스코 셋별 장학생 선발
- 3. 파이낸셜뉴스 선정, '제1회 상생경영대상' 수상
- 4. 시민단체 활동가 해외연수 지원
- 4. 서울지역 사랑의 헌혈 실시
- 4.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최, '제1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 5. 포스코 비전 장학생 선발
- 5. 포항지역 사랑의 헌혈 Relay 실시
- 6. 제3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
- 6. 전국 시각장애인 축구대회 후원
- 6. 인도네시아 지진피해지역 긴급구호팀 파견



##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1\_ 광양제철소 화성부 직원들이 2003년 9월 15일 태인4구 궁기마을에서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 2\_ 포스코는 2004년 11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포항 본사, 포항제철소, 지곡사원주택 단지에서 사랑나눔 헌혈운동을 벌였다. 3\_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서 이구택 회장이 부인 이정란 여사와 함께 물건을 포장하고 있다.

4\_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폭설 피해를 본 전남 장성군 죽분마을에서 비닐하우스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5\_ 석병노인의 집 할머니들이 포항 여직원상조회 회원들의 인마를 받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6\_ 포스코는 2005년 12월 23일 포스코센터를 비롯해 서울·포항·광양 지역의 아름다운가게에서 범포스코 나눔마당을 열었다.



1\_ 류경렬 포항제철소(오른쪽)이 햇빛마을 노인의 휠체어를 밀고 있다. 2\_ 포항제철소 화성공장 직원들이 자매마을 다리 난간 공사를 하고 있다. 3\_ 광양제철소 냉연부 직원들이 자매 마을에서 생산된 단감 판매를 돕고있다.

4\_ 포항제철소 동력전기정비과 직원들이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고 있다. 5\_ 광양제철소 1제선공장 직원들이 사평마을의 축대를 복구하고 있다. 6\_ 광양제철소 냉연부 직원들이 매실 따기를 돕고 있다. 7\_ 포항제철소 선재부가 우창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경로잔치를 열었다.



1



3



2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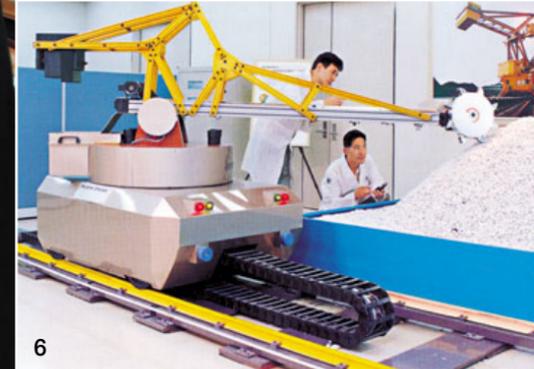


6

## 웃음 가득한 세상, 마음이 풍요로운 세상

1\_ 포스코가 주최한 제18회 쇯물백일장이 2005년 4월 9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과 초·중·고생 등 2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2\_ 제11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2005년 10월 8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3\_ 2006년 6월 10일 영일만에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려 70만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벅찬 감동과 환상의 세계를 선사했다.

4\_ 2003년 5월 1일부터 이틀간 열린 포스코 회장기 축구대회에 참가한 광양지역 각 초등학교 대표선수들이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다. 5\_ 제28회 중앙미술대전 개막식에서 관계자들이 수장작을 감상하고 있다. 6\_ 도심 문화행사로 인기가 높은 포스코센터 음악회



##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며

1\_ 포스코 철강연구 장학사업의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2\_ 철강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철강재로 만들기를 하고 있다. 3\_ ISI 서울총회 참석자 일행이 포스코교육재단을 방문했다.

4\_ 이구택 회장이 2006년 3월 31일 포항 본사에서 포스코특별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5\_ 국내 최초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 전경 6\_ 2005년 6월 21일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RIST 강구조연구소에서 실물 크기의 시험교량 공개 시험행사가 열렸다.



##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1\_ 광양시 태인동에 문을 연 두 번째 포스코 나눔의 집 2\_ 2005년 3월 17일 직업훈련 컨소시엄 창립 총회 기념사진 3\_ 포스코는 KBS 1TV 6시 내고향의 백년가약 프로그램에서 스틸하우스를 짓는 데 필요한 아연도금강판을 제공했다.

4\_ 2005년 4월 27일 베네티핏 셰어링 첫 성과보상금을 받은 5개사 임원들이 성과보상금액 증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5\_ 2005년 7월6일 이구택 회장 등 임직원 150여명이 포스코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긴급구호 키트를 제작하고 있다. 6\_ 포스코가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구세군복지재단에 기증한 밥차. 이 밥차는 1시간에 300인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 희망 나눔 확산으로 소리 없이 세상을 따뜻하게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래 인간존중의 전통과 경영이념인 지속가능경영을 바탕으로 소외이웃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 나눔, 국가 백년대계인 인재 양성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경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포스코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에서는 2004년 12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1991년부터 실시한 자매결연 활동은 도농간 상생활동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포스코센터 음악회,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동인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등으로 2005년 11월 메세나 대상을 받았다. 또한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 제도 등 구매, 판매,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분야에 걸친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2005년 12월 중소기업 협력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2005년 9월 미국 다우존스와 스위스 SAM(Sustainable Asset Management)사가 전 세계 2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006년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회원사로 선정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 회사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 전개(창립 ~ 1989)

1968년 4월 1일 창립 이후 1982년까지는 대규모 건설과 조업을 병행하면서 철강사업의 기초를 다져 나가야 했던 힘든 시기였으며, 1985년부터 1990년까지는 새로 시작된 광양제철소 건설에 다시 한 번 회사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임직원의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보다는 포항 효자아트홀 개관, 포항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광양 정수장 건립,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설립,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남도학숙 건립기금 출연 등 회사 차원에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 국민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1990 ~ 2002)

포스코의 사회공헌 활동은 조업과 생산이 정착된 1990년 이후 본격화되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부문 투자,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국민체력 향상과 정서함양 지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는 1986년 포스텍을 설립하여 1990년부터 2002년까지 6927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투자로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키웠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과 포스코 장학회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포항 효자아트홀과 광양 백운아트홀 등 전문 공연장을 건립 운영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선보이고, 지역 축제와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국내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해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 등 두 개의 프로구축단을 설립하여 지원한 것을 비롯해 유소년 축구유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양 커뮤니티센터(296억 원), 포항테크노파크(100억 원 및 조성부지 5만 7000평)와 환호 해맞이공원(200억 원)의 건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889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실직자를 위한 실업기금으로 255억 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연말 불우이웃돕기와 수재의연금 등으로 924억 원을 기부했고, 재단법인 한국여성기금 등 사회단체에 111억 원을 지원했다.

자원봉사 부문에서는 1991년부터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였다. 포스코의 각 부서가 포항과 광양 지역의 210여 개의 마을·학교·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하여 전개한 상호교류 활동은 포스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크게 늘어나 168개의 봉사그룹이 소년소녀가장 지원, 장애인 돕기 등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 전개(2003 이후)

포스코의 사회공헌 활동은 2004년부터 지속가능경영의 한 축으로 추진되면서 더욱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경영활동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내용면에서도 기존의 교육문화, 지역협력, 자원봉사 부문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고, 이해관계자인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충실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2003년은 포스코의 사회공헌 활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해였다. 2003년 5월 29일 포스코봉사단 창단을 계기로 전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포스코봉사단은 사무국을 비롯해 포항, 광양, 서울 등 세 곳의 지



역분부를 두고 봉사활동의 범위를 포항과 광양 인근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한 2005년에는 포스코청암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했다.

2004년 3월 사회공헌 전담부서 신설 이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와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하였고, 직원들이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e-러닝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또한 봉사단복과 배낭 등 봉사 소모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봉사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였고, 회사 Intranet인 Enterprise Portal에 On-Line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과 가족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포스코 고유의 자원봉사의 날인 '나눔의 토요일' 과 무료급식소 운영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아름다운 가게, 굿네이버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 전문 사회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였다.

포스코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우리 사회에 상생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2003년 5월 포스코봉사단 창단 이후 직원 가족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포스틸, 삼정P&A, 포항강관,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가 봉사단을 창단하여 자사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과 광양 지역의 외주파트너사도 속속 봉사단을 창단하여 지역사회의 마을,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포스코의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그룹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포항 및 광양 지역의 마을, 학교, 사회단체 등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포스코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도 자원봉사 및 자매결연 활동을 적극 장려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과 참여의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포스코는 봉사활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토요일에 활동테마가 있는 자원봉사의 날 운영, 매년 2회 사랑의 헌혈 Relay 행사, 자원봉사 Event 등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임직원과 가족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포스코의 임직원들은 사업장 소재지인 포항, 광양 및 서울 인근 지역의 저소득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327개의 봉사그룹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의 다른 한 축인 자매결연 활동은 1991년부터 시작되어 지역사회와 포스코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225개의 마을, 단체, 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하여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 공동시설 보수, 의료봉사, 특산물 판매, 마을행사 참여, 경로 및 장학활동 등 지역사회와 밀착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자매결연 활동 내용도 발전하여 1998년 이후 물질적,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교류 확대를 통한 유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포스코의 자매부서는 자매마을의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자매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자매마을에서도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부서 직원들을 마을로 초대하거나 자매부서를 찾아와 정을 나누는 단계로 발전했다.

### 웃음 가득한 세상, 마음이 풍요로운 세상

포스코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제는 단순한 문화예술 후원 및 협찬을 넘어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메세나' 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포스코는 사업장 소재지인 포항, 광양 및 서울에 전문 공연장을 운영하여 고품격의 음악회, 연극, 뮤지컬, 무용 등과 우수 영화를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전시관을 운영하여 회화, 서예, 사진, 도예 등 수준 높은 예술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대학과 인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기획한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은 음악을 통해 기업과 대학, 일반인과의 만남을 활성화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으며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포항국제불빛축제와 광양만 대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이외에도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체육진흥 부문에서는 포항스틸러스와 전남드래곤즈 등 두 개의 프로 축구단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축구 꿈나무들의 브라질 축구 유학 프로그램 실시, 국내 최초 유소년 클럽 운영, 포항 및 광양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기금 지원 및 초등학교 축구대회 후원 등 유소년 축구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며

포스코는 철강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 운영, 장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학술교육 부문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다.

이를 위해 1986년 12월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을 설립하여 2005년까지 7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로 포스텍은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및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BT연구소인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60여 개의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성장했으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학사 운영 등 앞선 교육연구 시스템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텍은 2006년 2월 기준으로 박사 1206명을 포함해 10,12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국가 기관과 기업체 등에서 의뢰한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 · 리스트 및 국내외 기업과의 산학협력, 첨단 기술의 산업체 이전,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벤치기업 지원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71년 1월 포스코교육재단을 설립하여 1990년 이후 5690여 억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포스코교육재단은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12개 학교를 운영, 8만 2969명의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해 왔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학생들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사교육 문제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최대한 흡수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주체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창의성을 길러 주기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국내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함으로써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적으로 보여 주었다.

포스코는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짐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2005년 9월 기존의 포스코장학회를 확대·개편해 포스코청암재단을 출범시켰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종래 지역사회 장학사업에서 학술, 연구, 시상, 문화예술 분야로까지 사업범위를 넓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인재 육성 △아시아펠로십을 통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익 역할 확대 등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포스코셋별장학 사업 △포스코아시아펠로십 사업 △무료간병 사업 △포스코청암상 제정·시행 △NGO 활동가 해외연수 사업 △스틸아트 공모전 사업 △포스코나눔장학 사업 등 일곱가지 실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87년 3월 설립한 실용화 기술 전문연구기관인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는 포항·경주·영천·울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술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 285개사에 1015건의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포스코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학술 진흥과 교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 왔다. 국내 철강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철강연구 지원사업, 철강연구과제 공모제도 등 산학 연구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철강에 대한 국내외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스코연구논문상을 제정·시행하고, 스틸가구 디자인 인력 양성과 신개념의 스틸가구 개발을 위한 스틸가구 디자인 공모전, 철강재를 이용한 강구조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구조 설계 공모전 등을 후원해 왔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 철강캠프',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주니어 공학교실' 등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포스코는 나눔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과 고객사, 공급사와의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상생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포스코와 출자사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160억 원을 기탁했다. 또한 포항과 광양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자활의 꿈을 심어 주기 위해 2004년 220세



대, 2005년 240세대 등 총 460세대에 15억 70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했고, 포항과 광양에 무료급식소인 ‘포스코 나눔의 집’ 3곳을 개설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는 우리 사회의 나눔과 순환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4년 3월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임직원들이 기증한 재활용품을 판매해 거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한 이후 범포스코 차원의 나눔 활동으로 확대해 2005년까지 3회에 걸쳐 25만 2000여 점의 재활용품을 기증했고 판매수익금 1억 8400여 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포스코는 NGO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다. 2005년 7월 굿네이버스와 함께 재난대비 긴급구호 키트 3000개를 제작해 태풍 피해를 본 울릉도 지역, 지진피해를 본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구호 키트를 긴급 지원했다. 2005년 5월부터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함께 ‘전국 대학생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창립 이후 고객사, 공급사와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고객 관계 관리와 고객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동개발과 시장 개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급사나 외주파트너사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구매와 판매, 경영혁신, 기술개발, 인력교류 등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과제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우수사례로 알려져 여러 회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발주해 오던 제철설비의 중소기업 발주물량 확대, 중소 고객사에 대한 소재공급 확대 및 판매조건 개선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결제금액 전액 현금지급, ‘포스코 협력기업 지원펀드’ 및 ‘중소기업 Network Loan 지원’ 등을 통해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동, 공동연구제도 활성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의 상생경영 활동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경기 양극화 완화에 일조하며, 모범적인 동반 성장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 형성

포스코는 철강산업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존중과 상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앞으로 포스코는 봉사단 창단 후 지난 3년간 직원과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된 자원봉사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회사의 제품과 기술을 활용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업(業)과 관련된 포스코 고유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문 시민단체(NGO), 비영리기구(NPO)와 함께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임과 동시에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임직원들이 보유한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고 수혜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 봉사그룹을 육성하고 가족봉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내실화하고, 관계사와 외주파트너사들과 연계한 공동 활동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회사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추어 해외봉사활동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청암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포스코 아시아 펠로십 사업’을 통해 아시아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과 친한(親韓)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도, 중국, 동남아 등지의 해외법인 주재 지역에서 15여 년간 축적한 자매결연활동의 Know-How를 활용하여 현지 지역사회 밀착형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지역개발 사업 등 지역사회의 Needs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소리없이 움직이는 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포스코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커져가는 봉사의식으로 상생의 뿌리를 굳건히



포스코가 지속가능경영의 한 축으로 추진하는 포스코 나눔경영이 임직원의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에 힘입어 포스코를 상징하는 새로운 기업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포스코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은 2003년 포스코가 봉사단을 창단한 후 활기를 더해 2004년에는 봉사누적시간이 12만시간에 달했고, 2005년에는 30만시간에 이르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전 직원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의 비율은 75%를 넘어 서고 있고, 직원 1인당 봉사시간은 12.7시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 직원이 평균 월 1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봉사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봉사그룹 수도 늘어 2004년에는 246개, 2005년에는 315개에 이르렀고, 봉사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본사의 봉사단사무국을 정점으로 포항과 광양, 서울의 지역본부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등과 제휴해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구축

포스코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2004년 10월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봉사그룹이나 임직원 그리고 임직원 가족이 행한 봉사활동 시간을 관리해 일정한 기준시간을 달성할 경우 인증서와 배지를 주고 해당 봉사그룹에는 봉사시간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말까지 봉사활동 인증시간 100시간을 획득한 임직원과 가족은 441명에 달했고 그 중 3명은 1000시간 인증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포스코는 자원봉사 그룹 등록과 조회, 봉사실적 입력관리, 봉사수요처 정보 제공 등을 회사 인트라넷인 EP(Enterprise Portal)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해 처리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본지식 습득을 도와 봉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한 시간에 손쉽게 수강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태의 자원봉사 e-러닝 교육과정도 2005년 9월에 개설했는데 이를 수강한 임직원은 5061명에 이른다.

포스코는 자원봉사 관련 물품지급을 통해서도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용품인 조끼, 모자, 장갑, 배낭, 타월 등은 물론 봉사소모품인 마대, 낫 등을 지급하고 있다. 봉사참가자들의 점심을 지원하는 한편 회사차량도 지원하고 있다.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매월 셋째 토요일은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자원봉사 활동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나눔의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 한해 동안 4만 5206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월평균으로 보면 3767명이 참여한 셈이다. 포스코는 포항, 광양, 서울 지역 70여 개 복지시설에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포항과 광양의 경우 복지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결식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지역주민 등을 위해 포스코 나눔의 집이란 명칭으로 무료급식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 2개소, 2005년에 1개소 문을 연 포스코 나눔의 집에서는 임직원, 가족, 지역주민 586명이 무료급식 봉사에 나서고 있다. 급식소는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어 2005년 한해만 해도 연인원 18만 6631명이 이곳을 이용했다. 하루 평균 540명이 급식소를 찾은 셈이다.

자원 재활용을 통해 생긴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Posco Day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 재활용 물품 11만 3000여 점을 수집해 올린 9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호남지역 폭설피해 복구에 지원하기도 했다. 물품을 수집하고 판매하기 위해 임직원 350여 명이 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

Beautiful Office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토너, 폐

[자원봉사 활동 참여 현황]

| 구분               | 2004      | 2005      | 증가               |
|------------------|-----------|-----------|------------------|
| 자원봉사활동 총시간       | 121,493시간 | 305,183시간 | 183,690시간 (151%) |
| 전직원 평균 봉사시간      | 6.7시간     | 12.7시간    | 6시간              |
| 자원봉사 참여인원 (가족포함) | -         | 15,769명   |                  |
| 직원 봉사참여율         | 40.9%     | 75.7%     | 34.8%            |
| 자원봉사그룹수          | 249개      | 315개      | 66개 (26.5%)      |
| 나눔의토요일 참가인원      | 27,653명   | 45,206명   | 17,553명 (63.5%)  |
| 월평균 나눔의토요일 참가인원  | 2,765명    | 3,767명    | 1,002명 (36.2%)   |

카트리지를 모아 재생하여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에 폐토너와 폐카트리지 2500여 개를 재생했고 그 수익금은 이웃돕기에 사용했다.

포스코는 사회복지 NGO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재난재해대비 긴급구호용 키트 3000 세트를 만들어 비치함으로써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실제로 태풍 나비가 울릉도를 휩쓸고, 강진이 파키스탄을 덮쳤을 때 이 키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때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180여 명이 나섰다.

봉사활동은 남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보람과 기쁨을 주는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족단위의 봉사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포스코 임직원은 가족봉사단 60가족, 572명이 가족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 임직원은 지역사회 소년소녀가장, 장애세대, 결혼가정의 자녀와 1대1로 결연을 해 필요한 조언과 상담을 해주고 보호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멘토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질을 넘어 정서적 지원까지 담당하는 이 멘토링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94명이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멘토링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지원하고 있다. 원활한 혈액공급에 도움을 주는 헌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포스코는 전사적인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헌혈운동에 동참한 임직원은 2339명에 달한다.

# 포스코 사회공헌 활동 사례

- 자원봉사
- 자매결연 활동
- 문화·예술
- 체육
- 포스코 청암재단
- 포스텍
- 포스코 교육재단
- RIST
- 학술교육
- 사회복지
- 상생경영
- 계열사 사회공헌 활동 사례
- 외주파트너사 사회공헌 활동 사례

# I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최 종 태 | 포스코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



##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손, 그 손을 내밀며

세상이 삭막해졌다고 합니다. 인심도 사나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이 메말라서 사는 게 힘들어졌다면 이는 진정한 발전, 참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앞장서 이끌어 왔습니다. 자원과 자본이 전무하고 경험과 기술이 일천한 가운데서도 사명감 하나로 이 땅에 철강산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는 포스코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포스코가 진정 바라는 것은 행복이 들꽃처럼 피어나고 따뜻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이상을 품은 포스코는 세상을 향해 두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문화를 심고 키워 왔습니다.

포스코가 내미는 하나의 손은 어려운 이웃,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향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누군가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곳을 찾아 구슬땀을 흘립니다. 도움이 절실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이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배우고 싶지만 그 길이 쉽지 않은 이들을 뒤에서 힘껏 밀어줍니다. 아픈 이들을 생각하며 선뜻 팔을 걷어 부치고 헌혈 침대에 눕습니다. 환경정화, 자연보호에도 발벗고 나섭니다. 포스코의 임직원들은 개인, 가족, 부서별로 또는 327개의 자원봉사그룹을 통해서 따뜻한 손을 세상에 내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내미는 또 다른 손은 함께 만드는 세상으로 향합니다. 홀로 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어깨를 빌려주고 기쁠 때는 내 일같이 웃어주며 함께 미래로 나아갑니다. 포스코는 포항, 광양에서 225개 마을과 손을 맞잡고 세상을 하나의 굳건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내미는 손은 따뜻합니다. 이웃과 마주 잡은 손은 든든합니다. 모두가 손에 손을 잡는 그 날, 세상은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을 키우며 포스코는 내일도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겠습니다.

## 자원봉사

### :: 개요

포스코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눔과 참여의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2003년 봉사단 창단 후 포스코의 자원봉사 활동은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내용적으로 충실해졌다.

제도적으로는 2003년 5월 포스코봉사단을 창단하고 서울·포항·광양에 지역본부를 두었으며, 2004년 3월 봉사지원팀을 신설했다. 2004년 3월 임직원들을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2004년 10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와 함께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9월 사회공헌 활동 시스템을 가동하고 2005년 9월 자원봉사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2006년 2월에는 자원봉사 교육용 CD를 제작해 배포했다.

내용적으로는 2004년 3월부터 매월 셋째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과 가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나눔의 토요일을 운영했으며, 2006년 1월부터는 월별로 테마를 정해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참여도와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2004년 8월에는 지역사회 소년소녀가장, 장애세대, 결손가정 자녀 등과 포스코 임직원이 1 대 1로 결연해 조언, 상담, 보호자 역할 등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04년 3월부터는 대한적십자와 공동으로 1년에 2회 씩 정기적으로 헌혈운동을 펼쳤다.

봉사단 창단 후 봉사활동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 포스코의 자원봉사 활동 총시간은 2004년 12만 1493시간에서 2005년 30만 5183시간으로 늘었으며, 인당 평균으로는 2004년 6.7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었다. 임직원 봉사 참여율은 2004년 40.9%에서 2005년 75.7%로 높아졌다. 나눔의 토요일 참가인원은 2004년 2만 7653명에서 2006년 4만 5206명으로 63.5% 늘었으며, 월 평균으로는 2765명에서 3767명으로 36.2% 늘었다. 자원봉사그룹 수도 2002년 168개, 2003년 182개, 2004년 249개,

2005년 315개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힘입어 포스코는 2004년 9월 한국경제신문에서 실시한 한국 기업명성지수 평가의 사회공헌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고, 12월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 :: 나눔의 토요일



포스코는 포스코봉사단을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포스코봉사단 창단,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

포스코는 2003년 5월 29일 포항 본사에서 '사랑의 손길 희망의 나눔'을 모토로 포스코봉사단을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단식에서 포스코봉사단 단장인 강창오 사장과 임직원 200여 명은 봉사활동을 포스코의 아름다운 기업문화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포스코는 봉사단 창단을 계기로 그동안 지역별로 펼쳐 온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갔다. 또 민영기업

의 위상에 맞게 봉사활동의 범위도 포항과 광양 인근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더욱 승화·발전시키고 사회복지, 환경보전, 사회발전 부문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자원봉사의 질을 한 차원 높였다.

포스코는 사장을 봉사단 단장으로 하고, 본사가 있는 포항에 사무국을 두어 회사 전체 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포항·광양·서울에는 지역본부를 두고 해당 지역의 봉사활동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각 지역본부에 있는 봉사팀과 부서는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 자원봉사증계센터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는 등 실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2003년 자원봉사 활동에 연인원 7만 8000여 명 참여

2003년 포스코 직원과 가족들은 포스코봉사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2003년 말 기준으로 182개의 봉사그룹에 연인원 7만 80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직원들로 구성된 상록회는 장애인 시설을 찾아 목욕과 빨래, 청소 등의 활동을 벌였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한빛봉사회, 푸른마음봉사회, HRD봉사단 등의 봉사그룹은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광양제철소는 사랑의 1인 1계좌 갖기 운동으로 73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광양시 28개 초등학교 187명의 결식아동들이 점심을 굶지 않도록 도왔다. 또 미니밀천사회, 프렌즈봉사단, 나누리봉사대, 사랑나눔봉사대 등은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시설을 돕는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여름 태풍 때에는 특별 봉사활동을 선포하고 총 33개 부서 2200여 명의 직원이 33개 마을에서 복구지원 활동에 적극 참가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 제1회 이웃사랑 실천의 날 행사에 임직원 2300여 명 참여

포스코는 2004년 3월 20일을 제1회 이웃 사랑 실천의 날로 정하고 충청도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일원에서 사랑과 나눔의 자원봉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날 포스코 임직원 2300여 명은 폭설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을 비롯해 26개 불우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역사회, 인근 하천과 산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서울 주재 임직원 450여 명은 폭설 피해가 심했던 충북 청원군 옥산면과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서 산소 절단기, 와이어 커터(Wire Cutter) 등의 장비를 동원해 쓰러진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지원했다. 이날 청원군 폭설 피해 현장에서는 이구택 회장도 작업복 차림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철제 파이프와 비닐 수거 작업에 동참했다.

특히 포스코가 수출 물량을 줄여 농업용 파이프 소재인 열연아연도금강판 5000톤을 긴급 공급함에 따라 강관회사들이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복구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1250여 명의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포항 지역에서는 폭설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과 포항시장에인종합복지관, 구룡포 석병양로원, 포항명도학교 등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가 이어졌다. 광양 지역에서는 프렌즈봉사단 등이 여수 동백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환경정화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포항 지역에서는 임직원 400여 명이 형산강 지류인 칠성천에서 오물을 수거한 것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모두 720여 명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광양 지역에서는 임직원 600여 명이 배알도 해수욕장과 태인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광양시 일원에 8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서울지역 임직원들도 포이동 대모산과 강화도 마니산에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 2004년 자원봉사 활동에 연인원 13만여 명 참여

2004년 포스코는 지속가능경영의 한 축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2004년 임직원들은 직접 이웃과 호흡을 같이하며 땀 흘리는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임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연인원 13만여 명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1만 9000여 명의 직원이 평균 6회 이상 봉사활동 현장에서 불우이웃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3월부터 시작한 매월 셋째 나눔의 토요일을 통해 포스코는 어려운 이웃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먼저 포스코는 2003년 5월 출범한 포스코봉사단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



이구택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직원들이 폭설 피해가 심했던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서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철거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광양시 일원에 나무를 심고 있다.



포스코 직원들이 저메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전 임직원에게 봉사단복과 배낭을 지급하고 그들을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한편,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시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도입했다. 봉사활동 누적 시간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하고 봉사그룹에는 회원들의 봉사시간을 합산해 분기당 1시간에 1000원씩 총 50만 원 한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음으로 포스코는 사회공헌 활동을 범포스코 차원으로 확산시켰는데, 포스코 봉사활동의 확산 이면에는 CEO의 역할도 컸다.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한 기업은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구택 회장의 평소 철학이다.

포스코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사회적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 2004년 인재양성, 학술교육,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을 포함해 모두 758억 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다. 포스코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1조 7800억 원에 이르렀다.

그 결과 포스코는 2004년 9월 한국경제신문에서 실시한 한국 기업명성지수 평가의 사회공헌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고, 12월 3일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봉사활동은 출자사와 외주파트너사에도 확산돼 포스코건설, 포항강관, 포스텍, 포스콘, 삼정P&A가 봉사단을 창단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불우이웃 돕기, 자매결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05년 나눔의 토요일 대성황 - 자원봉사, 기업문화로 자리잡아**

매월 셋째 토요일에 열리는 포스코 나눔의 토요일(나눔토)에 2005년 한 해 동안 모두 4만 5206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 2004년 3월 시작한 나눔토는 자원봉사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참여 인원이 꾸준히 늘어 초기 2300여 명에서 2005년 말에는 4000여 명 수준에 도달했다. 2005년 마지막 나눔토에는 모두 4130여 명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도왔다.

이에 따라 나눔토의 월평균 참여 인원은 2004년 2765명에서 2005년 3767명으로 대폭 늘었고, 전 직원 평균 봉사시간도 6.7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 국내 기업 중 최



2005년 11월 열린 나눔의 토요일에 참여한 포항제철소 환경에너지부 직원들이 독거 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전하고 있다.

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집계한 결과,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달성한 직원과 가족은 모두 441명이며, 이 중 3명은 1000시간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은 자매결연 활동 등의 지역협력 사업과 함께 포스코 임직원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의 가족들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포스코인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돼 왔다.

2005년 말 포스코의 봉사그룹은 315개, 참여인원은 1만 5769명이었다.

**2006년부터 테마가 있는 나눔의 토요일 행사 펼쳐**

포스코는 2004년 3월부터 운영해 온 나눔의 토요일(나눔토)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2006년부터는 월별로 테마를 정해 나눔토 봉사활동을 펼쳤다. 첫 번째 나눔토 테마는 '설맞이 환경개선'이었다. 설을 앞둔 2006년 1월 21일 임직원 3508명은 사회복지시설과 자매마을 회관, 노인정 등에서 도색과 장판교체, 도배작업 등을 했다.

2월의 나눔토 테마는 '야생조수 보호' 였다. 2월 18일 임직원 4000여 명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활동과 함께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자매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3월에는 '봄맞이 환경개선' 을 나눔토 테마로 정하고 3월 18일 임직원 4243명이 테마활동과 더불어 지역별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자매마을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4월에는 '식목·조림 활동' 을 나눔토 테마로 정하고 제61회 식목일을 맞아 임직원과 가족 4400여 명이 식목, 조림, 환경정화, 복지시설 봉사 활동을 펼쳤다. 5월 나눔토 테마는 '경로효친' 이었다. 5월 20일 임직원 4620명은 자매마을 어른들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6월에는 '문화재보호' 를 테마로 정하고 나눔토 활동을 펼쳤다. 6월 나눔토 봉사활동에는 포항 2380여 명, 광양 1940여 명, 서울 360여 명 등 모두 4680여 명이 참여했다.



문충1리 마을회관 담벼락을 도색하고 있는 포항 냉연부 직원들



서울 대모산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까치동아리 회원들



나자렛마을을 찾은 포항제철소 후관전기봉사회 회원들이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모의 자활행사에 참여해 봉어빵을 굽고 있다.



포항 도금인사랑나눔회원들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도와 내연산을 오르고 있다.

## :: 복지시설 돕기(포항)

### 나자렛마을 장애인 자활 지원

포항제철소 후관전기봉사회 회원들은 2006년 5월 1일 중증 장애인 시설인 나자렛마을을 찾아가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모의 자활행사에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봉어빵과 족발을 만들어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경북 영천에 위치한 나자렛마을은 정신 지체인과 중증 장애인 200여 명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후관전기봉사회는 이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2005년부터 이곳에서 목욕봉사 등 자원봉사를 해 왔다.

### 정신건강의 날 행사 참여

포항제철소 도금인사랑나눔회 회원들은 2006년 4월 15일 포항정신보건센터가 주관한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 참가해 아낌없는 사랑을 나눴다.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내연산 보경사 제3 폭포까지 등반을 한 후 포항시 북구보건소 공무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우울증·치매·스트레스·알코올 중독 검사를 도왔다. 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와 상담을 도왔으며,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물도 배포했다.

### 명도학교 대청소

포항제철소 선재부 직원과 가족 80여 명은 2006년 2월 4일 우창동 부녀회원들과 함께 자매마을인 우현동의 장애인 교육 전문기관인 명도학교를 찾았다. 이들은 겨울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복도, 운동장, 유리창 등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선재부 직원들은 매일 첫째·셋째 토요일에 명도학교를 방문해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해 왔다.

### 한센인촌에서 이웃의 정 나눠

해병전우회 소속 자원봉사자 40여 명은 2005년 8월 20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애리의 한센인촌을 찾았다. 해병전우회는 이날 잡목을 치우고 주택 주변의 풀을 베어 모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태풍에 대비해 마을 주요 배수로에 쌓인 흙과 오물을 치웠다. 부녀회원들은 마을회관 앞 화단의 잡초를 뽑고 꽃나무를 옮겨 심었다. 봉사활동 후에는 마을회관에서 해병전우회 회원들의 장기자랑대회를 열어 한센인들을 위로했다.

### 임마누엘 공동체 월동 준비 지원

포항제철소 계측정비과 직원들은 2004년 12월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임마누엘 공동체의 집에서 염소 겨울나기 준비를 거들었다. 임마누엘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기르는 염소 200마리분의 겨울철 먹이인 벼짚이 가을비에 젖어 썩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계측정비과 직원들은 이날 2000여 평의 들판에 촘촘히 쌓여 있는 벼짚을 일일이 뒤집으며 말렸다. 10월 하순에는 계측정비과 직원들이 임마누엘 공동체 가족 107명을 초청해 운동회를 열기도 했다.

### 봉어빵 팔아 사랑의 쉼터 개관 도와

기술연구소 전기강판그룹 직원들로 구성된 곰두리봉사단은 '사랑의 봉어빵 굽기' 행사로 모금한 수익금 500만 원으로 포항시 성모자애원 햇빛마을 야외 쉼터 개장을 도왔다. 2004년 10월 14일 개장된 햇빛마을 야외 쉼터를 만드는 데는 곰두리봉사단의 수익금 외에도 포스코 지원금 800만 원, 햇빛마을 자체 조달금 1000만 원 등이 들어갔다. 곰두리봉사단은 3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로 봉어빵을 판매해 수익금을 마련했고, 쉼터조성에 추가 경비가 발생하면서 9월 4일부터 2차로 '사랑의 봉어빵 굽기' 행사를 했다.

야외 쉼터는 치매나 뇌졸중으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이 야외에서 안전하게 운동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햇빛마을의 숙원사업이었다. 곰두리봉사단 회원 23명은 매주 햇빛마을을 찾아가 치매노인 말벗이나 산책 도우미가 돼 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병전우회 자원봉사자들이 한센인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계측정비과 직원들이 염소 먹이를 말리고 있다.



햇빛마을 쉼터 조성 1차 사업 개관식

### 석병노인의 집에서 봉사

포항 여직원 상조회는 2004년 3월 27일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구룡포 석병노인의 집에서 할머니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회원들은 이날 노인의 집에 가서 혼자 몸을 씻기 힘든 할머니를 세심한 손길로 씻겨 드리고 머리도 곱게 빗겨 드렸다. 또 손톱과 발톱을 다듬어 주고 안마도 했다. 또한 화이트 데이에 동료들에게 사탕을 팔아 모은 수익금 700만 원을 전달해 노인들이 언제든 따뜻하고 안전하게 씻을 수 있는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도록 했다. 여직원 상조회는 석병노인의 집에서 매달 목욕 봉사를 해 왔다.

### 시각장애 노인들 초청 경로잔치

포항제철소 직원들과 직원 부인 50여 명으로 구성된 '한빛봉사회'는 2003년 5월 29일 시각장애 노인들을 초청해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경로잔치를 열었다. 회원들은 포항시내 시각장애 노인 50여 명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모셔 온 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과일을 대접했다. 회원들은 이날 시각장애 노인들의 밥에 반찬을 집어 올려주기도 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주고 받으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또 며칠 동안 연습한 장기를 선보여 노인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빛봉사회는 시각장애인들의 민원서류를 대신 처리하기도 하고, 이·미용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 복지시설 돕기(광양)

#### 매화원 돕기 위해 사랑의 바자회 열어

광양제철소 미니밀천사회는 2006년 5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장애인 복지시설인 매화원(옛 실로암마을)을 돕기 위해 광양시 중마동 농협 하나로마트 분수대 광장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다. 미니밀천사회는 재활용품 4000여 점과 미니밀부 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다시멸치, 양파, 김 등을 판매해 거둔 수익금 200여만 원을 매화원에 전달했다.



한빛봉사회 회원이 시각장애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미니밀천사회와 광양시 중마동 농협 하나로마트가 공동으로 연 사랑의 바자회

미니밀천사회는 1999년부터 뇌성마비·정신지체·자폐 등 복합중증 장애인 공동체인 매화원을 매달 방문, 목욕 및 김장봉사, 계절별 나들이 행사 지원, 비품 및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랑의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 여수 동백원에서 봉사체험 활동

광양제철소는 2006년 4월 1일 회사 창립기념일에 장애인 복지시설인 여수 동백원에서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자원봉사 체험활동을 펼쳤다. 이날 체험활동에는 공정출하부 프렌즈봉사단을 중심으로 직원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원생들의 식사를 돕고 말벗이 돼 줬으며, 나이 어린 원생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정성껏 보살폈다. 또한 동백원 구석구석까지 청소도 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은 원생들과 함께 오동도로 봄나들이도 다녀왔다. 동백원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중증 장애인 120여 명이 생활하는 곳이다.

#### 예광마을 양로원에서 자원봉사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 나눔의 샘 봉사단과 가족들은 2006년 3월 18일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예광마을 양로원을 찾아가 과자와 음료수를 전달하고, 노인들의 팔과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드렸다. 또한 양로원 내부와 식당, 화장도 깨끗이 치우고 소독했다. 예광마을 양로원은 80여 명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나눔의 샘 봉사단과 2004년 8월 21일 자매결연을 했다. 나눔의 샘 봉사단은 3월 1일 전남 순천시 가곡동의 성산요양원을 찾아가 건물 구석구석을 물청소하고 바닥의 오물을 깨끗이 제거했다. 또한 인근 야산에 방치돼 있는 고목들을 수거해 요양원에서 땀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연 열어 치매 노인들 위로

광양제철소 직원 부인들로 구성된 동화구연 봉사그룹 보금자리가 연말연시를 맞아 2005년 12월 18일 광양치매노인전문병원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다. 보금자리는 이날 치매노인전문병원에서 평소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전자레인지 등의 물품도 전달했다.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는



동화구연 봉사그룹 '보금자리'의 봉사활동 모습



사진동호회 광양만사람들이 치매환자들에게 장수사진을 찍어 주고 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연을 통해 250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감동을 줬고 공연 후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 줬다. 보금자리는 광양치매노인전문병원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매월 1회 정기공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10년 넘게 장수사진 찍어 줘

광양제철소 사진동호회인 광양만 사람들은 2005년 11월 24일 광양시 중마동의 우리들병원에서 치매환자 20명에게 장수사진을 찍어 주고 이들의 장수를 기원했다. 광양만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하루에 버스가 2~3번밖에 오지 않는 마을을 찾아가 장수사진을 찍어 주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2000여 명의 노인에게 장수사진을 무료로 찍어 줬다.

### 중국 본강포항냉면박판 연수생, 화방동산에서 봉사활동

포스코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중국 본강포항냉면박판유한책임공사 연수생들이 광양제철소 설비기술부 직원들의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연수생들은 2005년 8월 20일 나눔의 토요일을 맞아 남해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화방동산을 찾아가 청소와 시설보수 등을 함께 하며 값진 땀을 흘렸다. 연수생들은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 중국에 가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설비기술부 직원들도 할아버지·할머니들의 말벗이 돼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동안 모은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스팀 청소기를 선물했다.

### 성신원에 자전거 선물

광양제철소 1열연공장 직원들은 2004년 8월 순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성신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했다. 5월 5일 어린이날 성신원을 찾은 1열연공장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묻자 아이들은 주변 친구들이 흔히 갖고 있는 자전거를 가장 갖고 싶다고 했다. 이를 기억해 둔 직원들이 자전거를 마련해 아이들을 다시 찾은 것이었다.



광양제철소 1열연공장 직원들은 성신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했다.

### 장애우와 즐거운 한때 보내

광양제철소 공정출하부 굴렁쇠봉사단 회원들은 2004년 3월 13일 광양시에 사는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우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직원들은 이른 아침 장애우들을 백운아트홀로 안내했다. 청각 장애로 평소 영화 관람이 쉽지 않은 이들과 함께 영화 '실미도'를 보기로 한 것이었다. 직원들의 자세한 설명으로 영화를 재미있게 본 장애우들은 제철소 견학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굴렁쇠봉사단은 1999년 7월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불치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그 가족을 돕기 위해 결성됐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우 가정 후원 활동, 청각·언어 장애우 후원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순천 인애원에서 봉사활동

광양제철소 1코크스공장 직원들은 2004년 2월 18일 순천 인애원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1코크스공장 A조 20명 전원은 인애원 거실을 포함해 숙소 10여 개의 방을 모두 도배하고 도서실에 있는 책자를 정리했다. 또 화장실과 목욕탕 청소도 했다. 이날 직원들은 도배에 필요한 일체의 도구를 부족함 없이 챙기고,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원생들을 위해 문구와 음료수, 과자를 준비했다.

## :: 복지시설 돕기(서울)

### 서울 신내요양원에서 봉사활동 펼쳐

이구택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들은 2006년 3월 18일 나눔의 토요일에 서울 신내요양원에서 부부 동반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서울, 포항, 광양의 국내 주재 임원은 물론 해외 주재 임원과 교육을 받고 있던 신입 임원까지 포함한 포스코 임원과 부인 84명은 이날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요양원에서 실내 정원 만들기과 실외 텃밭 가꾸기 등의 환경미화 활동과 요양 중인 노인들 말벗 돼 주기와 식사 돕기 활동을 펼친 후 요양원 청소까지 했다. 신내요양원은 꽃동네 서울 분원으로, 원장 박야고보 수녀를 비롯한 직원 61명이 노인 232명을 돌보는 무료 요양시설이다.



광양 1코크스공장 직원들이 인애원에서 도배를 하기 위해 벽지에 풀칠을 하고 있다.



포스코 임직원들이 서울 신내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록타워 주민자치회는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 자전거를 기증했다.



김진일 상무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식판을 기증하는 모습

이날 포스코 임원 부부들의 봉사활동에는 음성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자리를 함께해 요양원 현황을 소개한 후 봉사활동을 안내했다. 포스코 임원 부부들은 봉사활동을 끝낸 후 준비해 간 기념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신내요양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수서명화복지관에 자전거 22대 기증

포스코 서울지역 직원들의 주택단지인 상록타워 주민자치회는 2006년 1월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 22대의 자전거를 기증했다. 상록타워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이사 후 가져가지 않은 자전거 등을 수리하고 장바구니를 달아 복지관에 전달했다. 상록타워 주민자치회는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매일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는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이 운송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자전거를 기증했다. 상록타워 주민자치회는 결식노인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자선 바자회 등에 활발히 참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식판 1300개 전달

포스코 서울 주재 임직원들이 2005년 9월 1일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사랑의 식판 1300개를 기증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식판을 전달한 데 이어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활동을 벌이고 있는 늘사랑교회를 방문했다. 늘사랑교회 방문에는 노경협 의회 직원 측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해 쌀 200kg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급식활동을 지원했다. 늘사랑교회는 노숙자, 독거노인, 공공근로자 등에게 목요일마다 급식을 해 오고 있다.

###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2년째 봉사

스테인리스전략실과 스테인리스판매실 직원들로 구성된 빛나눔회가 2년째 한결같은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다. 빛나눔회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소에서 독거노인들의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맡는 한편, 조금씩 모은 후원금으로 매월 생신을 맞은 노인들의 생신잔치를 열어 축하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 동천의 집 장애인 나들이 봉사

표면처리강판판매실 직원들이 2004년 10월 10일 노원성당 나눔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동천의 집 장애인 60여 명을 데리고 양주군 그린아일랜드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모처럼 서울을 떠나 밝은 가을 햇살을 만끽한 일행은 손에 손을 잡고 형, 누나, 동생이 돼 주변을 산책하며 동식물을 구경했다. 또 재미있는 놀이와 운동으로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표면처리강판판매실은 동천의 집 장애인 60여 명과 함께 양주군 그린아일랜드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 :: 소외이웃 돕기(포항)

#### 나눔의 실천 온라인 경매 수익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기탁

포스코는 나눔의 실천 온라인 경매로 거둔 수익금 75만 7900원을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 기탁했다. 포스코는 선물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접수한 선물 중 발송인 불



포항 1제선공장 직원들은 장애우를 찾아가 생필품을 전달했다.



포스코음악동호인연합회는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자선공연을 했다.

명으로 반송하기 곤란하거나 사회단체에 기증하기 어려운 물품 11점을 2006년 5월 3일과 4일 사내 온라인 경매에 부쳐 이 기탁금을 마련했다. 포스코는 2004년 9월 이후 4번 실시한 온라인 경매에서 모두 184만 3850원의 수익을 거둬 사회복지기금으로 기탁했다.

### 생활 어려운 장애우 도와

포항제철소 1제선공장 직원들이 2005년 1월 21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1리에 살고 있는 장애우 전성환 씨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전 씨는 2003년 화재로 집과 가구 등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데다가 불편한 몸으로 학교와 교회, 사랑의 집에 야식을 배달하며 번 돈으로 생후 7개월과 2살 된 아이 등 모두 6명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이 소식을 들은 1제선공장은 직원들의 정성 어린 성금으로 생필품과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 장난감을 구입해 전 씨 가족에게 전달했다.

### 자선공연으로 헌트증후군 어린이 도와

포스코음악동호인연합회가 4차례의 자선공연 수익금 230여만 원을 2004년 11월 6일 이동하 어린이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포항시 용흥동에 사는 이동하 어린이는 5년 전 몸의 기능이 퇴화돼 15세 전후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헌트증후군이란 희귀병에 걸렸다. 그러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산소호흡기로 힘들게 생명을 이어 가고 있었다. 인터넷상에서 약칭 '포음동'으로 잘 알려진 포스코 음악동호인연합회는 1998년부터 이때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을 한 바 있다.

### 효곡동서 수지침 봉사

토요일 오전마다 포항시 효곡동사무소에는 어김없이 80여 명의 동네 어른들과 효자시장 상인들이 모여든다. 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주인공은 바로 푸른마음봉사회 회원들이다. 2004년 2월 7일에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조용히 앉아 손을 놀리는 회원들의 손놀림에는 정성과 진지함이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포항제철소 직원 부인들로 구성된 푸른마음봉사회 회원 20여 명은 2000년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선 후 효

곡동 사무소, 청하면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인 정애원 등에서 정기적인 수지침 봉사활동을 해 왔다.

### 장애인 재활에 앞장서

포항제철소 선재전강참사랑회는 2004년 6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무료 수송용 차량을 구입하는 데 일조했다. 400만 원대의 수송용 차량은 교통장애인협회와 자체 조성한 227만 원에 회사의 매칭그랜트 제도로 지원받은 200만 원을 보태 구입했다. 선재전강참사랑회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장애인들뿐 아니라 지역의 소외 이웃에게 참사랑을 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1996년 3월 전강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이후 2001년 9월 선재전기정비과 직원 모두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선재전강참사랑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 중이다.

### :: 소외이웃 돕기(광양)

#### 태인동에서 노인들에게 이·미용 봉사

광양제철소 직원과 가족들로 결성된 아름다운 손 봉사단은 2006년 3월 10일 태인동 3구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태인동 1·2구에 이어 계속된 이·미용 봉사활동이었다. 이날 아름다운 손 봉사단은 오후 늦게까지 65세 이상의 동네 어른들에게 커트는 물론 파마와 염색까지 이른바 고객맞춤형 이·미용 봉사활동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아름다운 손 봉사단은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중심지로 동화책 기증 운동을 펼쳐 책장 3개와 동화책 870권을 모아 2005년 5월 6일 광양 공립치매노인전문요양 병원에 기증했다. 이 봉사단은 매주 월요일 이 병원에서 동화책을 읽어 주고 말동무를 하며, 식사도우미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 광영초등학생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

광양제철소 화성부 직원들은 2006년 2월 22일 늘사랑지역아동센터가 주관한 사랑



선재전강참사랑봉사회 회원이 장애인의 나들이를 돕고 있다.



아름다운 손 봉사단원들이 노인들에게 이발을 해 주고 있다.



사랑과 행복 나눔 큰 잔치에 참여한 광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양 제품출하과 직원들이 오카타 할머니 댁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

과 행복 나눔 큰 잔치에 동참해 광양초등학교 학생들의 안내도우미로 활동했다. 직원들은 에버랜드에서 학생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도 마련해 줬다. 늘사랑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문방구나 오락실을 배회하는 아이들 가운데 소년소녀가장이나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는 현실에 공감한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공부방이다.

**독거노인 집에 보일러 설치**

광양제철소 제품출하과 사랑의 모임은 2005년 10월 지역의 오카타 춘자 할머니 댁에 보일러를 놓으며 할머니의 겨울 준비를 도왔다. 3년 전 광양읍 사회복지사로부터 할머니의 외로운 삶을 듣고 인연을 맺은 사랑의 모임은 겨울이면 땀감을 모아 드려왔지만 2005년 겨울에는 할머니가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일러를 놓아 드린 것이었다. 사랑의 모임 회원들은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굴착기와 곡괭이로 땅을 파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건을 나르는 등 힘 쓰는 작업을 담당하고, 회원 가족들은 새참을 준비했다. 이날 보일러 설치 작업에는 인정 많은 보일러 전문가 한 사람이 동참했다.

**영일만에서 광양만까지 사랑의 달리기**

광양제철소 원료공장 박남균 씨는 영일만에서 광양만까지 총 300km에 달하는 거리를 56시간 만에 완주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놓았다. 박남균 씨는 2004년 11월 5일 오전 8시 포항시 포스코 본사 정문을 출발해 경주·밀양·함안·진주·하동을 거쳐 사흘 만인 11월 7일 오후 4시, 최종 목적지인 광양제철소에 도착했다. 시간당 평균 5.3 km, 하루 평균 126km를 쉬지 않고 달린 셈이었다. 박남균 씨는 1km를 달릴 때마다 1000원씩 적립해 마련한 성금 30만 원을 광양제철소 노경협의회에 기탁했으며, 이 소식을 듣고 주위의 동료와 시민들도 성금을 보탬다. 광양제철소 노경협의회는 기탁금 130여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에 썼다.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교육**

광양제철소 컴퓨터 동호회원 19명은 휴무일과 휴가를 활용해 2003년 12월 장애인들



영일만에서 광양만까지 총 300km를 56시간 만에 완주한 철인 박남균 씨

을 위한 컴퓨터 기초 교육을 했다. 교육 종료 후 광양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게시판에는 희망을 심어 준 광양제철소 컴퓨터 동호회에 감사한다는 글이 이어졌다. 불편한 몸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게시한 글을 보고 그 어떤 글보다 값지게 느낀 동호회 회원들은 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이어 가기로 했다.

**:: 소외이웃 돕기(서울)**

**위·아·자 나눔장터에서 물품 판매**

2005년 9월 25일 중앙일보와 서울시 공동 주최로 열린 위·아·자 나눔장터에 포스코 서울지역 직원들도 동참했다. 월드컵 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포스코 직원들은 포스코 나눔매장을 마련하고 직접 모은 재활용품과 기증받은 물품 1000여 점을 판매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이 사인한 축구공은 인기가 좋아 준비했던 100여 개가 금세 동나기도 했다. 포스코 직원들은 이날 모두 200만 원의 수익을 거둬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포스코센터에서 사랑의 주먹밥 콘서트 열어**

포스코는 2005년 2월 17일 포스코센터 1층 아트리움에서 성공회 푸드뱅크와 함께 사랑의 주먹밥 콘서트를 열었다. 2004년 입사한 신입사원을 포함한 17명의 직원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주먹밥 1100여 개를 만들었다. 아트리움에 주먹밥을 판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고 가수 코요테의 공연이 시작되면서 만들어 놓은 주먹밥은 금세 동이 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1078명에게 주먹밥을 팔아 713만 5000 원을 모금했다. 주먹밥 콘서트는 성공회 푸드뱅크가 새로운 기부문화의 확산과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벌이는 행사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전달행사 참여**

포스코봉사단 서울지역본부는 2005년 1월 30일 아름다운가게가 주관한 아름다운 나



포스코 서울 지역 직원들이 위·아·자 나눔장터에서 물품을 팔고 있다.



사랑의 주먹밥 콘서트가 포스코센터에서 열렸다.

눔보따리를 전달하는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직원과 가족 70여 명은 아름다운가게 자원봉사자와 함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을 방문해 나눔보따리를 전달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름다운가게의 수익금과 후원기업의 제품으로 만든 선물보따리를 전달하는 행사다.

## :: 헌혈

### 사랑의 헌혈로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자 도와

포스코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2003년 2월 27일 포스코센터 1층 로비에서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자 돕기 사랑의 헌혈행사를 열었다. 두 회사는 이날 수집한 헌혈증서를 대구시 재해대책본부에 전달, 지하철 사고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도왔다. 이날 포스코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사랑의 손거울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는 첨단 광마우스를, 대한적십자사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주공공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무료 영화표를 헌혈에 참가한 사람에게 제공했다.

### 2004년 사랑나눔 헌혈운동에 3912명 참가

포스코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설명을 듣고 이웃 돕기 차원에서 임직원을 중심으로 연 2회 헌혈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2004년 2월 9일 광양제철소를 시작으로 3월 3일과 4일 서울 포스코센터, 3월 23일과 24일 포항 본사와 제철소에서 사랑나눔 헌혈운동을 각각 벌였다. 이 헌혈에는 포스코 직원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는 포스코 직원 10명당 1명이 참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가 개별 기업과 함께 추진한 헌혈활동 중 최고 수준이었다. 포스코는 하반기에도 헌혈운동을 벌였다. 8월 26일 광양지역, 11월 2일과 3일 포항 지역에서 벌인 헌혈운동에는 포스코·외주파트너사 임직원과 가족 1850여 명이 참여했다.

2004년 사랑나눔 헌혈운동에는 모두 3912명이 참가했다. 헌혈운동에 참여한 직원과 가족들에게 포스코는 4시간의 봉사활동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 2005년 사랑나눔 헌혈운동에 2339명 참가

포스코의 헌혈운동은 2005년에도 이어져 총 2339명이 참가했다. 서울지역에서 3월 28일과 29일 포스코 직원과 포스코센터 입주회사, 지역주민과 함께한 사랑의 헌혈 행사에는 500여 명이 참여했다.

포항지역에서는 4월 25일과 26일 포스코, 포스코건설 등 출자사, 외주파트너사와 함께한 사랑의 헌혈 릴레이 운동에 각 회사 임직원과 가족 400여 명이 참여했다. 10월 24일과 25일 본사, 포항제철소 생산관제센터, 지곡동 사원주택단지에서 열린 사랑나눔 헌혈운동에는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 임직원 및 가족 300여 명이 참여했다. 1월 18일과 8월 30일 광양제철소 각 공장과 주택단지에서 열린 사랑나눔 헌혈운동에는 11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광양제철소 헌혈봉사대인 희망나눔회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헌혈증을 기증받아 50명의 직원가족에게 총 748장의 헌혈증을 전달했다.

### 2006년에도 사랑의 헌혈 릴레이 이어 가

포스코는 2006년에도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이어 가고 있다.

광양 지역에서는 2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남지부 광주혈액원과 함께 벌인 사랑의 헌혈 행사에 광양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의 임직원, 이들의 가족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여했다. 포스코센터에서는 4월 25일과 26일 아름다운 사랑나눔기 헌혈 행사에 서울 주재 포스코 임직원과 포스코센터 입주사 임직원, 인근 지역주민 등 660여 명이 참가했다. 포항지역에서는 5월 15일과 16일 포스코와 포스콘, 삼성P&A, 외주파트너사를 시작으로 17일 포스코건설, 18일 포항강관, 19일 포철산기 등 출자사들이 잇따라 참여했으며, 모두 730여 명이 참가했다.

## :: 장학활동

### 광양지역 결식아동에게 사랑과 희망 나눠 줘

광양제철소 노경협의회는 2006년 6월 사랑과 희망의 나눔 활동으로 모은 성금 3300



포스코는 2006년 4월 25일과 26일 포스코센터에서 아름다운 사랑나눔기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포스코가 출자사, 외주파트너사와 함께 전개한 사랑의 헌혈 릴레이 운동



광양제철소 노경협의회 위원들이 광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점심을 나눠 주는 모습

여만 원을 지역 45개 초·중·고등학교 결식아동 돕기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날 결식아동 돕기 장학금 전달식장에는 수혜자인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광양제철소 노경협의회가 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학교 측 관계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한 결과였다.

광양제철소 노경협의회가 2002년 10월 시작한 사랑과 희망의 나눔 1인 1계좌 운동은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사랑나눔 활동이다. 이 운동에는 광양제철소 전 직원이 매월 1계좌(1계좌 1000원)에서 5계좌까지 동참하고 있는데, 2006년 6월 말까지 총 2억 7600여만 원을 모금해 2억 1800여만 원을 1108명의 결식아동에게 지원했다.

### 해도1동 청소년들과 멘토링 결연

포항제철소 환경에너지부 수질보전팀은 2006년 3월 31일 자매마을인 해도1동에서 외주파트너사,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경에너지부 외주파트너사 & 해도1동 멘토링 결연식을 열었다. 이날 결연식에는 수질보전팀 한마음 장학회를 비롯해 레스코, 신립공업, 에스엔지, 포웰, 한진기업, 한중 등 6개 외주파트너사가 멘토로 참여해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더 큰 지역사랑을 보여 줬다.

이날 수혜자로 선정된 11명은 분기별 20만 원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멘토들은 멘토링(Mentoring; 후견인제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 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들 수혜자들과 1대 1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 멘토링 봉사활동 전개

포스코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포항 지역 청소년들과 1대 1 후견인 결연을 통한 정서적 성장을 도와 주는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한국복지재단과 자매마을에서 추천한 초·중·고 청소년 98명과 후견인 결연을 하고 2004년 8월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후견인이 된 신입사원 10명은 2004년 8월 20일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주선으로 결연 청소년과 처음 만났다. 이날 이들은 결연증서를 받고 레크리에이션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친분을 다졌다.



포스코 임직원과 포항시 청소년 간의 멘토링 결연식 모습

### 용광로 사나이들의 '아주 특별한 사랑'

포항제철소 제선부 직원들이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연간 3000만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제선부 내 14개 장학회에서는 지역 중·고교 학생 29명과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매월 급여에서 모금하는 것 외에 포상금 중 일부나 지원금을 별도로 내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직원 한 명이 2~3개의 장학회에 참여하는 등 관심의 폭도 점점 넓어졌다.

장학금 전달도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인통장으로 송금했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자메일이나 전화로 학생들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등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 주는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2004년 제선부에서 활동한 장학회는 기술실우회, 갈매기장학회, 사랑나눔회, 원기모, 상록회, 백석장학회, 1제선장학회, 어린이사랑회, 한울장학회, 징검다리장학회, 주물선고로장학회, 주물선사랑장학회, 참사랑회, 양지회 등이었다.

### 환여동 늘푸른야학공부방에 도서 전달

포항제철소 공정출하부 직원들은 2004년 2월 11일 포항시 환여동 늘푸른야학공부방을 찾아가 모두 93권의 참고서와 교양도서를 선물했다. 2003년 10월 문을 연 늘푸른야학공부방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참고서와 도서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후에도 공정출하부 직원들은 직원 자녀들이 쓰던 참고서와 도서를 수집해 공부방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늘푸른야학공부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포항시 환여동의 늘푸른 야학공부방 학생들이 포항제철소 공정출하부 직원들이 선정한 책을 받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 :: 외국인 근로자 돕기

####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광양제철소 공정출하부 프렌즈봉사단은 2006년 6월 24일 광양시 초남공단에서 이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실인 가나다 코리안 랭귀지 스쿨(Korean Language School) 수료식을 열었다.



프렌즈봉사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마련한 송년회 모습



광양제철소협회는 광양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랑의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수료증을, 통역봉사를 해 준 광양영어클럽(GEC)에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외국인 근로자 생일파티에서는 봉사단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어울려 한국과 필리핀의 전통민요를 번갈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프렌즈봉사단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해 3월부터 한국어교실을 3개월간 운영해 왔다.

프렌즈봉사단은 2003년 3월부터 한국어교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와 프렌즈봉사단원 간의 1대1 자매결연, 생일잔치, 무료이발 주선, 제철소 초청견학, 친선 행사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랑의 성금 전달

광양제철소협회는 2005년 9월 30일 (주)GN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젤리노 폰체(Angelino M Ponce) 씨를 비롯해 광양 지역 외국인 근로자 5명에게 사랑의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100여만 원을 전달했다. 필리핀,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는 9월 13일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투비원(To be one)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열렸다. 이 바자회는 울릉도 오징어를 비롯해 돌산 갯김치, 남해 멸치, 순천농협이 햅쌀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 지역 사랑과 이웃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로, 직원과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겨울 옷 선물

열연판매실과 후판선재판매실 직원들로 구성된 나누미봉사단원 30여 명이 2005년 2월 서울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겨울옷 300여 점을 전달했다. 나누미봉사단원들은 2월 14일부터 닷새간 직원들에게서 겨울옷을 기증받아 세탁한 후 전달했다.

## :: 사랑의 집 고쳐 주기

### 사랑의 집 고쳐 주기 활동 전개

광양제철소는 2005년 2월 나눔의 토요일 활동 테마로 사랑의 집 고쳐 주기로 정한 후 매월 가정형편이 어렵고 거주 상태가 열악한 이웃의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다.

첫 번째 수혜자는 광양시 광영동의 김용상 씨였다. 김 씨는 20여 년 전 부모를 여의고 삼형제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광양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은 2월 14일부터 작업을 시작해 출입문, 벽지와 장판, 등기구 등을 전면 교체했다. 또한 옥상의 방수 처리와 건물 내외부 도색, 보일러와 싱크대 교체, 전기온돌 패널 설치 등을 통해 집 안팎을 모두 일신했다.

두 번째 수혜자는 광양시 태인동 통장협의회가 추천한 김경갑 씨였다. 김 씨는 쓰러져 가는 집을 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광양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은 2005년 3월 14일부터 작업을 시작해 약 1주일간 지붕 교체, 출입문 창호 교체, 도배와 장판, 천장 누수부분 보수 등을 끝내고, 모든 등기구를 바꿨다. 화장실에는 좌변기를 들여놓았고 건물 외벽을 깨끗이 도색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광양제철소와 함께 서희건설과 혁성실업, 두양산전 등 광양 지역에 있는 포스코의 외주파트너사도 함께 참여하는 훈훈한 이웃사랑 활동이다.

### 어려운 이웃의 집 수리해 줘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봉사단체인 다사랑회는 2005년 1월 25일 포항시 청림동에 살고 있는 강윤주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 집수리를 했다. 회원들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로 방풍막을 만들었다. 또 집 안팎을 밝고 부드러운 색으로 칠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두꺼비집과 전선도 꼼꼼히 췌겼다. 다사랑회는 10여 년간 명절 때마다 음식과 선물을 들고 강 할아버지를 찾기도 했다. '다 같이 사랑하자'는 뜻으로 1992년에 결성한 다사랑회는 13년째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고 있다. 이때까지 총 110명에게 4200만 원을 지원했다.



광양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이 2005년 2월 김용상 씨의 집을 수리하고 있다.



다사랑회 회원들이 강윤주 할아버지 집을 수리하는 모습

### 김홍문 씨의 러브하우스 짓기 도와

포스코와 포항 스틸러스가 MBC TV의 러브하우스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2004년 8월 1일 방영된 프로그램에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김홍문 씨 가족이 주인공으로 나왔다.

포스코는 스틸하우스용 철강재를 공급했으며, 포항 스틸러스는 7월 28일 전용구장 외곽 광장에서 선수단의 소장품과 스포츠 용품, 각계각층의 기념품을 판매해 거둔 수익금을 김홍문 씨 가족에게 전달했다. 김홍문 씨 가족을 찾아가는 방송에는 포항 스틸러스의 김병지 선수와 하석주 선수가 사랑의 전령으로 출연해 가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홍문 씨는 원양어선 어부였으나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수입이 거의 없어 다섯 식구는 월 50만~60만 원으로 살아왔다. 게다가 7개월 된 딸 효빈 양이 백혈병으로 2000만~3000만 원이 소요되는 제대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주위의 도움이 절실했다.

### 장애우 주거공간 리모델링

광양제철소 제선부 밀알회 회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권혁수 씨를 위해 2004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5평 남짓한 주거공간을 리모델링해 러브하우스를 완성했다. 회원들은 썩어 무너져 가는 천장과 보기 흉한 벽, 장판을 모두 뜯어 내고 준비해 간 자재로 따뜻하고 튼튼한 집을 만들었다.

밀알회 회원들은 2002년 말부터 매월 생필품 지원과 의료용 침대 선물 등으로 도움을 줬지만 권혁수 씨가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로 가슴 아파했다. 그런 데다 권 씨의 집은 돌봐 주는 사람이 없어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권 씨에게 깨끗한 방을 마련해 주고자 작은 정성을 꾸준히 모아 왔다.



광양 제선부 밀알회 회원들이 권혁수 씨의 집을 수리하고 있다.

### : :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

#### 민·관·군 합동으로 영일만 바닷가 대청소

포항제철소 직원과 해병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지역 어민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민·관·군 합동 바닷가 대청소 행사가 2006년 6월 9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대 바닷가에서 대대적으로 열렸다.

포항을 상징하는 영일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자는 취지로 펼친 이날 행사에는 포항제철소 직원들을 비롯해 해병대1사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수협, 포항해경 등 정부기관과 지역 어촌 주민들까지 동참해 바다를 살리려는 민·관·군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줬다. 해병대 수중 다이버 전문요원들의 본격적인 잠수작업으로 이날 하루에만 30여 톤의 수중 침적물을 인양했으며,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용한리 일대 바닷가에서 페그물 등 쓰레기 70여 톤을 수거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포항지역 민·관·군은 2005년 10월 20일에도 영일만에서 페그물 등의 수중 침적물 120여 톤을 인양하고, 비닐류·그물·목재 등 쓰레기 500포대를 수거했다.

#### 백운산 산불감시 초소 운영

광양제철소는 2005년 11월 광양시 옥룡면에 있는 백운산에 산불감시 초소를 설치하고 겨울철 산림보호 활동을 개시했다. 백운산수련관 입구에 마련된 초소는 2006년 5월 중순까지 산불감시 업무를 담당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산불감시 초소를 운영하며 지역 생태계 보호와 자연재해 방지에 큰 몫을 했다.

#### 광양만에 감성돔 치어 15만 마리 방류

광양제철소는 제10회 바다의 날을 맞아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광양과 경남 남해·하동 등 광양만 일대에서 감성돔 치어 15만 마리를 3차례에 걸쳐 방류했다.

광양제철소 2005년 5월 31일 임직원 20여 명과 광양 시민들이 참가해 감성돔 치어 5만 마리를 광양시 망덕 선착장에서 방류했다. 광양 시민들은 포스코가 어족 자원인



포항제철소 직원, 해병대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과 지역 어민들이 포항시 용한리 일대 바닷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광양시민과 함께 2005년 5월 31일 감성돔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

치어를 방류해 해양생태 관리에 적극 나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양제철소는 5월 18일과 27일에도 남해군 서상리 해역과 하동군 해도 해역에서 각각 감성돔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

### 서울 양재천 살리기 운동 참여

포스코봉사단 서울지역본부는 분기별 활동 테마의 하나인 환경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2005년 4월부터 서울시 강남구청과 연계해 양재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해 오고 있다. 서울지역본부 직원들과 가족들은 환경교육, 섬 만들기 같은 체험활동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재천은 탄천과 더불어 포스코센터가 위치한 강남지역 도심 을 흐르는 한강 지류의 하나다.



포스코봉사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이 양재천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 아차산과 대모산에서 환경정화 활동

포스코 서울 지역 봉사그룹인 작은사랑회와 까치동아리 회원들은 매월 아차산 지킴이 활동과 대모산 그린오너(Green Owner)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은사랑회는 2004년 4월부터 광진구 아차산에서, 까치동아리는 2004년 3월부터 강남구 대모산에서 등산로 청소, 봄철 식목행사나 산불예방 캠페인,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활발히 펼쳐 왔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으로 까치동아리는 2005년 5월 서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작은사랑회는 2005년 6월 광진구청으로부터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 :: 지역사회 긴급복구 활동

#### 장성군 남면 폭설 피해지역 복구 지원

광양제철소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죽분마을에서 2005년 12월 27일부터 비닐하우스·축사 철거와 복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12월 29일까지 계속된 복구지원 활동에는 광양제철소 직원 160여 명이 참여했다. 장성군 남면 지역에는 12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80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폭설 피해를 본 전남 장성군 죽분마을에서 비닐하우스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려 116농가의 시설하우스 142동과 축사 12동, 가옥 처마와 창고 등이 무너져 내려 총 20억 원의 피해를 봤다.

#### 포항 장량동 폭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냉연부 직원 100여 명은 8월 25일 자매마을인 장량동에서 침수 가옥을 보수하고 도로변의 오물을 수거했다. 섭외부 직원들은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라면 10개·버너 1개·가스 4통·생수 3병으로 만든 긴급구호 세트 100개와 라면 100상자를 전달했다. 2005년 8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포항시 장량동 일대에는 150mm의 장대비가 내려 주택·상가 80여 가구와 차량 50여 대가 침수되고 200여 명의 주민이 장량동 사무소와 인근 주택으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폭설로 무너진 용산2리 비닐하우스 복구

포항제철소 동력전기정비과 직원들은 2005년 3월 6일 자매마을인 오천읍 용산2리에서 폭설로 쓰러진 비닐하우스 복구작업을 펼쳐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줬다. 동력전기정비과 직원 30여 명은 눈 속에 주저앉은 비닐하우스를 원상복구하고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다. 동력전기정비과 직원들은 2월 14일, 1월 중순 내린 폭설로 인해 쓰러진 용산2리 시금치 재배단지 비닐하우스도 복구해 줬다.

#### 신광면 산불 긴급 진화

포항제철소는 2004년 4월 17일 포항시 신광면 흥곡1리 야산 산불 진화작업을 긴급 지원했다. 포항제철소는 2004년 4월 16일 오후 발생한 산불이 17일 새벽까지도 진화되지 않자 당초 17일 오전부터 자매마을 행락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던 포항제철소 임직원 500여 명을 17일 새벽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해 불길을 조기에 잡았다.

#### 죽도시장 화재 점포 복구 참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포항시 죽도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자 포스코봉사단이 복구지원 활동을 펼쳤다. 2004년 1월 24일 새벽 죽도시장에 난 불은 8개의 점포를 태



포항 동력전기정비과 직원들이 폭설로 인해 쓰러진 포항시 용산2리 시금치 재배단지의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고 있다.



포스코 봉사단이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죽도시장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고 10억 원 가량의 재산 손해를 입혔다. 상인들이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포스코봉사단원들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복구작업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 :: 글로벌 자원봉사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 주에서 팔친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시술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인도 오리사 주의 구순구개열 환자 34명 시술 지원

포스코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오리사 주의 구순구개열 환자 무료 시술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대 치과 전문의 7명 등 사단법인 얼굴성형정보연구소 소속 의료진 13명은 인도로 가서 인도SCB 의과대학병원 의료진과 합동으로 2006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구순구개열 환자 34명에 대한 진료와 외과적 수술을 시행했으며, 나아가 더욱 정교한 선진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구개교정술도 병행했다.

양국 의료진은 무료 시술활동을 위한 캠프를 함께 운영하며 최신 의료기술 노하우에서부터 각 나라의 문화적 사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 인도 오리사 주 부바네스와 페스티벌 한국음식관 운영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 주정부로부터 부바네스와(Bhubaneswar) 페스티벌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2006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포스코 한국음식관을 열었다.

부바네스와 페스티벌은 오리사 주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여는 지역 최대의 행사로, 인도 수공예품 전시회, 민속춤 공연, 국제 음식 전시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스코 한국음식관은 국내 요식업체와 현지 한국식당이 함께 참여해 요리 리스트와 조리를 담당했다. 포스코인디아 직원들도 주재료를 한국에서 공수하고 음식점에서 직접 음식을 나르고 조리를 돕는 등 현지 주민들에게 한국 음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행사기간 동안 한국음식관에는 닭갈비, 냉채, 김치, 한과 등 인도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중점 소개돼 하루 평균 850여 명의 인도인들이 방문하며 최고 인기를 모았다. 또한 현지 언론들도 음식의 완성도, 친절한 서비스 등에서 단연 돋보이는 음식점으로 보도하는 등 한국 음식은 물론 이를 주최한 포스코에도 우호적인 관심이 모아졌다. 포스코는 한국음식관 운영을 통해 거둔 수익금 100여만 원을 오리사 주가 운영하는 구호기금(Relief Fund)에 기부했다.

#### 강진 피해 본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긴급구호 키트 지원

포스코는 2005년 10월 8일 발생한 강진으로 참사를 당한 파키스탄에 긴급구호 키트 500세트(시가 50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포스코의 긴급구호 키트는 피해가 가장 큰 카슈미르 지역 500세대에 지급됐다.

이어 포스코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에도 긴급구호 물품을 보냈다. 포스코는 2006년 5월 27일 발생한 강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자 5000여 명, 이재민 20만여 명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에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 키트 500세트를 지원했다. 포스코의 긴급구호 키트는 피해가 가장 큰 족자카르타 지역 500세대에 지급됐다.



인도 오리사주에서 열린 포스코 한국음식관 모습



포스코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에 제공할 긴급구호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포스코 권영태 상무(오른쪽에서 둘째)가 인도네시아 메트로 TV의 자스 이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포스코는 국내외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2005년 7월 이구택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150여 명의 참여 아래 의약품, 이불, 속옷 등 25종의 생필품이 담긴 구호 키트 3000 세트를 제작해 두었다.

###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이재민 위해 성금 3억여 원 전달

포스코가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 성금 3억여 원을 대한적십자사와 인도네시아 메트로TV에 기탁했다.

포스코는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2005년 1월 13일부터 8일 동안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해 8730명의 임직원으로부터 1억 573만 원을 모금했다. 포스코는 임직원들이 낸 성금에 회사 출연금 2억여 원을 보태 모두 3억여 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포스코는 이 중 직원 모금액과 10만 달러 상당의 한화를 2005년 2월 3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고, 나머지 금액은 지진해일 피해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 지역을 돕기 위해 인도네시아 메트로TV에 2월 21일 전달했다. 남아시아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은 포스코에서 대외 재난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최초의 임직원 모금 활동이었다.

### 베이징 전취잉소학교 합동체육대회 참여

포스코차이나는 2004년 10월 15일 창립 1주년을 기념해 베이징 근교 농촌인 전취잉 마을에서 뜻 깊은 지역협력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차이나는 이날 전취잉소학교에서 열린 합동체육대회에서 학용품과 운동회 용품을 전달하고, 탁구, 축구, 2인3각 경기 등 다채로운 경기에 함께 참가하며 지역사회와 우의를 다졌다.

이날 교직원들은 붓으로 직접 쓴 환영 현수막 '경축 포스코차이나 창립 1주년(慶祝浦項中國投資有限公司 成立一周年)'을 보여 주며 포스코차이나 직원들을 반갑게 맞았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학생들도 곧 친해져 "찌야요 한귀런, 찌야요 푸샹(파이팅 한국인, 파이팅 포스코)"이라고 외치며 직원들을 열렬히 응원했다.

이날 포스코차이나는 지역사회에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준



포스코차이나는 전취잉소학교 합동체육대회에 참여해 학용품과 운동회용품을 전달했다. 사진은 기념 촬영 모습.

비해 갔지만, 마을주민들은 직접 수확한 사과, 대추, 밤 같은 농산물을 나눠 줘 함께 즐거운 점심식사를 했다. 운동회를 마친 뒤 전취잉소학교 측은 포스코차이나 측에 '春雨向樂土, 友誼地久天長(봄비가 기쁘게 토지를 적시니 우정이 땅과 하늘처럼 영원하다)' 이라고 적은 기념 휘장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포스코차이나는 2004년 8월 전취잉소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무실용 비품과 함께 대련포금강관의 찬조로 스틸 칠판을 지원한 바 있다.

### 중국 성태진포항제철희망소학교 시설 수리

중국의 대련포금강관유한공사 직원들은 2003년 7월 26일 자매결연 초등학교인 성태진포항제철희망소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수리해 줬다. 이날 대련포금 직원들은 학교의 지붕과 벽, 바닥, 체육시설 등에 페인트를 칠하고 화장실과 자전거 주차대 지붕을 수리했다. 또 기존의 낡은 칠판을 뜯어 내고 새로 가져간 칠판을 교사, 학부모와 함께 설치했다.

대련포금은 포스코가 1996년 대련시 농촌 지역에 5만 달러를 기부해 사포진포항제철희망소학교·성태진포항제철희망소학교 건립을 지원한 후로 이들 학교와 지속적으로 사랑과 우의를 나눠 왔다. 이 밖에도 대련포금은 지역 대학교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자매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련포금에 취업시키는 등 지역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 중국 정부에 사스 퇴치기금 3300만 원 전달

포스코차이나는 2003년 5월 12일 중국 현지법인들과 공동으로 모금한 사스(SARS) 퇴치기금 21만 6800위안(한화 3300만 원 상당)을 중국 중앙정부 위생부에 전달했다.

성금 모금 활동에는 중국본부와 장가항포항불수강·대련포금강관·순덕포항강관·청도포항불수강·POA·천진코일센터의 임직원 15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성금을 모금할 무렵까지 포스코차이나와 현지법인에서는 사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직원들의 건강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회사별로 개인위생 점검과 사내외 시설 방역작업, 대외행사 참여 자제 등 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가항 포항불수강 직원들이 사스 퇴치 성금을 모으고 있다.

##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관심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인애원과 인선요양원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더욱 생각납니다. 그 분들이 시간이 넉넉하거나 남들보다 많은 재능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은 함께 호흡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분들이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자기존중과 타인존경의 마음이며, 사랑이지요. 광양제철소는 인애원과 인선요양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냉연부 기계설비팀, 화성부 각 팀, 사랑나눔회 여러분이 올해에도 꾸준히 찾아 주셨습니다. 또한 포스코건설, 삼정P&A에서도 찾아 주고 계십니다.

포스코 가족 여러분은 인애원 가족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부족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노력봉사도 베풀어 물리적인 지원까지 바라는가 싶어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면 어떡하나' 고심도 했습니다. 저의 우려와는 달리 포스코 가족 여러분은 흔쾌히 도움의 손을 건네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셔도, 가족과 같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 주셔도 인애원 가족은 감사합니다. 인애원, 인선요양원 가족들에게 손 한 번 잡아 주시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등 한 번 두드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인애원 가족은 행복합니다.

아쉬운 것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시는 여러분께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지면으로나마 인애원, 인선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양제철소 모든 분들의 가정에 내년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세요.



백운자 인애원 원장

이 글은 2005년 12월 인애원 백운자 원장이 포스코에 보내온 편지이다.

## 10년을 하루같이... 세심한 배려에 감동

새해가 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거나 경제적·육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여 년 동안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분들입니다. 연말연시나 특별한 날 다른 사람을 한 번씩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남을 위해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포스코 선재부 아저씨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포스코 선재부 나눔회와 두호초등학교가 인연을 맺은 것은 1994년부터입니다. 그분들은 학교의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항상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학교 구석구석에 그분들의 손길이 스며 있습니다. 본관 앞과 운동장에 만들어 주신 스탠드는 우리가 더위를 피해 편히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호 어린이들은 이 학교를 떠나 먼 후일 어른이 되더라도 편안함을 주던 이 자리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개관한 등꽃도서관에 필요한 물품도 구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선재부 나눔회는 정부의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선물과 편지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해 주십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신발을 보내 주셨습니다.

생색나는 표시로 남을 도와 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큰 도움이 아니라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며 남들이 신경 써 주기 힘든 아주 작은 것을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10여 년을 하루같이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면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에 우리 두호가족 모두가 박수를 드립니다.

선재부 나눔회 아저씨들!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2006년 1월

두호초등학교 김유나 드림

이 글은 2006년 1월 두호초등학교 김유나 학생이 포스코에 보내온 편지이다.

## 향수병 달래준 포스코봉사단

나의 꿈과 가족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2002년 12월 5일 조국 필리핀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 나는 현재 한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광양의 GN이라는 주식회사에서 2년여 넘게 용융 도금작업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외로운 이국 생활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포스코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이다. 지난 2003년 10월 15일, 프렌즈봉사단에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해 광양제철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계기가 됐다.

광양제철소를 견학하는 동안 산더미처럼 쌓인 원료, 넓은 도로망과 깨끗한 공장, 높고도 빛나는 굴뚝이 눈길을 끌었다. 내부에는 그 곳 사람들이 필요한 일상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과 백화점이 있어 편리해 보였다.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볼링이라는 것을 해 보았는데 무척 재미있었다. 또한 광양제철소 단지 안에는 영화나 콘서트 같은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다기능 복합극장이 있었다. 운동경기를 보고 싶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매우 넓고 깨끗한 체육관에 가면 됐다. 우리 일행은 공장들을 견학하며 철을 생산하는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장치들이 자동화 설비로 컴퓨터에 의해 운영됐다. 엄청나게 큰 공장에서 단지 몇몇 사람만이 일하는 모습은 정말로 놀라웠다.

비록 의사소통은 어려웠지만 관람하는 내내 함께 한 프렌즈봉사단 멤버들은 자상하고 미소 띤 얼굴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광양제철소 견학은 내 일생 동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프렌즈봉사단의 고준석 씨를 나와 필리핀 동료들은 ‘형’이라 부르고 있다. 그는 우리를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감싸 주며 생일파티, 한글교육, 이발은 물론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도움을 주고 있다.

올 9월이면 사랑하는 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포스코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용하게 세계를 움직이는(Moving the World in Silence)’ 포스코를 자랑할 것이다.

포스코가 영원히 발전하는 기업으로 남기를 하느님께 기도한다.

이 글은 2005년 1월 필리핀인 근로자인 하본 프란시스코 씨가 포스코신문에 기고한 글이다.



하본 프란시스코 씨

## 봉사는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

... 어떤 계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아픈 이웃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내 주위에 본인도 어렵고

힘든 몸이지만 자기보다 더 불편한 이웃에게 아주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돼 주고자 하는 모습이 와 닿아 실천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 자원봉사 2227시간을 달성하셨는데, 소감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시간으로 계산되어 나오니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이 되네요.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꼭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져 기분이 어색합니다.

...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나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나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

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분들께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봉사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봅니다. 사랑하는 정신이 없으면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진정 나의 마음속에 가족이라고 자리 잡을 때 그들의 마음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식 씨

이 글은 포스코신문이 2006년 5월 마이리지 최고기록 보유자인 김진식 씨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자매결연 활동

### :: 개요

자매결연 활동은 포항과 광양에 소재한 부서가 중심이 돼 펼쳐는 봉사활동으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그룹이 중심이 되는 봉사활동과 함께 포스코 자원봉사 활동의 두 축을 이룬다.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에 역량을 집중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포항과 광양 지역의 주거·교육·문화·체육 시설을 확보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으나 지역사회 저변에까지 관심과 나눔의 손길을 미치는 데는 미흡함이 있었다. 포스코는 대규모 설비 확장이 종료되고 조업이 정착된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 이들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정을 나누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1991년 10월 8일 당시 총무부가 개인택시운송조합 포항시지부와 자매로 결연한 후 각 부서는 양 지역의 마을이나 학교,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지원 및 교류 활동을 해 왔다.

포스코는 자매결연 후 농번기 일손 돕기, 농기구 수리, 마을시설 보수, 마을 청소, 의료 및 방역 활동, 특산물 판매, 경로활동, 장학활동, 어려운 이웃 돕기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마을 행사 참여와 초청 행사를 통해 상호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 특히 태풍이나 폭설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자매부서 직원들은 신속하고도 대대적인 복구활동을 전개해 자매마을에 큰 도움을 줬다.

초기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의 시설물 보수나 농번기 일손 돕기가 자매결연 활동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8년 이후로는 물질적, 일방적 지원보다는 교류 확대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자매결연 활동의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는 포스코의 자매부서가 자매마을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을 지원하거나 자매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매마을에서도 봉사와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부서 직원들을 마을로 초대하거나 자매부서를 찾아와

정을 나누는 단계로 발전했다.

포스코의 자매결연 활동은 단순한 회사 차원의 지역협력 활동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의사소통 원활화와 화합을 촉진하고 낙후 지역의 생활·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한몫 했다. 실제로 포스코는 2004년 9월 1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농 상생교류 촉진대회에서 포스코의 자매결연 활동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도시와 농촌 간의 모범적인 상생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 6월 말 포스코와 자매결연한 곳은 마을 191개, 단체 17개, 학교 17개로, 모두 225개이다.

### :: 일손돕기(포항)

#### 청진리에서 모내기 준비 도와

포항제철소 제강전기정비과는 2006년 4월 22일 자매마을인 청하면 청진리를 찾아가 봄철 바쁜 농가 일손을 도왔다. 직원들은 자매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논밭으로 나갔다. 농사일에 익숙지 못한 이들은 미끄러운 논바닥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얼굴과 작업복 여기저기에 흙을 묻히기도 했지만, 모내기를 준비하는 못자리판 일손을 보태는 데는 모자람이 없었다.

일을 마친 직원들은 마을부녀회에서 준비해 온 봄나물과 다과를 나눠 먹으며 주민들과 마을 숙원사업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제강전기정비과는 이날 심한 관절염으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온 유모차 5대를 기증했다.

#### 동해면 공당리에서 국화 수확 지원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 직원과 가족들은 2005년 11월 19일 자매마을인 동해면 공당리에서 장애인들의 국화 수확을 지원했다. 날씨가 추워져 꽃들이 시들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해 국화를 제때 수확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3코크스공장 직원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친 것이었다.



봄철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포항제철소 제강전기정비과 직원들



산서리 노인가구 벼베기에 나선 포항제철소설비기술부 직원과 볼프강 헥트 씨

### 산서리에서 벼베기 지원

포항제철소 설비기술부는 2005년 10월 15일 자매마을인 장기면 산서리 노인가구 여섯 집의 벼베기를 도왔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개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제철소 3고로에 열풍로 기술지원을 나온 독일 DME사의 수퍼바이저 볼프강 헥트(Wolfgang Hecht) 씨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헥트 씨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 사탕수수 등을 낫으로 베어 본 경험이 있어 벼베기가 낯설지 않다. 팔이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흙 속에서 일하니 즐겁다.”고 하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 광천2리에서 못자리 설치

포항제철소 소둔산세공장 직원 33명은 2003년 4월 17일과 21일 자매마을인 송라면 광천2리에서 농사철 일손을 거들었다. 소둔산세공장 직원들은 2002년에 못자리를 설치해 준 경험을 살려 먼저 모판을 경운기로 운반해 놓고, 모판을 놓을 못자리에 물을 대 흙을 곱게 다독였다. 이후 모판을 정렬하고 모판에 비닐을 씌웠다. 직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논 5만여 평에 모판 8000여 개를 설치했다.

## :: 일손돕기(광양)

### 광영동 무연고 묘지 정리

광양제철소 기계설비부 직원들이 광영동 금호회 회원들과 함께 2005년 8월 27일 광영동 가야산 자락의 무연고 묘지에 잔디와 조경수를 심고 주변을 정리했다. 광영동 무연고 묘지는 1982년 광양제철소가 건설될 때 금호도 주민들이 광영동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곳으로 분묘 194기가 들어서 있다. 또한 9월 10일에는 금호회 회원들과 함께 무연고 묘에서 합동 성묘제를 올리고 묘지 유래비를 제막했다.

### 자녀들과 함께 황금동에서 배추 싸기 도와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 직원들은 2005년 7월 30일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황금동에 있는 배길수 씨의 밭에서 농촌체험 학습을 하며 바쁜 일손을 도왔다. 무더위와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가야산 자락의 무연고 묘지를 정리한 뒤 합동 성묘제를 올리고 묘지 유래비를 제막했다.

찾은 장맛비로 인해 수확시기를 놓쳐 애를 태우던 배 씨는 봄에 심었던 1000여 평의 배추밭에서 직원 자녀들이 배추 싸기를 도와 줘 가을에 속이 꽉 찬 상품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 내금·상금마을에서 고장 난 농기계 수리

광양제철소 2냉연공장 직원들은 2004년 11월 15일 자매마을인 진상면 금이리 내금마을과 상금마을을 찾아가 경운기, 트랙터, 농약 살포기 등의 농기구 수리와 도색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2냉연공장 직원 30여 명 외에 강구조물의 부식 진단과 방식시공 전문 사내 벤처인 AACC 전문가도 동참했다. 이들은 함께 경운기 30여 대와 비닐하우스용 유류탱크 10개 등 마을 구석구석에 방치된 각종 농사관련 설비들을 진단하고 도색하며 자신의 전문기술을 마음껏 펼쳤다.

### 조령리 덕촌마을에 분재기술 알려 줘

광양제철소 재질시험과 직원들이 2003년 2월 20일 자매마을인 조령리 덕촌마을 주민들에게 풀이나 나무를 화분에 심어 즐기나 가지를 보기 좋게 가꿀 수 있는 분재기술을 알려 줬다. 특히 청지분재회 회원인 황성연 씨가 이날 강사로 나와 분재용 나무를 골라내는 과정을 비롯해 물과 빛을 조절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게 가르쳐 줬다.

## :: 시설보수 및 물품기증(포항)

### 형산강 둔치에 꽃동산 바람개비 설치

포항제철소 제선부는 조선내화, 비엠에스(BMS), 에스엠(SM) 등 외주파트너사와 함께 2006년 4월 형산강 체육공원에 꽃동산 바람개비를 설치했다. 태극 모양과 한반도 지도를 형상화한 꽃동산 주위로 다양한 색깔과 높이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빨강, 파랑, 노랑, 하양 등 4색이 어울려 힘차게 돌아가는 바람개비는 제선부의 자매마을인 해도2동 주민들의 마음 속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 직원과 가족들이 배추 싸기를 하고 있다.



형산강 체육공원 꽃동산에 설치된 희망의 바람개비



포항제철소 선재부 직원들이 우창동의 마장지 진입로를 정비하는 모습



포항제철소 환경에너지부는 자매마을인 해도1동 동사무소에 서예교실을 열었다.



포항제철소 화성공장 직원들이 초곡리 다리 난간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에 담긴 갖가지 걱정은 날아가고 그 대신에 꿈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우창동 마장지 진입로 단장

포항제철소 선재부는 2005년 5월 20일 자매마을인 우창동 마장지 진입로 150m를 슬래그로 깨끗이 단장했다. 잦은 비로 인해 마장지 주변 도로가 군데군데 패고 물이 고여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자 선재부 직원들이 50여 톤의 슬래그를 들여 노면을 고르게 정리한 것이었다. 마장지 주변은 2002년 선재부 직원들이 벤치와 환경입간판을 설치하고 감나무, 대추나무 등 100여 그루의 유실수를 심어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한 곳이다.

### 해도1동에 서예교실 열어

포항제철소 환경에너지부가 2004년 10월 자매마을인 해도1동 동사무소 회의실에 서예교실을 열었다. 환경에너지부는 서예교실을 열어 지도강사를 초빙하고 담요와 화선지 등 서예 소모품 일체를 지원했다.

이 서예교실에는 벽강 서예원 김영룡 원장이 지도강사로 나와 매주 이틀씩 50여 명을 지도했다. 처음으로 서예를 배우는 수강생들은 진지한 자세로 지도강사의 설명을 경청했고, 오랜만에 다시 붓을 잡게 된 일부 수강생들도 예전의 느낌을 되새겼다.

### 초곡리 다리에 난간 설치

포항제철소 화성공장 직원들이 2003년 9월 자매마을인 흥해읍 초곡리를 가로지르는 다리에 난간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너다닐 수 있도록 했다. 길이 12m, 높이 3m인 이 다리는 좌우에 난간이 없어 사람이 건너다닐 때 차라도 마주치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화성공장 직원들은 다리에 난간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난간 설치를 위한 재료를 모은 후 사흘간의 작업 끝에 난간 설치 작업을 모두 마쳤다.

### 오도2리 해안도로에 주차장 설치

포항제철소 제선기계정비과는 2003년 6월 자매마을인 흥해읍 오도2리 해안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 줬다. 제선기계정비과 직원 30여 명과 자매마을 주민들은 이날 200여 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했다. 오도2리는 바닷물이 맑아 여름철이면 해수욕을 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주차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도 많았다.

## :: 시설보수 및 물품기증(광양)

### 도독마을 주변 뱃길에 국기 게양대 설치

광양제철소 화성부는 2006년 2월 23일 자매마을인 여수시 묘도동 도독 섬마을을 방문했다. 이전까지는 자원봉사를 하려고 도독마을을 방문했지만, 이날은 삼일절을 맞아 마을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주려고 방문한 것이었다. 이날을 포함해 화성부 직원들은 나흘 동안 마을주민들과 함께 외항선이 지나다니는 뱃길 주변 4곳에 6m 높이의 국기 게양대를 설치했다.

### 조령리 덕촌마을에 복조리 선물

광양제철소 재질시험과 직원들이 2006년 2월 12일 자매마을인 봉강면 조령리 덕촌마을을 찾아가 행운이 가득 담긴 복조리를 선물했다. 이날 직원들은 손수 만든 복조리를 덕촌마을 주민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면서 건강과 풍년을 기원했다. 대나무와 싸리나무로 만든 복조리는 디자인이 미흡했지만 정성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어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 광양평생교육관에 도서 기증

광양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들은 7년 만에 어렵게 개관한 광양평생교육관이 도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책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2005년 4월 11일부터 모아진 도서는 무려 1만 1000여 권으로, 광양제철소 직원 1명당 1.5권



광양제철소 재질시험과 직원들이 손수 만든 복조리를 덕촌마을 주민들에게 선물하며 안녕을 빌고 있다.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광양평생교육관에 기증할 도서를 모으고 있다.



광양제철소 3냉연공장 직원들이 황토방 만들기에 쓰일 흙을 동그렇게 더듬고 있다.

씩 기증한 셈이었다. 광양기업 등 26개 외주파트너사도 5900권의 도서와 1107계좌(계좌당 1만 원)의 성금을 모아 기증했다. 광양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들이 기증한 도서는 광양평생교육관 종합자료실 광양제철소 기증 코너에서 지역민들과 만나고 있다.

### 백운산 기슭에 황토방 만들어

광양제철소 3냉연공장 직원들이 2004년 6월부터 10월 초까지 옥곡면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황토방을 건립했다. 3냉연공장 직원들은 마을 어른들의 가르침에 따라 황토에 잘게 썬 볏짚을 잘 섞은 후 덩그런 덩어리로 다듬어 황토방을 메우는 작업을 했다. 백운산 기슭에 위치한 그림 같은 황토방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

### 태인동3구에 당산나무 심어 줘

광양제철소 1·2제선공장 직원들은 2004년 3월 자매마을인 태인동 3구 마을에 당산나무를 심으며 마을의 평안과 제철소의 무재해를 기원했다. 태인3구는 마을의 평안과 무병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당산나무가 없어 아쉬워하던 중 수령 35년생 은행나무를 당산나무로 선정하고 동네 입구에 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커다란 은행나무를 옮겨 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애만 태우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1·2제선공장 직원들은 크레인 레커차를 이용해 커다란 은행나무를 나뭇가지가 다치지 않도록 정성스레 옮겨 심었다.

### 송금리 주민들과 주말농장 만들어

광양제철소 1열연공장 직원과 가족, 송금리 주민들은 2003년 5월 진월면 송금리 야산 중턱에 주말농장을 조성했다. 직원들은 땅에 거름을 뿌리고 마을 이장은 트랙터를 이용해 땅을 갈아 얇게 평이 골고루 섞이도록 했다. 여기에 직원들이 다시 고랑을 파고 흙을 돋우며 비옥한 땅을 만들었다. 또 농장 옆에 있는 낡은 원두막에 새 장판을 깔고 부서진 곳을 고쳐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로 바꾸었다.



광양제철소 1열연공장 직원들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땅에 거름을 뿌리고 있다.

### 진상역 살리기 운동 동참

광양제철소 2코크스공장 직원 부인들이 2003년 3월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상역 살리기에 참여했다.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의 기차역인 진상역은 1969년부터 35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발이 돼 왔지만 최근에는 승객이 눈에 띄게 줄어 역사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2코크스공장 직원 부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진상역 살리기 운동에 나선 것이었다. 이들은 철도청에서 마련한 열차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상역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 :: 특산물 팔아 주기

#### 자매마을 농산물 판매 도와

포스코 직원들이 설을 앞두고 자매마을 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을 펼쳐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었다. 포항제철소 화성전기정비과는 2006년 1월 25일 친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먹거리로 자매마을 특산물인 단감을 판매하는 행사를 했다. 화성전기정비과의 자매마을인 기계면 학야리에서 무공해로 재배한 단감은 맛있고 크기도 어른 주먹보다 크며 가격도 싸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기수리과는 자매마을인 장기면 대진리 주민들이 신선한 해풍에 말린 과메기를 직원들에게 판매했다. 진한 갈색에 기름기가 살짝 흐르는 과메기와 해산물, 배추, 초장이 함께 포장된 과메기 선물 세트는 인기 만점이었다.

광양제철소 냉연부 직원들은 1월 25일 자매마을인 진상면 입암마을에서 생산한 단감을 팔아 줬다. 직원들은 단감의 맛과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명절 대목 장터의 흥겹고 들뜬 분위기까지 만들어 즐거움을 더했다.

#### 매실 수확·판매 지원

광양제철소 전기제어설비부, 화성부 직원들과 가족들은 2005년 6월 매실 수확으로 바쁜 자매마을 주민들을 도왔다. 전기제어설비부 직원들과 가족들은 6월 3일 광양시 다압중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직접 받을 일귀 재배한 매실을 교직원, 학생들과



진상역 모습



자매마을산 단감 판매에 나선 광양제철소 냉연부 직원들

함께 수확하고 매실 가공 식품도 함께 만들었다. 또한 전기제어설비부는 자매마을에서 수확한 매실을 광양제철소 직원들에게 팔아 주기도 했다.

화성부 2코크스공장 직원들은 6월 8일 자매마을인 진상면 외금마을에서 매실 수확과 판매를 했다. 직원들은 직접 리어카를 끌고 가가호호 방문해 차량 운행이 가능한 곳까지 운반하고 이날 거두어들인 매실 1톤을 모두 구입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 줬다.

### 회사 방문 기념품을 지역 특산물로 대체

포스코는 2004년 9월 1일부터 미역, 오징어, 다시마, 멸치 등 지역 특산품을 회사 방문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재래시장 살리기에 적극 노력했다. 그동안 회사 방문 기념품으로는 열쇠고리와 스테인리스 거울 등이 제공됐다. 지역 특산품은 포항 등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유통기한과 핵가족화 등을 고려해 4인 가족이 1회 식사할 수 있는 소포장을 비롯해 3가지로 구분해 마련했다.

포항 죽도시장번영회에서 제조·가공 단계를 거치는 이들 기념품이 먹을거리임을 감안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산물 질소 충전 포장용 재택해 품질과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포장지에 'posco' 상호를 새겨 넣었다. 특산물 기념품은 9월 3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이태찬 국무총리에게 처음으로 증정됐다.

###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한몫



포항제철소 투자공사팀이 장기면 선서리에서 생산된 청정쌀 '하늘비'를 팔아 주기 위해 포스코신문에 실었던 광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직원들이 부서별로 자매마을 주민들이 땀 흘려 거둬들인 벌꿀, 미역, 부추, 멸치, 매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판매해 주는 행사를 해 자매마을 주민들의 가계 소득에 보탬을 줬다.

포항제철소 2선재공장 직원들은 2003년 들어 네 번에 걸쳐 청하면 용두1리에서 생산한 멸치 판매 행사를 열어 모두 850상자를 판매했다. 투자공사팀은 2004년부터 매년 장기면 산서리에서 생산한 청정쌀인 '하늘비'의 판매와 홍보를 돕고 있으며, 1995년 3월 자매결연 이후 산서리 특산품인 사과, 단호박과 '하늘비' 쌀 등을 19차례에 걸쳐 6000여 만 원어치를 팔아 줬다. 또한 기계설비부도 신광면 기일리에서 수확한 사과를 매년 구입하고 있어 주민들의 가계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광양제철소 직원들도 자매마을 농산물 구매에 앞장섰다. 제선부는 추석 전후 진월면 선포마을의 특산품인 배를 매년 100상자 이상 구입하고 있다. 또한 제강부 직원들은 2003년 3월 자매마을인 진월면 금동마을 주민들이 양상추 수확 시기를 놓쳐 애 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4.5톤 트럭 두 대 분량의 양상추를 구매해 주민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줬다.

### 하옥리 벌꿀 판매누계 1억 원 돌파

포항제철소 3연주공장 직원들은 1994년 죽장면 하옥리와 자매결연을 한 후 매년 자매마을에서 채취한 벌꿀을 직접 구입하거나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팔아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2003년 벌꿀 판매 행사에서만 260여 명의 직원들이 1500만 원 상당의 벌꿀을 구입했고, 이때까지의 누계 판매 수익은 무려 1억 1300만 원에 달했다. 3연주공장 직원들과 하옥리 주민들은 벌꿀 판매금액 1억 원 돌파를 기념해 2003년 6월 3일 공장 서브센터에서 축하행사를 열었다.



벌꿀 판매금액 1억 원 돌파 기념 축하행사에서 포항제철소 3연주공장 직원들과 하옥리 주민들이 벌꿀을 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 :: 의료 및 방역 활동

#### 포항·광양에서 13년째 의료봉사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보건지원팀은 1993년 10월 병원이나 보건소가 없는 농



포스코 방문객들이 포항 특산물로 만든 기념품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보건지원팀이 2연주공장 직원들과 함께 기계면 남계리를 찾아가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어촌 자매마을에서 시작한 무료 진료를 13년째 이어 오고 있다. 양 제철소 보건지원팀은 매월 의사·간호사·병리사 등으로 의료진을 구성하고 자매마을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특히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방역 소독 서비스도 제공했다. 포항 지역에서는 199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7000여 명이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받았고, 광양 지역에서는 7230여 명이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한편, 포스코 직원들도 동호인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했다. 1994년 발족한 포스코 수지침연구회는 성모자애원을 비롯해 효자동 어버이집, 대이동과 학산동의 노인정 등을 찾아 수지침으로 치료를 돕고 있으며, 한빛봉사회도 포항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과 함께 매월 경로당과 연일을 택전2리 장애인 공동체인 '한사랑의 집'을 찾아 침술·뜸·안마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장수경로당에 비상구급약품 전달

포항제철소 제선부는 2006년 3월 30일 자매마을인 해도2동에 있는 장수경로당에 방문해 노인들에게 비상약품을 전달했다. 제선부 직원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노인들의 나들이와 야외 활동이 잦아질 것에 대비한 외상처치용품을 비롯해 30여 가지의 약품을 꼼꼼히 챙겨 드렸다. 제선부 직원들은 2005년 3월에도 해도2동의 형산·동부·장수 경로당에 구급약품을 전달했다.

### 정한의원과 함께 가안2리서 한방 치료

포항제철소 1선제공장은 2005년 5월 1일 포항시 정한의원(원장 정휘)과 함께 자매마을인 기계면 가안2리에서 한방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시 진료소가 마련된 마을회관에서 정한의원은 주민들에게 침, 뜸, 부황 등으로 치료하고 건강상담을 해 줬다. 1선제공장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삼계탕, 떡, 과일을 대접하고 말벗이 돼 줬다. 이날 의료봉사는 자매마을에 관절염으로 팔다리가 쭈시고 어깨가 걸리는 불편을 호소하는 노인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1선제공장이 준비한 것이었다.

### 용지마을에서 스포츠 마사지

광양제철소 1·2제선공장 직원들이 2004년 8월 태인3구 용지마을 노인정을 찾아 물리치료와 스포츠 마사지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마을 어른들이 평소 고된 농사일로 관절통과 신경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포츠 마사지를 통해 어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생각으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스포츠 마사지 기술을 배워 전문 자격증을 습득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온 직원들은 어른들을 위한 전문 강습을 한 달간 실습을 통해 익혔다. 여기에 보건지원팀까지 동참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준비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밤늦게까지 이뤄졌다.

### 외금마을 건강관리실 건립 지원

광양제철소 2코크스공장 자매마을인 진상면 금이리 외금마을에 건강관리실이 문을 열어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2003년 11월 14일 개관한 외금마을 건강관리실은 2코크스공장 직원들이 모은 성금과 광양시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됐다. 건강관리실에는 사우나 시설과 러닝머신, 안마기, 발마사지기 등 많은 건강관리 기구가 설치돼 있다.

## :: 행사 참여

### 독일에선 월드컵, 광양제철소에선 친선컵

월드컵 열기로 전국이 뜨거웠던 2006년 6월, 광양제철소도 자매마을과 축구를 통해 우애를 다졌다. 제선부와 화성부는 6월 10일 태인동 청년회, 금성면 청년회 선수단과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광양제철소 보조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했다. 태인동은 광양제철소와 태인교를 사이에 두고 이웃에 있으며, 금성면 역시 태인동과 섬진대교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사촌이다. 경기 결과, 태인동 청년회가 제선부를 3 대 2로 이겼고, 금성면 청년회와 화성부는 1 대 1로 비겼다. 이날 태인동 청년회는 장어를 넉넉히 준비해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체력 보충에 한몫 했다.



외금마을 할아버지들이 건강관리실에서 발마사지와 안마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축구 경기 후 태인동 청년회에서 준비한 장어구이를 들며 체력을 보충했다.

**이가리 전통민속놀이 개최 지원**

포항제철소 열연전기정비과 직원들은 2006년 3월 5일 자매마을인 청하면 이가리 주민들과 함께 전통민속놀이 계승대회를 개최했다. 이가리의 고유 행사인 전통민속놀이 계승대회는 매년 봄철 마을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건강을 기원하는 큰 행사다. 이날 주민들은 아침 일찍 찾아온 직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옷놀이와 사물놀이 등 전통민속놀이를 즐겼다.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해 바비큐 통돼지 한 마리와 타월 200장을 지원했다.

**정월 대보름 맞아 지신 밟고, 달집 태우고, 음식 나누며 자매의 정 나누**

2006년 2월 1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 직원들은 자매마을 주민들과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고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다. 포항제철소 제선부 직원들은 형산강 둔치에서 열린 제2회 형산강 달집 태우기 및 동민 한마음 축제에 참석했다. 해도2동 주민들과 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의 공연과 제선부, 조선내화 등 해도2동과 결연한 4개 업체의 안전조업을 기원하는 안전지원제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소원지를 작성해 달집과 함께 태우며 새해 소망을 기원했다. 노재과 직원들은 화진1리에서 열린 대동제에 참여했다. 화진1리는 매년 정월 대보름날 마을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대동제를 지내 왔다. 직원들은 풍물놀이를 준비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누비며 액운을 쫓는 지신밟기를 했다. 광양제철소 화성부와 제선부는 태인도 용지마을에서 대보름 행사를 열고 마을의 풍년과 제철소의 안전조업을 기원했다. 주민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는 흥겨운 가락에 맞춰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한껏 뽐내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 특히 마을 주민의 안녕과 김 풍작을 기원하며 펼친 큰줄다리기는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주민들이 보름여 동안 만든 길이 40~50m, 둘레 1.5m의 큰 줄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용지 큰줄다리기는 1993년 남도문화제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계설비부 도금기계정비과는 자매단체인 큰골회와 함께 정월 대보름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광영동 큰골회 농악단이 중심이 돼 펼친 가야산 약수터 우물굿놀이를 시작으로 집돌림 농악과 당산제, 달집 태우기 등으로 진



포항 형산강 둔치에서 열린 해도2동 동민 한마음 축제의 강강술래 모습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안전 조업을 기원하며 달집을 태우고 있다.

행됐다. 큰골회 부인들은 1000여 명의 참관객들을 위해 귀밭이슬과 떡국을 준비해 행사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광영동민 가을 운동회 지원**

광양제철소 지역협력팀과 화학시험과는 2004년 10월 10일 광영동민 화합한마당 가을 운동회에 참여해 지역주민들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광영동 체육회가 주관한 가을 운동회에는 도촌마을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포스코 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가을 운동회에서는 족구, 오자미 넣기, 배구, 씨름,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의 운동경기와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특히 으랏차차 모래판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직원 자녀들이 젓 먹던 힘까지 발휘하며 기량을 뽐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호흡을 맞춰 이어 달리며 노익장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덕촌마을 백중잔치 열어 줘**

광양제철소 재질시험과 직원들은 2003년 8월 20일 자매마을인 봉강면 조령리 덕촌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백중잔치를 열었다. 예로부터 머슴날이라고도 불린 백중(음력 칠월 보름)은 농가에서 호미를 씻어 둔다고 해서 호미씻기날이라고도 한다. 힘든 농사일이 이때쯤이면 끝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이를 자축하며 여러 가지 음식과 과실을 준비해 나눠 먹는다. 직원들과 주민들은 이날 마을 정자나무 앞에서 안전지원제를 올리고 마을회관과 하천을 깨끗이 치운 후 음식을 나눠 먹으며 풍년을 기원했다.

**오덕리 산나물 축제 참가**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 직원과 가족들은 2003년 5월 3일 자매마을인 기북면 오덕리 주민들의 초청으로 산나물 축제에 다녀왔다. 오덕리 주민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동안 채취한 갖가지 산나물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산나물 축제를 열어 왔다. 마을회관에는 참나물, 어너리, 곰취, 산당귀, 참두릅, 미역취 등 도시에서 보기 힘든 산나물들이 전시됐고, 한쪽에서는 시식행사가 열렸다.



광영동민 화합한마당 가을 운동회 모습



오덕리 주민이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 직원에게 산나물을 먹여주고 있다.

이날 직원과 가족들은 마을 어른들이 원하는 씹쌀한 산나물의 맛과 향에 흠뻑 취했으며, 오덕리 산기슭에서 여러 가지 산나물을 직접 채취하기도 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오덕리 마을회관에 들러 노래방 기계를 선물하고 주민들과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 경로활동

#### 우창동에서 흥겨운 경로잔치

포항제철소 선재부는 2006년 4월 8일 자매마을인 우창동 주민들과 함께 창포경로당 옆 놀이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경로잔치는 노래자랑, 사물놀이, 국악인 초청공연 등으로 이어지며 점점 흥을 돋웠다. 흥겨운 노랫가락에 노인들은 무대 앞까지 나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도 했다. 노인 1000여 명이 모인 이날 경로잔치는 자매마을의 여러 단체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포항 선재부가 우창동 주민들과 함께 준비한 경로잔치 모습

#### 도촌마을 노인들 모시고 효도관광

광양제철소 화학시험과는 2006년 3월 29일 자매마을인 광영동 도촌마을 노인들을 모시고 봄맞이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효도관광에 참여한 노인 40여 명은 담양리조트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금성산성과 죽림원 주변에서 화사한 봄기운을 만끽했다. 화학시험과는 14년 동안 마을의 애경사에 참여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힘을 보태 왔다.

#### 해도1동 노인정에 떡 선물

2004년 3월 12일 해도1동 노인정 3곳에서 떡 잔치가 벌어졌다. 포항제철소 수질보전팀 직원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떡을 들고 찾아와 자매마을 노인들에게 대접한 것이었다. 수질보전팀 직원들은 젊은이들이 3월 14일을 '화이트 데이'로 정해 연인에게 사탕을 준다는 점에 착안해 노인들이 먹기 좋은 떡을 선물했다.

#### 장내마을 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

광양제철소 제선부가 자매마을인 태인동 장내마을의 공원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줬다. 장내마을 노인들이 마을 공원에 모여 시설도 없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제선부 직원들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소매를 걷어 붙였다. 직원들은 우선 공원 한 모퉁이에 고무판을 붙여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게이트볼 게임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본부석도 아담하게 만들었다.

2003년 3월 13일 새로 생긴 장내마을 공원 게이트볼장에서는 제1회 동광양 농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다. 이날 노인들은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겨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해도2동에 게이트볼 용품 전달

포항제철소 제선부는 2005년 8월 11일 자매마을인 해도2동에 게이트볼 용품을 전달했다. 직원들은 음성으로 경기 시작·종료·진행을 알리는 대형 시계와 게이트볼 득점 기록판을 전달하고 게이트볼장 입구에는 표지판 2개(2m X 0.4m)도 설치했다. 또 12일에는 해도2동 노인 70명을 초청해 2005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함께 관람하고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과 간식을 나눠 먹으며 정담을 나눴다.

#### 명당마을 독거노인 위로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은 2003년 1월 20일 직원 가족들과 함께 태인동 명당마을에 자식도 없이 어렵게 혼자 살고 있는 장판술 할아버지와 정원보 할머니를 찾아가 세배를 하고 떡국을 끓여 나누어 먹었다. 명절마다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자식처럼 다가갔던 직원들은 2003년에는 좀 더 특별한 기쁨을 선물하고 싶었다. 직원 가족인 꼬마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서투른 세배를 하자 항상 외롭게 보였던 두 노인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포항제철소 제선부는 해도2동에 경기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대형 시계와 게이트볼 득점 기록판 등을 전달했다.



명당마을 독거노인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세배를 보내는 모습

## :: 소외계층 돕기

### 해도1동 독거노인 가정에 사랑의 무지개 도시락 전달

포항제철소 환경에너지부는 2006년 5월 18일 레스코, 신립공업, 한진기업 등 6개 외주파트너사, 자매마을인 해도1동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자매마을 독거노인 가정 10세대에 사랑의 무지개 도시락을 전달했다. 이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손수 만든 도시락을 전달하고 노인들의 말벗이 돼 주었다.

환경에너지부는 앞으로 매달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방문해 고충 상담을 비롯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만든 도시락을 전달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소 제선부 해사모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 해도2동에 사랑의 연탄 전달

포항제철소 제선부 직원들이 2006년 2월 21일 십시일반 모은 나눔의 성금으로 자매마을인 해도2동에 사랑의 연탄 800장을 배달했다. 해사모 회원들은 이날 해도2동의 형편이 어려운 4가구에 200장씩 준비한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해도2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해사모는 2005년 12월 해도2동에 거주하는 제선부 직원 11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다.

### 명도학교 학생들과 신나는 운동회

포항제철소 선재부 직원들이 2005년 9월 15일 자매마을인 포항시 우창동의 명도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가해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운동회는 풍선 터뜨리기, 흥부네 왕자님 태우기, 제기 차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은 시종일관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워했다. 또한 이 해 6월 18일에는 명도학교 장애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장애 극복 의지를 키워 주기 위한 인라인 축제에 참가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명도학교 어린이들의 가을 운동회 모습

### 남해군 남명초등학교 어린이와 자매결연

광양제철소 공정출하부는 2006년 5월 20일 남해군 남명초등학교 어린이 15명과 자매결연을 한 후 이들의 집을 찾아가 보호자에게 결연 배경과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했

다. 공정출하부 직원들과 어린이들은 앞으로 상호 가정방문에서부터 이메일 주고받기, 생일 챙겨 주기, 직원 자녀와 친구 맺기, 회사 문화행사나 축구경기 관람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미래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하게 된다.

### 덕촌마을 무의탁 노인들에게 김장 담가 줘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협의회와 부인회는 2004년 11월 25일 재질시험과의 자매마을인 봉강면 덕촌마을을 찾아가 무의탁 노인들에게 제공할 김장을 담가 줬다. 덕촌마을은 백운산 가까운 해발 400m에 있는 마을로, 무의탁 노인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김장 담가 주기에 나선 것이었다. 부인회원들은 홀로 사는 할머니들과 함께 장독대의 항아리를 깨끗이 닦은 후 김장을 담갔고, 협의회 직원들은 배추와 무를 운반하고 김장독을 땅에 묻는 등 김장을 도왔다.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 직원 부인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맛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 :: 자매마을 환경정화

### 신흥리 마을도로에 꽃길 조성

포항제철소 냉연부는 2006년 6월 17일 자매마을인 청하면 신흥리 마을도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했다. 이날 냉연부 직원 100여 명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봄에 파종해 놓았던 코스모스를 마을 진입도로 왕복 4.5km에 걸쳐 심었다. 마을 주민들도 트랙터 3대와 경운기 2대를 지원했으며, 꽃길 조성이 끝난 후 직원들은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국수를 함께 먹으며 서로의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자매마을인 청하면 신흥리 마을도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 해도2동과 송도동 550여 가구의 대문 도색작업 실시

포항제철소는 2006년 4월 15일 나눔의 토요일을 맞아 오창관 제철소장을 비롯한 임직원 1300여 명이 해도2동 400여 가구와 송도동 150여 가구를 찾아가 녹과 오물이 묻어 낡은 대문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 페인트 칠을 해 줬다.

한편 포항제철소는 2005년 12월에 청림동 70여 가구, 2006년 1월과 2월에 송도동



오창관 포항제철소장 등 포항제철소 임원들이 자매마을에서 낡은 대문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350여 가구의 대문 도색작업을 한 바 있다.

### 태인동 푸른숲 가꾸기 동참

허남석 광양제철소장은 제선부와 화성부 직원들과 함께 태인동이 펼치는 푸른숲 가꾸기에 참여했다. 이들은 나눔의 토요일인 2006년 4월 15일 태인동 3구 체육공원에 태인동 주민들과 함께 해송 200그루를 심었다.

또한 6월 17일에는 제선부 직원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태인동 용지마을 당산 주위로 철쭉과 영산홍, 느티나무를 심었다. 용지마을은 1993년 남도문화제에서 우수작품 발굴상을 수상한 용지큰줄다리기로 유명한 곳이다.

### 태인동 김 시식지 대청소

광양제철소 화성부 직원들이 2004년 11월 19일 자매마을인 광양시 태인동 궁기마을 유적지를 새로 단장했다. 이들은 궁기마을에 있는 김 시식지를 찾아 유적비와 건물 곳곳을 청소했다. 비석에 새겨진 글씨 틈새에 끼인 이물질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담장에 자란 잡초도 깨끗이 베어 냈다. 특히 김 생산도구 하나하나에 이름과 설명을 적은 플라스틱 명패를 붙였다.

이곳 김 시식지는 조선 인조 18년 병자호란 때 의병장이던 김여익이 해변에 표류해 온 참나무 가지에 해초가 붙은 것을 보고 양식을 시작한 후 그 양식법을 보급하였다고 해 그의 성을 따라 '김'이라 이름 짓고, 김을 최초로 보급한 곳이라는 뜻으로 김 시식지라고 부른다.

### 해도1동 아파트 담벼락에 벽화 그려

포항제철소 환경에너지부는 2004년 8월 27일 자매마을인 해도1동 동아타운 담벼락에 길이 40m, 높이 2m의 벽화를 그렸다. 벽화 작업에는 8월 19일부터 일주일 남짓 걸렸다. 예전에는 바닷가였던 해도1동은 바다의 푸른 꿈과 포근함을 가진 곳으로, 포항 발전의 터전이자 시민 생활의 중심인데, 이러한 마을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벽화 주제를 바다 이야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제작된 벽화는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거북이 등 수중생물이 유유히 헤엄치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태인동 3구 체육공원에 해송을 심고 있다.



벽화 작업을 하고 있는 포항제철소 환경에너지부 직원들

는 모습을 담았는데,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뤄 보는 이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을 펼쳐 온 해도1동 자치회는 이날 환경에너지부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환경에너지부는 3월 식목일을 앞두고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송도초등학교에 이르는 1km 거리에 화분 200여 개와 뽕나무 300여 그루를 심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 형산강 둔치 환경정화 활동 참여

포항제철소 제선부는 2004년 8월 자매마을인 해도2동 형산강 둔치 일원에서 마을주민과 힘을 모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형산강 둔치는 포항시민들의 휴식처로 야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는 곳이지만 태풍 메기가 지나가면서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이고 말았다. 이 때문에 며칠째 시민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선부 직원들이 환경정화에 나선 것이었다.

이날 직원들과 주민들은 집계와 빗자루, 갈고리 등을 이용해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고, 떠내려 온 흙이 쌓여 말라 버린 야외 농구장과 주차장까지 살수차를 동원해 말끔히 청소했다.

## :: 아동 및 자매학교 지원

### 진월초등학교 학생 초청 테니스 교실 열어

광양제철소 제강부 테니스 동호회는 2006년 5월 11일 자매학교인 진월초등학교 학생 27명을 초청해 테니스 교실을 열었다. 이 테니스 교실은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취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자매마을 어린이들은 TV에서만 보던 멋진 코트에서 테니스 동호회원들의 자상한 지도로 테니스 기본자세를 열심히 배웠다. 제강부 테니스 동호회는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 테니스 교실을 계속 이어 가기로 했다.



광양제철소 제강부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진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다.



제선부 직원들이 해도2동 동사무소에 공부방을 마련하고 학습품을 나누어 주는 모습

### 야학 프로그램으로 해도동 청소년 지도

포항제철소 환경에너지부와 제선부는 자매마을에 청소년 공부방을 마련해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환경에너지부 수질보전팀은 해도1동 경로당에 공부방을 마련해 2006년 4월 28일 문을 열었다. 교육전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부서 내 박사급 직원 8명이 청소년 공부방의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선부도 해도2동 동사무소에 공부방을 마련하고 4월 25일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입사 전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4명의 엔지니어가 교사 역할을 맡았다.

환경에너지부와 제선부는 영어와 수학 등 교과목 가르치기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해 주는 등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자매마을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포항제철소 공정출하부는 2006년 2월 22일 자매마을 모범 청소년 4명을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훈훈한 정을 나눴다. 환여동, 도구2리, 용한1·2리 자매마을에서 각각 초청된 이들은 부모, 마을 동장이나 이장과 함께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초청된 4명의 학생에게는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장학금은 매일 공정출하부 장학회 회원 350여 명이 급여계좌에서 1000원씩 후원해 충당한다.

### 도전! 철강 골든벨 개최

광양제철소는 2005년 7월 14일 광양 옥곡초등학교 학생 60명을 초청해 원료야적장과 열연공장 등 제철소 견학행사와 더불어 도전! 철강 골든벨을 개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전! 철강 골든벨은 제철소를 견학하며 배운 내용이나 몰랐던 부분을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확인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철과 관련된 문제를 게임처럼 재미있게 풀면서 제철소에서 하는 일과 철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다.”며 즐거워했다.

광양제철소는 지역사회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철강에 대한 이해도와 친근감을 높이고자 2003년부터 광양, 하동, 남해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견학시키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광양 옥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커뮤니티센터 잔디공원에서 홍보사와 함께 OX 퀴즈를 풀고 있다.

### 오신분교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광양제철소 열연부 기술개발그룹 직원들이 2004년 12월 21일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진월면 오사리에 있는 오신분교를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줬다. 오신분교는 전교생 24명, 유치원생 5명에 교사 5명이 전부인 작은 학교여서 크리스마스가 돼도 가슴 설레는 기대를 가질 수 없었다. 교사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모른 채할 수 없어 열연부에 SOS를 쳤고,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직원들이 흔쾌히 승낙하면서 작으나마 뜻 깊은 행사를 열 수 있었다.

### 태금중학교 학생들에게 카메라 활용기술 가르쳐 줘

광양제철소 제선부 직원들은 태인동 태금중학교의 특기적성교육반 가운데 하나인 카메라반 학생들에게 카메라와 캠코더 활용 기술을 가르쳐 큰 인기를 모았다. 광양제철소 제선부는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편집 과정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 영상동아리 활동을 통해 습득한 카메라와 캠코더 활용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하고 2004년 3월부터 교육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배우려는 학생이 10명뿐이었지만 직원들의 열의와 카메라를 활용한 흥미로운 기술 등의 소개로 교육생이 2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인기 만점의 수업이 됐다.

### 포항지역 중·고교에 도서 600권 기증

포항제철소 섭외부는 2003년 11월 18일 포항지역 중·고등학교에 ‘한 권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란 도서를 기증했다. 섭외부는 포항시 60개 중·고등학교에 모두 600권을 구입해 기증했다. 또 포항에 있는 도서관과 자매마을에도 이 책을 배포했다. ‘한 권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는 2003년 3월 포항지역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도서로, 포항의 시대별 역사, 항쟁사, 문화유산, 지명 유래와 전설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 자매마을 어린이 초청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포항제철소 냉연부는 2003년 5월 13일 자매마을 어린이들을 제철소에 초청해 그림



광양제철소 열연부 직원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자매마을의 오신분교를 찾아가 어린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포항제철소 냉연부의 초청으로 제철소에 온 자매마을 어린이들이 2냉연공장 앞 잔디밭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광양제철소 화성부 박지연 씨가 태인초등학교에서 수업하는 모습

그리기 대회를 열었다. 2냉연공장 앞 잔디밭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흥환분교, 문충초등학교 학생들과 문충유치원 어린이 등 160여 명이 참가했다.

냉연부 직원들과 교사들의 손을 잡고 제철소에 들어온 어린이들은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서 뛰고 구르며 신나는 시간을 보내다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시작되자 삼삼오오 둘러앉아 하얀 종이 위에 알록달록한 생각의 날개를 펼쳤다. 냉연부 직원들은 멋진 그림을 그린 어린이 22명에게 상품을 주고, 이 그림들을 2냉연공장 앞에 전시했다.

### 태인초등학교에서 일일 교사로 활동

광양제철소 화성부 직원들은 2003년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자매학교인 태인초등학교의 일일교사로 활동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새싹들에게 감동을 준 일일 교실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수업은 박지연 씨가 준비한 히말라야 원정 경험담이었다.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모험의 짜릿함과 도전정신을 심어줬다. 또 백영화 씨는 링컨과 장영실을 예로 들어 고난을 헤치고 꿈을 이루어 가는 삶을 이야기해 감동을 자아냈다.

## :: 신규 결연

### 포항지역 자매 마을·단체 9개 새로 생겨

포항 지역에서는 2003년 이후 모두 9건의 신규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포항제철소 STS냉연전기정비과는 2003년 6월 20일 포항시 연일읍 인주리와 자매결연을 했다. 전기제어설비부의 11번째 자매마을이 된 인주리는 68가구 210여 명이 사는 농촌마을로, 쌀이 특산물이다. 기계설비부 STS제강기계정비과는 2003년 6월 26일 대송면 공수리와 자매결연을 했고, 후판기계정비과는 2003년 10월 30일 동해면 신정1리와 자매결연을 했다. 신정1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60가구 180여 명이 살고 있다.

스테인리스생산부 3제강공장은 2004년 2월 19일 대송면 제내1리와 자매결연을 했다. 제내1리는 포항제철소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마을이다. 환경에

너지부 자원재활용팀은 2004년 4월 19일 포항어민회와 자매결연을 했고, 동력전기정비과는 2004년 5월 28일 오천읍 용산2리와 자매결연을 했다. 용산2리는 90가구 280여 명이 살고 있다. 전기강관부는 연일읍 유강지역발전협의회와 2004년 6월 17일 자매로 결연했다. 유강지역발전협의회는 이 지역 아파트 6개 단지와 상가 150여 개의 자치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동호인 단체회장, 상가번영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압연설비투자계획실은 2005년 10월 26일 연일읍 택전2리와 자매결연을 했다. 택전2리는 90가구 270여 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이다. 포항제철소는 2005년 9월 7일 해병대 제1사단과 자매결연을 하고 해병대 사단본부 회의실에서 자매결연 증서와 패를 교환했다. 이것은 기업과 군 사이에 이루어진 첫 결연 사례이다.

### 광양 지역에서도 자매 마을·학교 6개 새로 생겨

광양 지역에서는 2003년 이후 모두 6건의 신규 결연이 이루어졌다.

광양제철소 제강부 기술부문은 2003년 3월 14일 광양시 중산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다. 광양제철소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중산마을은 31가구 80여 명이 살고 있다.

열연부 조업지원팀은 2003년 8월 1일 광양 골약중학교와 자매결연을 했다. 광양 골약중학교는 전교생 43명에 교직원이 10명밖에 되지 않는 도시 속의 작은 학교이다.

미니밀부는 2004년 11월 19일 광양시 중마동 와우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다.

열연부 기술개발그룹은 2005년 2월 15일 진월남초등학교 월길분교와 자매결연을 했다. 도금부 4도금공장은 2005년 4월 8일 진상초등학교 황죽분교와 자매결연을 했다. 환경에너지부 자원재활용팀은 2005년 3월 30일 여수시 묘도동 묘읍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다. 묘읍마을은 광양만 중앙의 작은 섬 묘도에 위치한 곳으로, 91가구 350여 명의 주민이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도 늘어나

포항제철소 품질기술부는 2004년 10월 18일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자매결연을 했다. 이는 포항지역 최초의 기업과 사회복지기관 간 자매결연으로, 품질기술부는 결연 전인 2003년 4월부터 여름방학캠프, 가가호호 생활용품 나누기, 사랑의 도서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냉연전기정비과가 연일읍 인주리와 자매결연을 했다.



포항제철소 품질기술부와 포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자매결연을 했다.

기증 등 장애학생들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 왔다. 설비기술부는 2005년 6월 18일 칠포해수욕장 부근 산 중턱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들꽃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다.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 나눔의 샘 봉사단은 2004년 8월 21일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노인주거 시설인 예광마을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단법인 예광마을은 무의탁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100여 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전기제어설비부는 2004년 9월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성신원과 자매결연을 했다.

## 모든 일에 열정을 갖겠습니다

매섭던 바람에 웅크리던 사람들이 따뜻한 기운에 활기를 되찾고 꽃과 나무들은 벌써부터 향기를 퍼뜨리는 지난해 어느 봄날이었지요. 저에겐 매우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장학생으로 추천하셨다는 말에 의아해 했었는데 운 좋게도 장학생으로 선발돼 내심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장학금은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 직원분들의 소리 없는 후원이며 또한 직원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모인, 자라나는 우리들에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라 생각하고 이번에도 장학금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품질기술부 아저씨들에게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몸 건강히 학업에 충실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선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달라질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저씨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용광로의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처럼 일에 대한 열정도 영원히 꺼지지 않길 바라며 저도 항상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럼 몸 건강하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4년 10월  
신예지 올림

이 글은 2004년 10월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중동중학교 신예지 학생이 포스코에 보내온 편지이다.

## 폭우 속에서 더 끈끈해진 '정'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어제, 기계면의 공설운동장에서는 날씨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잔치가 치러졌습니다. 학야리, 계전리와 자매부서인 포항제철소 화성전기정비과, 제어설비운영팀과의 합동 잔치였습니다.

빗속에서 각각의 게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잔디는 비가 와서 푸르름을 더했고 서로의 우애를 다지는 사람들은 비를 흠뻑 맞으며 축구를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직원들이 발을 묶고 릴레이로 달리는 경기는 모두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할머니들 걸음에 맞추려고 애쓰는 직원들이 뛰지도 못하고 거북이 걸음으로 끝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풍선 터뜨리기 경기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가슴에 풍선을 놓고 터뜨려야 하는데 풍선이 터지질 않자 직원들은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들의 민망해하는 모습이 꼭 소녀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엄마, 할머니를 대하는 애정으로 꼭 끌어안는 직원들의 모습 속에 잔치는 무르익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경연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래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또한 재롱을 떨며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쉬어야 할 직원들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하고 기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선물 꾸러미만큼이나 가슴 가득 웃음을 가져갔습니다. 열심히 봉사한 직원들 모두도 오늘 하루가 뿌듯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화성전기정비과, 제어설비운영팀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은 2004년 7월 포항제철소 자매마을인 기계면 학야리 주민이 포스코에 보내온 편지이다.

## 진정한 성취감 맛봤죠

제6호 태풍 디앤무가 북상하는 즈음 우리들은 한 달 전 모두가 함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장면 하옥리의 전영수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마을 입구부터 비포장 도로인 이곳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지마을로 소문이 나 있는 전형적인 촌이다.

올해로 84세인 전영수 할아버지 댁에는 노부부가 일가 친척 없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생활하고 계신다. 지난 5월 15일 우리들은 잠시 문안을 드리려고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다가오는 장마철, 부엌 담장과 바닥 침수가 우려된다고 많은 걱정을 하셨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 들을 수 없어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털썩 약속을 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작업인원 동원이었다. 결국 개별적으로 참가를 설득해 16명이 토요일 휴무일을 할애, 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드디어 약속한 6월 19일, 우리들은 좋은 날씨를 기대하며 차량에 올랐다. 그러나 조금씩 내리던 비는 작업이 한창인 즈음에는 많은 비바람과 함께 우리를 매섭게 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는 태풍 디앤무를 이겨 내며 담장의 패널을 세우고 주방바닥을 말끔히 마무리하며 작업을 마쳤다. 이마에 흐르는 빗물과 시원한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우리들은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그제서야 깨달았다.



김문영 포항 3연주공장

이 글은 2004년 6월 봉사활동에 참여한 포항 3연주공장 김문영 주임이 포스코신문에 보내온 기고문이다.

# 웃음 가득한 세상, 마음이 풍요로운 세상

금 난 새 | 유리시안 필하모닉 음악감독



##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제가 포스코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1999년 12월 31일의 제야음악회였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지요.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빌딩로비가 장엄한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문화의 전당으로 변신했으니까요. 이어 쏟아진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와 환호. 청중들의 표정도 연주회의 감격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더군요. 저와 단원들은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쇠와 불로 상징되던 경직된 기업 이미지를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어 가던 중이었고 문화와 예술이 그러한 기업 이미지 변화에 크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의 전통에 안주하기보다는 우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값진 일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저로 하여금 포스코를 향해 참으로 많은 제안을 하게 만들었지요. 포스코의 로비를 매월 한 차례씩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꾸며 보자는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서울뿐만이 아니라 포항과 광양에서도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지방에서도 교향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회에 청중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연주자들이 직접 청중을 찾아가서 클래식음악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로 2년째 계속되고 있는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이 탄생하였지요. 대학생과 교수, 지역주민들이 캠퍼스에 모여 교향악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여행하는 멋진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각지의 대학을 지역사회의 문화중심으로 탈바꿈시키고 평소 클래식음악을 접하기 힘든 분들께 고급문화를 경험할 값진 기회를 선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멋진 프로젝트들이 모두 포스코의 협력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이제 포스코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느껴온 점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 글을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네요. 엉뚱해 보일 수도 있을 상대의 제안을 기겁게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 그리고 한번 결정한 일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단성. 이 두 가지야말로 포스코의 큰 강점이자 미덕이라고 꼭 얘기하고 싶군요. 이런 미덕이 없었다면 포스코와 함께 펼쳐온 멋진 일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바꾸고 있는 멋진 기업 포스코에 박수를 보냅니다.

## 문화예술

### :: 개요

포스코는 문화와 예술 부문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 왔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주로 사업장이 있는 포항, 광양, 서울에 전문 공연장과 전시관을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행사를 후원하는 형태로 추진해 왔다.

포항에서는 1980년 효자아트홀을 개관해 품격 높은 음악회, 연극, 뮤지컬,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우수한 영화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1992년 포항 본사에 포스코갤러리를 개설해 지역주민들에게 회화, 서예, 사진, 도예 등의 예술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광양에서는 1992년 백운아트홀을 개관해 포항의 효자아트홀과 포스코갤러리가 가진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했다.

서울에서는 1995년 포스코센터에 서관 아트홀과 포스코갤러리를 개관했다. 서관아트홀은 주로 영화를 상영했고, 포스코 갤러리는 1998년 문화관광부에 포스코미술관으로 정식 등록되어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와 더불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월요 아카데미라는 미술강좌를 운영해 왔다.

이어 2000년부터는 포스코센터 로비에서 매월 한 차례씩 클래식, 뮤지컬, 재즈, 대중음악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2003년에는 중국에서 포스코의 밤을 개최했으며, 2004년 5월부터는 전국 대학을 찾아가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05년 9월부터는 장단역 증기기관차 복원 및 보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2004년부터는 포항국제불빛축제와 광양만대축제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중앙미술대전과 빛고을-광주 루미나리에(Luminarie) 행사 같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를 후원했다. 2003년에는 90건에 13억 7995만 원, 2004년에는 74건에 26억 5490만 원, 2005년에는 99건에 41억 1779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메세나 활동을 전개한 결과, 포스코는 2005년 메세나대상(문화훈장)을 받았다.

### :: 메세나 활동



도심 문화행사로 인기가 높은 포스코센터 음악회

#### 2005년도 메세나 대상 수상

포스코는 메세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5년 메세나 대상을 받았다.

한국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주)와 매일경제신문(회장 장대환)이 공동 주관한 2005년 메세나 대상은 2004년까지는 대통령 표창으로 시상됐으나 2005년부터 문화훈장으로 승격됐으며, 그 첫 수상자로 이구택 회장이 선정돼 2005년 11월 16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훈장은 인도 출장 중이던 이구택 회장을 대신해 강창오 사장이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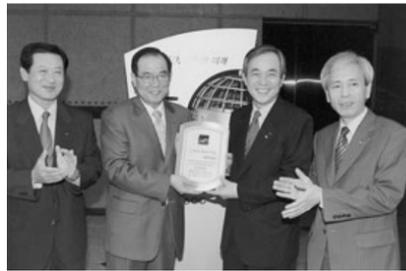
포스코는 1980년부터 포항제철소가 있는 포항에 효자아트홀을 건립해 지역사회 문

화·예술의 장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메세나 활동에 나섰으며, 1992년부터는 포스코갤러리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1992년에는 광양지역에도 백운아트홀을 개관하면서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포스코센터에서는 1995년 포스코미술관을 개관해 운영해 왔고, 2000년부터 포스코센터 음악회를 개최해 클래식 연주회는 물론 전통음악, 재즈, 대중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쳐 왔다. 2004년 5월부터는 포스코의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을 개최해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으로 관심을 모았다.

### 2004년도 6월 메세나 우수기업으로 선정

한국메세나협의회는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인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포스코를 2004년도 6월의 메세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2004년 6월 30일 포스코센터에서 박성용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이 이구택 회장에게 6월의 메세나 우수기업 명패를 전달했다.



이구택 회장이 박성용 메세나협회 회장으로부터 우수기업 명패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만 부사장, 박성용 메세나협회 회장, 이구택 회장, 김진수 매일경제 전무.

### :: 포스코센터

#### 도심 음악회의 상징, 포스코센터 음악회 개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아트리움은 매월 한 차례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무료로 개방하는 포스코센터 음악회는 국내 기업 중 사옥 로비에서 열리는 유일한 정기 음악회다.

포스코는 1999년 12월 포스코센터 1층 로비 아트리움에서 유라시안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밀레니엄 제야 음악회를 개최한 후 2000년 1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포스코센터 음악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도심 문화행사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포스코센터 음악회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99년부터 2005년 6월까지 7년간 76회 공연에 8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2004년 7월 24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윤도현 밴드 콘서트 공연 모습

첫 해인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회, 2002년 차이코프스키 페스티벌에 이어 2003년에는 아름다운 선율의 브람스와 모차르트 음악이 두 달에 한 번씩 연주됐다. 이 밖에 1월 18일 비틀즈 페스티벌을 비롯해 스프링 콘서트(3월), 포크 페스티벌(5월), 캐나다인 브라스(7월), 강산에 콘서트(9월), 빅3 콘서트(11월)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층과 중장년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2003년 한 해 동안 포스코센터 로비를 가득 채웠다. 2003년 관람객은 모두 1만 2757명이었다.

2004년 클래식 분야에서는 유라시안 필하모닉의 심포니 페스티벌이 두 달에 한 번씩 연주됐다. 비클래식 분야에서는 신년음악회(1월), 포크 콘서트(3월), 한영애의 문화한 페이지(5월), 윤도현 밴드 콘서트(7월), 언플러그드 콘서트(9월), 조인트 콘서트(11월) 등이 연주됐다.

2004년 포스코센터 음악회는 모두 1만 4826명이 관람했다. 비클래식 분야에서는 7월 24일 열린 윤도현밴드 공연에 1620명이 찾아와 연중 최고 인원을 기록했으며, 클래식 부문에서는 12월 18일 열린 송년음악회에 가장 많은 1160명이 찾아왔다.

2005년 포스코센터 음악회는 신영옥 & 서울바로크합주단의 신년음악회로 그 막을 열었다. 클래식 공연은 비발디의 '사계'를 테마로 해 3월 내 마음에 담은 봄, 5월 여름으로 가는 기차, 9월 가을회상, 12월 겨울소나타로 기획·진행해 클래식 마니아들에게 좋은 평을 들었다.

또한 4월 윤희정의 재즈 콘서트, 6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7월 한일 수교 40주년 기념 소지로와 장사익의 삶과 꿈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장르의 다변화를 시도해 큰 인기를 얻었다. 2005년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공연은 8월 비·신화의 파워 콘서트였다. 이 밖에도 2월 이문세 콘서트, 11월 동창회 콘서트 7080 등을 기획해 직원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2005년 관람객은 1만 2722명이었다.

2006년 포스코센터 음악회는 1월 21일 '빈 소년 합창단'의 신년음악회로 막을 열었다. 2월 18일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중앙국악관현악단이 '마음을 울리는 소리'라는 타이틀로 신명 나는 한국 소리를 들려 줬다. 3월 25일에는 라이브 가수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승환 씨가 '꿈꾸는 콘서트'란 주제로 열정과 젊음을 선사했으며, 4월 22일에는 금난새 & 유라시안 필하모닉이 피아니스트 김혜정과 함께 봄의 교향악 축제



2005년 8월 20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비·신화 파워콘서트 공연 모습

를 펼쳤다.

5월 27일에는 저명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인 케빈 کن이 3년 만에 내한해 '모어 댄 워즈(More than Words)'란 타이틀로 뉴에이지 음악의 진수를 들려 줬으며, 6월 17일에는 김현철과 프렌즈(Friends)의 키즈팝 콘서트가 열렸다. 2006년 상반기 포스코센터 음악회 관람객은 모두 4564명이었다.

### 포스코센터 음악회, 중국 순회공연으로 한중 문화교류 증진

포스코는 2000년 이후 호평을 받아 온 포스코센터 음악회의 무대를 해외로까지 확대해 2003년 4월 중국에서 포스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중국에서 포스코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 중국 지역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해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중국공연을 협찬한 것이었다.

포스코의 후원으로 진행된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의 중국공연은 2003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베이징, 톈진, 상하이, 항저우 등 4개 지역에서 펼쳐졌다. 이 공연은 금난새 씨가 지휘하는 한국의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중국이 자랑하는 베이징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합동으로 연주했다. 또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헬렌 황과 공상동이 출연해 베토벤 협주곡과 모차르트 연주곡을 협연했다.

### 포스코센터 서관 아트홀 운영

포스코는 1995년 9월 1일 포스코센터를 개관하면서 서관 4층에 아트홀을 마련해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포스코센터 인근 주민들에게 영화 등의 문화행사 관람 기회를 제공해 왔다.

포스코센터 서관 아트홀에서는 2003년 '해리포터'를 비롯해 총 13편의 영화를 45일간 상영했으며, 1만 5800명이 관람했다. 2004년에는 '매트릭스3'를 비롯해 총 13편의 영화를 49일간 상영했으며, 1만 6260명이 관람했다. 2005년에는 '오페라의 유령'을 비롯해 총 12편의 영화를 48일간 상영했으며, 1만 6100명이 관람했다. 2006년 상반기에는 '해리포터와 불의 칼'을 비롯해 총 6편의 영화를 24일간 상영했으며, 총 7690명이 관람했다.

### 포스코미술관 운영

포스코미술관은 포스코센터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 강남 유일의 기업 미술관이다. 그동안 포스코센터에 설치된 백남준의 'TV 깔때기', 프랭크 스텔라의 '꽃이 피는 구조물 아마벨', 김창렬의 '물방울' 등 다양한 조각과 회화, 설치미술과 어울려 포스코센터 입주사 임직원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의 향기를 전해 왔다.

2005년 개관 10주년을 맞은 포스코미술관은 문턱이 낮은 미술관을 지향하며 예술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으며, 지금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전시하고 싶은 곳으로, 예술과 문화에 목마른 직장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로 자리잡았다.

포스코 미술관은 158평의 전시실과 수장고, 자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660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또 포스코 미술관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6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뿐 아니라 포스코센터 입주사 임직원과 지역주민에게 미술과 예술·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저명한 미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술교육 프로그램인 월요아카데미를 운영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 미술관에서는 2003년 5월에 열린 동양화 파라디소(Paradiso)전을 비롯해 회화, 설치, 서예, 자수, 복합 분야에서 총 14회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1만 6596명이 관람했다. 2004년에는 2월에 열린 호주 원주민 미술전을 비롯해 회화, 조각, 설치, 멀티미디어, 디자인, 공예 분야에서 총 10회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1만 3607명이 다녀갔다.

2005년에는 주된 관람객이 2, 30대 직장인들인 점을 감안해 작품 전시 키워드를 참여와 소통으로 정해 운영했다. 2005년에는 10월에 열린 IISI-39 서울총회 기념 특별전 한국풍을 비롯해 회화, 영상, 섬유, 설치, 조각, 회화, 도예 분야에서 총 13회의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1만 6584명이 관람했다. 2006년 상반기에는 2월에 열린 최옥자 닥종이 인형전을 비롯해 회화, 닥종이인형, 사진, 설치, 도자기 분야에서 6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포스코미술관에서 전시된 김태중 개인전 Thirty Three

### 문화행사 관람권 신청을 인터넷으로

포스코는 서울 포스코센터, 포항 효자아트홀,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의 무료 관람권을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추천한 후 우송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했다.

포스코센터는 2000년부터, 광양제철소는 2002년 11월부터 인터넷으로 공연 관람 신청을 받았으며, 포항제철소는 2003년 5월 1일 온라인 공연관람 신청시스템을 가동했다. 종전에는 부서별로 유관단체나 자매마을 등에 일정량의 초대권을 배포했으나 많은 주민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 포스코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개최

포스코는 대학과 대학 인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을 기획해 2004년 5월부터 전국 각 대학을 순회하며 개최해 오고 있다. 2004년에는 성균관대를 비롯한 5개 대학, 2005년에는 고려대를 비롯한 9개 대학, 2006년 상반기에는 전남대를 비롯한 6개 대학에서 개최했다.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은 음악을 통해 기업과 대학, 일반인과의 만남을 활성화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으며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휘자 금난새 씨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돼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으며, 대학을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대학교 재학생, 교직원, 동문, 인근 주민뿐 아니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한데 아우르며, 매회 지정석은 물론 보조석까지 가득 메우는 성황을 이어 왔다.

2004년도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은 5월 18일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한양대(9월 14일), 경희대(10월 19일), 숙명여대(11월 3일), 포항공대(12월 2일)를 순회하며 5회 개최됐으며, 모두 4880여 명이 관람했다. 특히 포항공대에서는 좌석 수보다 300여 명이 많은 15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고려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열린 포스코 심포니 페스티벌

2005년도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은 고려대(3월 9일), 아주대(4월 11일), 연세대(5월 10일), 계명대(6월 3일), 이화여대(9월 7일), 한국교원대(9월 27일), 한림대(10월 26일), 서울산업대(11월 17일), 서울시립대(11월 29일) 등 9회에 걸쳐 9850여 명의 관객에게 유라시안 필하모닉 지휘자 금난새 씨의 위트 넘치는 해설과 단원들의 성숙한 연주로 웅장한 감동을 선사했다.

2005년에는 교향곡 1곡과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소재로 한 협주곡 1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2005년 첫 공연으로 열린 고려대 개교 100주년 기념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은 신입생 환영회로 공연을 진행했는데, 좌석 예매가 하루 만에 매진된 데 이어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기립박수로 환호하는 등 성황리에 공연을 마무리했다.

2006년도에는 문화 혜택이 적은 중소도시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을 열고, 프로그램도 더욱 발전적으로 구성해 테마가 있는 음악회로 기획했다. 상반기에는 전남대(3월 9일), 중앙대(3월 16일), 한국외국어대(4월 18일), 가톨릭대(4월 28일), 대구대(5월 19일), 한국산업기술대(5월 31일) 등 6개 대학에서 열었고, 5300여 명이 관람했다. 5월 19일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구대 행사에는 사상 최대인 1810여 명이 관람했다.

### :: 포항지역

#### 포항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은 포항국제불빛축제 주관

포스코는 포항시가 주최하는 포항국제불빛축제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주관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참관함으로써 포항시민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했으며, 관광객들에게 불과 빛의 도시 포항을 널리 알렸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발생시켰다. 한동대학은 64만여 명이 참관한 2005년도 불빛축제가 15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같은 해 6월 22일 발표했다.



2006년도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첫 공연이 전남대에서 열렸다.



2005년 포항불빛축제의 하이라이트. 영일만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한중일 3국의 연화를 다중 촬영한 모습

2004년 포항불빛축제는 포항시 북구 항구동 북부해수욕장 일원에서 6월 12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여에 걸쳐 열렸으며, 포항시민과 부산, 대구 등에서 온 관광객 등 30여만 명이 참관했다. 정상식 포항시장은 불빛축제로 시민화합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컸다고 평가하며 포스코의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제2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2005년 6월 11일 열렸으며, 포항시민과 관광객 등 64만여 명이 참관했다. 제2회 불꽃축제는 제1회 축제와는 달리 중국, 일본 등의 세계적 연화행사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 행사로 열렸으며, 포스코가 주관하고 대아고속해운, 삼일가족, 포항상공회의소, 현대INI스틸, 동국제강, 동양가족 등이 동참해 명실공히 지역화합의 대축전으로 자리잡았다.

정상식 포항시장은 2005년 7월 27일 포스코센터를 방문해 2005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포항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준 이구택 회장에게 51만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정 시장은 포스코가 6월 11일 제2회 포항시민의 날을 기념해 포항불빛축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빛과 희망의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전국에 알린 것은 물론 포항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제3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2006년 6월 10일 개최됐으며, 70여만 명이 참관했다. 제3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포스코가 주관하고 포항상공회의소와 대아고속해운, 삼일가족, 현대제철, 동양가족, 동국제강, 대구은행 등이 함께 참가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북부해수욕장 앞바다에 마련된 10대의 바지선에서 7만여 발의 폭죽이 300~400m 높이로 치솟은 후 끊임없이 터지면서 행사장을 찾은 70만여 명의 관객을 벅찬 감동과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다. 2006년 포항국제불빛축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아시아 3개국과 함께 유럽에서 새롭게 참가한 스웨덴 연화팀이 새로운 볼거리를 더해 주었고 음악과 불빛, 레이저와 조명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려한 멀티쇼를 연출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성황리에 끝나자 이를 소재로 한 TV 광고를 제작해 2005년 7월 9일부터 방영했다. Fe-Festival 편은 불빛축제의 모습과 함께 Fe(철의 원소기호)가 만들어 내는 Festival(축제)이라는 단어를 보여 줬다. 또한 포스코는 2006 포항국제불빛축제를 기념해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지부장 류영재), 포항시와 함께 제1회 포항·포스코 불빛미술대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 효자아트홀 운영

포스코는 포항 지역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해 1980년 2월 27일 지하 2층 지상 4층, 건평 811평 규모의 효자 아트홀을 개관했다. 좌석은 개관 당시 888석이었으나 2004년 6월 장애우석을 마련하면서 882석으로 줄어들었다. 효자아트홀은 개관 이후 품격 높은 음악회, 연극, 뮤지컬,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우수한 영화를 직원과 직원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다. 효자아트홀은 개관 이후 총 331건의 공연을 개최했으며, 51만 6108명이 관람했다. 영화는 273편을 상영했으며, 327만 4287명이 관람했다. 이 밖에 기타행사는 598건을 개최했으며, 97만 3554명이 참여했다.

2003년에는 오페라·악극·발레·퍼포먼스·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효자아트홀에 올렸고, 인기가수 콘서트와 유라시안 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연주회를 개최했다. 2003년에는 총 10개 분야에서 23건의 문화행사를 개최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공연된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 모험과 환상의 나라로 떠나오

했고 3만 2108명이 관람했다.

2004년에는 포항시립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창립 36주년 기념 음악회,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유라시안필하모니의 연주회 등 7개 분야에서 총 17건의 문화행사를 개최했고 총 4만 3651명이 관람했다.

2005년에는 러시아 국립발레단·세종솔로이스츠 등 외국의 우수한 예술단을 초청해 공연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매직브롬·오즈의 마법사 등 이벤트 공연도 다수 개최했다. 2005년에는 클래식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총 21건의 문화행사를 개최했고 4만 7671명이 관람했다. 2005년에는 3월 한 달 동안 효자아트홀의 내부시설 보완공사를 마치고 4월 8일 창립 37주년 기념연주회를 가졌다.

2006년 상반기에는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 한국배우연극협회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등 5개 분야에서 6건의 문화행사를 개최했고 4790명이 관람했다. 2006년 3월에는 '휴일 지정 좌석제'를 도입했으며, 6월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공연장을 무료로 빌려 주는 정기대관제도를 도입해 6월 20일 한국국악협회 포항지부에서 준비한 국악 '창포물에 머리감고'를 '효자아트홀 화요상설무대'의 첫 작품으로 올렸다.

효자아트홀에서는 영화도 상영했는데, 2003년에는 '니모를 찾아서'를 비롯한 12건에 17만 4942명이 관람했고 2004년에는 '실미도'를 비롯한 11건에 19만 3610명이 관람했다. 2005년에는 '말아톤'을 비롯한 11건에 19만 830명이 관람했고, 2006년 상반기에는 '킹콩'을 비롯한 6건에 7만 6340명이 관람했다.

이 밖에 효자아트홀은 1990년부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단체나 학교, 언론기관, 공공단체 등에 홀을 무료로 빌려 줘 왔는데, 2003년 극단 은하를 비롯해 11회, 2004년 울산대학교를 비롯해 26회, 2005년 CBS포항을 비롯해 17회, 2006년 상반기 포항 MBC를 비롯해 10회 대관했다.

### 포스코갤러리 운영

포스코 갤러리는 포스코 본사 2층에 설치된 전시공간으로, 1992년 4월 개관했다. 포스코갤러리는 2004년 12월 본사 비즈니스홀 설치에 맞추어 리모델링에 들어가 벽면과 바닥, 조명 등을 완전히 개선함으로써 전문 갤러리로 탈바꿈



포스코갤러리에서 개최된 포항에서 활동 중인 토속적 구상주의 최고봉 초현 장두건 화백의 미수 기념전

했다. 포스코갤러리의 총 전시면적은 274평으로 최대 100점까지(50호 기준) 전시가 가능하다.

포스코갤러리는 포스코 임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상설 전시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창작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작가와 국내외 유명작가를 초청해 연 평균 20회씩 총 285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초기에는 회사 동호인 그룹 위주로 월 1~2회의 전시회를 갖는 정도였으나 1995년부터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개방되면서 전시회의 수준도 점차 향상되고 규모도 전국적인 전시회로 발전했다.

2003년 포스코갤러리에서는 '지중해 2003 사과전', 젊은 사진가전 '무표준 좌표' 등 25회의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2004년에는 '봄의 서정전', '영일만 서예대전 초대작가전' 등 19회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2005년에는 '여섯 빛깔의 하모니전', '눈으로 그린 풍경전', '포항의 어제와 오늘(1960~2005)', '소멸의 미학' 등 25회의 다양한 회화와 사진, 서예와 도자기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2006 청년작가 시대와 정신전'을 비롯해 10회의 전시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했다. 2006년에는 포항제철소 주관으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포스코갤러리에서 '어린이 컬러 체험교실'을 운영해 포항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미술 세계를 선보이기도 했다.

## :: 광양지역

### 백운아트홀 운영

포스코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광양 주재 임직원과 광양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7월 14일 백운아트홀을 개관했다.

백운아트홀은 대지 5800여 평, 건축 연면적 1400여 평에 객석 1088석을 갖춘 첨단 공연장이다. 백운아트홀은 개관 이래 지방 중소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품격 높은 순수예술 공연(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회, 연극 뮤지컬, 무용, 국악)과 대중음악 공



백운아트홀 모습



러시아 볼쇼이합창단 모습

연, 영화 상영, 교양 강좌, 전시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해 연중 무료로 제공해 왔다.

또한 백운아트홀은 광양연극협회, 순천시립합창단, 광양음악협회, 광주현대무용단 등 지역 문화 단체의 공연을 꾸준히 올려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며, 공연 입장권의 50%를 지역주민과 자매마을, 복지단체 등에 배정했다.

2003년 백운아트홀에서는, 김덕수와 한울림예술단의 다이나믹 코리아 초청공연, 안치환과 자유콘서트, 송년음악회 등 43건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했으며, 36만여 명이 관람했다. 백운아트홀은 2003년에 들어서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주말 공연을 늘렸으며, 9월부터는 관람객에게 로비를 개방해 공연 전 대기 시간을 없앴다.

2004년에는 뮤지컬 명성황후 등 45건의 문화행사를 개최했으며, 총 34만 9730명이 관람했다. 한편, 백운아트홀은 2005년 4월 1일 4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아 전남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400만 번째 입장한 주인공은 포스코 창립기념 음악회를 보러 온 광양시 중마동의 방승희 씨로, 방 씨는 꽃다발과 선물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2005년에는 금난새의 신년음악회, 중국 광서기예단과 한국 동춘서커스에스레단 초청공연,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 볼쇼이 합창단 공연, 이승철의 송년 콘서트 등 48건의 문화행사를 개최했으며, 총 33만 3573명이 관람했다.

2006년 상반기에는 봄의 소리 교향악 축제, 리틀엔젤스예술단 공연을 비롯하여 22건을 공연했으며, 총 15만 2187명이 관람했다.

이 밖에 광양제철소는 광양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에 백운아트홀을 무료로 대여해 줬으며, 교양강좌를 비롯해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47회의 시민을 위한 행사를 지원했다.

### 광양제철소, 광양만 대축제 적극 지원

광양시가 주최하고, 포스코가 주관한 제11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 철강과 항만의 도시, 광양만 대축제가 2005년 10월 8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지역주민 4만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광양의 밤을 빛의 향연장으로 물들게 한 멀티 레이저 쇼와 광양사랑 슈퍼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광양을 비롯한

순천, 여수, 남해, 하동 등 광양만권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 축제의 장으로 승화됐다. 특히 이날 30분간 펼쳐진 멀티 레이저 쇼는 철강과 항만의 도시 광양을 상징하는 빛을 소재로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탄생, 철강과 항만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이미지를 스토리 형식으로 전개해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에 앞서 열린 광양사랑 슈퍼 콘서트에 동방신기와 주얼리를 비롯해 김장훈, 태진아, 주현미, 이선희 등이 출연해 광양시민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광양제철소는 광양만 대축제 추진준비위원회와 함께 철강과 항만의 도시인 광양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행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했다.

### 광양제철소, 광양 시민의 날 한마음 축제 가요무대 등 행사 후원

광양제철소가 14만 광양시민의 화합과 단결의 축제 한마당인 제10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광양 지역 대표 기업의 이미지를 드높였다.

광양제철소가 후원하고 광양시와 KBS순천방송국이 주관한 가요무대 공연(10월 6일)은 송대관, 김수희, 현철 등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연출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웠다. 이 밖에도 10월 2일부터 10일간 광양시 곳곳에서 펼쳐진 2004년 광양예술제에서는 국악, 연극, 음악회를 비롯해 사진, 서각, 분재, 꽃꽂이 전시회 등 다양하고 풍부한 볼거리가 제공됐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생, 백일장 등 경연대회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10월 8일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포스코 유상부 상임고문과 광양항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주한 미군의 리처드 J. 크레이머 중령이 명예시민증과 함께 기념배지를 받았다. 아울러 매실 명인 홍쌍리(광양시 다압면)씨가 매실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시민상을 받았다.

동광양시와 광양군 통합을 이룬 1995년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 이후 10회째를 맞은 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지역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로 발전했다.



제11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2005년 10월 8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광양제철소는 제10회 광양시민의 날을 맞아 KBS순천방송국이 주관한 가요무대 공연을 후원,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웠다.

## :: 포스코역사관

### 포스코역사관 운영

포스코는 2003년 7월 3일 회사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관을 개관했다. 지상 3층, 연면적 1100평, 전시면적 600평 규모의 포스코 역사관은 포스코의 성공 역사와 정신, 기업문화와 경쟁력, 비전을 주된 전시 테마로 삼고 있다.

포스코역사관은 타원형의 형상에 철과 유리를 적절히 사용해 철의 유연함과 스마트함을 최대로 살린, 부드럽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건설함으로써 주변 구성물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인 건물로 준공됐다. 또 야외에서 2층 주전시관으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견학 동선을 최대한 줄였다. 그 결과 포스코역사관은 '스페이스', '아이디얼', '아키월드' 등의 건축 전문지로부터 건축학적으로 우수한 구조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포스코역사관의 전시공간은 방문객들에게 포스코의 역동적인 성공 역사를 차분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포스코의 정신과 기업문화 등을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역사관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제철역사 등을 소개하는 창업전사에서 시작해 포스코 발전사, 세계 속의 포스코, 포스코를 만들어 온 사람들을 소개하는 창의관과 청암관, 영상관, 야외전시장 등 방문객들이 철과 포스코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돼 있다.

전시된 사료는 국내 최초로 용광로에 불을 지핀 화입봉, 부실공사로 폭파 해체한 포항 3기 발전송풍설비 기초 콘크리트 파편, 초기 제북, 각종 기념물 등 모두 850여 점에 이른다. 특히 제철소 건설 초기 '롬멜하우스'라 불리며 모래바람 속에서 임직원들과 애환을 함께 했던 건설사무소가 실물 그대로 복원돼 있다.

### 포스코역사관 개관 3돌, 철강역사의 산 교육현장

포스코역사관이 2006년 7월 3일 개관 3돌을 맞았다. 개관 후 3년 동안에 포스코역사관은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찾는 지역사회의 명소로 변신했다.

2003년에는 3만 9098명, 2004년에는 9만 2103명, 2005년에는 9만 9787명, 2006년 상반기에는 4만 9764명이 포스코역사관을 방문했다. 누계관람객은 28만 752명



2003년 7월 개관한 포스코역사관

이고, 이 중 외국인은 8882명이었다. 또 방문객 중에는 벤치마킹을 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다. 국정홍보처와 국립민속박물관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단체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포스코역사관을 둘러보고 시설물과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했다.

포스코역사관은 포스코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2만 3000여 점의 각종 사료를 소장하고 있어 관련 연구자들에게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7월 3일 개관된 포스코역사관은 2004년엔 경상북도 1호 전문사립박물관으로 등록됐다. 2005년에는 역사관이 소장 중인 옛 삼화제철소 고로가 문화관광부 등록문화재 217호로 등재됐다.

## :: 기타

### 철제 문화재 보존으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동참

포스코는 2005년 9월 14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장단역 증기기관차 앞에서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고 철제 문화재 보존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단역 증기기관차는 길이 15m, 폭 3.5m, 높이 4m에 이르는 한국 근대 문화유산 78호로, 한국전쟁 발발로 멈춰 선 이래 55년간 야외에 방치돼 있어 보존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기금을 출연, 과거 민족분단의 상징이었던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국민들에게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부식예방 처리 등 철저한 보존작업을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주관 아래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계기로 제철기술과 연계된 철제 문화재 보존활동 지원, 철제 문화재를 활용한 기업 이미지 제고와 문화 마케팅 활동 전개, 사회봉사 활동과 연계한 문화재보호 활동의 확산 등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선 제철기술과 연계된 철제 문화재 보존 활동의 일환으로 장단역 증기기관차 보존작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철·동종, 철물 등 철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술지



포스코는 2005년 9월 14일 장단역에서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유홍준 문화재청장(오른쪽)이 강창오 사장에게 위촉패를 전달하는 모습



제28회 중앙미술대전 개막식에서 관계자들이 수상작을 감상하고 있다.



포스코가 주최한 제 18회 쇯물백일장이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원, 전국에 산재한 철제 문화재 발굴과 보존 방안 수립, 현존 유물 중 가장 오래된 대형 철구조물인 당간 모양의 깃발 게양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25회 ~ 제28회 중앙미술대전 후원

포스코는 젊은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미술대전을 후원해 오고 있다. 1978년 국내 최초의 민전으로 시작한 중앙미술대전은 역량 있는 신인작가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국내 최정상급의 공모전이다.

제25회 중앙미술대전은 2003년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에서 열렸다. 평면과 입체 부문으로 나뉜 작품을 공모한 제25회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은 평면 부문에 응모한 이지송 씨의 '언스포큰(Unspoken)' 이 차지했다.

제26회 중앙미술대전은 2004년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에서 열렸다. 제26회 중앙미술대전에서는 매체·평면·입체 부문으로 나뉜 작품을 공모했는데, 대상은 매체 부문에 응모한 홍정표 씨의 '미술이란(Art Is)' 이 차지했다.

제27회 중앙미술대전은 2005년 7월 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26회와 마찬가지로 매체·평면·입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제27회 미술대전에서 대상은 매체 부문에 응모한 김태은 씨의 '풍경시소' 가 뽑혔다.

제28회 중앙미술대전은 2006년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다. 2006년은 전년도의 시디롬 심사에서, 작품 자체와 작가의 제작의도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입체 부문에 응모한 이희명 씨의 '떠드는 정원(Talking Garden)' 이 선정됐다. 대상작 '떠드는 정원(Talking Garden)' 은 동화어나 나올 법한 괴기한 식물이 가득한 입체물이다.

### 쇯물백일장 성황

제18회 쇯물백일장이 2005년 4월 9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포스코가 주최한 이번 쇯물백일장은 일반부를 비롯해 초·중·고등학생별로 시·산문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모두 2300여 명이 참가해 문재를 겨뤘다.

심사 결과, 시·산문 부문별 최우수상 8명을 포함해 모두 30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

았다. 시상식은 4월 30일 포스코 포항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포스코 관계자와 김일광 포항문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쇯물백일장은 포스코 창립 기념 행사의 하나로 매년 열린다.

### 빛고을 광주 루미나리에 참가

포스코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06 빛고을 광주 루미나리에(Luminarie) 행사에 참여, 광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포스코를 알렸다. 2006년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29일간 남도의 밤하늘을 밝힌 빛의 축제 '루미나리에'는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화해의 빛·희망의 빛·나눔의 빛을 주제로 구전남도청 앞 광장과 충장로 1~3가, 상무신도심 광주시청 앞 미관 광장에서 열렸다.

포스코는 광주시 루미나리에 행사장에 설치된 빛의 조형물에 포스코 로고(Visual Identity)를 부착,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어둠의 공포에 맞서 기쁨과 안전을 상징하는 희망의 불빛을 선사했다.



광주광역시의 구전남도청 앞 로터리 분수대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 기업의 지원으로 꽃 피우는 예술

일본이 낳은 세계적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가 미국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큰 성공을 거두고 세계적인 지휘자의 대열에 서게 된 배경에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교민사회와 기업들의 후원이 있었다.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연주회의 티켓은 일본 교민들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입함으로써 언제나 입장권이 매진되었다고 한다.

물론 지휘자로서의 세이지 오자와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지만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입장권이 매진되니 재정에 크게 도움 되고 일본 관련 기업들이 많은 후원을 하니 또한 혼자 공연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이지 오자와에게 계속 지휘를 의뢰하였고 세이지 오자와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 예술가 또는 공연단체가 기업이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예술세계를 확고하게 구축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프로그램에는 이 오페라 제작은 누구의 도움으로 제작되었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 이것은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을 대표하는 오페라단의 제작비를 전액 후원함으로써 많은 오페라 애호가들이 수준 높은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예이기도 하다.

서양음악의 발상지인 유럽의 경우에도 교회에서 또는 귀족들이 예술가들을 지원했고 또 근년에 와서는 국가가 그 역할을 맡아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은 국가의 지원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미국의 예술계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제작비가 많이 드는 공연에 광고협찬이라는 명목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의 저력 있는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가졌으면 한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교향악단이나 오페라단의 수준을 통하여 자국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음악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음악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제는 기업들이 가능성 있는 음악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음악단체를 만들어 내야 한다.

포스코의 후원으로 대학을 순회하며 열리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은 아주 훌륭한 예술지원이라 하겠다. 이 연주회를 참관하는 대학생들은 철강기업 포스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후원을 받고 연주하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능력도 많이 향상될 것이다.

이미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모두가 언급했듯이 문화의 세기에 꽃 피울 한국의 예술계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2004년 9월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을 참관한 박수길한양대 교수가 보내온 기고문이다.



박수길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장

## 불빛축제, 정말 고맙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 윤태용 회장(59)은 “아마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 같아요. 지역 홍보는 물론 경제적 수익도 상당했습니다.”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띠었다.

윤 회장은 포항국제불빛축제가 2004년에 시작해 3년이란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넘어 전국 축제로 발돋움한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두 번의 불꽃축제를 치르면서 상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은 큰 자산이라고 했다.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됐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불빛축제를 계기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 불꽃처럼 계속해서 번성했으면 좋겠다는 속내도 털어놓았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포스코를 비롯해 참가 기업체와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 큰 사고 없이 마치게 된 것에 상가를 대표해 고맙게 생각한다 밝혔다.

윤 회장은 “다만 모든 행사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무척 아쉽다.”고 말하고, “행사 당일 하루 매출액이 한 달 매출액과 맞먹을 정도로 특수를 누립니다.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바가지 상술을 근절하자고 충분히 논의했지만 일부 업소로 인해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아쉬움이 듭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빛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며 이에 따른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2006년 6월 포스코신문이 게재한 포항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 윤태용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극단 백운무대의 신들린 연기, 지역사회에 감동·활력 ‘충전’

2005년 4월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에서는 연극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가 공연됐다. 퇴역 배우의 소외와 애환을 감동적으로 다루었던 까닭인지 관객은 환호와 열광을 주체하지 못했다. 재미와 교훈, 그 일깨움의 맛에 젖어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연극은 극단 ‘백운무대’ 단원들이 출연했는데, 백운무대 단원들은 포스코 직원이 주를 이룬다. 이 때문인지 ‘가정을 지켜라! 직장을 지켜라! 백운무대를 지켜라! 연극을 하면서 회사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가 백운무대 단원들의 기본 규범이다. 이를 위해 단원들은 두세 배의 노력과 치밀한 근무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포스코 고유의 3교대 근무 구조로 인해 총체적으로 호흡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매번 대타를 놓고 상호 연기호흡을 맞춰야 한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은 이전에 비하면 약과다. 1991년 무렵 학교의 빈 교실에서 연습하다가 쫓겨나기가 다반사였고, 공연 막바지엔 주유소 뒷동산에 등불을 켜 놓고 비바람 맞아 가며 연습을 해야 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지만 직장인인 동시에 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찌 피곤하지 않을까?

직장 부서의 체계적인 근무 구조, 퇴근 이후의 보완 미팅, 극단 경영 과정 등에서 터지는 틈새는 주축 멤버들이 메우고 있는데 이들은 시간만 나면 집에서도 전화기를 붙들고 연습 일정을 챙기거나, 단원들 독려에 정신 없다. 아내들의 협조와 헌신도 눈물겹다.

그 결과 백운무대는 일취월장을 거듭, 지역문화의 저변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간 백운무대는 긴장과 추적의 묘미,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낸 ‘독 안에 든 고양이’, 한 많은 우리네 여인의 질곡과 비틀린 사연을 서정성 넘치는 풍경으로 승화시킨 ‘그 여자의 소설’, 그리고 표현주의 공연 코드로 관객을 압도한 ‘이’ 등 걸출한 명작을 탄생시켰다.

또 전국연극제, 전남연극제 등에서 다수의 연출상, 연기상, 예술상 등의 수상 결실을 맺어 나가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목마름을 해결해 준 또 다른 공로자는 백운아트홀이다.

질 좋은 공연·예술작품을 기획, 유치하는 일부터 탁월한 연출자, 연극배우를 작품과 만나게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이 자리를 통해 백운아트홀 공연 담당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사라지지 않는 감동의 판타지, 포스코 가족과 지역주민들에게 그 감동과 활력을 나누려는 지순한 예술철학, 이를 온몸으로 실천하려는 ‘백운무대’ 단원들의 발길이 있는 한 지금 이곳 우리네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듯싶다.



김길수 연극평론가

이 글은 2005년 5월 연극평론가 김길수 씨가 포스코신문에 보내온 기고문이다.

## 체육

### :: 개요

포스코는 체육 부문에서도 다양한 공헌 활동을 해 왔다.

체육 부문에서는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1984년 포항 스틸러스, 1994년 전남 드래곤즈를 각각 창단해 운영해 왔으며, 1990년 국내 최초로 포항에 수용인원 2만 명 규모의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한 데 이어 1992년 광양에도 수용인원 1만 5000명 규모의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했다.

한편, 1984년부터 포항시와 광양시를 통해 전국체전과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체육 대회를 지원해 왔다. 또한 포항 지역에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포항 스틸러스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2006년부터 포항 스틸러스기 경북·대구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후원해 왔으며, 광양 지역에서는 1984년부터 포스코 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후원해 왔다.

이와 함께 축구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해 1996년부터 지역 초·중·고교에 축구 꿈나무 육성기금을 지원해 왔으며,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를 통해 브라질 축구 유학 프로그램 운영과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을 지원해 왔다. 이 밖에 2006년 6월에는 포항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 프로축구단 운영

####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 운영

포항 스틸러스는 1973년 4월 포스코의 실업축구단으로 창단된 후 1984년 프로축구 클럽으로 전환했으며, 2005년까지 이회택, 최순호, 홍명보, 황선홍, 이동국 등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를 비롯해 50여 명의 국가 대표를 배출하는 등 한국 축구의 메카로



포항 스틸러스 K-리그 클럽 통산 300승 달성



포항 스틸러스의 K-리그 최초 팀 통산 1000호 골 달성 장면

자리잡았으며, 1990년 11월 국내 최초로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고 2000년 클럽하우스를 준공하는 등 축구 인프라 구축에 아낌없이 투자해 한국 축구 발전에 선도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포항 스틸러스는 그동안 K-리그 우승 3회(1986년, 1988년, 1992년)와 아디다스컵대회 우승(1993년), 제1회 FA컵대회 우승(1996년), 아시아 클럽컵 2년 연속 우승(1997년, 1998년), K-리그 최초 200승(1998년) 등을 달성했고, 2005시즌에는 K-리그 사상 두 번째의 팀 통산 300승과 K-리그 최초의 팀 통산 1000호 골을 달성하는 등 한국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최고 명문 클럽에 걸맞은 족적을 남겼다.

2005년에는 한국 프로축구 최초로 브라질 출신의 파리아스 감독을 영입한 후 A3넷 산 챔피언스컵 준우승을 시작으로 컵 대회까지 15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 가기도 했다. 이는 2004년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 결정전까지 소급하면 무려 18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기록한 것이다.

포항 스틸러스는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축구 꿈나무 육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브라질 지코스쿨에 3회에 걸쳐 유학을 보냈다. 브라질 유학에는 12억 원을 투자했으며, 김동현, 오범석, 박주영 등 31명이 1년 과정의 유학을 다녀왔다.

또한 2003년부터는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 축구부(포철동초, 포철중, 포철공고)를 클럽 소속으로 전환해 U-12, U-15, U-18 클럽의 선진국형 선수육성 클럽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우수선수 자체 육성 시스템을 구축했고, 클럽 우수선수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축구유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12월부터 포항시내에 인조잔디구장 2곳을 건립해 초등학교 축구 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2년부터는 스틸러스배 포항시 클럽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2004년에는 국내 프로구단 최초로 초·중·고등부와 신인 프로 선수를 공개로 모집했고, 2006년에 들어서는 포항, 경주, 영천, 영덕을 잇는 경북 동부지역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 운영

포스코는 1992년 9월 광양에 수용인원 1만 5000명 규모의 축구전용구장을 설립한 데 이어 1994년 11월 국내 일곱번째 프로축구클럽으로 (주)전남프로축구를 설립하고 12월 창단식을 거행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1997년 정규리그와 아디다스컵 대회에서 각각 준우승을 했고, 프로스펙스컵에서 3위에 올랐다. 이어 1998년 아디다스컵 3위와 1999년 정규리그 3위, 2000년 대한화재컵 준우승을 기록했다. 1997년 제2회 FA컵에서는 천안 일화(현 성남 일화)를 꺾고 창단 이후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2003년 6월 14일 포항스틸러스에 2 대 1로 승리하면서 통산 100승을 달성했고, 2003년 정규리그 3위를 달성했다. 2005년에는 하나은행배 FA대회 공동3위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 드래곤즈는 김태영, 김남일, 김영광, 노상래 등 축구 스타를 배출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2003년 1월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 축구부(광양제철남초, 광양제철중, 광양제철고)를 클럽 소속으로 전환해 U-12, U-15, U-18 클럽의 선진국형 선수육성 클럽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우수선수 자체 육성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후 드래프트제도 도입으로 더욱 중요해진 유소년 클럽축구 강화에 주력해 왔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해외협력에도 눈을 돌려 2005년 8월 일본 오이타 트리니타와 자매결연을 한 후 친선경기를 개최했고, 12월 국내 프로구단 최초로 ERP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밖에도 전남 드래곤즈는 1995년부터 광양만권 11개 시·군의 조기회 축구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2005년부터는 전남 및 경남 서부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 축구캠프와 축구 교실도 운영해 왔다.

2006년에는 전남의 낙도·오지 학생 초청관람을 추진해 5월 17일 포항전 때 여수 여안초·중학교 80명과 여수 YWCA 꿈나무 축구단원 25명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 :: 축구 꿈나무 육성

### 브라질 유학 통해 축구 꿈나무와 지도자 55명 발굴 육성

포스코가 2000년부터 지원해 온 청소년 브라질 축구 유학이 모두 55명의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하며 2003년 1월 7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포스코와 계열 프로축구단인 포항 스틸러스, 전남 드래곤즈는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3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생과 지도자를 선발해 1년 동안 브라질의 축구 전문 학교인 지코축구교실에서 선진 축구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포스코의 브라질 축구 유학은 박주영 선수, 김동현 선수, 오범석 선수 등을 배출하며 우수선수 육성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 또 유학생 관리 겸 지도자 유학과정 에 참여한 지도자들도 선진 축구 지도자 교육을 받고 돌아와 프로구단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선진 축구를 전수하고 있다.

### 국내 최초의 유소년클럽 출범

포스코와 양 프로구단은 브라질 축구 유학을 종료한 2003년 초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소년 전문 축구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는 2003년 1월 10일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유소년클럽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유소년클럽을 보급반과 육성반으로 운영해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 스틸러스는 6월 29일 송라인조잔디구장에서 유소년클럽 출범식을 개최했다. 포항 스틸러스는 8월 9일과 10일 이틀간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회원 들을 초청해 여름캠프를 개최하기도 했다.

### 포항·광양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포스코는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와 연고가 있는 지역 축구팀의 전력을 높이고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 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항에서는 1996년부터, 광양에서는 1997년부터 매년 축구 꿈나무 육성 기금을 지원해 왔다.

포항지역에서는 2005년 7월 8일 문덕·청림·동해·상대초등학교와 포항 향도중학



브라질 축구 유학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클럽 출범식

교, 포항여전자고등학교 등 6개 학교에 700만 원씩 모두 4200만 원의 기금을 전달 했다. 광양지역에서는 2005년 12월 20일 광양여고를 비롯해 광양중과 광영중, 광양 서초와 광양남초, 광양중앙초등학교에 각각 50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포스코는 2005년까지 축구 꿈나무 육성기금으로 포항지역에는 2억 7700만 원, 광양 지역에는 2억 2400만 원을 지원했다.

### 포항·광양 지역 초등학교 축구대회 후원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서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후원해 왔다. 1984년 시작된 포스코 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와 1992년 시작된 포항 스틸러스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지역 초등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포스코의 후원에 힘입어 전통 있는 축구대회로 자리잡으며 축구 꿈나무의 조기 발굴과 지역 축구 열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 4월 20일부터 이틀간 광양 송죽구장에서 벌어진 제23회 포스코 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광양시 28개 초등학교 중 27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학생수 500명 이상 부문에서는 중마초등학교가, 500명 미만 부문에서는 옥곡초등학교가 각각 우승했다.

2005년 5월 18일부터 3일간 포항 포항제철동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제14회 포항스틸 러스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포항시 23개 초등학교에서 참가해, 포항제철서초등학교가 우승했다.

포항 스틸러스는 2006년부터 포항스틸러스기 경북·대구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 했다. 2005년까지는 포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순수 아마추어 선수가 참가하는 학 교 대항전을 개최해 왔으나 2006부터는 한국초등축구연맹에 등록된 경북·대구지역 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가 범위를 넓혔다.

6월 5일부터 4일간 포항 송라 스틸러스구장에서 개최된 제1회 포항스틸러스기 경 북·대구 초등학교 축구대회에는 경북·대구 지역 등록팀 17개 팀 중 14개 팀이 참가 했으며, 대구 반야월초등학교가 우승했다.



포항스틸러스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 :: 체육성금 전달

### 경북·전남 도민체전 선수단 위한 격려금 전달

포스코는 제44회 경상북도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포항시 대표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06년 4월 20일 포항시 체육회에 5000만 원을 전달했다. 4월 25일에는 제45회 전라남도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광양시 대표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광양시 체육회에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포스코는 1984년부터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 매년 포항시 체육회와 광양시 체육회를 지원해 왔으며, 2005년까지 포항시 체육회에는 68억 4900만 원(1995년 10월 제 76회 전국체전 포항 개최 시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부한 성금 50억 원 포함)을, 광양시체육회에는 5억 6200만 원을 지원했다.

### 중동초등학교 탁구 꿈나무 후원

광양제철소 화성부는 광양시 중동초등학교 탁구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화성부는 2006년 4월 24일 중동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지역의 탁구 유망주 육성을 위한 자매결연식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이 학교 탁구부 학생들과 화성부 그린파워 탁구동호회 친선경기도 펼쳤다. 중동초등학교 탁구부는 2005년 전남 학생 종합체육대회에서 우승하고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을 2명이나 배출한 곳이다.



중동초등학교 탁구부 학생들이 친선경기를 펼치고 있다.

## :: 기타

### 회사창립 기념 바둑대회 개최

광양제철소 바둑연합회가 2004년 4월 8일 지역 바둑동호회와 프로기사를 초청해 광양제철중학교 체육관에서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둑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치러졌으며 초청 프로기사들과 지역명사와의 대국과 지도 다면기도 펼쳐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대회 결과 광양제철소 기계설비부가 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했고, 개인전에서는 순천시 기우회 회원 김춘태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 광양 마라톤동호회, 실업고 육상선수 후원

광양제철소 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이 2004년 1월 광양실업고 육상선수들과 제철소 주택단지 호안을 달리며 미래의 꿈을 다졌다. 이날 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은 광양실업고 육상선수들을 초청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과일을 같이 먹으며, 학생들과 훈훈한 대화를 나눴다. 광양제철소 마라톤동호회는 2003년부터 광양실업고 육상선수들을 후원하며 진한 동료애와 자매의 정을 나누고 있다.

한편 광양제철소 냉연부 김동욱 씨는 2004년 12월 훈련용 보온점퍼 17벌을 광양실업고등학교의 마라톤 후배들에게 전했는데 이 점퍼는 김동욱 씨가 그동안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상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 스포츠 분야의 산학협력 모델 제시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의 홍순태 주임은 2000년부터 포항공대 야구부인 타기온스팀의 감독을 맡아 스포츠 분야 산·학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포항공대 타기온스팀은 2002년 포스코 사장기 야구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 줬다. 홍 주임이 매년 지급받은 감사비로 야구 용품을 구입해 선수들에게 나눠 주며, 야구에 투지와 도전의 포스코정신을 접목한 결과였다.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의 홍순태 주임은 회사 생활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를 좋아하는 만능 스포츠맨이다. 특히 야구에서는 30년 동안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키워, 포스코 야구동호인연합회 경기부장이자 드래곤스팀의 선수로 활동해 왔다.

### 유니버시아드대회 후원

포스코가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인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학생의 스포츠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2003년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대구에서 열렸다. 포스코는 후원사 자격으로 이 대회 홍보물에 회사 로고를 표시했고, 개폐회식 입장권 중 일부를 무료로 구입했으며, 2구간에 걸쳐 성화 봉송 주자 16명을 배정받았다.



김동욱(오른쪽 두 번째) 씨가 후배들에게 점퍼를 선물하고 있다.

# III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며

최 광 응 | 포스코청암재단 부이사장



## 기업 재단의 세계적 모델 될 것

설립 배경은 무엇입니까?

흔히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기업도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고 말합니다. 기업은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기업이 사회 공동체를 이끌고 보살피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스코도 진정한 글로벌 민간 기업상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이번에 포스코장학회를 전면 확대 개편해 사회공헌 활동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재단 이름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포스코청암재단의 전신인 포스코장학회는 1971년 1월 박태준 사장(현 명예회장)의 제안으로 설립돼 34년간 직원 자녀와 지역사회 장학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포스코청암재단도 포스코장학회를 모태로 설립되었기에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청암(靑巖)은 박 명예회장의 호로서 박 명예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인재육성·창의·나라 위한 희생과 봉사를 근간으로 사회공헌의 뿌리와 줄기를 만든 분입니다. 포스코를 설립해 최단기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한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명예회장의 창업정신을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확대 기획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포스코가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비중을 고려해 그에 맞는 사회공헌 실천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이 고민했습니다. 포스코와 같은 유수의 철강회사가 설립, 운영하는 기업 재단의 사례가 부족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 기업 CEO, 사회공헌사업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들으며 노하우를 얻었고 업종이 다른 국내의 여러 기업 재단도 벤치마킹했습니다.

재단의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우선 포스코의 기업문화와 이미지에 부합하는 기획형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 직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10년 후 재단의 모습을 그려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고 포스코를 존경받는 좋은 기업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는 재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사업영역이 넓어지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업 재단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포스코청암재단



### :: 포스코장학회가 전신

포스코청암재단의 전신은 1971년 박태준 포스코 사장(현 명예회장)이 6000만 원의 기금으로 설립한 장학재단 포스코장학회이다. 포스코장학회는 초기에 직원자녀와 이공계 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그 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확대 차원에서 1989년부터는 포항과 광양 지역의 고등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1995년부터는 장학 대상과 인원을 매년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학 사업을 펼쳤다.

그동안 운영해 온 고등학생 장학 외에 1995년 지역 대학교 장학생, 1996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행장학생, 1997년 소년소녀가장 장학생, 1998년 장애인자녀 및 체육 특기 장학생, 2000년 지역 전문대학 장학생을 신규로 선발함으로써 지역사회 장학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포스코장학회는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5년부터 해외유학 장학사업도 전개했다. 해외유학 장학사업은 국가 차원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21세기 고도 산업사회의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학문과 첨단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포스코장학회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 과학 분야를 망라해 미국(25명), 일본(15명), 독일(13명) 등 6개국 7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 장학생들은 현재 정부기관 및 국내외 각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국가 발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장학회는 1971년 설립 후 2005년까지 1만 6000명에게 27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 :: 재단법인 포스코청암재단 출범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창출이라는 경제적 책임과 법령 준수라는 법적 책임에 국한됐으나, 이제는 윤리적 책임과 사회공헌 등 넓은 의미의 책임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역사회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포스코장학회와 학교법인, 포스코봉사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2000년 10월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부터 공헌활동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해졌다. 주주, 고객, 공급사, NGO, NPO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 것이었다.

세계 철강사들이 국경을 초월한 통합·대형화·글로벌화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포스코도 인도,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생산기지를 확장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지역사회 중심 장학에서 벗어나 전국 및 아시아 등지로 사회공헌 활동 지역을 넓힐 필요성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04년 10월 이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이구택 회장이 2006년 2월 28일 포스코장학회의 해외유학 장학생들과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당시 포스코장학회의 지원으로 유학을 떠났던 71명의 장학생은 지금 우리나라 각계 각층의 리더로 성장했다.



포스코청암재단 출범 이후 첫 이사회 개최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재)포스코장학회를 확대·개편해 새로운 공익재단을 출범시키기로 의결했다.

포스코는 정관 변경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05년 9월 8일 포스코청암재단(POSCO TJ Park Foundation)을 범포스코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 중심기구로 출범시켰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종래 지역사회 장학에서 학술, 연구, 시상, 문화예술 분야로까지 사업범위를 넓히고,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의 위상 제고와 운영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진도 개편했다. 이사장에 포스코

이구택회장, 상임부이사장에 전 포스코 최광웅 부사장, 비상임 이사에 고려대 광상경 명예교수, 아시아개발연구원 송희연 이사장,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수경 사무총장, 소설가 이대환, GE코리아 이채욱 회장, 전 서울대 정운찬 총장, 한겨레신문 정태기 사장, 전 진년 경제부총리, 연기자 최수종씨를 각각 선임했다. 감사에는 삼일회계법인 서태식 명예회장과 시민의 신문 이형모 사장을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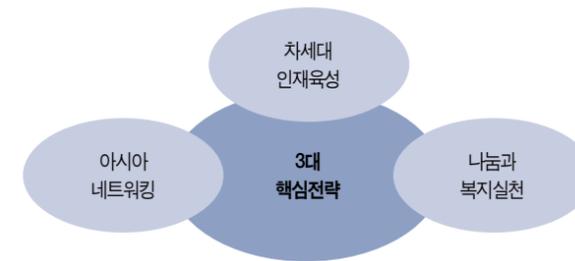
### :: 재단의 사업전략과 방향

포스코청암재단은 중장기 사회공헌 마스터플랜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인재 육성 △아시아펠로십을 통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익 역할 확대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세웠다.

3대 핵심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곱 가지의 실행사업도 마련했다. △제철소 소재 지역 우수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포스코셋별장학 사업' △아시아 각국의 공동번영과 한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포스코아시아펠로십 사업'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무료간병 사업' 을 3대 브랜드 사업으로 정했다. 또한 △포스코 창업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포스코청암상' 제정·시행 △시민단체 활동가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NGO 활동가 해외연수 사업' △철강의 유용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스틸아트 공모전 사업' △불우 청소년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나눔장학 사업' 도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포스코아시아펠로십'은 아시아의 젊은 리더와 지식인을 대상으로 장학, 학술·연구 지원 활동을 펼쳐 포스코와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아시아 출신 한국유학생 장학 △한국인의 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 △아시아 지식인의 인문·사회 연구와 포럼 개최 △아시아 우수대학 장학 △아시아 문학지 발간 등이며, 2009년에 700명의 포스코아시아펠로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포스코청암재단의 3대 핵심전략과 7대 실행사업〉



|             |   |   |
|-------------|---|---|
| 포스코아시아펠로십   | → | 아시아 출신 한국유학생 장학, 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 아시아 우수대학 장학, 아시아 인문사회연구포럼, 아시아 문학지 발간 |
| 포스코청암상      | → | 과학, 교육, 봉사 부분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이에 대한 시상                                   |
| 포스코셋별장학     | → | 포항·광양 지역 우수 고교생 장학  |
| 포스코나눔장학     | → | 포스코사랑나눔 무료간병 사업, 포스코비전 장학, 소년소녀가장·장애인지녀 장학                            |
| 시민단체, 스틸공모전 | → | 시민단체 활동가 해외연수, 스틸공모전  |

## ：： 포스코아시아펠로십 사업

포스코아시아펠로십은 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장학·학술·연구·문화 지원 사업으로 재단 대표사업 중의 하나다. 이 사업은, 개인간의 상호 이해가 커질수록 국가간의 이해가 증대돼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는 사상에 기초해 아시아의 비전 있는 젊은 인재의 육성과 지식인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지의 유수재단들은 오래 전부터 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폭넓은 펠로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스코청암재단은 포스코아시아펠로십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번영과 친한(親韓) 인재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시아 출신 한국 유학생 장학

이것은 아시아의 유망한 젊은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문화를 학습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사업이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장학사업이 한국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포스코청암재단의 '아시아 출신 한국 유학생 장학사업'은 한국이 속해 있고 한국이 긴밀한 유대를 형성해야 하는 아시아 국가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의 젊은 인재들이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KDI 국제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2년간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2005년 중국, 인도, 베트남 등 3개국 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데 이어 2006년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몽골 등 11개국 2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정상 연도인 2008년에는 지원대상을 7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 사업

이것은 아시아 각 대학에서 현지 국가의 사회, 경제, 역사, 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인 학자를 지원해 현지 국가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포스코청암재단은 한국인으로서 아시아 각국 우수대학에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수학하는 동안에 2년간의 연



KDI 국제대학원 장학증서 수여식 모습(2006년 2월 17일)

구활동비와 아시아 국가 방문 연구에 필요한 체재비를 지원한다.

2006년 8월 처음으로 국내외 우수대학 및 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연구원 20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지에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아시아 우수대학 장학 사업

이것은 아시아 주요 국가의 현지 우수대학에 재학 중인 비전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장차 자국 및 아시아의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도의 델리대·네루대·중국의 북경대·청화대, 베트남의 하노이·호치민 국가대, 인도네시아의 국립대, 몽골의 국립대 등 아시아 우수대학의 우수인재들이다. 한국인을 해외로 보내거나 기업 목적에 의해 특정 국가의 특정 대학·학과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타 기업이나 재단과는 달리 아시아 각국 우수대학의 우수인재를 선발·지원하는 민간 차원 최초의 장학사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2005년 10월 중국 북경대와 청화대, 베트남의 하노이국가대와 호치민국가대 등 8개 대학 19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인도와 말레이시아, 몽골 등 7개국 19개 대학 4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정상 연도인 2009년에는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을 포함해 13개국 25개 대학 600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 아시아 인문사회 연구 및 포럼 지원 사업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인문사회 이슈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아시아 국가의 당면 이슈를 토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스코청암재단이 주관하고 범포스코의 싱크 탱크인 포스코경영연구소가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 심사위원 위촉,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맡는다.

국내의 타 공익재단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내 인문사회 연구를 지원하는 데 비해 포스코청암재단은 한국인 외에 아시아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활동 중인 아시아인의 아시아 연구를 지원한다. 2006년도 연구지원사업에는 아시아 7개국 148명이 응모했으며, 학계 권위자들의 심사를 거쳐 강원대학교 김형준 교수의 '인도네시



청암재단 아시아펠로십 장학생으로 선발된 베트남 대학생들과 하노이사무소에서 간담회 개최 후 기념촬영 모습



문예지 'ASIA' 창간호 표지

아 이슬람의 자유주의와 종교 다원주의', 국립말라야대학교 매리 수잔 필립(Mary Susan Philip)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문학적·문화적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등 총 20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연구자들은 2006년 4월부터 1년간 연구를 수행한 후 2007년 제1회 포스코아시아포럼이라는 연례학술대회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아시아 문학지 발간지원 사업

이것은 아시아의 문인, 지식인, 예술인들이 모여 아시아의 문화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의 문학지 'ASIA'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스코청암재단이 사업을 총괄하고 ASIA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등 아시아 국가의 신예 작가들이 참여한다.

'ASIA'는 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과 다양성을 토론하고 각국 신예 작가들의 시·소설·수필 등과 함께 평론·대담·연재물을 실는다. 매년 계간으로 발간하며, 창간호는 2006년 5월 발간됐다. 'ASIA'는 한국 문단이 주도하는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문학지로, 아시아적 가치의 재정립, 한국과 아시아의 지식인·문인 간의 교류와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포스코청암상 제정·시행

포스코청암재단은 포스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의 제철보국의 업적을 기념하고, 포스코 창업정신의 기본이 되는 창의, 인재육성, 희생·봉사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포스코청암상을 제정했다.

포스코청암상은 포스코의 창업정신을 반영해 과학·교육·봉사 3개 부문으로 운영하며, 부문별로 탁월한 업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과학상은 세계 수준의 창조적인 연구의욕을 확산시키고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

**제1회 포스코청암상 시행공고(안내)**

포스코청암상은 에너지 과학·교육 및 봉사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코자 하오시 수상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주시고.

| 구분           | 과학상                                   | 교육상  | 봉사상                             |
|--------------|---------------------------------------|--|---------------------------------|
| 시상인원 (총 10명) | 지역마다 공학분야에서 뛰어난 연구개발 성과를 올린 연구자를 추천한다 | 창의성과 사회공헌을 바탕으로 삼은 교육·교양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올린 인재 |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 |
| 수상후보자의 자격    | 국내외 7만명 등 국내외 유수한 우수인재를 추천한다          | 한국인 또는 인재                                  | 외국인 또는 인재                       |
| 후보자 추천       | 개인 및 단체 추천 (단, 부문 불응분야 제외)            | 교육기관(교육청/대학/고등학교/사립학교/평생교육원/학원 등)          | 개인 및 단체 추천 (단, 단체 불응 분야 제외)     |

▶ 제출 시기: 후보의 추천서(www.posto.org에서 서식)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발송할 것임  
 ▶ 추천서 접수: 접수기간: 2006년 9월 15일(월)~9월 30일(목)  
 접수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46-1번지 공인사서 25층 포스코청암상 운영팀(우 135-708)  
 문의: 02-2562-1741, e-mail: poscoprice@posto.org  
 ▶ 수상자 선정(내무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후원명: 공인명 KAIST 후원(사단법, 장학금 수여 대상), 후원명 사내에 부여됨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발표(2007년 3월) 발표 및 포스코청암상 수여식(2007년 4월)

포스코청암재단  
POSCO Youth Award

포스코신문에 게재된 포스코청암상 시행 광고문

을 함양시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한다. 교육상은 헌신정신과 창의적인 실험정신을 겸비하고 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육 관련 기관의 인사에게 수여한다. 봉사상은 헌신적인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을 사회적으로 널리 전파해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한다.

과학·교육상의 경우 국내에 활동 기반을 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과학상 후보자 선정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봉사상은 재단의 핵심사업인 포스코아시아펠로십 사업과 연계해 후보자의 자격을 아시아인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부문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에는 KAIST 윤덕용 명예교수(과학부), 안병영 연세대 교수(교육부),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봉사부)를 각각 선임했다. 선정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수상 후보자를 선발·추천하면 포스코청암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포스코청암재단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제1회 포스코청암상 후보자 심사를 마치고 2007년 3월 수상자를 발표한 후 2007년 3월 27일 시상할 계획이다.



포스코 이구택 회장이 포항 본사에서 포스코셋별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모습

〈포스코청암상 개요〉

| 구분        | 과학상                                    | 교육상  | 봉사상                                   |
|-----------|--|--|---------------------------------------|
| 수상 후보자 자격 |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업적을 이룩한 인사        |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실천을 통해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인사 또는 단체 | 헌신적인 희생정신과 봉사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인사 또는 단체 |
| 후보자 추천    | 개인 및 단체 추천 (단, 개인은 동일분야 전문가 3인의 공동 추천) |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기업체/시민단체/재외동포 단체의 장            | 개인 및 단체 추천 (단, 아시아의 경우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 |

：： 포스코셋별장학 사업

포스코셋별장학 사업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미래 리더 육성과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다. 포스코청암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스코의 경영이념을 뒷받침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지원해 21세기를 열어 나갈 미래 핵심 인재군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2006년 처음 시작했다.

포스코는 이미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을 설립해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육성했으며, 포스코교육재단의 산하 초·중·고교 등 12개 학교를 중점 지원해 조기에 명문사학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포스코셋별장학은 이 같은 포스코의 교육공헌 사업을 계승해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셋별과 같은 인재를 길러내는 사업이다.

제철소가 소재한 포항과 광양 지역의 35개 고등학교에서 매년 1학년 우수학생 100명을 뽑아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연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들이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면 고등학교 2학년·3학년까지 지급하고 전국 20위권 이내의 대학에 입학하면 500만 원의 입학격려금도 지급한다.

포스코청암재단은 2006년 3월 17일 포항·광양 지역 35개 고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100명을 제1기 포스코셋별장학생으로 선발하고 3월 31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포스코사랑나눔 무료간병 사업

포스코사랑나눔 무료간병 사업은 노령화로 인해 노인간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포스코청암재단이 실업극복국민재단과 포항·광양 YWCA의 협력을 얻어 포항·광양 지역의 수발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서비스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노후질화에 대한 무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희망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고자 포항·광양 지역에서 2006년 처음 시행했다. 이 사업은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소외계층 복지확대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실업극복국민재단과 지역의 복지증진에 힘쓰는 지역 YWCA와 함께 힘을 합쳐 수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포스코청암재단이 이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사업 진행을 관리하며, 포항·광양 YWCA가 협력단체로 참가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간병활동 추진, 수혜자 접수·상담, 간병 도우미 파견, 수혜자 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맡는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 여성을 간병도우미로 채용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기초 간병과 가사 지원 활동을 펼친다.

2006년 4월 3개 참가 단체간의 사업추진 협약 체결에 이어 간병 도우미 35명(포항 20명, 광양 15명)을 선발해 간병교육을 마친 데 이어 1차로 간병 수혜자 200명(포항 115명, 광양 85명)을 선정해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2006년에 간병도우미 35명이 500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7년에는 포항·광양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포스코비전장학 사업

포스코비전장학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복지시설 출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복지재단과 공동으로 펼치는 장학사업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동참하고



포스코청암재단은 포항(사진)과 광양에서 각각 포스코사랑나눔 무료간병 사업 발대식을 열고 간병 서비스를 개시했다.



포스코비전장학생 대표와 학국복지재단의 김석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스코비전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006년 6월 2일)

우리 주위의 불우이웃에 대한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포스코의 기업이념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장학회에서는 2002년부터 복지시설 출신 전문대 대학생 80명에게 등록금의 90%를 연 1회 지원했으나, 포스코청암재단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06년부터 지원대상과 범위를 늘렸다. 대상자를 전문대에서 4년제 대학까지 늘리고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등록금의 100%를 연 500만 원 범위 내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가 응모하면 복지시설의 장이 성적 50%, 인성 50%를 감안해 추천을 하고, 포스코청암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 선발한다. 2006년 5월 처음으로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2007년에는 9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포스코청암재단은 포스코장학회가 1997년부터 실시한 포항·광양 지역 소년소녀가장 장학제도와 1998년부터 실시한 장애인 자녀 장학제도를 이어가고 있다.

### :: 시민단체 활동가 해외연수 지원

이것은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수준 높은 해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전문성과 식견을 넓히고 실천 의지의 재충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민단체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 소비자 문제 해결, 재난 지역 원조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시민단체의 재정이 부족해 시민활동에 필요한 수준 높은 재교육 기회가 매우 부족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청암재단은 우수 시민단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중견 활동가를 매년 10명씩 선발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의 주관 아래 컬럼비아대, 인디애나대, 조지워싱턴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등 북미 지역 우수 대학이 함께 참여한다.

포스코청암재단은 2006년 4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씨,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김보근 씨 등 10명을 제1기 해외 연수생으로 선발했다.



포스코 이구택 회장, 박원순 사외이사, 제1기 시민단체 활동가 해외연수생들이 참석한 간담회 모습

### :: 스틸아트 공모전 개최

스틸아트(Steel-art) 공모전은 철 소재의 공학적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철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독창적인 조형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미술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철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을 주 재료로 사용해 스틸아트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자격 제한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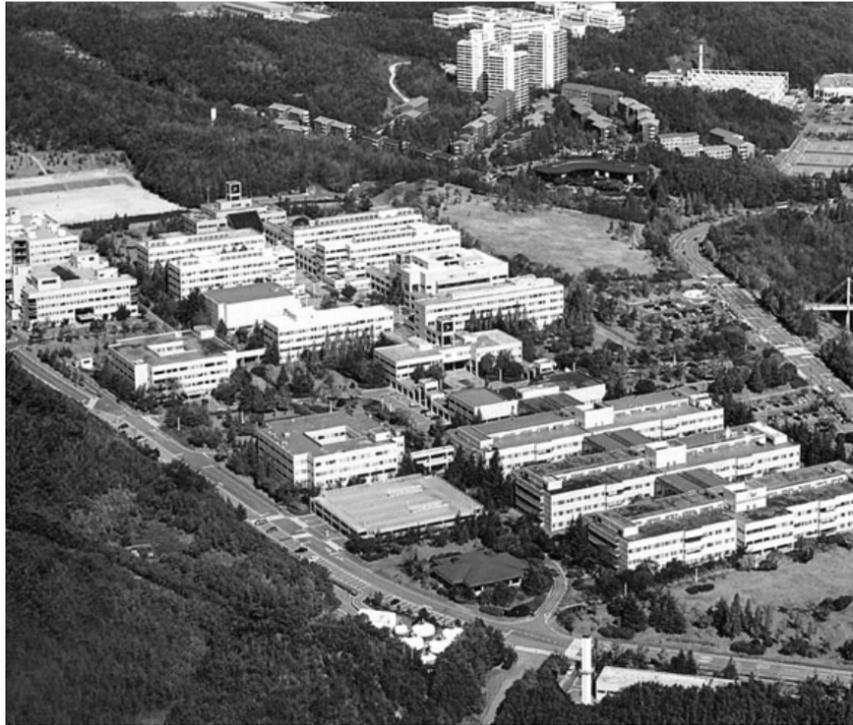
2006년 6월 처음 시행된 포스코 스틸아트 공모전에는 151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포트폴리오와 창작계획서 심사를 통해 20명의 본선 진출 작가를 선정해 창작지원금을 지원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창작지원금으로 제작된 작품들을 심사해 2006년 10월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는 예술계 인사들이 맡으며, 시상 내용은 대상 1명과 우수상 3명이다.



포스코신문에 게재된 포스코 스틸아트 공모 광고문

## 포스텍



포스텍 전경

### :: 개요

포스텍은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소수의 영재를 모아 질 높은 교육을 함으로써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세계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1986년 12월3일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POSTECH)을 설립했다.

포스텍은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 대학원중심 대학으로서 대학 자체가 하나의 대규모 연구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첨단 연구시설과 긴밀한 산·학·연 협동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포스텍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빛공장' 포항방사광가속기(1994년 12월 준공)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BT연구소인 생명공학연구센터(2003년 10월 개관)와 나노기술 인프라 구축의 중심점인 나노기술집적센터(2005년 10월 착공)를 비롯해 60여 개의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텍은 2006년 6월 말 전임교수는 225명, 학부생 1404명, 대학원생 1530명에 달하는 연구·교육 인력 및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1987년 첫 신입생을 모집한 후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포스텍은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하고 있다. 그 동안 1998년 아시아위크 선정 '아시아 최고의 과학기술대학', 중앙일보 대학평가 4년 연속(2002~2005년) 전국 1위에 선정되는 등 각종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이공계 정상 대학으로 인정받았으며, 앞선 교육·연구 시스템은 타 대학의 본보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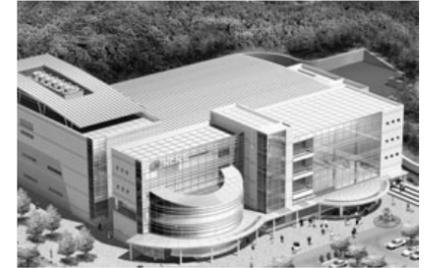
2006년 12월에 개교 20주년을 맞는 포스텍은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질적 우수성을 추구하고,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과 첨단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과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선택과 집중 △학제간 협력 △국제화 등의 대학발전 3대 전략을 실행에 옮겨 2020년에는 세계 상위 20위권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한다는 웅대한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 :: 국가 과학기술계 지도자 배출

#### 포스텍 졸업생 현황

포스텍 학부과정은 1987년 3월 학부 신입생 249명이 처음으로 입학해 1991년 2월 졸업한 이래 2006년 2월까지 총 3704명을 배출했다.

대학원과정은 1988년 3월 석사과정 91명, 박사과정 18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여 학부



포스텍은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산업자원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원하는 나노기술집적센터를 기공했다.



포스텍 박태준 설립이사장이 2005년 2월 16일 졸업식에서 학위를 받은 졸업생을 격려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포스텍 유상부 이사장, 박태준 설립이사장, 박찬모 총장

보다 1년 이른 1990년 2월 처음으로 석사 졸업생 80명을 배출했으며, 1991년 8월 박사 1호를 탄생시켰다(특수대학원 제외). 2006년 2월 말까지 석사 5215명, 박사 1206명을 배출했다. 포스텍은 연구중심대학·대학원중심대학이란 명성에 걸맞게 학부와 정보다 대학원과정 졸업생이 훨씬 많다.

졸업생 현황 (2006년 2월 말)

| 구 분  | 학 사      | 석 사      |          |          | 박 사      | 계      |
|------|----------|----------|----------|----------|----------|--------|
|      |          | 일반대학원    | 정보통신대학원  | 철강대학원    |          |        |
| 졸업생수 | 3,704    | 4,479    | 373      | 363      | 1,206    | 10,125 |
|      |          | 5,215    |          |          |          |        |
| 첫 졸업 | 1991년 2월 | 1990년 2월 | 1994년 2월 | 1997년 2월 | 1991년 8월 | -      |

### 졸업생 진로

학사 졸업생의 약 70%는 포스텍 대학원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대기업·연구소에 취업하거나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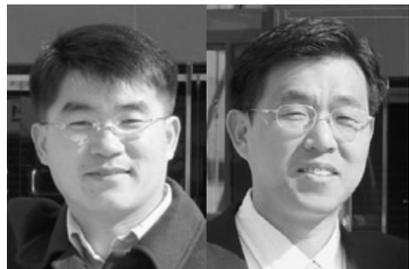
석사 졸업생은 약 60%가 취업하고, 40%가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박사 졸업생은 대개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대학이나 기업체·연구소 등으로 진출했다.

### 졸업생 진로

| 구 분 | 학 사 | 석 사 | 박 사                    |
|-----|-----|-----|------------------------|
| 진 학 | 68% | 39% | • Post-doc, 51%, 대학 7% |
| 취 업 | 24% | 57% | • 산업체·연구소 32%, 정부기관 1% |
| 기 타 | 8%  | 4%  | • 기타 9%                |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를 보면, 국내 우수 기업체와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중 대학으로 진출한 졸업생은 교수직 80~90명을 제외하면 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하거나 박사후 연구원 등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아직까지 배움의 과정에 있다.

포스텍 출신으로 외국 대학 교수로 부임한 사례로는 미국 뉴욕대 장영태(화학공학과 학사·석사·박사) 박사와 애리조나주립대 박찬범(화학공학과 학사·석사·박사) 박사, 애리조나대 최연소 교수로 부임한 손영준(산업공학과 학사) 박사, 위스컨신대 벤블랙 조교수로 임용된 이상혁(수학과 학사·석사·박사) 박사 등 7명이 있다.



포스텍 모교 교수 공동 1호를 기록한 전상민 교수(왼쪽)와 김병인 교수(오른쪽)

국내 대학 교수는 서울대 변동호(수학과 학사·석사·박사) 박사와 김상국(신소재공학과 석사·박사) 박사, 고려대 최만수(물리학과 학사·석사·박사) 박사 등 모두 250여 명이다. 모교 전임교수는 강관형(기계공학과, 87 입학)·김병인(산업경영공학과, 87 입학) 교수 등 6명이다.

포스텍 졸업생들의 국내외 명문대학 교수직 진출은 포스텍의 교육·연구 경쟁력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체로 진출한 졸업생은 절반 정도가 포스코·삼성·LG·현대·SK·대우 등 6대 그룹에 진출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부설연구소의 연구직 등 연구개발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초기 졸업생들은 책임연구원급에 포진해 있다. 박사 1호인 이도영(컴퓨터공학과 박사) 박사는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상무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희조(컴퓨터공학과 학사·석사·박사) 박사는 2001년 3월 안철수연구소 보안부문 최고 기술책임자(CTO)로 영입되기도 했다.

벤처 열풍과 함께 벤처기업으로 진출한 동문 수도 급격히 늘어나, 졸업자 400명~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직접 벤처기업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도 20명 이상이며, 대부분 임원급 내지 핵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안 솔루션 업체로 초창기 보안시장을 개척한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이석우(산업공학과 학사·석사) 사장 △15년 전 재학 중 취미로 만든 게임 SW가 인기를 끌자 졸업 후 곧바로 회사를 창업한 단비시스템(주) 김성식(기계공학과 학사) 대표 △포스텍 창업보육센터 졸업 1호 벤처기업이자 자바 기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유명한 사이버다임(주) 현석진(산업공학과 학사·석사) 사장 등을 들 수 있다.

## :: 첨단 연구로 국가 경쟁력 강화

###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이란 대학 자체가 대규모 연구소와 같은 대학을 지칭하는 말로, 첨단 연구시설과 긴밀한 산·학·연 협동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상승효과를 추구하는 대학이다. 포스텍 학생들은 3학년 때부터 교수들



포스텍이 개관한 생명공학연구센터

의 연구에 참여해 일찍이 연구경험을 쌓고 과학자로서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산업체 실습을 통해 현장경험을 습득하고 있다.

포스텍은 연구중심대학에 걸맞게 국가 기관과 기업체 등에서 의뢰한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산학협동, 기술이전, 창업보육센터 운영, 포스텍기술투자 운영, 포항테크노파크 건설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포스텍 전임교수(인문사회학부 포함) 227명이 2005년 한 해 동안 국내외 각종 학술지와 학술회의(연구보고서 제외)에 발표한 논문은 총 1203편에 달한다. 이는 교수 1인당 평균 5.6편으로, 대학원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종합대와 비교할 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 중 미국 SCI에 게재된 논문은 총 939편, 1인당 4.4편으로, 전체 논문의 72.1%나 차지하고 있다. 또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695건이었고, 여기에 투입된 연구비는 978억 원이었다.

2001-2005 연도별 연구실적 (괄호 안은 교수 1인당 실적)

| 연 도  | 발표논문수(편)    | SCI 게재논문수(편) | 연구비(억 원)    | 특허·실용신안 등(건) |
|------|-------------|--------------|-------------|--------------|
| 2001 | 1,176 (5.4) | 732 (3.6)    | 731 (3.38)  | 178          |
| 2002 | 1,219 (5.6) | 790 (3.8)    | 652 (3.0)   | 251          |
| 2003 | 1,250 (5.7) | 964 (4.7)    | 670 (3.0)   | 218          |
| 2004 | 1,466 (6.7) | 1,069 (5.2)  | 1,017 (4.8) | 234          |
| 2005 | 1,203 (5.6) | 939 (4.4)    | 978 (4.4)   | 238          |

### 산학협동

포스텍은 설립 초기부터 '공학연구는 그 나라의 산업계와 궤(軌)를 같이해야 한다'라는 이념에 따라 산학연 협력연구 모델을 구현·발전시키고 있으며, 소수정예 교육 인력의 배출을 통해 차세대 대학의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중심의 대학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중심의 대학문화는 국내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모범적인 산학연 협력 사례는 단순히 공학연구가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산업계와 연계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유상부 포스텍 이사장(왼쪽 두 번째)과 정진석 가톨릭대 이사장(왼쪽 세 번째)이 2005년 2월 22일 의생명공학연구소 설립 조인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산업체 기술이전

대학은 축적된 기반연구와 연구경험, 풍부한 연구자원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포스텍은 1999년 연구처 산하에 이어 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비용·인력 등의 문제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체에 대학이 보유한 고급기술을 싼값에 제공하고 있다. 또 이 같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1999년 9월부터 사이버 테크노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체는 포스텍의 특허·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싼값에 살 수 있으며,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의 세부내용과 전수방법, 소요기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벤처기업 지원

포스텍은 1998년 7월 대학 부설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유망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포스텍의 교육·연구 기능을 활용해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포항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금까지 사이버다임·넷스루 등 25개의 벤처기업을 졸업시켰으며, 2006년 3월 현재 푸드사이언스·에어윈스 등 16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에게는 기술이전, 벤처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투자회사 연결,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교육 등 다양한 기술 및 경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7년 6월 포스코가 설립하고 포스텍이 경영하는 벤처캐피털 회사인 포스텍기술투자(주)도 2006년 3월 현재 300억 원의 자본금으로 국내외 60여 개의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등 벤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산학협력단 법인설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3.5.27) 및 동법 시행령(2003.9.19),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2004.9.1) 제정 등을 근거로 산학협력단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정관 교육인적자원부 승인(2004.1.31),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TFT 운영(2004.2.1~ 2.29), 산학협력단 운영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2004.2.24), 대학규정



포스텍에서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



포스텍의 제1호 학교기업 엔에스비 포스텍이 2006년 6월 2일 현판식을 열었다.



POSTECH VISION 2020 선포식 모습

개정 및 법인정관 제정(2004.3.9)을 완료하고 설립등기까지 마침으로써 2004년 4월 2일 산학협력단이 공식 발족했다.

### :: 개교 20주년 맞아 비전 2020 선포

포스텍은 개교 20주년을 맞아 2020년 세계 20위권 연구중심대학 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포스텍 비전 2020을 확정하고 2006년 4월 10일 이를 선포했다.

포스텍 비전 2020의 목표는 창의성, 진취성,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과 학문적·산업적으로 반향이 큰 연구 결과의 지속적 창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스텍은 선택과 집중, 학제간 협력, 국제화라는 전략 아래 △소수정예의 연구중심대학 특성을 살리는 교육 △중점 분야 육성, 학제간 협력 △교수진의 세계 수준화 △글로벌 캠퍼스 구축 △대학 발전 재원 확충 등 5대 중점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포스텍은 비전 선포 후 윤리현장을 공포하고 포스텍봉사단을 발족시켰다. 포스텍의 윤리현장은 포스텍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강령과 함께 교직원과 학생 등이 준수해야 할 실천규범을 담고 있다.

### :: 일반 봉사활동

#### 포스텍봉사단 창단

포스텍은 2006년 4월 10일 비전 선포식과 함께 포스텍봉사단 발족식을 거행하고 방승양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제1대 단장으로 선임했다. 포스텍봉사단은 대학 전 구성원의 '1인 1봉사활동'이란 원칙 아래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지원,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지원, 농어촌 봉사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포스텍은 학생들에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비롯한 미래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길러 주기 위해 1999년 6월 인성(人性)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중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전까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봉사활동을 넓은 세상 바라보기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총학생회·학과활동협의회·동아리연합회 등 학생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학교 측과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봉사활동, 현장체험교육, 교양강연 등 모두 14개로 구성,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이 중 봉사활동으로는 △형산강 정화활동 △소록도·꽃동네 봉사활동 △노인시설 자원봉사 △지역민 컴퓨터 지도 △중고생 여름-겨울학교 △농촌 봉사활동 등이 있다.

#### 여름-겨울학교 운영

동아리연합회 학생들은 해마다 방학 기간에 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겨울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 포스텍 학생들이 불우 근로학생을 위해 포항시내에서 해 오던 야학이 1990년대 중반에 지역 중·고교생들에게 영어·수학·컴퓨터 등을 가르치는 여름-겨울학교로 발전한 것이었다. 여름-겨울 학교는 1999년 이후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대학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변모했으며, 2000년부터 넓은 세상 바라보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봉사활동

포스텍은 1998년부터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음성꽃동네에서 지체부자유자·부랑아 등 불우이웃들과 부대끼며 함께하는 사회의 소중함을 배워 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포항 인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포스텍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신입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짧은 기간이나마 거동이 불편



포항 인근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스텍 신입생

한 환자들의 몸을 씻겨 주고 밥도 먹여 주며, 말로만 듣던 불우이웃들의 소외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 동아리 다솜 봉사활동

학년별 1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아리 다솜은 1989년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경북기독보육원과 자매결연을 하고 토요일마다 찾아가 아이들과 같이 놀거나 과외교습을 하고 있다. 축제 때는 이들을 학교로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도서 기증과 사랑의 편지 보내기 등 일련의 활동을 펴고 있다. 또 1998년 말부터 창포동 사회복지관에서 타 대학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

개교 직후 발족한 포스텍 문화프로그램위원회는 1987년 3월 16일 영국 브로드스키현악 4중주단 초청 공연을 개최한 후 방학기간을 제외한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행사를 개최해 오다 1993년부터 행사 날짜를 목요일로 옮겼다.

문화프로그램위원회는 목요문화행사를 통해 매년 연주회·음악회·연극·강연·영화상영 등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30여 차례 선보여 대학 구성원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다.

### 과학문화 전파 및 과학대중화 운동

포스텍은 과학문화 전파와 과학대중화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2002년 포스텍은 포항시와 공동으로 지방 최초로 대한민국 과학축전을 개최했으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4년 10월 포항은 과학문화재단이 선정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1호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됐다.

포스텍 과학문화연구센터(센터장 임경순 교수)는 동료 교수 15명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포항시민과 청소년 대상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포항 전 지역 33개 읍·면·동에서 열리고 있을 정도로 포항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겁다.

### 행사 및 공개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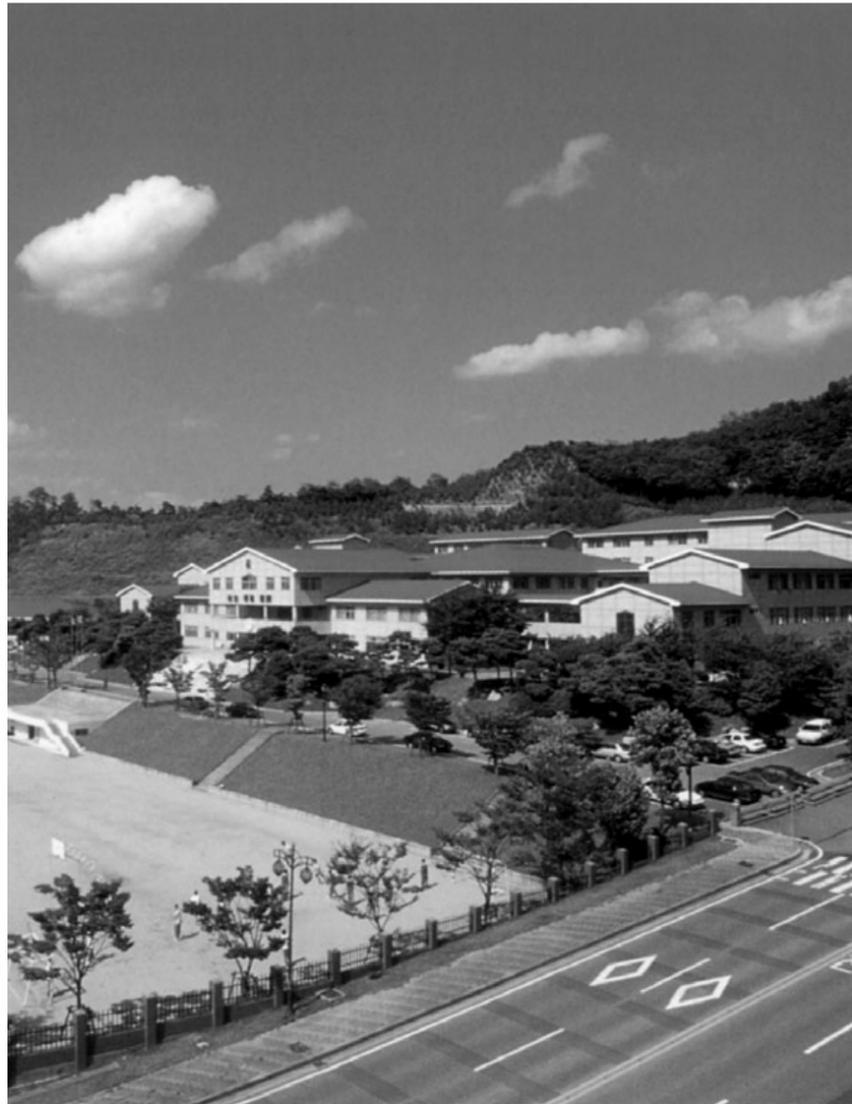
포스텍에서는 학술·교양강연 및 공개강좌 등이 다양하게 개최돼 포항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02년부터 매해 하반기 생명과학과가 주관하는 바이오 포럼에는 이 분야 연구 관련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포항시민들이 상당수 참석하고 있다. 또한 과학문화연구센터에서는 과학자와의 만남, 과학 대중강좌, 시민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포항의 문화 여건을 감안해 대강당, 체육관 등을 지역민들의 문화행사 개최 장소로 대관해 왔는데, 외부 공연이나 공개방송, 지역단체 행사 등이 월 1회 정도 열리고 있다.



2004년 2월 10일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과학! 골든벨

## 포스코교육재단



포항제철고등학교 전경

### :: 개요

포스코는 당시 박태준 사장이 주창한 교육입국 정신에 따라 1971년 1월 27일 포스코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12개 학교를 경영하는 선진 사학재단으로 성장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설립 이래 우수교사를 적극 유치하고 13년간 연계된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과 최고 수준의 진학지도를 실시해 사교육 문제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교육 효과는 극대화했다. 그 결과 재단 산하의 각 학교들은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 기관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재단 산하 각 학교를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국내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키워 냄으로써 포스코교육재단은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적으로 보여 주었다. 특히 포스코교육재단의 우수한 교육은 포항과 광양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가 됐으며, 우리나라 사학 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유치원생 2만 1686명, 초등학생 1만 8847명, 중학생 1만 8591명, 고등학생 2만 3845명을 배출했다. 앞으로도 포스코교육재단은 각 학교가 가진 우수한 교육여건을 활용해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함으로써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 정직한 인재, 창의적인 인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양제철초등학교는 2006년 1월 17일 열린 제3회 국제 청소년 수학경시대회에서 초등부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 포 항                    | 광 양                   | 비 고  |
|------------------------|-----------------------|--|
| 포항제철유치원(1971. 9. 15)   | 광양제철유치원(1985. 3. 5)   | 유치원 2개교<br>초등학교 5개교<br>중학교 2개교<br>고등학교 3개교 |
| 포항제철동초등학교(1987. 3. 5)  | 광양제철초등학교(1985. 3. 5)  |  |
| 포항제철서초등학교(1987. 3. 5)  | 광양제철남초등학교(1989. 3. 8) |  |
|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1998. 3. 1) | 광양제철중학교(1985. 3. 5)   |  |
| 포항제철중학교(1980. 3. 6)    | 광양제철고등학교(1986. 3. 3)  |  |
| 포항제철고등학교(1981. 3. 6)   |                       |  |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1978. 9. 1) |                       |  |
| 7개교 (재학생 7,652명)       | 5개교 (재학생 5,455명)      | 12개교 (재학생 13,107명)                         |



제4회 국제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포스코교육재단 학생들

###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로 우수한 성과 거둬

포스코교육재단은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세계적인 인재 배출에 정성을 쏟아 왔다. 지식산업사회에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해 노벨상 수상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같은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을 한층 강화한 것이었다. 그 결과 포스코교육재단은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가 주관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2002년과 2003년 2회 연속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는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세계수학교육자협의회가 2004년 3월 태국에서 주최한 제2회 국제 수학경시대회에서 이재민(6년)이 대상, 김다윗(6년)이 2위, 황성현(5년)·이정휘(4년)가 3위를 차지하는 등 참가 학생 4명 전원이 입상했다. 또한, 2005년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도 김동준(2년)이 대상, 최윤철(2년), 박정길(5년)·황성현(5년)이 각각 2위를 차지하는 등 역시 참가 학생 모두 입상했다. 2006년 4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회 대회에서도 포항제철서초등학교 박나연(3년)이 대상,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이정휘(6년)·이태규(2년)가 금상, 박영선(4년)·황지우(2년)가 각각 은상을 차지하는 등 참가 학생 5명 전원이 입상했다.

광양제철초등학교는 2006년 1월 17일 중국 톈진(天津)시 난카이(南開)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청소년 수학경시대회에서 초등부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혜진이 3학년부 대상, 송현근(3년)·조재필(5년)이 금상, 김지훈(4년)·심명섭·최명지(5년)가 은상을 차지하는 등 참가 학생 6명 전원이 입상했다.

한편,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성균관대학교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에서 1회부터 11회(2006년 상반기)까지 모두 최우수 학교상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수립해 학력 명문교로서의 위상을 널리 떨쳤다.

체조 분야에서는 포항제철고등학교 이상재(3년) 선수가 2003년 9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국제 주니어 체조대회 평행봉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포항제철중학교 김효빈(3년)이 2003년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 주니어부 도마에서 역시 3위에 올랐으며, 포항제철중학교 유한솔(2년)·한연숙(2년)은 2005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 주니어 체조대회 이단평행봉과

마루에서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2006 KBS 전국 체조대회에서 포항제철중학교 남·녀팀과 포항제철중학교 여자팀이 단체전 우승을 석권하는 등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각급 학교 체조부는 전국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많은 우수 선수들을 배출해 한국 체조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음악줄넘기부는 2004년 2월 7일 태국 방콕 추라롱콘대학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줄넘기선수권대회(아시아줄넘기협회 주최)에서 초등부 15종목 가운데 12종목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일본·싱가포르·대만·인도 등 아시아 10개국 20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김수지(6년)가 30초 뛰기, 3분 뛰기, 3단 뛰기, 개인 자유연기 등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개인 4관왕에 올랐고, 단체경기에서는 4인 30초 뛰기, 4인 2단 뛰기, 3인 40초 쌍줄넘기, 3인 쌍줄넘기 자유연기, 5인 음악줄넘기 연기 등 8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이 국제 무대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브라질 등 해외에서 교수와 지도자를 초빙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 올림픽에서 동메달 하나 획득하지 못한 여자 체조에서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11월 러시아 유·청소년 올림픽 상비군 코치 출신인 이바노브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코치를, 이듬해 7월에는 우리나라 여자 체조선수들의 취약점인 안무 분야의 지도를 위해 이바노바 마르가리타 블라지미로브나 코치를 초빙했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3년 12월 러시아 노브시비리스크 주립공대의 콘스탄틴 포노마레브 교수를 초빙해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 밖에도 브라질의 에지송 감독 후임으로 2005년 2월 브라질의 코샤 골키퍼 전담 코치를 영입해 광양제철남초등학교·광양제철중학교·광양제철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을 연계 지도하게 함으로써 각종 전국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축구에서도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각급 학교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축구 명문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광양제철중학교는 유소년 축구의 월드컵이라 할 수



지곡초등학교 음악줄넘기부가 줄넘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있는 2002년 제9회 나이키 프리미어컵 세계대회(15세 이하)에서 4위에 오르며 한·일월드컵 4강 진출 이후 한국 축구의 저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광양제철고등학교는 2006년 백운기 전국 우수고교 축구대회와 백록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1996년 창단 이후 전국 대회에서 10회 정상에 올랐으며, 포철공고도 1985년 창단 이후 전국 대회 8회 우승을 차지했다.

### 인성·독서·창의성 등 전인교육에 남다른 정성 쏟아

포스코교육재단은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에 남다른 정성을 쏟아 왔다. 무감독 명예시험과 양심가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직한 심성을 길러 주었으며, 2003년 5월에는 주체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올바른 인성과 함께 상상력·창의성을 길러 주기 위해 2003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World Book Day)을 맞아 필독서 600권(유치원 50권, 초등학교 300권, 중학교 150권, 고등학교 100권)을 발표하는 등 독서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했다. 독서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지만, 포스코교육재단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은 매우 드물어서 교육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02년 4월부터 창의성 향상 교육을 위한 집중 연수를 실시하는 등 창의성 교육에도 남다른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온 포스코교육재단은 2003년 4월 포항제철동·서·지곡초등학교에서 경북도내 초등학교 교감 전원과 유치원 원감, 교육청 장학사, 학무과장 등 533명이 참가한 대규모 창의성 수업방법 연수회를 개최해 21세기 교육의 화두인 창의성 교육의 신장과 확산에 기여했다.

한편, 학교의 경제 관련 교과서 내용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거나 실생활 경제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포스코교육재단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 교과서 밖의 다양한 경제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제 분야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가르쳐 온 것이다.

먼저, 2003년에는 재단 산하 초·중·고 학생 8800여 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제1회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에 참가한 포항제철고등학교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청소년 경제체험대회 장면

초청 경제교육을 실시했으며, 200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경제교육 방향 특강을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초등학교는 아나바다 장터, 사이버 물물교환, 통계대회 등의 다양한 경제체험 활동을, 중·고등학교는 시사경제반·경제경시반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항제철고등학교는 2004년 제1회 전국 고교생 경시대회(한국개발연구원 주최)에서 영예의 대상을, 포항제철동초등학교는 제4회 어린이 경제백일장(우리은행·이데일리 공동 주최)에서 대상을, 포항제철중학교는 제2회 전국 청소년 경제체험대회(한국경제신문 주최)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내 최초 '자립형 사립고' 운영과 영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포스코교육재단은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광양제철고등학교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른 2002년 3월부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로 운영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창의성을 살리는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입한 것이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선정된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광양제철고등학교는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체조·축구 국가대표와 토익·토플 만점자를 배출하는 등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특기·적성이 뛰어난 지역의 인재들에게도 입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입학 정원의 30% 이내, 광양제철고등학교는 20% 내외 수준에서 지역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교육재단은 2004년 11월 2일 포스텍과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등학교의 영재교육 프로그램(Honors Students Program)의 운영에 관해 포스코교육재단과 포스텍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학(1·2학년 각 5명), 물리(2학년 4명), 화학(2학년 4명) 분야의 포항제철고등학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포스텍 교수들이 시범수업을 거친 후,



이대공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과 박찬모 포스텍 총장이 2004년 11월 2일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2005년 3~4월(1단계)에 대학 일반과정 총론 수준, 5~6월(2단계)에 워크숍, 7~12월(3단계)에 대학 전공기초 수준을 가르치도록 돼 있다. 연간 총 수업시간은 74시간이며, 이 가운데 포스텍 교수가 50시간, 포항제철고등학교 교사가 24시간을 맡았다.

이 협약에는 포스텍이 포항제철고등학교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조인, 참여 학생의 연구시설 및 강의 편의 제공, 도서 학습자료 활용 등을 지원하고,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우수한 졸업생이 포스텍에 진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미 러시아 수학 교수와 체조 코치를 초빙한 바 있는 포항제철고등학교는 포스텍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로서 한층 더 내실 있는 운영과 과학영재의 양성이 가능하게 됐다.

**포철공고, 실업고의 성공 모델로 부각 - 2005학년도 졸업생 전원 취업 및 진학**

극심한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시기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의 2005학년도 졸업생 173명 가운데 87명(50.3%)이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GM 대우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나머지 86명(49.7%)도 한국기술교육대·건국대·광운대 등에 진학해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포철공고가 이처럼 취업과 진학에서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0년부터 4년간에 걸쳐 사회 흐름에 부응하고자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고, 최신 교육시설 도입과 커리큘럼의 대폭 개편, 우수 학생 선발 등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학교 신예화 작업을 충실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1인 다기능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야간 실습은 물론, 휴일에도 실습실을 개방해 소그룹 또는 개별 지도를 실시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 포철공고 졸업생 전원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물론, 122명(71%)의 학생이 복수 자격증을 취득해 1인당 평균 4.5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컴퓨터네트워크과 백의칠 학생은 21개(국제자격증 5개 포함)의 자격증을 취득해 국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포철공고는 2005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상북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합동으로 경북도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학교로 선정됐으며, 2006년 7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가 공동 주관하는 산학협력 우수 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한 2005년도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졸업생들

업고 지원사업 학교로 선정돼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스승존경 풍토 조성으로 공교육 정상화 기여**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계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포스코교육재단은 공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로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정하고, 전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승의 은혜를 주제로 한 문예작품 공모, 스승께 편지 쓰기, 훌륭한 스승 모시기 등의 스승 존경 운동과 함께 2000년부터 매년 올해의 포스코교육인을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 활동이 우수한 교원에게 노력에 상응한 시상을 하는 등 각종 격려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존경받는 스승상 및 사도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자신은 전문성 신장과 함께 훌륭한 품성 도야를 위한 부단한 자기 연찬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5대 사회과제 해결 운동 전개**

포스코교육재단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환경과피, 안전불감증, 잘못된 장묘문화, 지역감정, 저출산 등 다섯 가지의 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 방법을 찾는 '5대 사회과제' 해결 운동을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유치원에서부터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환경파수꾼·어린이 교통경찰대를 조직 운영하고, 세미나·토론회·전시회를 통한 교육과 개선 활동, 홈페이지·비디오·각종 교재를 제작 활용하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몸에 배도록 지도하고 있다.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외부 개방 통해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

포스코교육재단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은 포항과 광양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포스코교육재단 원어민 교사와 포스텍 교수 부인·연구원 등이 지도하는



포스코교육재단이 스승의 날을 맞아 개최한 모범 교직원 표창 및 글짓기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이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5대 사회과제 해결 운동의 일환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이 실시하는 영어캠프에서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영어캠프를 지역에 대폭 개방해 지역 학생들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영어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포항제철중학교의 경우, 2006년 여름방학에 포항시내 23개 중학교 197명(전체 238명 중 83%)이 참가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했으며, 이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15명에게는 참가비용 전액을 면제했다.

영어캠프에 참가한 포항시내 중학생들은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치는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을 받은 이후 외국인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포항제철중학교 영어캠프에 계속 참가하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포스코교육재단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지역과 함께 함으로써 포항과 광양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1온스의 체험으로 창의력을 키웁니다

...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받아야 할 상인데 혼자 받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에 감사드립니다.

... 과학교육에서 많은 성과를 일궜는데 과학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교육은 여러 가지 학문의 기초입니다. 다양하고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과학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과학공부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 어떤 방향의 과학교육을 지향해 왔습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단순히 과학자를 키우기 위해 과학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이 다양하게 탐구함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을 개발하는 데 과학교육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는 특히 체험 위주의 과학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온스의 경험이 1톤의 이론보다 낫다’는 존 듀이의 말처럼 체험 위주의 과학교육은 어린 학생들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 25년 교직생활에 감회가 깊을 것 같습니다.

초임 발령을 받고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시금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 교직생활에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올해 스승의 날에 제자들로부터 3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25년만에 연락이 온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하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을 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이들을 스쳐 지나가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 가슴에 하나의 점이라도 남기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알찬 과학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대중화를 위한 활동도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김현수 교사가 과학실험을 지도하는 모습

RIST



RIST 전경

:: 개요

포스코는 포스텍 개교를 앞두고 대학과 연구소 간의 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소 법인화를 추진해 1987년 3월 산업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포스코의 종합연구소 기능을 수행해 오다 1994년 6월과

1996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포스코의 연구개발체제 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을 조정했으며, 연구소 명칭도 제2차 개편을 앞둔 1996년 7월 9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리스트)으로 바꾸었다.

RIST는 2003년 7월 포스코의 제3차 연구개발체제 개편에 따라 철강분야 연구개발 기능을 포스코로 넘겨 주고, 포스코의 장기 발전에 필요한 핵심역량 중심의 연구기능을 특성화하는 체제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RIST는 핵심역량을 부품소재의 실용화, 철강 신수요 창출, 산업설비 자동화, 환경에너지 등으로 집약하고, 연구조직도 이에 맞춰 강구조연구소, 부품소재연구센터, 설비자동화연구센터, 환경에너지연구센터, 신뢰성평가센터, 용접센터, 기술이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연구지원본부로 정비했으며, 2006년 6월에는 울산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RIST의 울산 분소인 울산산업기술연구소를 정식으로 개소했다. RIST는 2006년 6월 말 현재 170여 명의 연구원을 비롯해 370여 명의 직원들이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실용화 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았다.

RIST는 지난 1987년 설립 이후 부품신소재와 설비자동화, 환경에너지, 강구조 등 종합적인 연구분야에서 6,500여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6,700여 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했다.

또한 RIST의 연구투자 효율은 2.2배에 달한다. 이는 연구비 1억 원을 투자하면 3년 내에 2억 2000만 원의 투자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RIST가 개발한 기술은 현장에서 직접 활용되는 비율이 무려 92%에 달해 실용화 기술 전문 연구기관에 걸맞은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RIST는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4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호주의 CSIRO, 미국의 아르곤(Argonne) 국립연구소 등 17개의 선진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R&D 글로벌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 :: 연구개발 활동

### 부품신소재연구센터

부품신소재연구센터는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포스코의 지원으로 250kW급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연구를 2004년 9월부터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4년 1월 전기적·기계적 특성이 우수해 각종 디스플레이 기기, 램프, 연료전지, 반도체 등의 소재로 활용되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나노튜브를 연간 10톤 생산할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비철합금과 공구강 소재와 부품들을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제조할 수 있는 스프레이포밍 기술과 재료의 성능과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수십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로에 이르는 박막코팅 기술, 플라즈마 표면개질 기술 등 첨단 표면처리 공정 등을 개발했다.

### 설비자동화연구센터

설비자동화연구센터는 각종 물류장비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 웹 모바일 기술을 응용한 무인 계측·인식 시스템, 로봇 응용기술을 이용한 원격 설비진단 시스템 등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산업설비에 지능을 부여하는 첨단 지능제어 시스템, 산업용 전자기기의 소형화 시스템 등 고객이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맞춤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환경에너지연구센터

환경에너지연구센터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오염물질 처리 기술과 미세분진 집진 기술, 폐수 처리·재이용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또한 산업활동의 생태계 영향 분석, 오염된 토양과 해양의 복원, 환경친화적인 산업제품 개발 등을 통해 국가의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 정책에도 부응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형 연소기와 폐열이용 기술 개발,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새로운 재생에너지 활용연구 등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노력했다. RIST 환경에너지연구센터는 지난 1998년 환경부로부터 민간연구기관 최초로 다이옥신 공인 측정 및 분석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연구활동의 공신력을 얻고 있다.



2005년 6월 21일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리스트 강구조연구소에서 실물 크기의 시험교량 공개 시험행사가 열렸다.

RIST는 2005년 10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포항철강공단 생태산업단지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생태산업단지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나 용수, 폐기물 등을 그냥 버리지 않고 기업간 교환을 통해 재활용함으로써 전국의 산업공단을 환경친화적인 공단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사업이다.

### 강구조연구소

경기도 화성에 있는 강구조연구소는 토목·건축 분야에서 철강재 수요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구조물과 비교해 경제성과 내구성, 소음(消音) 성능이 우수한 환경 친화형 아파트와 고성능 강교량 기술,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기술 등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이와 함께 중앙분리대, 교량 난간, 파형강관, 군사용 방화시설물, 스틸하우스 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하는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철강재 이용을 확대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더불어 2005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성능 건설 신재료 활용기술 연구단을 유치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출연금 165억 원, 민간 출연금 48억 원 등 총 22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고성능 강재, 섬유보강 플라스틱 및 신공간 창출을 위한 신재료 활용기술을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RIST 울산산업기술연구소

RIST는 연구수탁 기반을 강화하고 울산지역의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6월 27일 RIST 울산산업기술연구소를 울산시 북구 매곡동 매곡산업단지 내 자동차조선관 3층에 문을 열었다.

### 전문센터

RIST는 정부가 2011년까지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세계적인 부품 공급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로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 기반 구축사업의 금속소재 분야 신뢰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부인증인 신뢰성 마크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정부로부터 5년간 총 200억



RIST는 2005년 8월 30일 포스코센터에서 독일 기술검사협회 한국 지회사인 TÜV코리아와 신뢰성 인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세계적인 분석·해석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2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용접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1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산업자원부 지정 용접센터를 유치해 철강재, 비철금속, 세라믹 등 각종 소재의 접합기술과 표면재질 개선으로 제품 가치를 극대화하는 용접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RIST는 1995년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후 2000년 12월 국내 120개 공인시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1200여 종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수준 높은 분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동

### 민·산·관 기술협력지원 사업

민·산·관(民·産·官) 기술협력지원 사업은 1998년 IMF 관리체제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기금은 RIST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 약 4억 5000만 원으로 출발했는데,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포항·영천·경주·울산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민·산·관 협력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지원대상은 포항과 울산 지역의 중소제조기업이고 지원내용은 기술지도와 자문, 시험분석, 기술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포항 지역 기업에는 기술지도와 자문 외에 △기획조사 지원 △기술정보 제공, 시험분석 인증지원 △기술인력 능력배양 지원 등을 하고 있다.

RIST는 2000년부터 2006년 4월까지 모두 157개 사에 916건을 수행, 15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RIST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해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펀드를 출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리스트가 연구비의 75%를, 해당 중소기업이 25%(현물일 경우 10% 이내)를 내면 된다. 리스트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28개 사에 99건을 수행, 42억 9600만 원을 지원했다.

### 창업보육센터 운영

RIST는 1999년 3월 민간 연구기관 최초로 창업보육 사업자로 선정된 후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창업보육 및 기술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우수한 연구인력과 1200여 종의 실험장비, 5개의 대규모 실험동 등 최고 수준의 창업보육 인프라를 갖추고 제조업 중심의 창업보육 활동을 펼쳐 현재까지 14건의 기술이전과 41건의 연구개발 지원활동을 통해 모두 27개 창업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창업지원에 대한 사례로 나노프릭션과 닷텍 등 10개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기증받기도 했다. RIST 창업보육센터는 2005년과 2006년 연속으로 전국 290여 개의 창업보육센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리스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나노프릭션(주) 강홍원 사장과 닷텍의 성진경 사장이 2006년 4월 27일 류경렬 리스트 원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기증했다.

## 학술 · 교육

### :: 개요



이구택 회장은 2004년 2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이공계 출신 CEO 오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구택 회장은 "기업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스스로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고 말하고 "산업분야에서 대학과 연계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포스텍(포항공대),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청암재단을 통한 직접적인 교육 · 장학 사업을 추진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학술 진흥과 교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 왔다.

특히 포스코는 국내 철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994년부터 사외위탁 연구제도, 2000년부터 철강연구과제 공모제도, 2003년부터 철강연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왔다.

포스코는 철강에 대한 국내외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4년부터 철강논문상(2004년 포스코논문상으로 명칭 변경)을 제정해 시행해 왔으며, 스틸

가구 디자인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개념의 스틸가구를 개발하기 위해 1999년부터 스틸가구 디자인 공모전을 후원해 왔다. 또 철강재를 이용한 강구조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강구조 설계 공모전을 후원해 왔다.

포스코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 양성 활동의 일환으로 포항과 광양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한편,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배양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해 1993년부터 어린이 철강캠프를 개최해 왔으며, 포항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하반기부터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초등학생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2000년부터 어린이 컴퓨터 교실을 운영해 왔다.

### :: 산학 연구협력 활동

#### 산학 협력으로 철강기술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포스코는 그동안 국내 산학 연구협력 체제로 △철강연구 지원사업 △철강연구과제 공모제도 △사외위탁 연구제도 등을 운영해 국내 대학의 철강분야 연구자원과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철강 전문인력 육성에 힘써 왔다.

포스코의 이 같은 이공계 대학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 및 전문연구인력 육성 시스템은 국내 철강연구 저변 확대와 이공계 대학 진학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국산기술 개발 기반을 확보 함으로써 철강기술 발전 및 국가기술 혁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철강연구 지원사업은 포스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해 대학에 연구 여건을 마련해 주고, 대학은 포스코가 필요로 하는 철강 핵심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는 새로운 산 · 학 협동 모델이다.

**철강연구지원사업** ▶ 포스코는 2002년 12월부터 국내 대학 중 철강연구 역량을 보유한 34개 대학의 교수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수 전문역량, 연구수행 실적, 석 · 박사 인력 육성 현황 등을 조사해 고려대 · 서울대 · 수원대 · 연세대 · 포항공대 · 한양



포스코 철강연구 장학사업의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대 · KAIST 등 7개 대학의 교수 15명을 철강연구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2003년부터 매년 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해 우수 철강연구인력 육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들 대학은 포스코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 강재 개발 등 전략연구 분야의 선행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석 · 박사 대학원생 중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매년 총 2억 원 수준의 철강 장학금을 지원하고 핵심 연구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3년부터 3년간 교수들에게 총 6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석 · 박사 대학원생 108명에게는 4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포스코는 2006년 6월 1단계 철강연구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2단계에 지원할 6개 대학의 교수 14명을 선정해 향후 3년간 4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연구과제 공모제도** ▶ 이 제도는 2000년도에 대학의 학문적인 철강이론을 접목한 철강 제품과 공정, 강재이용기술 분야의 기초 · 선행 연구 분야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했으며, 2005년까지 총 44억 원의 철강기초 연구비를 지원해 대학의 철강연구 기반 구축을 도왔다.

2006년에는 4월에 철강연구과제를 공모해 서울대와 영남대 등 18명의 교수를 최종 선정 하고 6억 원의 철강 기초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외위탁 연구제도** ▶ 사외위탁 연구제도는 포스코가 필요로 하는 개별 기술을 위탁 연구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매년 20여 개 대학과 연구기관에 16억여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48개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8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포스코는 국내 대학에서 철강 기초 · 선행 연구 분야의 시드(Seed)성 연구를, 기술연구소에서 실용화 연구를 각각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대학과의 철강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대 · 한양대와 산학협력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설**

포스코는 2006년 2월 2일과 6일 양일에 걸쳐 경북대학교 · 한양대학교와 이공계 활성화 및 철강분야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경북대학교와 산학협력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설 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금속공학 관련 3 · 4학년 학부생들에게 △금속재료, 제철공정, 금속강도학 등 20여 강좌를 집중 수강하게 하고 △방학기간 동안 현장체험 실습을 하도록 하며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철강제조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응용기술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철강기술강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양대에서는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철강야금 기초이론, 제강이론 등 11개 철강기술 강좌를 개설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기술연구소 연구그룹리더가 수강학생 108명에게 산업현장의 생동감을 전달했으며, 6월 1일 철강연구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기술연구소장 특별강연을 실시해 철강기술에 대한 매력, 관심도 및 철강연구분야 도전의지를 더욱 높였다. 경북대에서는 8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개 철강기술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 속에 장기적으로 철강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포스코가 새로 도입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대학 내 철강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스틸가구 디자인 · 강구조물 설계 공모전**

**스틸가구 디자인 공모전 개최**

포스코는 우수한 스틸가구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개념의 스틸가구를 개발하기 위해 1999년부터 스틸가구 디자인 공모전을 후원해 왔다.

2003년 제5회 스틸가구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총 480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대구대 서원석 · 정혜진 팀의 ‘스마트(신개념 책상)’가 대상을, 카이스트 박우성 · 박수례 팀의 ‘휘면’ 등 2점이 금상을 받았다.

2004년 제6회 스틸가구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총 478점을 접수해 대상 1점을 비롯해 금상, 은상, 동상 등 29개 작품을 선정, 시상했다. 대상은 아이 코트(Eye Cot: 높낮이 조절형 병원침대)을 출품한 이상엽 씨가 받았고, 금상은 TS.05를 출품한 김영희 · 김주환 팀과 그루브(Groove)를 출품한 박세인 · 김수영 팀이 각각 받았다.



제7회 스틸가구 디자인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조명권 · 조아라 씨(사진 왼쪽부터)가 내빈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05년 제7회 스틸가구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총 546점을 접수해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5팀, 동상 20팀을 선정, 시상했다. 대상에는 서울산업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조아라 양과 경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조명권 군이 공동 출품한 '프레젠테이션 테스크'가 선정돼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과 7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금상에는 홍익대학교 김승일 군과 박민숙 양이 출품한 'SPIN'이 선정돼 매일경제신문 회장상과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스틸가구 공모전은 산업자원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금속가공공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주관하며, 포스코와 동부제강 등 철강업체가 후원하는 행사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가구 디자인 분야의 최고 행사다.

### 강구조물 설계 공모전 후원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환경친화적 소재인 철강재를 이용한 강구조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대한건축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후원으로 1998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구조 설계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21세기 정보도서관'이라는 주제로 2003년에 열린 제6회 공모전에서는 전국 47개 대학교에서 205개 팀이 응모했으며, 홍익대 고성진·박해승·정수영 팀이 제안한 '디지털 앤드 인포메이션(Digital & Information)'이 금상을 받았다. 금상 외에 은상 3개 작품, 동상 6개 작품, 입선 20개 작품 등 모두 30개 작품이 상을 받았다.

'지역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센터'라는 주제로 2004년에 열린 제7회 공모전에는 44개 학교에서 198개 팀이 작품을 응모했으며, 홍익대 이승준 씨 팀이 출품한 '서울 평창동 커뮤니티 센터(The moon holds on the light and it comes)'가 금상을 차지했다. 금상 1개 작품, 은상 4개 작품 등 모두 40개 작품이 상을 받았다.

'테마전시관'을 주제로 2005년에 열린 제8회 공모전에서는 150개 팀에서 작품을 응모했으며, 한국예술종합대 윤지원 씨 팀이 제안한 자연순환전시관이 대상을 받았다. 대상을 포함하여 모두 39개 팀이 상을 받았다.

2005년도 공모전의 경우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자는 해외건축 기회와 장학금 700만 원, 금상 수상자는 해외건축 기회와 장학금 500만 원, 은상·동상·입선작 수

상자는 장학금 300만 원·200만 원·3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총 상금은 3700만 원으로,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포스코는 1998년 제1회 강구조 설계공모전부터 협찬사로 참여하고, 입선 작품을 포스코센터 로비에 전시해 강구조 건축물의 인식 제고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한국스틸건축학교 개교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2006년 6월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축설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스틸건축학교를 열고 본격 교육에 들어갔다.

건축소재로서 철강재는 내구성과 내진성이 강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장점으로 인해 중저층 건축물에서부터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강교량에 이르기까지 강구조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강구조 건축설계 실무교육 인프라는 매우 취약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2006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강구조 건축물의 계획, 시공, 마감에 이르는 세부 과정을 건축설계 실무자에게 교육하기로 했다.

### 스틸하우스 전용교육장 신설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스틸하우스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스틸하우스 전용교육장을 마련하고, 2005년 3월 7일 스틸하우스 시공교육에 들어갔다.

강구조센터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70회에 걸쳐 실시한 스틸하우스 시공교육을 통해 1400명의 스틸하우스 시공 기술자를 배출했다. 2005년에도 매월 1회 2주간에 걸쳐 스틸하우스에 대한 이론과 시공교육을 했다.

강구조센터는 1996년 포스코·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와 함께 친환경성과 과학성이 입증된 스틸하우스 공법을 개발해 건설교통부의 건설 신기술로 인정받았다. 또한 스틸하우스 시공 기술자를 양성하고 스틸하우스 보급에 앞장서 왔다.



2003년 제6회 강구조물 설계 공모전 수상자들

## :: 포스코연구논문상

### 포스코연구논문상 공모제도 운영

포스코는 철강에 대한 국내·외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4년 철강논문상을 제정해 운영해 왔다. 2003년까지는 완성된 논문을 받아 심사한 후 당선작을 뽑았으나, 2004년부터는 상의 이름을 철강논문상에서 포스코연구논문상으로 바꾸면서 기획서 심사제 도입과 지도교수 선임 등을 도입해 논문의 질적인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11회를 거치는 동안에 응모된 논문은 모두 1083편이었다.

2003년에는 응모 논문 47편 중에서 우수작 2편(상금 각 500만 원), 장려상 3편(상금 각 300만 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상은 한양대 대학원의 홍승찬·이상환·임성환 씨(환경친화형 스테인리스강의 연구 동향 및 고온 특성 예측)와 삼육대의 고준호·이춘석 씨(포스코 기업이미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등 2팀이 받았다.

2004년에는 먼저 응모 기획서 260편 중에서 27편을 선정해 논문을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그 중에서 우수작 3편(상금 각 500만 원)과 장려상 3편(상금 각 300만 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상은 연세대의 PLASMA 팀(상업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 강판 특성 향상), 서울대의 마르지 않는 샘 팀(임파워먼트-호프 프로젝트), 고려대의 JEAN 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3팀이 받았다. 이들 우수팀에는 1주일간의 해외체험 기회도 제공했다.

2005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응모 기획서 183편 중에서 19편을 선정해 논문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그 중에서 대상 1편(상금 700만원), 우수상 2편(상금 각 500만원), 장려상 3편(상금 각 300만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은 포스텍의 RNB 팀(전기 산소 취입기 조작을 위한 햅틱 인터페이스)이 받았다. 2005년에는 대상은 물론 우수상을 받은 팀에도 1주일간의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9회 포스코 철강연구논문상 발표대회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 철강캠프 및 주니어공학·IT교실 운영

### 어린이 철강캠프 운영

포스코는 1993년부터 포항과 광양 지역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철강캠프를 운영해 왔다. 어린이 철강캠프에는 13년 동안 9600여 명이 참여했다.

'세상을 향한 희망의 나래로'란 주제로 열린 2003년 어린이 철강캠프에는 포항과 광양 지역 어린이 960여 명이 참가했다. 포항지역에서는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구룡포 청소년수련관에서 4회 열렸으며, 광양지역에서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구례 청소년수련관에서 3회 열렸다.

'꿈·미래, 우리는 친구'라는 주제로 열린 2004년 어린이 철강캠프에는 포항과 광양 지역 어린이 1160여 명이 참가했다. 포항지역에서는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영천 성덕수련원에서 2회 열렸으며, 광양지역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구례 청소년수련관에서 3회 열렸다.

'꿈, 미래,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2005년 어린이 철강캠프에는 포항과 광양 지역 어린이 1080여 명이 참가했다. 포항 지역에서는 8월 8일부터 18일까지 영덕 칠보산수련원에서 3회 열렸으며, 광양 지역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하동군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3회 열렸다.

어린이 철강캠프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공동체 생활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있다.

### 주니어 공학교실 운영

포스코는 포항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해 왔다. 2004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주니어 공학교실에는 2005년 상반기 1300명과 하반기 1172명 등 모두 3720명이 참가해 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크게 높였다.

초등학생들은 강사들의 지도를 받아 자기부상열차, 해수보트, 전자기타, 반도체 고리, 슝바꼭질 온도계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며 과학의 세계를 체험했다. 학급별로 2명



포스코가 주최한 철강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모자를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철강캠프 참가 학생들이 철강재로 만들기를 하고 있다.



포항시 상대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포스코 주니어 공학교실에서 라이트 형제 비행기 만들기를 하고 있다.

의 강사가 5~6명의 아이들과 한 조를 이뤄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매우 높았다.

강의는 자원봉사자로 나선 기술연구소와 포항제철소 엔지니어 18명이 맡았고, 공학교실 운영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구입비 4005만 원은 포스코가 부담했다. 공학교실 운영 대상 학교 선정은 포항교육청이 담당했다. 포스코는 2006년부터 광양에서도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포스코 주니어 공학교실은 어린 꿈나무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과학인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사이언스 코리아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어린이 IT교실 운영

포스코 인재개발원은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IT교실을 운영해 왔다. 인재개발원이 방학기간에 반일제 5일 과정으로 운영한 어린이 IT교실에는 2000년 7월부터 2005년 말까지 3200명이 참여했다. 인재개발원은 참여 범위를 2004년부터 포항시와 광양시 초등학교로 확대했다.

어린이 IT교실에서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그림자료를 검색하고 한글을 이용해 편집하는 능력을 키워 주는 '스스로 숙제하기' 과정, 4~6학년 학생에게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인터넷에 내 집 마련' 과정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플래시' 과정 등을 가르치고 있다.

###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후원

포스코가 물리 분야의 두뇌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2004) 대회를 후원했다. 포항공대 주최로 2004년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포항공대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회는 20세 미만의 학생대표 5명과 2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각국 공식 대표단과 물리학 교육관 관련된 인사들이 참가했다.

주요 행사인 물리경시대회에는 73개국에서 327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포항 첨단과학 산업단지 · 포항공대 과학연구 시설 · 경주 신라 유적 견학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버트 로플린)와의 대화시간 △포스코 창의력 축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21일 열린 포스코 창의력 축제는 오락적 요소와 교육적 요소를 함께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행사로 외국의 35개 팀과 한국의 20개 팀이 탐석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유네스코(UNESCO) 후원으로 매년 열리는 6개(수학, 화학, 물리, 정보, 생물, 천문)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중 하나다. 1967년 폴란드에서 시작돼 2004년 35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세계 청소년들의 물리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물리학에 재능 있는 각국 대표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능력을 겨루게 하는 물리학 교육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 증진의 장이다.



포스코가 포항·광양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IT교실이 초등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 생산력 향상에 도움되길...

### ... 수상 소감은?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포스코 관계자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기술이 포스코 현장에 적용되어 현장 직원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산력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 논문은 어떤 내용인가?

포스코가 가동 중인 전기로에서 양질의 쇳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쇳물이 고른 온도 분포를 가져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산소 공급 로봇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 로봇은 특수 처리된 안경을 쓰고 원격지에서 작업자가 노 내부를 눈으로 관찰하면서 조이스틱(Joy Stick)을 이용해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로에는 고온의 쇳물이 녹아 있기 때문에 조작자의 눈으로 내부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로봇 조작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로봇과 전기로의 충돌로 인하여 전기로 손상과 마모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른 노 교체와 생산 공정 중단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죠.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조작자에게 전기로 내부와 로봇의 상태를 나타내는 3차원 가상현실을 제공해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한 시각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 ... 기대효과는?

로봇 조작 중 충돌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는 햅틱 장치(힘을 반영한 조이스틱)를 이용, 위험 신호를 촉감으로 작업자에게 전달해 조작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 교체와 생산공정의 중단 없이 적은 비용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또한 조작 실수에 대한 작업자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작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생산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 글은 2005년 포스코 연구논문 대상을 차지한 포스텍 RNB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자동차 CF 만들며 철의 소중함 느껴

2005년 8월 11일 아침 일찍 집을 떠나 2박 3일간의 포스코 철강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철보산 수련원에 도착했다.

철강캠프 선생님들의 화려한 춤으로 시작된 입춘식 행사를 보며 입을 다물 줄 몰랐던 나와 친구들은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익혀 나갔다. 같은 또래들이라 그런지 겨우 입춘식을 마쳤을 뿐인데 무척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1일차 첫 프로그램으로 철강캠프 친구들과 조별로 '만약 철이 없다면'이라는 주제의 상황극 CF를 찍었다. '철로 된 물체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우리 조는 '자동차'를 주제로 정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나누어 열심히 연습했다.

연습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드디어 우리 차례.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역할이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내 생애 첫 CF를 성공적으로 잘 찍을 수 있었다. 감독님께서 '우리 조가 최고'라며 칭찬을 해 주셔서 가슴이 뿌듯했다.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철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일차. 2일차는 내가 가장 기대했던 날이다. 왜냐하면 신나는 래프팅이 있기 때문이다. 래프팅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우린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바다에 들어갔다. 교관 선생님의 무서운 기합 소리와 함께 보트에 올라타 구렁에 맞춰 "하나, 둘, 셋, 넷!"을 외치며 힘차게 노를 저었다.

도중에 노 젓는 방향이 틀리기도 하고 보트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도 했지만 마음만 모두가 하나였다. 한편으로는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모두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해냈다는 자신감에 들떠 있었다.

철강캠프 마지막 시간인 촛불의식. 기쁜 일이 있을 땐 생각도 안 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부모님을 찾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철강캠프를 마치며 퇴촌식을 할 땐 모두가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나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다.



장혜령 · 장혜진 자매

장혜령 · 장혜진 자매(포항 사회봉사실 장병일씨 자녀) / 2005. 9. 1

# IV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

박 원 순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 믿음으로 희망 주는 기업이 되어주길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품? 아닙니다. 현명한 기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 믿음이라는 가치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조직이 되려면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신뢰가 형성되겠습니까? 투명함이 신뢰의 출발입니다. 정직은 믿음을 줍니다. 정직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믿어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가치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브랜드란 '고객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신뢰'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것이 사회공헌의 핵심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선진 사회로 도약을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경우도 있고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스코는 인재양성, 연구지원, 지역 커뮤니티 분야에 많은 사회공헌을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격에 잘 어울리는 사회공헌의 적절한 방향입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카피처럼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분야에서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와의 협력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포스코를 창립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의 탄생에 포스코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포스코의 특성을 살린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가게 간사들에 대한 교육지원(6시그마)이나 기증함의 제작은 포스코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 가족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많은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포스코 센터에서 개최되는 아름다운 토요일은 지역 주민들의 즐거운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망은 믿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사람들에 대한 믿음, 내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희망은 내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언제나 믿음직한 기업! 포스코가 우리 사회에 믿음을 주는 희망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재양성, 연구지원, 지역 커뮤니티 분야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력이 포스코를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

### :: 개요

포스코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장애인과 결식노인, 생계가 곤란한 이웃들을 위해 성금이나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무료급식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NPO) 등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 활동범위를 포항과 광양 지역에서 전국으로 넓혔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자활의 꿈을 심어 주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240세대에 생계비를 지원해 왔으며, 포항과 광양의 결식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지역주민 등을 위해 2004년 5월 무료급식소인 포스코 나눔의 집 2곳을 개설한 데 이어 2005년 5월 광양에 1곳을 추가로 개설했다. 2005년 9월에는 포항 지역 18개 사회복지시설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11월에는 서울과 포항 지역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와 승합차, 컴퓨터를 전달하고 경북 지역 사회복지시설 15곳에 2억 원 상당의 저온창고를 지원했으며, 12월에는 전남 지역 26개 사회복지시설에 이동복지관 차량 3대와 이동목욕탕 차량 3대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비를 지원했다. 2006년 2월에는 노숙자와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나눔의 밥차를 경인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고, 3월에는 포항 지역 직장 보육시설인 포스코 어린이 집을 개원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출자사와 공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60억 원을 기탁했다.

포스코는 이와 같이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태풍이나 폭설, 화재 같은 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해서도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사고 시에는 대구광역시에 위로금 5억 원을 기탁했다. 9월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 재난을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해 수재의연금 20억 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2005년 9월에는 2005년 9월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막대한 피해를 본 미국 동남부 지역 복구 성금 5억 9000만 원을 기탁했고, 태풍 '나비'가 할퀴고 간 올릉도에 350여 개의 긴급구호 키트를 전달했다.

또한 포스코는 더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 위해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2004년 3월부터 포스코 임직원들로부터 재회용품을 수거해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쓰고 연말에는 나눔보따리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2005년 5월부터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함께 전국 대학생 전공학문 연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굿네이버스와는 2005년 7월 긴급구호용 키트를 제작해 긴급 재난재해 시 신속히 지원하는 체제를 갖췄다.

한편, 포스코는 2003년 10월부터 MBC-TV의 러브하우스 프로그램에, 2004년 7월부터 KBS 1TV '6시 내 고향'의 백년가약 프로그램에 스틸하우스용 아연도금강판 소재를 지원해 왔으며, 2004년 3월 부산·영남 지역 청소년 자립생활관 '정명재'를 건립했다.

### :: 불우이웃 돕기 성금

#### 3년간 연말 이웃돕기 성금 160억 원 기탁

포스코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작으나마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해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해 왔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기탁한 금액은 모두 160억 원이었다.

2003년에는 포스코가 20억 원을 전달했고, 2004년에는 포스코 50억 원, 출자사 20억 원(포스코건설·창원특수강·포항강관·포스틸 각 5억 원) 총 70억 원을 기탁했으며, 2005년에는 포스코 50억 원, 출자사 20억 원(포스코건설·포스콘 각각 5억 원, 창원특수강·포철산기·포철기연·포스텍 각각 2억 5000만 원) 총 70억 원을 기탁했다.



강창오 사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세중 회장에게 연말 이웃돕기 성금 70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포항·광양 불우이웃 240세대에 생계비 8억 6400만 원 지원**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자활의 꿈을 심어 주기 위해 2006년에도 지역별로 120세대씩 모두 240세대에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양 지역의 240세대에 8억 64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1월부터 매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포항 지역에서는 설을 앞둔 1월 23일 2006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20세대를 시청으로 초청해 자매결연 행사를 하고 1년간 후원금 지원을 약속하는 증서를 전달했다. 광양제철소는 2006년에 광양 지역 80세대를 비롯해 남해·하동 지역의 40세대에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월 21일 태인동의 저소득 가정 23세대를 비롯해 광양 지역 80세대를 초청해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2004년에 도입한 이 지원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구(NPO)와 함께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 선정, 포스코가 재원 조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금 전달을 각각 맡는다. 주요 지원대상은 노약자·장애인 세대,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세대 등이다. 포스코는 2004년 220세대, 2005년 240세대 등 모두 460세대에 15억 7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포항 지역 사회복지시설 18곳에 2억 3000만 원 지원**

경제여건이 어려운데도 포스코는 2005년 9월 9일 포항 지역 내 자활후견기관과 복지관 등 18개 사회복지시설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본사 비즈니스홀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전달식에는 장병기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방성수 사무처장,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통문화 체험 학습장 '담담' 등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 사업장 마련과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비 보완 등 포항지역 사회복지 전반에 사용됐다.

**북한 용천역 복구 성금 5억 원 기탁**

이구택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은 2004년 4월 30일, 북한 용천 열차사고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에 5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구택 회장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



전통문화 체험 학습장 '담담'

산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피해 지역이 이른 시일 내에 복구되길 바란다면 성금을 기탁했다. 4월 22일 북한 용천역 열차폭발 사고로 철도가 훼손되고 용천역사를 비롯해 역 부근의 학교와 관공서, 상가건물, 민가가 크게 부서져 폐허가 됐다. 가옥 1850여 채가 완전히 붕괴됐고, 6300여 채의 가옥은 부분적 피해를 봤으며, 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 아름다운 토요일**

**니눔과 참여의 '아름다운 토요일'**

포스코는 2004년 3월 6일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해 거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토요일' 자원봉사 활동을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펼쳤다. 이 행사에는 이구택 회장을 비롯해 백인규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했다. 이 행사를 위해 포스코 임직원들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포항·광양·서울 지역별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주방 및 아동 용품 등 총 4만 2587점을 수집해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는 3월 6일을 포스코 데이로 정하고 포스코에서 기증한 전체 물품 가운데 1만 2000점을 출고해 1호점인 안국점 등 서울 시내 8곳의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동시 판매한 결과, 4874점이 팔려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시작 이후 최고 기록인 1400만 원의 일일 매출액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이날 수익금은 물론 미출고 물품 판매 수익금까지 모두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다.

**포스코 나눔마당' 9만 4000여 점 수집, 7840만 원 어치 판매**

포스코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2004년 11월 26일 포스코센터, 11월 27일 전국 27개 아름다운가게에서 출차사와 외주 파트너사까지 참여하는 범포스코 차원의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열었다. 이를 동안, 포스코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품 등 총 3만



2004년 11월 16일 열린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 이구택 회장 등 임직원 32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5450여 점을 판매해 7840만 7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생활용품 기증 수량과 매출 면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포스코의 날로 명명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는 포스코 임직원 320여 명이 일일 봉사자로 참여했다. 11월 26일 포스코센터에는 이구택 회장 부부를 비롯해 범포스코 임직원 95명이, 11월 27일 전국 매장에는 228명의 임직원이 힘을 모았다. 2만여 점의 물품이 전시된 포스코센터 나눔마당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방문해 거래 물품 1만 5000여 점, 판매액 3693만 3000원을 기록하며 성황을 이뤘다. 또한 포항과 광양 지역의 특산품인 오징어, 미역, 매실 등을 판매하며 서울 시민들에게 양 지역의 특산품을 알렸다.

11월 27일 서울 15개 매장, 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27개 매장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2만여 점이 거래돼 4147만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위해 범포스코 차원에서 임직원 3만여 명이 9만 4000여 점의 물품을 모아 기증했다.

**뷰티풀 오피스 운동으로 불우이웃 도와**

포스코봉사단은 2005년 1월부터 아름다운가게와 공동으로 뷰티풀 오피스(Beautiful Office) 운동을 전개했다. 포스코봉사단은 이를 위해 포항·광양의 사무실, 포스코센터 등 55곳에 기증함을 설치했다. 뷰티풀 오피스 운동은 기업이 사무실에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프린터용 페토너와 폐카트리지를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면 아름다운가게에서 이를 재생·판매해 거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포스코 봉사단은 2005년 말까지 모두 2500여 개의 페토너와 폐카트리지를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다.

**2005년도 범포스코 나눔마당 개최 - 수익금 전액 폭설 피해지역 복구에 기부**

포스코는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임직원들과 함께 2005년 12월 23일 포스코 나눔마당을 열고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센터를 비롯해 서울·경북·전남 등 전국 27개 아름다운가게와 포항 행복한가게에서 열린 나눔마당서는 범포스코에서 기증한 11만 6000여 점의 물품 중 7600여 점을 판매해 92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 아름다운가게의 역대 기업 행사 중 기증물품 및 수익금에서 최대 규모



포스코는 2005년 12월 23일 포스코센터를 비롯해 서울·포항·광양 지역의 아름다운가게에서 범포스코 나눔마당을 열었다.

였다. 포스코와 아름다운가게는 수익금 전액을 호남지역 폭설피해 복구에 지원했다. 몽블랑 만년필 등 60여 점의 물품을 기증한 이구택 회장은 이날 포스코센터에서 부인 이정란 여사와 함께 직접 고객들을 맞아 물품을 판매했다. 강창오 사장은 2005년에 임직원들이 적립한 사회강사로 1650만 원을 '은빛겨자씨' 기금으로 전달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은빛겨자씨' 기금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홀로 된 노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양 제철소와 출자사 임직원들이 모두 8개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활동을 도왔으며, 광양제철소는 아름다운가게 순천점에 생활용품 수거 차량을 기증했다.

포스코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최한 나눔마당 물품 수집에는 서울·포항·광양 지역에서 포스코를 비롯해 출자사·외주파트너사·공급사 등 170여 기업에서 4만여 명이 참여했다.

**:: 전국 단위 긴급구호 활동**

**굿네이버스와 재난대비 긴급구호 키트 3000개 제작**

포스코는 각종 재난재해 시 이재민들에게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재난대비용 긴급구호 키트(생필품 세트)를 제작했다.

포스코는 2005년 7월 6일 포스코센터 아트리움에서 재난 대비용 긴급구호 키트 제작 행사를 열고 이재민 3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구호 키트를 만들었다. 키트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수 구호물자를 사전에 포장해 놓은 것이다. 포스코는 2004년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이웃돕기성금 50억 원 중 지정기탁금 2억 원을 활용해 10만 3000원 상당의 생필품 25종을 담아 키트를 만들었다.

사회복지법인인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화)와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구택 회장을 비롯해 백인규 노경협의회 직원대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다.

포스코와 굿네이버스는 제작한 키트를 굿네이버스의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수해 등



2005년 7월 6일 포스코 이구택 회장 등 임직원 150여 명이 포스코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긴급구호 키트를 제작하고 있다.



울릉도 이재민에게 긴급구호 키트를 전달하는 모습

긴급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에게 전달하고 이와 함께 포스코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굿네이버스에서는 의료팀을 각각 파견해 복구를 돕고 있다.

### 굿네이버스와 함께 울릉도 주민에게 긴급구호 키트 전달

포스코는 2005년 9월 13일 전문사회복지기관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태풍 '나비'가 할취고 간 울릉도의 200세대 500여 명의 이재민에게 350여 개의 긴급구호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 태풍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울릉도는 500mm가 넘는 폭우로 주택 165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되고,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해 즉각적인 복구 지원이 절실했다.

### 양양 낙산사 복구 지원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주임단은 2005년 4월 5일 대형 산불로 소실된 강원도 양양 낙산사의 복구작업을 도왔다. 양 체철소 주임단 소속 주임 20여명은 가족들과 함께 2005년 4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 골재를 깔고 전기선을 매설하는 등 일손을 거들며 낙산사의 빠른 복구를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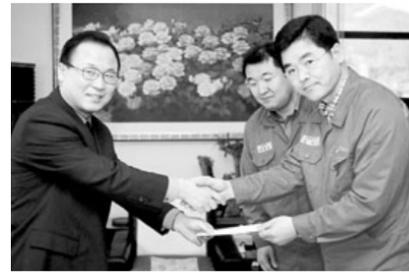
### 삼척시 폭설피해 농가 복구 지원

포스코봉사단 서울지역본부는 폭설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삼척시에서 긴급 복구활동을 펼쳤다. 2005년 3월 초 폭설로 강원도 영동 지역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포스코와 동우사 직원 60명은 3월 11일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의 피해 농가들을 찾아가 500여 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철거와 농작물 이송 등을 도왔다.

### 대구지하철 사고 위로금 5억 원 기탁

포스코는 2003년 2월 19일 대구지하철 사고와 관련해 대구광역시에 위로금 5억 원을 기탁했다. 포스코 직원들도 참사를 당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

포항 주재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라면과 생필품을 구입해 2월 20일 대



광양제철소 열연부 직원들이 순천KBS방송국을 방문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유가족 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구지하철 사고 현장에 들러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또 2월 27일에는 스테인리스부 직원들이 자매마을인 양학동 주민들과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준공 16주년을 맞은 광양제철소 1열연공장은 당초 예정했던 기념식을 대폭 축소하고, 행사 비용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유가족 돕기 성금으로 2월 25일 순천KBS에 기탁했다. 제강부협의회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직원들이 쓴 '희망의 편지'와 함께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도 전달했다. 냉연부 직원들은 검은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출근하는가 하면 이메일 제목에 검은색 리본(▶◀)을 붙여 추도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 :: 복지시설 건립, 운영지원

### '포스코 어린이집' 개원

포스코는 2006년 3월 6일 포항지역 직장 보육시설인 포스코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효자제철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포스코 어린이집은 만 1세부터 5세 미만의 영·유아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문보육 업체인 푸른보육경영이 운영을 맡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다. 서울 지역에서는 1월부터 분당, 서초, 일산의 푸른보육원에 희망 직원들의 자녀를 맡기고 있다. 광양 지역에서는 광양제철 유치원 건물 가운데 일부를 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치고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가 2006년 7월 1일 개원했다.

### 포항·광양에 무료급식소 개설

포스코는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포항과 광양에 무료급식소인 포스코 나눔의 집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포스코 나눔의 집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만 65세 이상 노인 520여 명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 지역에서는 2004년 5월 11일 해도2동에 포스코 나눔의 집을 개설했으며, 포스



포스코는 2006년 3월 6일 포항 포스코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양시 태인동에 문을 연 두 번째 포스코 나눔의 집

코 직원 부인들과 해도2동부녀회 등 18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광양지역에서는 2004년 5월 17일 광영동에 포스코 나눔의 집 1곳을 개설한 데 이어 2005년 5월 6일 태인동에 1곳을 추가로 개설했다. 광영동 포스코 나눔의 집에서는 광양제철소 직원 부인들과 광영동부녀회원 등 120여 명이, 태인동 나눔의 집에서는 직원 부인들과 주민 등 175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태인동에 나눔의 집이 개설될 때까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태인동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했는데, 2004년 7월 26일부터 총 3500여 개를 배달했다.

**구세군복지재단 등에 나눔의 밥차 기증**

포스코는 2006년 2월 8일 노숙자와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나눔의 밥차를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다. 포스코가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기증한 밥차는 5톤 트럭을 개조해 조리-배식-냉장-급수 장치를 설치한 급식차 2대와 식당버스 1대로 전천후 이동 무료급식이 가능하다. 이 밥차는 1시간에 300인의 식사준비가 가능하며, 여름철에도 자원봉사자가 위생적인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포스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해 선정한 구세군복지재단에 급식차 1대와 식당버스 1대,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에 급식차 1대를 각각 기증했다. 구세군복지재단은 영등포역 등에서 매주 세 차례(월·수·금) 노인과 노숙자에게 아침과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은 매주 다섯 차례(월~금) 인근 임대아파트와 경로당을 순회하며 결식 노인 등에게 음식을 배달한다. 이날 밥차 기증은 2005년 포스코가 포항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장애인 이동차량과 이동복지관 차량, 광양 지역에 기증한 이동목욕탕 차량 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관련 단체의 반응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진행됐다. 2005년 포스코가 기증한 장애인 이동차량과 이동목욕탕 차량 등은 전남 신안군과 고흥군 등의 도서 지역과 순천, 구례, 화순, 여수, 포항 등에서 장애인 이동지원과 진료, 급식, 상담, 목욕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가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구세군복지재단에 기증한 밥차. 이 밥차는 1시간에 300인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이동복지관 차량 및 이동목욕탕 차량 기증**

광양제철소는 2005년 12월 9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홍석)를 통해 전남 지역 26개 사회복지시설에 이동복지관 차량과 이동목욕탕 차량 각 3대와 생활환경 개선비를 전달했다. 광양제철소는 2004년 12월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남공동모금회에 기부한 5억 원의 성금으로 이동복지관과 이동목욕탕 차량을 3대씩 제작하고 환경개선 비용을 전달한 바 있다. 이동복지관 차량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관의 역할을, 이동목욕탕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목욕을 돕게 되며,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자활후견기관 등 6곳에 전달됐다. 혈압·혈당 측정 시스템과 핫팩 등을 갖춘 이동복지관 차량은 물리치료, 한방진료와 가족상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목욕탕 차량은 급탕 온수기와 이동욕조 등을 갖춰 중증 노인들의 목욕과 청결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광양제철소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광양과 순천지역 2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환경 개선비를 27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서울과 포항서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승합차 전달**

포스코는 2005년 11월 15일 서울과 포항에서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와 승합차, 펜티엄급 컴퓨터를 전달했다. 이날 포스코는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동휠체어 나눔 행사에 참가해 중증장애인들에게 5억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167대를 전달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한 전동휠체어 나눔 행사에는 포스코를 비롯해 전경련 32개 회원사가 참여했다. 이날 포항 본사에서도 포항지역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포항시농아인협회와 포항정신지체애호협회에 12인승 승합차 1대씩을 전달했으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항지부에는 펜티엄급 컴퓨터 9대를 전달했다. 승합차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도모와 지원사업 효율 제고에, 컴퓨터는 장애인들의 정보화 교육과 재활연수 지원에 사용됐다.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이 박홍석 전남공동모금회장에게 이동복지관 차량과 이동목욕탕 차량을 전달하고 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저온창고 지원사업 전달식 모습

###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15곳에 저온창고 지원

포스코는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에 2억 원 상당의 저온창고 15개소를 지원했다. 저온창고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적인 식료품 보관에 사용됐다. 2005년 10월 포항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정애원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종태 전무 등 임직원과 방성수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난승 스님을 비롯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기관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 :: 대학 봉사활동 지원

### 전국 대학생 전공 학문 연계 사회봉사 활동 발대식 - 포스코 봉사학습 적극 지원

포스코가 대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1월 18일 포스코센터에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회장 김성수)와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활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창오 사장,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김성수 회장, 후원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세중 회장을 비롯해 각 대학 총장과 학장, 교수,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공 연계 사회봉사 활동은 각 대학이 사회복지학부, 의예과, 컴퓨터공학과, 간호학과 등 학부, 학과 단위별로 진행하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활동으로, 대학생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여름, 겨울방학이나 주말에 실천하는 봉사활동이다.

한편, 전국 대학생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활동은 2000년부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주관 아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추진돼 왔으며,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처음 지원에 나선으로써 양적·질적으로 더욱 활성화됐다. 포스코는 2005년 5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2006년도 전국 대학생 전공 연계 봉사활동 지원 - 92개 대학 1만여 명 참여

포스코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회장 김성수)와 함께 2006년 5월 한 달



포스코는 2005년 11월 18일 '전국 대학생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활동' 발대식을 거행했다.

간 전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학부·학과 단위의 전공학문 연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한 후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92개 대학의 170개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2006년부터는 더 내실 있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당 최대 400만 원까지 경비를 확대 지원한다. 2007년 2월까지 계속되는 이 봉사활동에는 총 1만여 명의 지도교수와 교직원, 대학생이 참여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 90명은 주말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교수와 학생 60명은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서울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들에게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선문대학교 식품과학과 학생들은 매주 한 번씩 어려운 독거노인과 고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빵 굽고 사랑 나누기' 활동을 펼친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해당 학부와 학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봉사학습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2005년에는 97개 대학 258개 프로그램에 1만 5000여 명의 대학생과 교수들이 참여했다. 대학생 전문봉사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봉사 관련 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한 대학도 2004년 44개에서 2005년에는 92개로 늘어났다.

## :: 스틸하우스 건립자재 지원

### KBS TV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스틸하우스용 철강재 지원

포스코는 2004년 5월부터 농어촌 지역에 스틸하우스 보급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시설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KBS 1TV 6시 내 고향의 백년가약 프로그램에 스틸하우스용 아연도금강판 소재를 지원해 왔다.

2004년 5월에 시작된 KBS 1TV 6시 내고향 백년가약 프로그램은 전국 100개 마을을 선정하여 특산물 판매점, 마을회관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2006년 6월까지 90여 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전문 제작업체가 포스코의 철강 소재를 사용해 짧은 공기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마을 공동 건축물을 만들어 냈으며 제작진과 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이 이주노동자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KBS 1TV 6시 내 고향의 백년가약 프로그램에서 포스코가 지원한 아연도금강판으로 스틸하우스를 짓고 있다.



포스코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강재로 지은 MBC TV 러브하우스 '역척 엄마네' (2003년 10월 5일 방영) 주택

이 프로그램은 2006년 8월까지 총 100회를 방영하는 동안 신축 건물의 70%를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었다.

### 부산·영남 청소년 자립생활관 건립 지원

포스코가 스틸하우스 공법을 이용해 건축한 부산·영남지역 청소년 자립생활관 '정명재'가 2004년 3월 5일 개관했다. 이날 창원시 용덕중학교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영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강금실 법무부장관, 강창오 사장, 부산·영남지역 관련 인사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창오 사장은 청소년 자립생활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이구택 회장을 대신해 강금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소년원을 퇴원한 무의탁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명재' 건립에 포스코는 용융아연도금강판 28톤과 관련 비용을 지원했다.

### MBC - TV 러브하우스에 스틸하우스용 철강재 무상 지원

포스코는 MBC - TV의 러브하우스 프로그램에서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집을 짓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2003년 10월부터 관련 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스틸하우스의 장점도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11월부터 방영된 MBC - TV의 러브하우스는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희귀병 환자 등의 주택을 안락하게 개조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포스코는 러브하우스 방영 초기부터 단기간에 증축과 신축이 가능한 스틸하우스 공법을 방송사에 제시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해 왔다. 짧은 기간에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참여한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스틸하우스를 적극 환영했다. 이들은 스틸하우스에 대해 공사 기간이 15일 정도로 짧으면서도 내구성과 쾌적한 주거 기능 면에서 최선의 건축 공법이라고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택을 새로 짓는 비율이 늘면서 스틸하우스가 더욱 각광받았다. 2003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총 50여 채에 스틸하우스가 적용됐으며, 스틸하우스 건립에 사용되는 스틸스터드 제작용 소재 전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러브하우스 한 채에는 평균 6톤 정도의 스틸스터드가 소요됐다.

### 대안학교 헌산중에 스틸스터드 60톤 지원

포스코가 지원한 철골조로 지은 대안학교가 지난 2003년 3월 5일 완공됐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에 있는 헌산중학교는 철골조로 지어진 최초의 대안학교로, 기존 철골조 학교와 달리 스틸하우스에 주로 사용되는 스틸스터드 내력벽으로 이어졌다.

스틸스터드 내력벽은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만드는 건식 벽체로, 전량 재활용할 수 있고 시공이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 교사동과 기숙사를 포함해 연면적 348평에 이르는 헌산중학교는 철골조의 장점인 다양한 디자인을 적극 적용해 매우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외관으로 눈길을 모았다.

포스코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약 60여 톤의 스틸스터드 내력벽을 지원했으며, 설계 및 시공은 시그마건축과 좋은집이 각각 담당했다. 포스코는 1997년부터 강제 수요 창출을 위해 철골조 학교를 적극 알려 왔다. 1998년 인천 이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3년 2월까지 철골조로 지은 학교는 53개였다.

### :: 초청견학

#### 대학생 초청견학 프로그램에 3년간 약 3600명 참가

포스코의 대학생 초청견학 프로그램이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철강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도를 높여 줌으로써 철강의 잠재수요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30여 명과의 인터뷰 결과 이들은 견학을 통해 포스코가 최첨단, 친환경, 인재양성의 한국 대표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업현장에서 한국경제를 이끄는 철강 파워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2003년 7월 개관한 포스코역사관은 현실감 넘치고 풍부한 멀티미디어 역사 콘텐츠로 철강 불모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한 포스코를 감동적으로 보여 줬으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산 교육장이었다고 답했다.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철강한국과 포스코의 위상을 친근하게 알리는 이 초청견



포스코가 지원한 철골조로 지은 헌산중학교



광양제철소 제강부에서 철강 제조공정 설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



포항제철소에 현장학습을 온 포항 지역 초등학생들이 견학안내 주부사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학 행사에는 2003년 1268명을 비롯해 2001년부터 3년 동안 3585명이 참가했다. 포스코 고유의 대학생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초청견학에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고, 각 대학에서 추가 참가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포스코는 2004년에는 초청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포스코, 현장학습 장소로 인기 만점

포스코는 2003년 4월 23일부터 포항과 광양 인근지역의 71개 초등학교 5학년생 9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발전의 현장 포스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제조업이 중요해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친숙한 철'이란 테마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포스코가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목에 수록되어 있는 '철의 생산과정'을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이뤄졌다.

창업 이래 2003년 4월까지 포스코를 다녀간 학생은 총 1636만 명(포항 1438만 명, 광양 198만 명)으로, 제철소는 초·중·고생들의 수학여행 필수코스인 인식될 만큼 인기가 높다.

제철소 현장학습이 시작된 4월 23일 광양제철소를 견학한 광양중등초등학교와 다압초등학교 학생들은 약 3시간에 걸쳐 열연공장 등을 돌아보았다. 포항지역에서는 장성초등학교와 포항제철서초등학교 학생 380여 명이 4월 28일 포항제철소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해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했다. 초등학교 제철소 학습 프로그램은 2003년 11월까지 계속됐다.



포항테크노파크 제2벤처동 전경

## ::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포스코가 적극 지원한 포항테크노파크가 2003년 5월 2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서 본부동과 벤처동 준공식을 열고 환동해권 하이테크 테크노밸리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포스코는 2000년 3월 9일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에 필요한 사업기금 100억

원과 부지 5만 7000평 지원에 대한 기부증서를 포항시에 전달한 후 각종 약속을 차질 없이 수행, 포항테크노파크가 첨단지식산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

또 포항테크노파크 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포항시가 발행한 지방채 100억 원을 2001년 12월 18일 인수했다. 포스코가 인수한 지방채 100억 원은 연리 3%로, 포항시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포스코 출자사인 포스코건설 5억 원, 포항강관 3억 원, 포스테이타와 포철산기도 각각 2억 원을 포항시에 기탁한 바 있다.

한편, 포항테크노파크는 2006년 2월 8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서 제2벤처동을 준공했다. 제2벤처동에는 반도체 장비업체, 접합 분야 전문업체 등 첨단 부품 소재 분야 업체들이 입주해 활발한 연구와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가 실시하는 전국 테크노파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테크노파크로 선정되는 등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평가받고 있다.

### 포스코-포항테크노파크, 미활용 특허 관련 업무제휴

포스코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가운데 사업화할 수 있는 특허를 선별, 사외 전문기관을 통해 판매하기 위한 기술 마케팅 업무제휴 협약을 2006년 4월 7일 포항테크노파크와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보유 특허 가운데 사업화가 가능한 특허를 발굴해 포항테크노파크에 제공하고, 포항테크노파크는 제공받은 특허에 대한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 수요업체를 발굴하거나 기술이전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포항테크노파크는 포스코가 제공한 판매대상 특허목록을 자체 홈페이지의 사이버 마트(Cyber Mart)나 한국기술거래소 같은 기술거래장터 등에 소개해 특허기술이 필요한 업체를 적극 발굴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기술개발실 특허팀은 그동안 기술 수요업체가 찾아오는 특허기술 이전 활동에서 특허를 홍보하고 기술 수요업체를 직접 찾아나서는 능동적 기술이전 체제로 전환, 특허기술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사무소, 특허판매 전문업체 등 11개 기관과도 기술



포스코 하상욱 상무(왼쪽 넷째 번)와 포항테크노파크 이성재 원장(왼쪽 셋째 번)은 기술 마케팅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전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기술 이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전남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포스코는 2006년 4월 전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의 지식기반형 신산업 창출과 기존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2003년 12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산업자원부와 전남도를 비롯해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순천대·목포대 등 지역 대학, 포스코 등이 총사업비 606억 원을 조성해 올촌 제1지방산업단지 2만평 부지에 3,600평의 제1단계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2007년 6월까지 준공하여 입주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2004년부터 매년 20억 원을 지원했고, 2008년까지 총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 기타 사회복지

### 포항YWCA의 무료한글교실 운영 지원

포스코는 2006년 3월 16일 지역 저소득층 문맹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포항YWCA 무료한글교실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포항YWCA 무료한글교실은 집안 형편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과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이다. 3월 16일부터 2007년 2월까지 운영되는 제 13회 무료한글교실은 노래교실, 건강댄스, 컴퓨터 활용 등 재미있고 유익한 과정도 함께 진행된다.

포스코는 1994년부터 포항YWCA 무료한글교실 운영을 지원해 왔으며, 2006년까지 모두 8600만 원을 전달했다.

### 광양제철소, 최첨단 안전문화체험관 개관

광양제철소는 2005년 9월 1일 광양 백운생활관 1층에 총 266평 규모의 안전문화체험관을 개관했다. 안전문화체험관은 안전전시실과 9개의 체험실습실, 그리고 정보자



포스코는 포항YWCA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글반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 현장안전은 물론 교통·가정안전에 대한 다양한 테마를 최신 장치와 설비를 통해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안전전시실에는 광양제철소의 안전보건 경영체제와 선진 안전활동기법·제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록돼 있으며, 협착이나 감전 등 재해 유형별 안전장치 작동원리, 자연재해의 위험성과 대처요령에 대한 3차원 입체 영상장치 등이 전시돼 있다. 이처럼 첨단 설비와 장비를 갖춘 안전문화체험관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크레인 같은 전기기계 작업환경, 밀폐공간 등 실제 작업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학습과 현장업무가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양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는 물론, 다른 기업과 일반인의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보성소방서 119소년단원 160여 명이 2006년 3월 28일 이 안전문화체험관을 견학했다. 이날 119소년단원들은 안전문화체험관에서 선진 안전활동 기법과 재해 유형별 안전활동을 비롯, 자연재해의 위험성과 대처요령 등을 다룬 3차원 입체영상물을 시청하고 화재와 소화설비 체험실 등을 둘러봤다.

### 닭고기 먹고 지역농가도 돕고

포스코는 조류독감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닭고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포항에서는 2004년 2월 9일부터 임직원이 이용하는 대식당 메뉴에 매일 1회씩 닭 요리를 올려 이 지역의 닭고기 소비를 촉진했다. 광양에서는 협의회 중심으로 직원 대식당에 닭고기를 이용한 특별메뉴를 편성해 2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주 1~2회씩 치킨 데이를 열었다. 여기에 소요되는 닭고기는 포항과 전남 지역 양계업체에서 구입했다.

서울에서도 포스코센터 구내식당에 2월 18일 한방 삼계탕을 점심메뉴로 제공하는 등 주기적으로 닭 요리를 내놓아 가금류 소비 촉진에 일조했다.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과 노동부 관계자 등이 안전문화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다.



포스코센터 사내식당에서 점심메뉴로 삼계탕을 배식하는 모습

## 마음을 이끌어간 사랑의 봉사

### ... 봉사단 발대식 소감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학문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 연구, 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특히 포스코가 이번 사업의 취지에 동참해 인재양성이라는 경영이념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뜻 깊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발대식은 우리 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포스코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 ... 향후 봉사단 운영 로드맵은?

전국 대학생 전공학문 연계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협회회의 중점 사업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협회회 부설 대학봉사학습(Service Learning) 지원센터를 설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봉사학습을 정규 전공 교과목에 포함시켜 실천하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품성과 역량을 지닌 인재상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 ... 포스코 직원과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는 수많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연결점에는 우리 자신과 지구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볼트가 빠져도, 그것은 서로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에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봉사활동은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채우고 연결해 주는 고리이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김성수 한국대학사회봉사협회 회장

이 글은 2005년 11월 포스코신문이 게재한 한국대학사회봉사협회 김성수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포스코 나눔 정신에 큰 감명 받아

폭설 피해로 인하여 시름에 잠겼던 농민의 어두운 그림자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치워져 예전의 평상심으로 돌아간 농민들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다시 샘솟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피해 농가의 일손을 덜어 주려 또 다시 우리 지역을 찾아 주신 박현민 과장님 외 마흔두 분의 포스코봉사단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떤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농촌 일손이 모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포스코봉사단은 어려운 농가를 다시 찾아와 사랑과 봉사의 끈을 더 튼튼히 곁으로 이었습니다. 거기서 조국 근대화의 가장 큰 얼굴인 포스코의 넘치는 힘을 다시 느꼈습니다. 포스코봉사단 한 분 한 분에게 어떠한 찬사를 드려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세 시간이 걸리는 먼 길을 찾아와 피해 비닐하우스 철거 그리고 이번에 하우스 설치에서 다시 보여 주었던 정열과 사랑은 다른 봉사단체와 다른 무엇을 심어 주었고,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바로 이것이거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데 가진 것이 많아야 하거나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작은 능력도 나누고 베풀면 몇 십 배의 사랑으로 전달된다는 진리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천군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포스코봉사단 여러분의 나눔과 사랑의 정신에 다시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도 아름답고 인정미 넘치는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우리네 농촌을 살리는 데 포스코봉사단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을 기대하면서, 국민의 기업인 포스코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수남 예천군수

이 글은 2004년 4월 김수남 예천군수가 포스코에 보내온 편지이다.

## 상생경영

### :: 개요

포스코는 창립 이후 고객사와 공급사와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고객 관계 관리와 고객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동개발과 시장개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급사나 외주파트너사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구매와 판매, 연구개발, 인력양성, 금융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 왔다.

특히 이구택 회장이 취임한 2003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의 '사회적 책임성' 관점에서 중소 고객사와 공급사와의 상생 경영을 통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양극화의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한 사례로는 구매 및 외주 부문에는 성과공유제(베네핏 셰어링 제도), 중소기업 발주물량 확대, 중소 고객사 소재공급 확대 등이 있고, 경영혁신 부문에는 외주파트너사 근로조건 개선, 결제금액 전액 현금지급, 포스코 협력기업 지원펀드 운영, 상생협력위원회 및 중소기업상담센터 운영, 중소기업 지원 상설조직 운영 등이 있다. 또한 기술개발 부문에는 공동연구 강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기술이전 특허 조회 시스템 가동 등이 있고, 인력교류 부문에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 중소기업 경영자문사업 등이 있다.

2005년 포스코는 1724개사의 중소기업으로부터 2조 6900억 원어치의 제품을 구매하고 1691개사의 중소 고객사에 4조 4600억 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했다. 2005년 포스코의 중소기업 거래 비율은 국내 거래금액 기준으로 구매는 35%, 판매는 31%였다.

포스코의 상생협력 활동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경기 양극화 완화에 일조하며, 모범적인 동반 성장의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 윤석만 사장이 2006년 3월 23일 파이낸셜뉴스 전재호 사장으로부터 상생경영 대상 상패를 받고 있다.



포스코 이구택 회장이 2006년 5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5년 2월 8일과 10일 KBS의 양극화 사회-희망의 로드맵에 소개됐으며, 2005년 1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우수 협력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어 포스코는 2006년 3월 23일 파이낸셜뉴스가 주는 상생경영 대상을 받았고, 5월 4일 서울종합과학대학원이 주는 지속가능경영 우수상도 받았다. 또한 포스코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위 철강기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

### :: 구매 및 판매 협력

#### 베네핏 셰어링 제도 시행

구매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성과공유제, 즉 베네핏 셰어링 제도 시행이다.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 제도는 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공급사는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할 수 있고, 포스코는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그 성과를 첫해에는 전액 중소기업에 환원하며, 그 이후에는 50 대 50으로 공유한다.

2005년까지 이 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총 48개사, 개선과제는 95건으로, 포스코는 성과가 검증된 18개사 41개 과제에 대해 137억 원을 보상했으며, 이들 기업은 매출액이 2200억 원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과제가 완료되어 모니터링 중에 있는 26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베네핏 셰어링 제도를 2004년 7월 자재구매 부문에 도입한 데 이어 2005년 11월 외주파트너사에까지 확대 도입함으로써 이 제도를 포스코 고유의 구매 브랜드로 정착시켰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처음으로 도입한 베네핏 셰어링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정부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돼 타 산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포스코에서는 6시그마 기법을 적극 소개하거나 전수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업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를 제공하



2005년 4월 27일 베네핏 셰어링 첫 성과보상금을 받은 5개사 임원들이 성과보상금액 증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포스코는 2005년 1월 7일 포스코센터 스틸클럽에서 우수공급사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포스코는 우수 중소기업 5개사와 함께 2005년 8월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협력관 전시회에 참가했다.

는 한편, 현장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다.

###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물량 확대

포스코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발주해 오던 제철설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2005년 2월부터 중소기업 협력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장 신증설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해 중소기업에 발주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4년에 후판 레벨러(Leveler) 및 열연정정 스킨패스 밀(Skin Pass Mill : 태창기계), 가열로 설비(한국 케너텍), 열교환기(범우이엔지) 등 2500억 원 규모의 설비를 중소기업에 발주했으며, 2005년에는 1000억 원 상당의 소결배가스 청정설비(한국코트렐)를 포함해 총 5100억 원 규모의 설비를 중소기업에 발주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설비구매 선금금 지원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제철설비 외 일반 자재 구매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를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2005년 포스코가 중소 공급사로부터 구매한 물량은 금액 기준으로 2004년보다 2700억 원이 늘어난 2조 6907억 원이었다.

### 중소고객사 소재공급 확대 및 판매조건 개선

포스코는 원자재 구매난을 겪는 중소 고객사를 위해 중소 고객향 직거래 공급량 확대, e-세일즈 활성화, 수입대체 곤란 강중 우선 공급, 국내 부족 철강재 수입판매 등을 통해 철강재 공급량을 2004년 690만 톤에서 2005년 864만 톤으로 늘렸다. 중소 고객사에 대해 직거래 철강재는 2004년 551만 톤에서 2005년에는 649만 톤으로, e-세일즈를 통한 철강재는 77만 톤에서 115만 톤으로, 수입 철강재는 62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각각 늘렸다.

또한 중소기업이 포스코의 냉연제품과 스테인리스제품을 현금으로 살 때 적용되는 현금판매 할인율을 종전 1~2%에서 1.5~2.5%로 높이고, 외상 판매분 중 결제일 이전에 제품대금을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선결제 할인율도 종전보다 1%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희망 고객사에 한해 외상기간도 최장 30일 이내로 연장했으며, 500만

원 이하의 소액 클레임에 대해서는 선 보상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협력관 전시회'에 참가해 포스코의 상생협력 사례와 우수 중소기업 5개사의 생산제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2005년 포스코 · 중소기업 간 거래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 회사수(중소기업/전체)  | 거래금액(중소기업/전체)    | 중소기업 비율 |
|----|---------------|------------------|---------|
| 구매 | 1,724 / 2,884 | 26,907 / 77,465  | 35%     |
| 판매 | 1,691 / 1,839 | 44,610 / 145,047 | 31%     |
| 계  | 3,415 / 4,723 | 71,517 / 222,512 | -       |

###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동반 진출

포스코는 2006년 6월 1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과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시장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차, SK텔레콤 등 5개 대기업이 참가했다.

이로써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브랜드와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해외 시장 개척, 개발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 등 해외 마케팅 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진출 지원사업 내용은 △해외 시장 개척단을 공동으로 구성해 외국 정부, 바이어 등과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상호 보완성과 연관성이 높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동 해외 전시회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운영 중인 대기업 물류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를 지원하는 '공동 해외 물류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포스코는 이미 2003년부터 해외 제철소와의 정보교류회에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과 동행해 회사와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의 전시회에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출품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외 제철소와 설비공급사에 대한 판로 개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2005년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인 동방공업 등 56개 기업과 해외 제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했다.

철소 교류회에 공동으로 참가해 총 1452억 원의 영업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 우수공급사 인증 제도 운영

포스코는 우수공급사 중심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고 구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PCP(Posco Certified Partner)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CP인증 대상은 연간 납품실적이 30억 원 이상인 제조업체로서 해당 소싱 그룹에서 2년 연속하여 납품 실적, 신용도, 협조도, 기여도 면에서 성과가 우수해 포스코가 공식 파트너로 인정한 핵심 공급사이다.

우수공급사로 선정되면 포스코는 △우선 협상권 부여, 계약기간 연장과 물량 집중 등 계약 시 우대 △스틸앤닷컴(Steel-N.Com) 등 매체를 통한 공급사 홍보 △해외 제철소, 설비공급사와의 교류회나 벤치마킹 시 소개를 통한 판로 지원 △출자사·해외 법인과의 거래 시 하자보증금·계약보증금·선금금 지급, 보증금 납부 면제 등의 우대 방안을 시행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PCP 인증을 받은 공급사는 베네피트 셰어링, 신제품·신기술 개발 등 포스코의 혁신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돼 포스코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5년 2월 14일 대동중공업, 동방공업, 범우이엔지 등 14개사, 2006년 3월 20일 우진, 범우화학, 동방공업 등 18개사에 PCP 인증서를 수여했다.

### 한국코트렐과 소결배가스 청정설비 국산화

포스코는 중소기업인 한국코트렐과 공동으로 환경 플랜트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설비는 광양제철소 1~4소결공장의 배가스를 청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스코는 한국코트렐과 2005년 5월 설비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11월 1일 착공했다.

이 설비는 설비금액이 1000억여 원에 달하는 대형 환경 플랜트로, 공동연구 결과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과거 '소결 배가스 청정설비'는 일본과 오스트리아 등의 외국 기업이 공급해 왔으나, 포스코는 대형 플랜트를 제작할 만한 기술력은 있지만 사업 경험이 없는 한국코트렐을 발굴해 국산화를 추진한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한국코트렐은 대기 환경설비 전

문업체로서 환경 플랜트뿐 아니라 환경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 :: 경영혁신 지원

### 외주파트너사 근로조건 개선

포스코는 2003년부터 제철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주요 외주파트너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개인의 업무수행 동기를 높여 외주파트너사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 오고 있다.

포스코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603억 원을 지원해 외주파트너사 직원의 임금을 2007년까지 포스코 직원 임금의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인데, 이미 2003년 57.8% 수준에서 2005년에 63.0%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이로 인한 원가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주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 포스코는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3년 6월부터 외주파트너사와 함께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주파트너사 직원의 급여 하락분에 대해 110억여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한편 작업진행실, 라커룸 등 외주파트너사의 노후 후생편의 시설 보수에 39억 원을 지원하고 조직활성화 경비 15억 원을 지원했다.

포스코는 2004년 7월부터 동반자적 신뢰 구축 차원에서 협력회사나 용역회사라는 명칭을 외주파트너사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 결제금액 전액 현금 지급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4년 12월 13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국내 공급사를 대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결제금액 전액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5000만 원 이하는 전액 현금,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는 현금, 50%는 카드결제를 해 왔다.



포스코는 2005년 11월 23일 외주파트너사 대표들을 초청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는 2005년 중소기업에 3조 2049억여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이에 힘입어 중소기업들은 70억여 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2004년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 지급액은 2조 3000억여 원이었다.

한편, 추석 이전 자금 소요 집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2261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포스코 협력기업 지원펀드 운영**

포스코는 거래 관계가 있는 외주파트너사, 고객사, 공급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9월 포스코는 기업은행에 10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했다. 12월까지 96개 업체가 552억 원을 신청해 268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1~3% 이상 저렴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중소기업 대상 네트워크론 지원**

포스코는 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 공급사가 제품 납품에 필요한 생산 및 구매 자금을 납품 이전에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론(Network Loan)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10월 포스코는 10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조흥, 신한, 외환, 대구, 부산, 농협, 기업은행)과 네트워크론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 공급사가 시중 대출금리보다 1.5%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론을 통해 2005년에 74개사가 244억 원을 대출받았다.

**상생협력위원회 및 중소기업 상담센터 운영**

포스코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출자사들을 포함한 범포스코 차원의 상생경영 활동 확산을 위해 2005년 9월부터 '계열사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포스틸 등 주요 출자사 6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포철산기 등 3개사가 추가로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출자사별 상생협력 활동 아이템 발굴과 액션플랜 수립 및 점검, 베스트 프랙티스 발



포스코는 2005년 9월 26일 포스코·출자사 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범포스코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굴과 정보공유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포스코와 출자사로부터 대금지급 지연, 대금 부당감액, 경영간섭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6월 30일 중소기업 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상설조직 운영**

포스코는 원활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05년 6월 1일 경영지원실 내에 중소기업지원팀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중소기업 상담센터, 계열사 상생협력위원회 등 전사적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이 조직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항상 청취하는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6시그마 기법 전파로 경영혁신 뒷받침**

포스코는 6시그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향상 등 경영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활동은 200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법론을 교육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의 체질개선 활동을 돕고 있다.

교육은 포스코에서 실시되는 6시그마 교육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각종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도 개방하고 있다. 2005년 말까지 59개 과제를 착수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조업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다.

**:: 기술개발 지원**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동(Techno Partnership)**

2006년 7월 포스코는 기술연구소·RIST·포스텍과 합동으로 포항 및 광양 지역 중소 공급사 및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기술지원 활동인 테크노 파트너십

(Techno Partnership)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7월 31일까지 1차로 이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한 37개 포항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구기관별로 테크노 파트너십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단별 전문성 및 지원인력과 참가 중소기업별 기술지원 니즈를 고려해 매칭 작업을 완료한 후, 9월부터는 중소기업의 생산공정이나 제품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진단·자문·교육은 물론 시험·연구시설의 이용과 분석, 단기 현장문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활동을 무상으로 펼칠 계획이다.

포스코와 거래 실적이 있는 포항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운영성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2007년부터는 광양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공동연구 제도 활성화**

포스코는 정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생산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필요기술 개발과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공동연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개발 제품의 포스코 공급권을 부여받아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고, 포스코는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이룰 수 있다.

공동연구 대상 분야는 기자재, 원료, 계측기기 등의 품질향상 및 국산화, 제품 가공기술, 철강재 이용기술 등이며, 2005년까지 총 89개사와 69개의 과제를 수행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공동연구에 투입된 금액은 173억 원이었으며, 이 중 119억 원을 포스코가 지원했다.

2006년에는 공동연구와 함께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사 1품목 세계 일류제품 확보'를 목표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해 적극적으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29개 품목의 대표적인 우수 중소기업이며, 포스코의 우수한 연구시설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공동연구 사례 1 - 고내식 표면처리강판용 코팅용액 개발**

포스코는 오래 전부터 납을 함유하지 않은 수지피복형 연료탱크용 강판을 생산하면서 강판에 수지가 잘 달라붙도록 크롬(Cr) 처리를 해 왔다. 그러나 2007년 7월



포스코기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로 개발한 후판 냉간교정기 모습

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용 강판에 납은 물론이고 크롬마저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포스코는 크롬을 사용하지 않은 크롬프리(Cr-free)형 연료탱크용 강판을 개발해야 했다.

기술연구소는 범우화학공업과 손을 잡고 2004년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2005년 9월 크롬프리 연료탱크 강판용 코팅용액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연간 5만 톤의 새로운 철강 수요를, 범우화학공업은 포스코에 대해 연간 5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공동연구 사례 2 - 장스팬 파형강판 구조물 실용화**

국내에서 시공되는 파형강판 구조물은 대부분 표준형(150×50mm)으로 지간 10m 이하에 사용되고 있었다. 교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간 10~30m의 소교량에 파형강판 구조물을 사용하려면 스패인 긴 파형강판이 필요했다. 이에 기술연구소는 파형강판 업계의 선두주자인 평산에스아이(SI)와 손을 잡았다. 장스팬 파형강판 구조물 실용화를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과제로 등록하고 2000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8개월에 걸쳐 과제를 수행했다.

이렇게 개발된 장스팬 파형강판은 동해선 남북연결철도 공사 등 2005년까지 130여 곳의 구조물에서 횡단통로, 생태터널, 소교량 등으로 적용됐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평산에스아이는 2005년 대한토목학회 토목건설자재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평산에스아이는 연 1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4부터는 중국 고속도로용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포스코는 연간 4000톤 규모의 새로운 철강 수요를 창출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과 포스코가 함께 중소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을 지원(정부 55% 현금, 포스코 20% 현물 지원)하고, 포스코는 중소기업이 수입물품을 국산화하거나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2년 이상 제품 구매를 보증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005. 6. 14(화), 15:00  
중소기업청, 포스코, 효성, 두산에진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왼쪽)과 강창오 사장이 2005년 6월 14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협약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5년 6월 14일 중소기업청과 사업참여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중기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11월에 킷엑엔지니어링을 지원업체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는 열연 및 냉연 생산라인에서 제품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 연구과제가 성공하면 킷엑엔지니어링은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고, 포스코는 원가절감 및 성능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게 된다. 또한 2006년도 상반기에는 범우이엔지 등 4개사의 4개 과제가 최종 선정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이전 특허 조회 시스템 가동**

포스코는 2005년 6월 포스코 기술이전 특허 조회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기술이전에 적극 노력해 왔다. 2005년 11월까지의 기술이전 요청건수는 15건으로, 5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계약을 완료했고 10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허 원문을 모두 전자정보화해 중소기업들이 특허검색과 기술이전 신청을 직접 하나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가 추가되면 신속하게 업데이트한다.

2006년에는 이 시스템을 고객사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일부 특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기부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인력 교류**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

포스코는 2005년 3월 17일부터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의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시설, 기자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신규 및 기존 직원들을 교육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인력양성에서부터 기술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 이 컨소시엄에는 정비작업, 조업지원, 가공납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소기

업 132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 직원 4200여 명이 2005년에 총 131회에 걸쳐 6 시그마 기본교육, 안전교육, 기술 분야 중심의 직무향상 교육, 신규채용 예정자 위탁 양성 교육 등을 이수했다.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사업 참여**

포스코는 2005년 8월 22일 중소기업 경영자문 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를 퇴직한 고급 인력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해 중소기업의 전문기술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영자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에는 포스코 외에도 국내 대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60세 미만, 퇴직 3년 이내, 재직 시 차장급 이상이었던 직원 가운데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 고급인력 경영자문단 풀(Pool)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파견 또는 온라인을 통해 경영자문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 윤리경영**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기업윤리 확립**

포스코는 2003년 6월 2일 윤리규범을 선포하고 전담조직인 기업윤리실천사무국을 통해 제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윤리경영에 나섰다. 이날 선포한 윤리규범은 포스코의 기본 책무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윤리적 원칙은 물론 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행동기준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담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기업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한 포스코는 그 추진방향을 경영활동 전반에서 윤리적 가치를 구현하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함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2003년 6월부터 기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다. 7월 23일 기업윤리 상담센터를 개설했고, 8월 15일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시행했으며,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한 후로 명절마다 계속 운영하고 있다. 또 이구택 회장은 회의나 교육을



2005년 3월 17일 직업훈련 컨소시엄 창립 총회 기념사진



2005년 8월 22일 중소기업 경영자문 업무 협약식에서 대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포스코 이구택 회장이 2006년 2월 8일 열린 경제 5단체가 주관하는 제2회 투명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으로부터 투명경영 대상 트로피를 받은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통해 수시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설파했으며, 출자사와 관련 기업에 서한을 보내 동참을 당부했다.

2004년에는 관련 제도와 프로세스를 보완함으로써 윤리경영의 기반을 구축했다. 8월 1일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시행했고, 8월 24일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교육-평가-점검으로 이루어지는 유기적 윤리경영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2005년에는 기업윤리를 강력히 실천함으로써 윤리경영의 뿌리를 공고히 했다. 1월 3일 범포스코 임직원 대상 윤리규범 준수 서약 제도를 시행했고, 6월 10일 부서별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06년부터는 윤리적 사고와 행동을 체질화함으로써 윤리실천이 기업문화로 자리잡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5년에 도입한 부서별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포스코의 출자사로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 결과 포스코는 2003년 12월 12일 경실련이 주는 경제정의 기업상을 수상했고, 2004년 4월 교수신문으로부터 윤리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2005년에는 11월 4일 한국기업윤리학회로부터 제4회 기업윤리 대상, 12월 13일 연세대 경영대학으로부터 기업윤리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2006년 2월 8일 경제 5단체가 주관하는 제2회 투명경영 대상, 2월 28일에는 존경받는 기업·기업인 대상을 수상했다.

## 포스코 상생경영에 힘입어 최고 전문기업 도약 기대

### ... 이번 포스코와의 설비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소감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발주된 대기오염 방지설비로서는 최대 규모의 공사다. 또한 이런 대규모 공사를 중소기업이 수주하게 된 첫 사례다. 특히 그간 수행했던 대규모 탈황·탈질소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외국 기술 도입이 전제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외국 기술 없이 국내 기술력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 ... 국산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지난 30여년간 한국코트렐은 환경설비 전문업체로서 국내외 발전, 화학, 소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황·탈질소 설비 공급 실적을 쌓아왔다. 소결공장 조건과 동일한 배가스 청정설비를 공급한 실적이 없어 소결로의 운전조건에 맞는 최적의 반응조건과 환경친화적·경제적 프로세스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포스코가 그간 설비운영에 관한 조업 노하우, 각종 설비투자를 통해 축적한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다.

### ... 포스코의 중소기업 상생경영에 대해 평소 느낀 점이 있다면?

포스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또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중소기업에 발주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혁신적인 중소기업 상생경영을 펼치는 포스코에 감사드리며, 한국코트렐도 품질은 물론 가장 경제적인 환경설비를 공급함으로써 포스코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겠다.

### ... 향후 계획은?

그간 한국코트렐은 국내에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의 발전·제철 분야에 소요되는 환경설비를 꾸준히 수출해 왔다. 이번 광양 1~4소결 배가스 청정설비의 공급을 통해 포스코와 공동개발한 국내 기술을 발판으로 환경설비 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세계 최고의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태영 한국코트렐(주) 대표이사

이 글은 2005년 10월 포스코신문이 게재한 한국코트렐(주) 이태영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계열사

### :: 포스코건설

(주)포스코건설(사장 한수양)은 1999년부터 포항과 광양에서 자매마을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해 오다 2004년 12월 1일 사회봉사단을 창단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1998년 12월 22일 포항시 기계면 지가1리와 최초로 결연한 후 1999년에 흥해읍 덕장1리(3.9 결연), 기계면 고지2리(3.10), 기계면 가안1리(3.11), 흥해읍 양백2리(3.16), 광양시 진월면(12.26) 등 5곳의 마을과 결연을 했다. 사회봉사단원들은 이들 자매마을에서 일손돕기, 특산물 팔아 주기, 명절과 마을 행사 때 위문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단 산하의 90개 봉사그룹은 '사랑은 가슴으로 나눔은 행동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2004년 12월부터 포항, 광양, 서울 등지의 50여 개 사회복지시설과 결연을 하고 독거노인 집수리, 병원 모셔다 드리기, 중증장애인 돌보기, 나환자촌 일손돕기, 생필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해 왔다. 포스코건설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스폰서로 활동했으며, 포항 MBC의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2006년 6월 15일 울진 온정초등학교에 5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포스코건설은 한국희망본부가 주관하는 희망의 집 지어 주기에 동참해 2006년 2월 8일 전주시에 4950만 원을 기부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2006년 5월 17일 전 임직원이 해마다 2회 이상씩 헌혈을 하기로 대한적십자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2006년 상반기 중에 1590명이 헌혈을 했다.



포스코건설 신입사원들이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포스코건설은 국가적 재난 극복에도 적극 동참했다. 포스코건설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시 2003년 2월 20일 사고대책본부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했다. 2003년 9월 19일 원전향 현장이 있는 마산의 피해 지역을 찾아가 중장비를 무상으로 빌려 주고 500만 원어치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으며, 가야CC 증설공사 현장이 있는 김해 지역에도 100만 원어치의 쌀을 전달했다. 9월 22일에는 부산 강서구의 침수 피해를 본 2291세대에 3300만 원어치의 쌀을 지원했다.

포스코건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4년 12월과 2005년 12월에 각각 5억 원씩 기탁했으며, 광양 제철소 2고로 1차 개수공사에서 공사기간 단축 및 성공적인 화입으로 발주처인 포스코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2005년 6월 21일 포항시와 광양시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각각 3000만 원씩 기부했다.

포스코건설은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도 지원했다. 2004년 5월 27일 포항 죽도시장 상가변영회와 결연을 하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가족과 함께 장보기, 죽도시장 사랑권 구입,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죽도시장 상인대학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포항과 광양 지역 협력업체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 1월 16일부터 포항과 광양의 전문 건설업체



포스코건설은 포항 죽도시장 상가변영회와 결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에 대한 건당 발주금액 한도를 대폭 올려 제철소 플랜트 공사 중 지역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기계설치 공사의 발주 한도금액을 종전 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전기공사의 경우는 15억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이로써 지역업체가 수행하는 전체 공사금액이 연간 74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됐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계약 발주 시 해당 지역업체 2개사를 우선 추천토록 하며, 계약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포스코건설은 환경친화적 건설문화 정착에도 주력했다. 2000년 3월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ISO14001 인증을 획득하고, 이후 ISO9001(품질경영), OHSAS18001(보건안전경영), KOSHA18001(안전보건경영규격) 인증을 차례로 취득해 환경경영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주택 건설 시 인간 중심의 인체공학 디자인을 개발하고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해 더욱 쾌적한 고품격 주거공간 보급에도 앞장서 왔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2003년 8월 28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03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의 종합건설업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2005년 10월 31일 한국능률협회 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05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의 녹색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포스코건설은 윤리경영에도 앞장서 왔다. 2003년 7월 10일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투명경영'을 목표로 하는 5대 윤리규범과 7가지 행동준칙을 제정·선포했다. 이후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 제도와 화훼·선물 처리 제도 정립, 윤리경영 교육, 윤리규범 준수 특별약관제도 신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해 왔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2005년 2월 산업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주요 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에서 윤리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은 2004년 조사에서도 작업장과 자본시장 부문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2004년 10월 30일 경북도청 소속 체조팀을 인수해 남자 체조팀을 창단했다. 일반기업이 체조팀을 창단한 것은 대구은행에 이어 포스코건설이 두 번째였다.

포스코건설 체조팀은 아테네 올림픽 남자체조 개인종합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아쉽게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을 비롯해 이장형, 양태석, 이성모, 손혁 등 6명의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 포스코건설 체조팀의 소재지는 경북 포항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가 1985년부터 맡아 오던 대한체육회 후원사 역할을 이어받아 1995년부터 2005까지 51억

원을 지원했으며, 체조 꿈나무 발굴 등 체조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 :: 창원특수강

창원특수강(주)(사장 김정원)은 2004년 7월 15일 창원시에서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봉사단을 발족했다. 창원특수강의 사회봉사단은 생산, 재무, 총무, 판매 부문으로 나뉘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봉사단은 순수 노력봉사 위주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자매 활동, 환경정화 운동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재난피해 지역 복구, 불우이웃 돕기, 산학협력, 문화·체육 분야 지원 같은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창원특수강 사회봉사단과 결연한 복지시설로는 2004년 7월



창원특수강 직원들이 2006년 상반기 헌혈 캠페인(2.22-2.23)에 참여해 헌혈을 하고 있다.



창원특수강 주임단위 봉사자들과 행정지원부 직원들이 2005년 10월 26일 전촌마을에서 감따기 작업을 하고 있다.

15일 결연한 풀잎마을·소망원·성심원·동보원, 2005년 10월 21일 결연한 여성의 집 등 5곳이 있으며, 사회봉사단은 이들 복지시설에서 월 1회 빨래, 청소, 목욕시켜 주기, 마사지, 말벗 되어 주기, 주거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봉사단은 2004년 8월 21일 회사 인근 자연마을 4곳(용호마을, 갯마을, 귀산본마을, 석교마을)으로 구성된 삼귀동, 2005년 5월 21일 전촌마을과 각각 결연을 하고 매월 1회씩 이곳에서 청소, 환경정리, 일손돕기, 주거시설 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매 시설과 마을 외에도 사회봉사단은 귀산동 해변 도로 6.5km 구간, 무학산·정병산·비음산·천주산, 용추계곡과 달천계곡, 용지공원 등지에서 월 1회 쓰레기를 치우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봉사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봉사 참여 인원과 시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4년에는 연인원 598명이 2186시간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2005년에는 1970명이 6520시간 참여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1020명이 2888시간 참여했다. 사회봉사단은 연 2회씩 사랑의 헌혈운동을 벌여 2005년 2월과 11월, 2006년 2월 등 3회에 걸쳐 342명이 참여했으며, 아름다운재단의 나눔 활동에도 동참해 2004년 12월과 2005년 12월 아름다운가게에 4132점을 기증하고 판매 도우미 활동도 했다. 창원특수강은 이 같은 사회봉사단의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회사 차원에서 사회복지, 문화, 체육, 학술 분야 공헌활동도 해 오고 있다.

창원특수강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4년 12월 5억원, 2005년 12월 2억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창원특수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 제도를 활용해 2005년에 사회복지시설 12곳과 학교 2곳을 지정해 2억 5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2006년 상반기에 사회복지단체 3곳, 사회복지시설 8곳, 경찰서 1곳, 소방서 1곳, 대학 2곳을 지정하여 1억 2500만 원을 기탁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경남오페라단에 2004년 300만 원을 후원했고, LG세이커스농구단에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800만 원을 후원했으며, 전남 드래곤즈와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에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모두 2000만 원을 후원했다. 또한 창원특수강은 창원대학, 창원기능대학, 창원한백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에게 회사의 시설과 장비를 연구 및 학습 용으로 빌려 주고 있다.

## :: 포항강판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포항강판 임직원들

포항강판(주)(사장 최종두)은 1992년 12월부터 작은손모임이란 자생 단체 중심으로 불우 아동 돕기를 해 오다 2004년 7월 1일 POCOS봉사단을 창단하고 포항과 서울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작은손모임은 1992년 12월 1일 포항과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 중 희망자들이 매월 3000원씩 모아 한국복지재단 소속 아동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모임으로, 2006년 6월 말 현재 254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총 9000만 원을 후원했다.

POCOS봉사단은 창단 이후 레츠 컴 투게더(Let's Come Together)란 슬로건 아래 결연 대상을 찾아가 일손돕기, 시설보수, 장학금 지급, 지체장애우 목욕봉사 및 병원치료 동행, 결손빈곤 가정 접수리·생필품 전달·아동 후원 등의 봉사활동

동을 실천하고 있다.

자매마을로는 1999년 6월 15일 결연한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마을이 있으며, 자매단체로는 2005년 1월 29일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포항시의 석병양로원을 비롯해 예티쉼터, 아가페 사랑의 집, 나오미의 집, 사랑의 공동체, 옛사랑, 사랑의 집, 정애원 등과 서울지역의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등 9곳이 있으며, 결연한 결손빈곤 가정 6곳이 있다.

봉사단 창단 당시 봉사그룹은 상주 근무자들이 결성한 8개였으나 2005년 7월 1일 4조 3교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대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8개가 더 결성돼 모두 16개로 늘어났으며, 참여 인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6년 6월 말 341명에 이른다. 봉사그룹 8개가 활동한 1기에는 114회에 걸쳐 연인원 1489명이 참여했으며, 16개로 늘어난 2기에는 151회에 걸쳐 연인원 1842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POCOS봉사단은 포항에서 북부해수욕장 환경정화, 운제산 및 보경사 계곡 등산로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였으며, 서울에서 양재천 유해식물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다.

2004년 9월 6일 이후 2006년 5월 18일까지 5회의 헌혈 캠페인을 펼쳐 289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나눔 활동에도 동참해 2004년 11월과 2005년 12월 2회에 걸쳐 임직원이 내놓은 물품 1265점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다.

포항강판은 국내외의 재난 발생시 임직원이 모금운동을 벌여

희생자를 도와 왔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시에는 2003년 2월 21일 사고대책본부에 3000만 원을 모아 기탁했고, 남아시아 지진해일 시에는 2005년 1월 24일 573만 원을 모아 전달했다. 이를 포함해 포항강판은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1억 2998만 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집행했다. 이와는 별도로 포항강판은 2004년 12월 23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 원을 기탁했다.

포항강판은 임직원들의 이러한 봉사와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봉사단을 창단하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로 봉사활동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포항강판은 2004년 12월 15일 제11회 전국자원봉사 대축제(포항시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으며, 2005년 12월 14일 포항사랑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가해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국내외 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을 거둔 포항강판 럭비구단 선수들

포항강판은 국민체육진흥과 아마추어 스포츠 육성을 통한 사회기여 차원에서 1997년 12월 제철화학으로부터 럭비구단을 인수해 1998년 1월 2일 포항강판 럭비구단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이후 포항강판 럭비구단은 국내외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왔다.

국내 대회에서는 1998년도 전국 춘계리그 우승, 2000년도 삼성컵 7인제 우승, 2002년 제40회 전국 종합선수권대회 우승 등의 성적을 거두었고, 국제 대회에서는 2001년 두바이 국제 7인제 대회 플레이트 3위, 2003년도 태국 킹스컵 대회 플레이트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포항강판 럭비구단의 국가 대표(급) 선수로는 김형기(방콕 및 부산 아시안게임 4관왕), 우태일(방콕아시안게임 금), 윤희수(부산아시안게임 금), 조철형(부산아시안게임 금), 박용돈(부산아시안게임 금) 등이 있다.

## :: 포스테이타

포스테이타(사장 유병창)는 이윤 창출이라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공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테이타는 1997년 3월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1000원씩 공제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천사운동을 시



성남시 분당 본사 인근 탄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스데이타 임직원들

작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사회공헌 활동의 근간이 되는 이 천사운동을 통해 2003년 3월부터 매월 1회씩 한국복지재단이 추천한 결손가정 어린이들과 포항의 굿네이버스가 추천한 장애인, 광양의 장애인 시설인 ‘천사의 집’ 등을 도와 오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이들 복지시설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 목욕 봉사, 학습지도, 청소처럼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1% 나눔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2003년 7월 아름다운재단에 홈페이지와 회원·기부금·회계·조직 관리 업무를 웹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해 준 후로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PC 160대, 2005년 4월 임직원들이 내놓은 물품 1110점도 아름다운재단에 기증했다. 아울러 2006년 3월에는 가족봉사단이 주축이 돼 아름다운재단의 분

당 이매점 개점 첫돌을 맞아 일일장터를 열기도 했다. 포스데이타의 봉사활동은 가족들에게까지 전파돼 2005년 2월 24일에는 임직원의 부인들로 이루어진 가족봉사단이 구성됐다. 가족봉사단은 실천적 공헌활동 중심, 가정 봉사활동 위주, 전문 봉사단체와의 협력이란 기본 방침 아래 실질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들은 주 1회씩 분당 지역의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아름다운가게의 매장 도우미로도 활약하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2004년 5월 21일 성남시 분당의 본사 인근에 위치한 탄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후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에 같은 활동을 계속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작으나마 실천하고 있다.

이런 정기적인 봉사활동 외에 포스데이타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돕기,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 신학기 맞이 소년소녀가장 돕기, 러브 업 캠페인처럼 기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포스데이타는 정보기술 전문 회사답게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과 같이 IT 환경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한편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포스데이타는 2005년부터 I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라오스의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국립대학에 영어 서적과 한글 서적 1300여 점을 수집해 2006년 2월 13일 전달했다. 도서 기증에는 포스코와 포스코건설도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1999년 8월 3일 포항시 흥해읍 옥성1리와 자매

결연을 하고 정보화 교육, 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했으며, 2003년 2월 27일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4월에 중고 펜티엄 컴퓨터 50대를 기증하는 등 남제주군의 정보화를 지원해 오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펼쳐 오고 있는데, 헌혈 캠페인에는 2003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35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한편, 포스데이타는 2004년 3월 충북 청원군 미원면에서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인삼밭 복구를 돕고, 2005년 2월 동남아 해일 참사 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 35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국내외의 재난 발생 시 도움의 손길을 펴 왔다.

포스데이타는 2000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 동안 현금 3억 3486만 원과 현물 9억 708만 원어치를 포항공대와 한남대학 발전 기금과 같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기부했다.

### :: 포스코파워

포스코파워(주)(사장 이승우)의 자원봉사 활동은 서울 본사 및 인천발전소의 11개 봉사그룹이 주축이 돼 수행하고 있다. 서울 본사에서는 은평구 어린이집 지원, 관악사회복지센터 푸드뱅크 사업 지원, 가건연(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 연대회) 의료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발전소에서는 무의탁 노인 지원, 공부방 지원,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연계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은 잉여 먹거리를 수거해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센터 및 어린이집에 배달하는 사업으로, 포스코파워는 2003년 3월부터 관악사회복지센터와 함께 성공회에서 주관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파워는 2002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과 결연한 후 재가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매월 무의탁 노인 가정의 집수리 봉사를 비롯해 나들이 지원, 아버지 날 카네이션 달아 주기, 집 소독, 방충망 설치, 동풍막 설치, 식사 대접, 김장 담가 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포스코파워는 2003년 10월 2일 제7회 노인의 날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포스코파워는 2003년 5월 인천의 어깨동무 신나는 집과 결연을 하고 공부방 운영비 지원 및 다양한 문화체험, 체육 활동, 정서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과의 관계를 돈독



포스코파워가 2003년 4월 조성해 무료로 개방한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체육공원 전경

히 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봉사활동에 2003년에는 323명이 참여해 인당 7.6시간을 기록했고, 2004년에는 11.4시간, 2005년에는 9.2시간을 기록했다. 포스코파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공헌 활동에 3억 2110만 원을 집행했다.

포스코파워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모든 직원이 매월 일정 기부금을 내고 회사도 이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보태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2002년 4월 도입해 매년 6800만 원을 밝은 세상 만들기 기금으로 조성해 자원봉사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는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김장김치 담가 주기를 하고 있는데, 2005년 11월에는 임직원과 가족 70여 명이 참가해 김장김치 650포기를 담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100여 가구에 전달했다.

포스코파워는 2003년 6월 전국 최초로 조직된 인천 S.O.S. 봉사단의 기술 파트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에서 복구활동을 벌이는 등 재난 발생시 긴급복구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한편, 포스코파워는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지역사회 문화공간 확보 차원에서 2003년 4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 94억 원을 들여 1만 평 규모의 신석체육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신석체육공원은 축구장 1면, 농구장 2면, 배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공헌활동의 결과로 포스코파워는 2006년 7월 5일 인

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제24회 사회복지부문 상공대상을 수상했다.

### :: 포스틸

포스틸(사장 김승)은 기업이념의 하나인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말부터 직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으로 포항공대 발전과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 왔다.

포스틸의 자원봉사 활동 방침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나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시설 우선 지원이다.

포스틸은 각 분기 마지막 달 셋째 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해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매칭그랜트 제



포스틸 임직원들이 2005년 12월 23일 아름다운가게에서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도를 도입해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즉, 직원들이 사랑의 모금활동(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벌여 성금을 모금하면 회사가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해 월 단위로 적립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생활용품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포스틸은 비인가 장애인 복지시설인 생수사랑회, 꿈나무의 집, 사랑의 쉼터와 자매결연을 하고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9월 17일까지 노력봉사와 물품지원을 했다. 또한 사회복지 보육시설인 천사의 집, 오류애육원, 명진아동복지센터와 자매결연을 하고 2005년 12월 17일부터 노력봉사와 물품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포스틸은 1995년 5월부터는 팀별로 소년소녀 가장이나 국가유공자 가족과 결연을 하고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면서 명절 때에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후견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2005년 9월부터는 연 1회씩 서울 청계산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겸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포스틸은 이 같은 정기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포항공대 발전기금을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의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왔다.

2004년 12월 23일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2월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 원을 기탁하고, 포항공대 발전기금으로 12월 30일 30억 원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8월 24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중고 컴퓨터 94대를 기증하고, 11월 아름다운가게에 임직원이 내놓은 중고물품 577점을 기증했다.

2005년에는 포항공대 발전기금으로 20억 원을 기탁하고,

12월 23일 아름다운가게에 중고물품 669점을 기증하고 판매봉사도 했다. 또한 미인가 장애인 시설 4곳과 소년소녀 가장 14명을 위해 3월 지정기탁금 1억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또한,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해 10월 수재의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2006년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강원도 수해지역을 방문해 1000만 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복구지원 활동을 했다.

### :: 포스콘

포스콘(주)사장 최병조)은 보다 밝은 사회, 보다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1995년부터 자매마을과 자매단체를 대상으로 이웃 사랑을 전개해 오다 본격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포스콘이 1995년 이래 자매의 연을 이어오고 있는 포항시 복구장량동을 찾았다.

2004년 9월 11일 포스콘봉사단을 창단해 자원봉사 활동을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오고 있다.

봉사단 창단 전에는 포항과 광양의 5개 자매마을에서 전기시설 수리, 생활필수품 지원, 마을 청소, 일손 돕기, 환경정화 활동으로 따뜻한 자매의 정을 나뉘었다. 포스콘의 자매마을과 단체로는 포항시 북구 장량동(1995년 8월 결연), 남구 연일초등학교, 신광면 냉수리(1996년 6월)와 함께 광양시 고량면 중앙마을(1988년 8월)과 진월면 용소마을(2001년 1월)이 있다. 봉사단 창단 직후 포스콘은 포항에 6개, 광양에 2개, 서울에 3개 등 모두 11개의 봉사그룹을 발족시켜 자매결연 활동, 환경정화 활동, 의료봉사 활동, 도서 및 컴퓨터 지원, 복지시설 후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자동화 전문회사의 이점을 살려 포항의 참사랑봉사그룹과 광양의 나누미봉사그룹이 주축이 돼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나 오지 마을을 찾아가 노



포스콘은 지역사회의 화합과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005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후 전선과 커버나이프 스위치를 교체하고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작동하지 않는 난방시설과 환풍기도 고쳐 주는 등 전기 전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문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는 포스콘이 부담하며, 사전에 대상 가구를 찾아가 필요한 자재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행하고 있어 수혜자 측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포스콘은 봉사단을 창단하면서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은 임직원들이 소액 후원 계좌를 개설해 성금을 모금하면 회사에서 모금 총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조해 포스콘 아이비 펀드(Ivy Fund)를 조성한 후 불우 이웃을 돕는 제도이다. 포스콘은 2005년 말까지 임직원 모금액 2170만 원과 회사 부담액 1390만 원으로 총 3560만 원의 펀드를 조성해 매월 소년소녀가장 17명과 독거노인, 장애우 28명 등 45명에게 전달했으며, 2006년에도 기금 조성과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포스콘은 재해극복 활동에도 적극 나서 2003년 3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시 포항 MBC에 2000만 원의 위로금을 기탁했으며, 2005년 8월 10일 임직원 253명이, 태풍 피해를 본 자매마을에서 대대적인 복구지원 활동을 펼쳤다. 포스콘은 2005년 12월 23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작으나마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 원을 기탁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화합과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한 공로로 포스콘은 2005년 12월 14일 열린 2005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포스콘은 2006년 3월부터 셋째 토요일을 봉사활동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연간 8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 포스텍

(주)포스텍(사장 황원철)은 1985년부터 자매마을 중심의 봉사활동을 펼쳐 오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4년 7월 29일 포스텍나눔미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포스텍나눔미는 5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임직원의 26.5% 수준인 224명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포항과 광양에서 환경보전 활동, 장애인 돕기, 재해지역 구호 및 복구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포스텍은 1996년 6월 11일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3리와 자매결연을 한 후 기계면 화봉리(1998.5.19), 기계면 울산1리(1998.8.11)와 차례로 결연을 하고 가을 일손돕기, 명절위문, 마을행사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자매의 정을 나뉘었다.

포스텍은 자매결연 활동 외에도 포항시의 햇빛마을, 물개월경로당, 정애원, 성모마리아의 집, 택전경로당, 사랑의 공동체, 들꽃마을, 청하애육원, 동일원 등에서 시설보수, 청소, 나들이 돕기, 도시락 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왔으며, 포항시 운제산과 청림동 해변 등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해 왔다. 이 밖에



포스텍은 2004년 7월 29일 봉사단 포스텍나눔미를 창단했다.

포항시 청림동을 중심으로 음악회 후원, 불우이웃 위문, 방법 활동, 결식아동 후원 사업을 해 왔다.

포스텍은 2005년에 연인원 497명이 1021시간 동안 사회 복지시설 돕기, 지역사회 근로봉사, 환경보전 활동, 후원 활동 등을 펼쳐 인당 2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기록했으며, 2억 8892만 원을 지역사회와 관련 복지시설 후원 경비로 집행했다.

한편, 포스텍은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시 포항 MBC에 1500만 원의 위로금을 기탁했으며, 2005년 12월 22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5000만 원을 기탁했다.

## :: 포철산기

포철산기(주)(사장 최규성)는 1998년 12월부터 자매마을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오다 2004년 9월 15일 포철산기봉사단을 창단하면서 포항시의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로까지 봉사대상을 넓혀 오고 있다. 봉사단 산하에는 한사랑회 등 7개 자원봉사그룹에 219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포철산기는 1998년 12월 8일 포항시 북구 신광면의 우각1·2리와 죽성1·2리, 1998년 12월 11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삼정1·2·3리와 결연을 하고 일손 돕기, 농기구 수리, 시설물 보수, 경로잔치 및 위문 활동, 비품 및 행사 지원, 농수산물 팔아 주기, 초청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정비전문회사인 포철산기가 벌이는 농기구 수리 활동은 자매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듣고 있다.



포철산기 제강연주정비과 사랑나눔회 회원들이 영애보육원생들과 2003년 6월 16일 나들이를 나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포철산기는 이 같은 활동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906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직원들이 매월 1000원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2000년 7월부터 2005년 말까지 7개 마을의 독거노인 세대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9240만 원을 지원했다.

포철산기는 사외 전문단체의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2005년 포항시가 주관한 행복한 가게에 의류 등 312점을 기증하고, 2005년 12월 7일 아름다운가게에 의류 등 157점을 기증했다. 또 혈액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2005년 1월 11일과 4월 29일 헌혈캠페인을 벌여 117명의 헌혈증서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기증했다.

포철산기는 국가 재난 극복에도 동참해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을 돕기 위해 2003년 3월 7일 1000만 원을 포항 MBC에 기탁했으며, 폭우나 폭설 시 자매마을을 중심으로 신속한 복구활동을 펼쳤다. 또한 포철산기는 2005년 12월 26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5000만 원을 기탁했다.

포철산기는 2004년 1월 15일 새마을문고 포항시지부에 200만 원어치의 신간 200권과 5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기증했다. 이 밖에도 포철산기는 지역 소재 한동대학교와 한일문화재단의 행사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포항시 운제산 산여곡 보호와 환경정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회사 차원의 봉사활동과는 별도로 제강연주정비과 사랑나눔회는 1994년 2월부터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보육원과 결연을

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으며, 공사부 장학회는 2004년 2월 16일 부원 전원이 참여하는 장학회를 설립하고 포항시 내 우수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 :: 포철기연



포철기연의 소망봉사그룹은 2005년 3월 5일 아동복지시설인 순천 성신원에서 첫 봉사활동을 펼쳤다.

포철기연(주)(사장 정상훈)은 2004년 10월 20일 포철기연봉사단을 발족한 후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봉사단이 발족하기 전에는 1988년 4월 결연한 궁기마을을 비롯해 평촌마을, 묵방마을을 중심으로 일손돕기와 마을 청소 등을 해 왔다. 발족 당시 봉사단에는 사랑, 희망, 소망, 한마음 등 4개 봉사그룹에 50여 명이 참가했으나 2005년 8월에는 어울림봉사그룹이 추가로 발족하고 참여 인원도 104명으로 늘어났다.

사랑봉사그룹은 광양 매화원, 희망봉사그룹은 광양 우리들병원, 소망봉사그룹은 순천 성신원, 한마음봉사그룹은 순천 인애원, 어울림봉사그룹은 순천 은빛마을과 각각 결연을 하고 이들 복지시설에서 목욕시켜 주기와 나들이 지원, 시설 수리와 청소 등을 해 오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이들 5개 그룹의 인당 봉사시간은 13.9시간이었다.

2006년 2월 6일에는 다솜봉사그룹이 발족해 순천만 생태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봉사 단체와 인원은 6개 그룹 135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자원봉사 활동 외에도 포철기연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불우이웃 돕기 차원에서 매화원,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광양시 지부, 한국BBS 광양시 지부 등에 7220만 원을 후원했으며, 3개 자매마을을 중심으로 설날과 추석 위문 활동에 1027만 원을 집행했다. 이와는 별도로 포철기연은 2005년 12월 22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5000만 원을 기탁했다.

포철기연은 2004년 3월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액 후원계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포철기연 사랑의 모임'을 운영해 왔으며, 2005년 말까지 8356만 원을 모아 불우이웃 돕기에 썼다. 포철기연 사랑의 모임에는 2006년 6월 말 현재 356명이 가입해 464구좌의 성금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포철기연은 2003년 6월 11일 5개 규범과 7개 행동준칙

으로 이루어진 윤리규범을 선포한 후 윤리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 :: 동우사

(주)동우사(사장 이우인)는 사업장이 있는 서울, 포항, 광양, 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사업장 여건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해 오다 2004년 7월 21일 참사랑봉사단 창단 이후 위문활동, 시설 수리, 자매활동, 성금기부, 환경보호 등의 본격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우사는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해관보육원·무지개동산·청암요양원, 포항과 광양 지역의 정애원·동보원·새들원과 각각 자매결연을 하고 월 1회 찾아가 원아 돌보기, 일일 부모 되



동우사 포항사업소 직원들이 2005년 3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인근 농가에서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고 있다.

어 주기, 시설 청소, 주방 일손돕기, 명절 위문 등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양평의 서중초등학교 등에서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작업과 함께 담장을 도색해 주고, 광양의 이외순 할머니를 비롯한 무의탁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목욕시설을 신축해 주거나 도배작업을 해 주는 등 시설 보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우사는 포항 해맞이공원을 비롯한 유원지나 관광시설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사업소 인근 농가의 농작물 수확, 농기계 수리, 배수로 설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이 자연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동우사는 시각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등에 성금을 기부하고, 포스코가 주관하는 아름다운가게 판매 봉사, 헌혈 행사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 :: 삼정피엔에이

(주)삼정피엔에이(사장 장병기)는 2003년 11월 27일 삼정봉사단을 결성한 후 포항과 광양 지역에서 불우시설 후원, 지역사회 행사 지원, 재해지역 복구, 환경정화 등 근로 위주의 봉사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봉사단 창단 이전에도 삼정피엔에이는 1995년 2월 포항시 기계면 봉계1리와 결연한 후 광양시 옥곡면(1999년 9월), 포



삼정근사랑봉사팀이 2004년 11월 광양시 옥룡면 양산마을의 한 독거노인 집을 찾아가 지붕과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항시 연일읍 학전리(2000년 10월)와 차례로 결연해 다양한 자매결연 활동을 펼쳐 왔다.

삼정피엔에이가 2005년 들어서 봉사활동 방침을 금전적인 후원에서 근로봉사 위주로 전환한 결과, 후원금액은 2004년 6044만 원에서 2005년 273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자원봉사의 내용은 더 충실해졌다. 2004년 활동실적은 봉사그룹 15개에 가입률 50%였으나, '삼정 근로봉사 배가의 해'였던 2005년에는 22개에 99.6%로 늘어났으며, 인당 봉사활동 시간도 1.3시간에서 10.5시간으로 늘어났다.

삼정피엔에이는 봉사활동을 일반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일반 활동으로는 자매마을 농번기 일손돕기와 농산물 팔아주기, 사회복지시설 시설수리·비품기증·목욕봉사, 소년소녀가장 장학 및 후원, 결식아동 돕기 활동,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특별 활동으로는 2004년 포항시 불빛축제 다음날 백사장 청소(6월 13일), KBS 6시 내고향 백년가약출연(11월 1일), 송년회를 대신한 노경합동 근로봉사(12월 2일) 등 4건을 실시했으며, 2005년에는 폭설피해 농가 비닐하우스 복구(1월 18일) 및 태풍 피해지역 복구(9월 7일), 광양시민의 날 나눔장터 자원봉사(10월 8일), 휴경기 고구마 경작 및 사회복지시설 전달(10월 4일) 등 모두 25건을 실시했다.

삼정피엔에이는 2004년 11월 12일 광양시가 주최한 제2회 광양시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독거노인 행복 찾아주기대상을 받았으며, 2005년에는 세계 빛의 축제 경북포항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6월 1일 포항시장 표창을 받았고, 12월 15일 포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제5회 포항사랑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 외주파트너사

### 개요

포스코의 외주파트너사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생산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생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포장·가공·운송·정비 등 계속 반복적인 작업은 협력작업으로, 생산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하역 운송·시설물 보수 등 작업은 용역작업으로 구분하고 수행 주체를 각각 협력회사와 용역회사로 불러왔으나, 이들 회사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04년 7월 이들 회사의 호칭을 '외주파트너사'로 일원화한 바 있다.

이들 외주파트너사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대다수 외주파트너사들은 처음에는 포스코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공헌활동을 시작했으나 2003년 5월 포스코봉사단 창단을 계기로 삼아 자체 봉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 6월 말 현재 포스코의 외주파트너사는 모두 84개이며, 이 가운데 65개사가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56개사가 52개 마을 및 19개 단체와 자매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주파트너사들은 사회복지시설 봉사, 지역사회 근로봉사, 환경정화 활동, 기관·단체 또는 가정·개인 후원 등 각 사의 특성

에 맞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으로 포스코봉사단이 주관하는 '나눔의 토요일' 행사나 '아름다운가게' 지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주)비엠에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키즈파티 열어 줘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주)비엠에스는 2006년 5월 자매마을인 해도2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린이 22명에게 키즈파티를 열어 줬다. 요즘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키즈파티는 생일파티나 미술파티, 과학파티 등 다양한 놀이문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이른바 어린이들만을 위한 파티다. The 좋은사람들 이벤트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체험하는 과학, 움직이는 로봇 만들기, 신기한 마술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주)서희건설, 장애인 가정에 세면실 설치

(주)서희건설은 2006년 5월 2일 포항에 거주하는 3급 하지 장애인 손동락 씨에게 수세식 변기와 세면대를 갖춘 세면실을 마련해 줬다. 손 씨와 서희건설의 만남은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서희건설 직원들은 복지관으로부터 손

씨의 사정을 듣고 2006년 4월 18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4월 말 세면실을 완공했다. 서희건설은 2005년 4월부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새둥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포항시내 어려운 학생 14명과 1 대 1 결연을 하고 매월 14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포항과 광양에 있는 33개 중·고등학교에서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다.

### (주)포엔시, 장기면 모포2리와 자매결연



우리푸드뱅크에 불우이웃돕기 성품을 전달하는 에스앤지 임직원들

포스코 직원들의 출퇴근을 담당하는 (주)포엔시는 2006년 4월 28일 포항시 장기면 모포2리와 자매결연을 했다. 이날 결연식 후 포엔시 임직원 30여 명과 마을 주민 80여 명은 푸짐한 음식을 나눠 먹고 춤을 추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어 열린 현판식은 조선 태종 때 제작됐다는 국가 지정 민속자료 제187호인 줄을 사용해 현판을 제막함으로써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 (주)에스앤지, 변함없는 이웃사랑 펼쳐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주)에스앤지는 2006년 1월 경주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티쉼터에 보일러를 설치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는 에스앤지는 2004년 1월 10일 초록봉사단을 결성해 매월 한 차례 영덕에 소재한 복지시설 '우리집'을 방문해 치매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목욕을 돕고 있다. 또 매월 두 차례 푸드뱅크에 참여해 혼자 사는 노인들과 경로당에 음식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스앤지는 2005년 4월 7일부터 기부면 대곡 2리와 자매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영남산업(주) 해맞이봉사단, 포항 들꽃마을에서 봉사활동 펼쳐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주)영남산업의 해맞이봉사단은 2005년 8월 6일 사회복지단체인 포항 들꽃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원들은 건물 담장을 보수하고 건물의



영남산업 해맞이봉사단원들이 포항들꽃마을 담장을 보수하는 모습

퇴색된 부분을 말끔히 도색한 후 잡초도 제거했다. 또 들꽃마을 가족들의 말동무가 돼 정답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성모자애원 최비오 신부가 운영하는 포항 들꽃마을은 가정형 공동체로, 무의탁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우 등 30여 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 영남산업은 6월 30일 들꽃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후원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주) 세영기업 나눔봉사단, 사랑의 공동체에서 봉사활동 펼쳐**



세영기업 나눔봉사단원들이 사랑의 공동체 어린이들과 놀아 주고 있다.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주)세영기업 나눔봉사단은 2005년 5월 28일 장애인 보육시설인 사랑의 공동체를 찾아가 쌀과 청소용 세제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일일 도우미가 돼 주었다. 이날 세영기업 나눔봉사단원들은 보육시설 청소, 침구류 세탁, 목욕봉사 등으로 사랑을 나눴다. 또한 세영기업은 2004년 12월 10일 나눔봉사단을 창단하고 이듬해 초부터 포항시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

**(주) 피에스씨, 고지1리 방송시설 교체**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주)피에스씨 봉사단은 2005년 5월 21일 자매마을인 기계면 고지1리를 찾아가 방송시설을 교체하고 케이블을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 이들은 경로당 청소와 마을 주변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피에스씨는 2005년 1월 15일 봉사단을 결성하면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주)유일, 사랑병원과 함께 죽정리에서 의료봉사**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주)유일은 사랑병원과 함께 2005년 3월 25일 자매마을인 장기면 죽정리에서 무료 건강검진 활동을 펼쳤다. 사랑병원은 유일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다. 사랑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10여 명은 죽정리 노인들에게 혈액 검사, X-레이 촬영, 당뇨 검사, 심전도 검사, 물리치료 등을 해 줬다. 유일은 1996년 7월 5일 죽정리와 자매결연을 하고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유일의 자매마을인 죽정리에서 사랑병원 의료진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농촌 일손 돕기, 하천 청소, 어려운 가정 돕기, 농산물 팔아 주기 등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외주파트너사 사장단, 마리아의 집에서 자원봉사**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협회가 2005년 1월 20일 포항시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쳤다. 외주파트너사 사장단과 임원 42명은 마리아의 집 안팎을 청소하고 장애인의 휠체어를 밀어 주며 대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외주파트너사협회는 각 사의 대표가 주축이 돼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78명과 결연해 생계비, 장학금 등으로 매월 500여만 원씩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인근 지역 마을과 자매로 결연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주)대원 노사협의회, 한마음의 집에 성금 전달**

포항지역 환경미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외주파트너사 (주)대원의 노사협의회는 2004년 12월 28일 포항시 연일에 있는 한마음의 집을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10여 명에게 회사와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대원은 목욕봉사, 청소 등 마음에서 우러난 봉사를 해 오고 있다. 대원은 또한 12월 29일 포항공대에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총 기부금액이 5억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앞장서 왔다.

**부국산업(주), 사랑의 집 고쳐 주기**



부국산업의 사랑나누기봉사단원들이 광양시 와우마을에 사는 어려운 이웃의 집을 수리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부국산업(주)의 사랑나누기봉사단은 2006년 2월 말 광양시 마동 와우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사랑의 집 고쳐 주기 활동을 펼쳤다.

교통사고 후유증과 당뇨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을 찾은 사랑나누기봉사단은 벽지 교체, 부엌 천장 수리, 건물 안팎 청소와 도색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언덕 위의 낡은 주택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얀 집으로 새로 단장했다. 2005년 6월 13일 발족한 사랑나누기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의 집을 고쳐 주는 등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

**혁성실업(주), 백운장학회에 2억 원 기탁**

광양제철소의 정비 및 도장을 담당하는 외주파트너사인 혁성실업(주)의 황의빈 대표이사는 2005년 12월 8일 광양시 이성웅 시장을 방문해 백운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써 달라고 2억 원

을 전달했다. 혁성실업은 2억 원 중 1억 원은 일반장학기금으로, 1억 원은 제철소의 조업안정과 지역 치안질서 확립에 수고하는 광양경찰서 직원 자녀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광양소방서 직원 자녀에게 전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주)광양기업, “사랑양념 넣고 버무린 김장 김치 맛 보세요”**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주)광양기업의 사랑나누기봉사단은 2005년 12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직원들이 직접 1000포기의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광양기업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이날 김장 담그기 비용으로 썼다.



광양기업 사랑나누기봉사단원들이 김장을 담그는 모습

광양기업 직원들은 이틀 동안 정성 들여 만든 김장을 무의탁 노인 58가구, 소년소녀가장 20가구, 전남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광양시가 추천한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주)덕산 징검다리 봉사단, 독거노인 돕기 활발**



덕산의 징검다리봉사단원들이 이애순 할머니와 자리를 함께했다.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주)덕산의 징검다리봉사단은 2005년 11월 독거노인 돕기 활동을 펼쳤다. 징검다리봉사단은 이애순 할머니가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딱한 사연을 박영주 씨로부터 전해 듣고 할머니 댁의 담장을 도색하고 집안을 정리정돈한 후 할머니에게 준비해 간 내복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박영주 씨는 수년째 이애순 할머니를 돌봐 왔다. 덕산은 2001년 9월 14일부터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추동마을과 자매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05년 7월 8일 징검다리봉사단을 발족해 성산요양원에서 목욕봉사와 빨래, 식당·건물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17개 외주파트너사, 태금중 복토작업 실시**

광양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협회 회장단을 비롯해 (주)서희건설과 혁성실업(주), 광양조경(주), (주)효석 등 17개 외주파트너사

의 임직원들이 년 10월 15일 광양시 태인동의 태금중학교 복토작업에 참여했다. 태금중학교는 저지대에 있어 우기에 운동장 사용이 어렵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학생들의 부상 위험이 많았다. 이에 서희건설에서 운동장에 흙과 모래를 채우고 배수로를 설치했으며, 광양조경은 학교 주변 수목의 가지치기와 화초 심기를, 혁성실업은 학교 건물 도색을 각각 맡았다. 또한 효석은 골재용 슬래그를 지원해 화단과 본관 사이의 길을 만들었다. 이날 정준양 광양제철소장과 외주파트너사 임원진은 페인트 도색과 화초 심기, 배수로 정리작업 등을 함께 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포스코 사회공헌 활동 자료

광고로 보는 포스코

수상실적

자원봉사 그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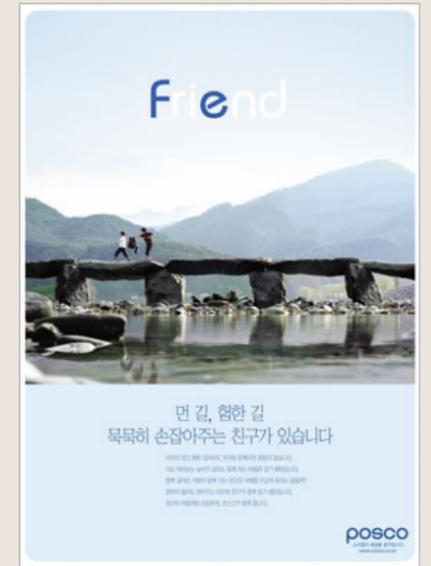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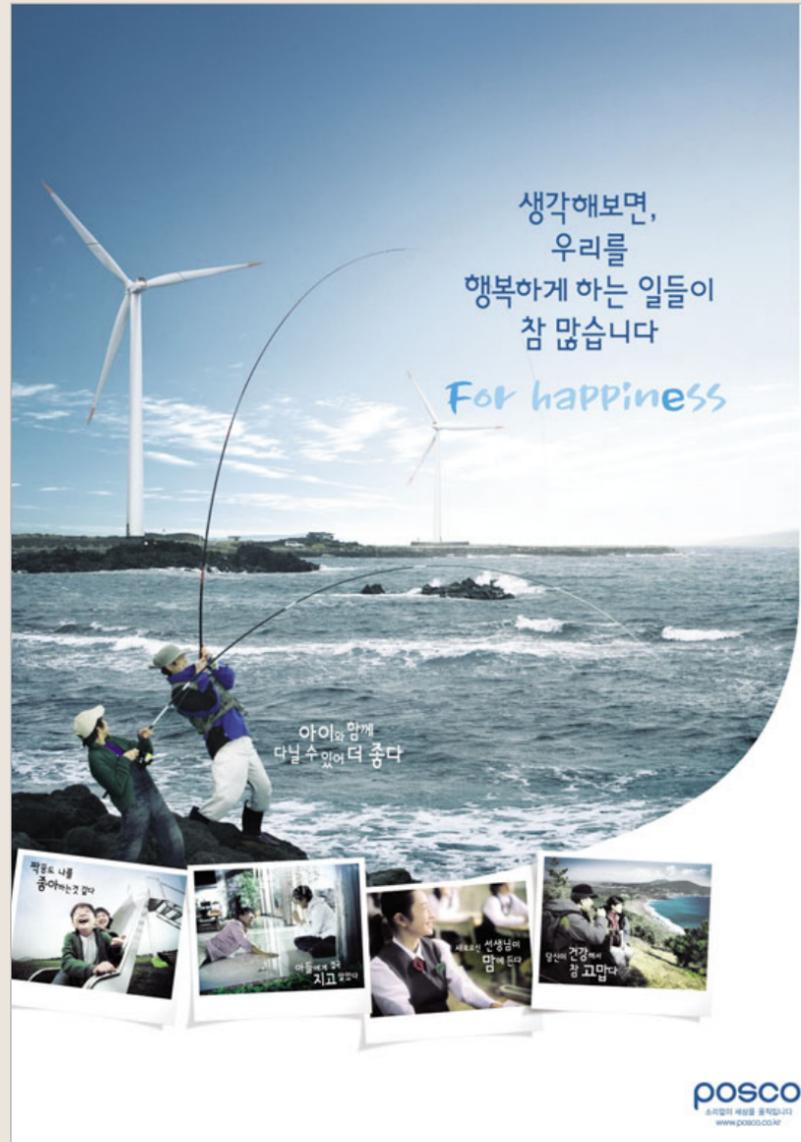
자매결연 현황

계열사 봉사단 운영 및 자매결연 현황

외주파트너사 봉사단 운영 및 자매결연 현황

## 철은 행복, 철은 희망

철은 행복이고 철은 희망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더욱 밝게 비추어주는 철, 포스코가 전하는 광고 속에는 철이 품은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다.



철(Fe)이 있어 행복이 있고(For happiness), 철이 있어 내일은 더욱 맑다(Fine), 철은 희망의 나라로 데려다 주는 기차이고(For hope), 철은 우리의 다정한 친구다(Friend), 돌아보면 세상은 참으로 따사롭다. 아침햇살을 머금은 작은 화분 하나, 티없이 맑은 어린 아이의 웃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른다. 가족이나 친구도 우리 행복의 근원이다. 철도 마찬가지. 때론 무덤덤한 모습으로, 때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과 행복을 지탱해준다. 철과 따스한 세상 참 많이 닮아있다.

하늘에는 별이, 땅에는 꽃이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아름답다 했다. 그리고 하늘에는 태양이, 땅에는 산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또한 굳건하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관계는 믿음 속에서 견고해진다. 철이 세상을 떠받치는 견고함만큼 사람 사이의 믿음 또한 견고하다면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여기는 신촌마을 사람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무인가게'입니다

처음엔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이 가게가 제대로 운영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드는 '양심가게'가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뭐 있겠느냐고 말하는 신촌마을 사람들— 그 믿음이 있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posco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Festival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불빛은  
당신과 함께 나누는 희망의 빛입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불빛은  
당신과 함께 나누는 희망의 빛입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불빛은  
당신과 함께 나누는 희망의 빛입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불빛은  
당신과 함께 나누는 희망의 빛입니다!

posco

판도라의 상자에서 빠져 나온 온갖 흉물스런 것들이 세상살이를 아무리 험겁게 해도 우리의 주변에는 그 상자에 남아있던 하나, 희망이 있어 힘이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리라는 희망, 그 희망을 지켜주는 인류의 소재 철.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불꽃이 어둠을 밝히는 희망이라면 철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해주는 희망이다.



Festival

희망의 빛으로 아름다운 연주로—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불꽃도, 아름다운 음악도 모두가 함께 나눌 때 더 큰 희망이 됩니다.  
포스코는 음악회 개최, 갤러리 운영, 발명 축제 등을 통해  
모두가 밝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posco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포항 국제 발명 축제 | 포스코 빌딩스 입주민 복지사업 | 기술관 운영 | 포스코 광덕

### 수상 실적

| 수상명                                     | 수상일          | 수상자     | 주관                 |
|---|--------------|---------|--------------------|
| 제1회 경영정보대상 복지부문 대상                      | 2003. 6. 14  | 포스코     | 한국회계정보학회           |
| 국민훈장 목련장 * 희망 2003 이웃돕기 유공              | 2003. 7. 8   | 최광웅 부사장 | 보건복지부              |
| 제13회 경제정의기업상 최우수상 * 1차 금속 및 비금속 광물업종 분야 | 2003. 12. 12 | 포스코     |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의연구소   |
| 2004 존경받는 기업 최우수상                       | 2004. 2. 4   | 포스코     |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경제신문    |
| 제1회 한국사회공헌대상 특별상                        | 2004. 8. 10  | 포스코     | 서울경제신문             |
| 2004 최우량 기업상                            | 2004. 8. 9   | 포스코     | 한국경영학회             |
| 2004 전국자원봉사자대회 대통령표창                    | 2004. 12. 3  | 포스코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 제14회 경제정의기업상 대상                         | 2004. 12. 15 | 포스코     |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의연구소   |
| 2005 존경받는 기업 대상                         | 2005. 2. 18  | 포스코     |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경제신문    |
| 2005 존경받는 기업 금상                         | 2005. 6. 27  | 포스코     | 동아일보 한국IBM BCS     |
| 제4회 기업윤리 대상                             | 2005. 11. 4  | 포스코     | 한국기업윤리학회           |
| 2005 메세나 대상                             | 2005. 11. 16 | 이구택 회장  | 한국메세나협의회 매일경제신문    |
| 대·중소기업 협력 대상                            | 2005. 12. 22 | 포스코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기협동조합중앙회 |
| 제2회 투명경영 대상                             | 2006. 2. 8   | 포스코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
| 2006 존경받는 기업 대상                         | 2006. 2. 28  | 포스코     |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경제신문    |
| 제1회 상생경영대상                              | 2006. 3. 23  | 포스코     | 파이낸셜뉴스             |
| 제1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우수상 * 윤리·사회책임 부문           | 2006. 4. 28  | 포스코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 자원봉사 그룹 현황(포항지역)

|    | 부서명          | 봉사 그룹명    | 활동 유형       |
|----|--------------|-----------|-------------|
| 1  | 감사실          | 징검다리      | 환경정화활동      |
| 2  | 재무실          | 재무실 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3  | 경영혁신실 혁신기획그룹 | 수호천사      | 환경정화활동      |
| 4  | 인재개발원        | HRD봉사단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5  | 사회봉사실        | 나눔이       | 금품지원활동      |
| 6  | 자재구매실        | 조은우리      | 금품지원활동      |
| 7  | 기술개발실        | 호미곳       | 환경정화활동      |
| 8  | 혁신지원그룹       | 혁신지원그룹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9  | 행정지원부        | 사랑나눔봉사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 | 섭외부          | 자우회       | 환경정화활동      |
| 11 | 섭외부 섭외팀      | 들꽃누리회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2 | 노무안전부 보건지원팀  | 대민의료지원팀   | 의료봉사        |
| 13 | 공정출하부        | 공정출하부 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14 | 공정출하부 생산관제과  | 공정회       | 금품지원활동      |
| 15 | 공정출하부 제품출하과  | 불우이웃돕기협의회 | 금품지원활동      |
| 16 | 공정출하부 제품출하과  | 후관선재창고상조회 | 금품지원활동      |
| 17 | 공정출하부 구내운송과  | 등불회       | 금품지원활동      |
| 18 | 공정출하부 구내운송과  | 밀알회       | 금품지원활동      |
| 19 | 공정출하부 구내운송과  | 애린회       | 금품지원활동      |
| 20 | 공정출하부 구내운송과  | 청솔회       | 금품지원활동      |
| 21 | 품질기술부        | 한식구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22 | 품질기술부        | 효         | 금품지원활동      |
| 23 | 제선부          | 제선기술실우회   | 금품지원활동      |
| 24 | 제선부 원료공장     | 갈매기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25 | 제선부 원료공장     | 사랑나눔회     | 금품지원활동      |
| 26 | 제선부 원료공장     | 원기모       | 금품지원활동      |
| 27 | 제선부 소결공장     | 상록회       | 금품지원활동      |
| 28 | 제선부 소결공장     | 백석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29 | 제선부 1제선공장    | 1제선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30 | 제선부 1제선공장    | 어린이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 부서명         | 봉사그룹명      | 활동유형        |
|----|-------------|------------|-------------|
| 31 | 제선부 1제선공장   | 주물선고로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32 | 제선부 1제선공장   | 주물선사랑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33 | 제선부 1제선공장   | 징검다리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34 | 제선부 1제선공장   | 한울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35 | 제선부 2제선공장   | 양지회 (2제선)  | 금품지원활동      |
| 36 | 제선부 2제선공장   | 참사랑회 (2제선) | 금품지원활동      |
| 37 | 화성부         | 햇불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38 | 화성부 1코크스공장  | 백은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39 | 화성부 2코크스공장  | 한울타리       | 농어촌 일손돕기    |
| 40 | 화성부 3코크스공장  | 상록회        | 금품지원활동      |
| 41 | 제강부         | 옛사우돕기후원회   | 금품지원활동      |
| 42 | 제강부         | 다함께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43 | 제강부 제강설비개선팀 | 하얀날개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44 | 제강부 1제강공장   | 상록수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45 | 제강부 1제강공장   | 전로상조회      | 금품지원활동      |
| 46 | 제강부 1제강공장   | 빛살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47 | 제강부 1제강공장   | 다사랑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48 | 제강부 1연주공장   | 빌레트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49 | 제강부 2제강공장   | 사랑나눔기회     | 금품지원활동      |
| 50 | 제강부 2제강공장   | 운전상조회      | 금품지원활동      |
| 51 | 제강부 2연주공장   | 연사모        | 금품지원활동      |
| 52 | 제강부 2연주공장   | 정정참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53 | 제강부 3연주공장   | 사랑나눔회      | 금품지원활동      |
| 54 | 열연부 1열연공장   | 1열연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55 | 열연부 1열연공장   | 사랑의집       | 물품지원활동      |
| 56 | 열연부 2열연공장   | 2열연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57 | 열연부 2열연공장   | 열맥A        | 가정방문봉사      |
| 58 | 후관부         | 후관부자원봉사단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59 | 후관부 1후관공장   | 1후관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60 | 후관부 2후관공장   | 2후관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 부서명              | 봉사그룹명      | 활동유형        |
|----|------------------|------------|-------------|
| 61 | 선재부              | 작은사랑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62 | 선재부              | 포공1선재회     | 금품지원활동      |
| 63 | 선재부 1선재공장        | 다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64 | 선재부 2선재공장        | 2선재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65 | 선재부 2선재공장        | 나누리        | 금품지원활동      |
| 66 | 선재부 2선재공장        | 참          | 금품지원활동      |
| 67 | 냉연부 2냉연공장        | 한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68 | 냉연부 도금공장         | 도금인사랑나눔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69 | 전기강판부            | 누림과나눔 봉사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70 | 전기강판부            | 꿈나무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71 | 전기강판부            | 전강사랑나눔회    | 금품지원활동      |
| 72 | 환경에너지부           | 사랑나눔기회(환경) | 금품지원활동      |
| 73 | 환경에너지부           | 그루터기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74 | 설비기술부            | 사랑의 손수레    | 금품지원활동      |
| 75 | 설비기술부            | 들꽃사랑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76 | 기계설비부 화성기계정비과    | 늘푸른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77 | 기계설비부 제선기계정비과    | 고소정나눔회     | 금품지원활동      |
| 78 | 기계설비부 연주기계정비과    | 정나눔기       | 금품지원활동      |
| 79 | 기계설비부 후관기계정비과    | 후정회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80 | 기계설비부 선재기계정비과    | 선장회        | 금품지원활동      |
| 81 | 기계설비부 냉연기계정비과    | 나눔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82 | 기계설비부 냉연기계정비과    | 밀알회        | 금품지원활동      |
| 83 | 기계설비부 STS제강기계정비과 | 청송회        | 금품지원활동      |
| 84 | 기계설비부 동력기계정비과    | 동심회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85 | 기계설비부 정비공장       | 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86 | 전기제어설비부          | 오토피아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87 | 전기제어설비부 화성전기정비과  | 화사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88 | 전기제어설비부 제선전기정비과  | 디지털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89 | 전기제어설비부 제강전기정비과  | 한누리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90 | 전기제어설비부 제강전기정비과  | 나누리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 부서명                | 봉사 그룹명         | 활동 유형       |
|-----|--------------------|----------------|-------------|
| 91  | 전기제어설비부 제강전기정비과    | 후관전기봉사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92  | 전기제어설비부 선재전기정비과    | 선재전강참사랑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93  | 전기제어설비부 냉연전기정비과    | 밀알회            | 금품지원활동      |
| 94  | 전기제어설비부 냉연전기정비과    | 냉연전기정비과 상조회    | 금품지원활동      |
| 95  | 전기제어설비부 STS제강전기정비과 | 자연사랑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96  | 전기제어설비부 계측정비과      | 계측제어봉사단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97  | 전기제어설비부 전기수리과      | 신우회            | 금품지원활동      |
| 98  | 기술연구소              | 학마을 사람들        | 금품지원활동      |
| 99  | 기술연구소 후관연구그룹       | 어깨동무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0 | 기술연구소 전기강판연구그룹     | POSCO 곰두리봉사단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1 | FINEX연구개발추진반       | 신제선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102 | FINEX연구개발추진반       | 신제선기술팀 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103 | POSTRIP기술개발추진반     | 투게더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4 | 스테인리스생산부           | 스테인리스생산부 자원봉사단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05 | 스테인리스생산부           | 새하얀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6 | 스테인리스생산부 1제강공장     | 하트회            | 금품지원활동      |
| 107 | 스테인리스생산부 2제강공장     | 사랑해            | 금품지원활동      |
| 108 | 스테인리스생산부 3제강공장     | 동그라미회          | 금품지원활동      |
| 109 | 스테인리스생산부 소둔산세공장    | 소둔산세한마음회       | 금품지원활동      |
| 110 | 스테인리스생산부 냉연공장      | 냉연한마음회         | 금품지원활동      |
| 111 | 포항 (연합)            | 구품연지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12 | 포항 (연합)            | 나눔가족자원봉사단      | 가정방문봉사      |
| 113 | 포항 (연합)            | 늘푸른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14 | 포항 (연합)            | 늘푸른 경포동호회      | 위생봉사활동      |
| 115 | 포항 (연합)            | 다락봉사           | 공연 및 전시활동   |
| 116 | 포항 (연합)            | 다솜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17 | 포항 (연합)            | 대사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18 | 포항 (연합)            | 대잠자울방범대        | 공공질서 유지활동   |
| 119 | 포항 (연합)            | 더부러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20 | 포항 (연합)            | 둥지회            | 금품지원활동      |

|     | 부서명     | 봉사 그룹명      | 활동 유형       |
|-----|---------|-------------|-------------|
| 121 | 포항 (연합) | 베들레헴공동체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22 | 포항 (연합) | 사랑가족자원봉사단   | 가정방문봉사      |
| 123 | 포항 (연합) | 사랑의 열차      | 금품지원활동      |
| 124 | 포항 (연합) | 사랑향나눔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25 | 포항 (연합) | 새나눔이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26 | 포항 (연합) | 색동어린이       | 외출지원활동      |
| 127 | 포항 (연합) | 숲지킴이        | 환경보전활동      |
| 128 | 포항 (연합) | 아가페         | 위생봉사활동      |
| 129 | 포항 (연합) | 아간열차        | 환경보전활동      |
| 130 | 포항 (연합) | 양학자울방범대     | 공공질서 유지활동   |
| 131 | 포항 (연합) | 여직원상조회 (포항)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32 | 포항 (연합) | 엘이남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33 | 포항 (연합) | 울타리 (포항)    | 환경정화활동      |
| 134 | 포항 (연합) | 웰빙봉사회       | 의료봉사        |
| 135 | 포항 (연합) | 유강자울방범대     | 공공질서 유지활동   |
| 136 | 포항 (연합) | 은하철도999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137 | 포항 (연합) | 음악동호인연합회    | 공연 및 전시활동   |
| 138 | 포항 (연합) | 음악치료봉사회     | 의료봉사        |
| 139 | 포항 (연합) | 정진회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40 | 포항 (연합) | 제철자울방범대     | 공공질서 유지활동   |
| 141 | 포항 (연합) | 참사랑기동봉사대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142 | 포항 (연합) | 참사랑나눔회      | 가정방문봉사      |
| 143 | 포항 (연합) | 청결가족자원봉사단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144 | 포항 (연합) | 축구심판봉사회     | 생활체육지원      |
| 145 | 포항 (연합) | 피랑새봉사단      | 생활체육지원      |
| 146 | 포항 (연합) | 패밀리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47 | 포항 (연합) | 포기연         | 급식 및 식사지원   |
| 148 | 포항 (연합) | 포스코수지침연구회   | 의료봉사        |
| 149 | 포항 (연합) | 포스코헬스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150 | 포항 (연합) | 포항나눔미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 부서명     | 봉사그룹명         | 활동유형        |
|-----|---------|---------------|-------------|
| 151 | 포항 (연합) | 포항 들꽃사랑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52 | 포항 (연합) | 포항소년소녀가장동기후원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53 | 포항 (연합) | 푸른가족자원봉사단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154 | 포항 (연합) | 푸른마음봉사회       | 의료봉사        |
| 155 | 포항 (연합) | 한마음봉사단 (포항)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56 | 포항 (연합) | 한마음사랑회        | 위생봉사활동      |
| 157 | 포항 (연합) | 한마음수치침봉사회     | 의료봉사        |
| 158 | 포항 (연합) | 한빛봉사회         | 급식 및 식사지원   |
| 159 | 포항 (연합) | 한솔봉사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60 | 포항 (연합) | 함께가족자원봉사단     | 가정방문봉사      |
| 161 | 포항 (연합) | 해양봉사회         | 환경정화활동      |
| 162 | 포항 (연합) | Nobrake       | 환경정화활동      |
| 163 | 포항 (연합) | 행복가족자원봉사단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64 | 포항 (연합) | 효곡새마을협의회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165 | 포항 (연합) | 효곡수치침봉사회      | 의료봉사        |
| 166 | 포항 (연합) | 효곡자율방범교통봉사대   | 공공질서 유지활동   |
| 167 | 포항 (연합) | 효곡자율방범대       | 공공질서 유지활동   |
| 168 | 포항 (연합) | 효곡환경봉사대       | 환경정화활동      |

자원봉사 그룹 현황(광양지역)

(2006년 6월말 기준)

|   | 부서명         | 봉사그룹명  | 활동유형        |
|---|-------------|--------|-------------|
| 1 | 감사실 광양감사팀   | 민들레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2 | 인재개발원       | 울타리    | 금품지원활동      |
| 3 | 자재구매실 광양구매팀 | 지사모    | 금품지원활동      |
| 4 | 행정지원부 행정팀   | 사랑과 평화 | 금품지원활동      |
| 5 | 행정지원부 행정팀   | 백운봉사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6 | 행정지원부 재무원가팀 | 동그라미   | 금품지원활동      |
| 7 | 행정지원부 재무원가팀 | 나누미    | 금품지원활동      |

|    | 부서명         | 봉사그룹명     | 활동유형        |
|----|-------------|-----------|-------------|
| 8  | 행정지원부 지역협력팀 | 지사모       | 금품지원활동      |
| 9  | 행정지원부 홍보팀   | 온가사       | 금품지원활동      |
| 10 | 행정지원부 자재통관팀 | 디딤돌       | 금품지원활동      |
| 11 | 행정지원부 자재통관팀 | 나누는 기쁨    | 금품지원활동      |
| 12 | 노무안전부       | 나누리봉사대    | 금품지원활동      |
| 13 | 노무안전부 생활문화팀 | 보리수       | 금품지원활동      |
| 14 | 노무안전부 외주지원팀 | 햇살        | 금품지원활동      |
| 15 | 공정출하부       | 프렌즈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6 | 공정출하부 제품출하과 | 팔선오복회     | 금품지원활동      |
| 17 | 공정출하부 제품출하과 | 사랑의 모임    | 금품지원활동      |
| 18 | 공정출하부 구내운송과 | 비둘기상조회    | 금품지원활동      |
| 19 | 공정출하부 구내운송과 | 굴렁쇠       | 자원봉사교육      |
| 20 | 품질기술부       | 품질기술부협의회  | 금품지원활동      |
| 21 | 품질기술부       | 나눔의 샘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22 | 품질기술부 재질시험과 | 조은뜻       | 농어촌 일손돕기    |
| 23 | 품질기술부 화학시험과 | 희망의 뿌리    | 금품지원활동      |
| 24 | 제선부         | 큰바위 얼굴    | 금품지원활동      |
| 25 | 제선부         | 밀알회       | 금품지원활동      |
| 26 | 제선부 원료공장    | 사랑나눔실천회   | 금품지원활동      |
| 27 | 제선부 소결공장    | 소결상조회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28 | 제선부 1제선공장   | 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29 | 제선부 2제선공장   | 한울회       | 금품지원활동      |
| 30 | 제선부 2제선공장   | 디지털봉사대    | 기타 개인       |
| 31 | 제선부 3제선공장   | 3제선공장협의회  | 금품지원활동      |
| 32 | 화성부 조업지원팀   | 화성화동회     | 금품지원활동      |
| 33 | 화성부 1코크스공장  | 사랑나눔봉사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34 | 화성부 2코크스공장  | 선탄이웃사랑사회  | 금품지원활동      |
| 35 | 화성부 2코크스공장  | 2코크스공장상조회 | 농어촌 일손돕기    |
| 36 | 화성부 화성공장    | 화성공장협의회   | 금품지원활동      |
| 37 | 제강부         | 제강부 봉사단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 부서명       | 봉사 그룹명           | 활동 유형       |
|----|-----------|------------------|-------------|
| 38 | 제강부 1제강공장 | 제강사랑나눔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39 | 제강부 2제강공장 | 한가족회             | 금품지원활동      |
| 40 | 제강부 1연주공장 | 연사랑              | 금품지원활동      |
| 41 | 제강부 2연주공장 |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는 연주인 | 금품지원활동      |
| 42 | 열연부       | 열연부 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43 | 열연부 1열연공장 | 1열연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44 | 열연부 1열연공장 | 꼬꼬사랑회            | 가정방문봉사      |
| 45 | 열연부 2열연공장 | 나눔회              | 금품지원활동      |
| 46 | 열연부 2열연공장 | 작은사랑실천회          | 금품지원활동      |
| 47 | 열연부 2열연공장 | 한마음회             | 금품지원활동      |
| 48 | 열연부 3열연공장 | 압연소년소녀가장돕기회      | 금품지원활동      |
| 49 | 열연부 3열연공장 | 정정소년소녀가장지원팀      | 금품지원활동      |
| 50 | 냉연부       | 효사랑햇살나눔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51 | 도금부       | 우리들햇살나눔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52 | 냉연부       | 반우회              | 금품지원활동      |
| 53 | 냉연부       | 이용봉사회            | 위생봉사활동      |
| 54 | 냉연부 2냉연공장 | 소둔불우이웃돕기회        | 금품지원활동      |
| 55 | 냉연부 3냉연공장 | 3냉연공장협의회         | 금품지원활동      |
| 56 | 냉연부 4냉연공장 | 압연상조회            | 금품지원활동      |
| 57 | 냉연부 4냉연공장 | 소둔상조회            | 금품지원활동      |
| 58 | 냉연부 4냉연공장 | 4냉연정정그룹          | 금품지원활동      |
| 59 | 도금부       | 도금사랑나눔터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60 | 도금부       | 열린배움터            | 학습지원        |
| 61 | 도금부 1도금공장 | 한마음회             | 금품지원활동      |
| 62 | 도금부 2도금공장 | 2도금봉사단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63 | 도금부 2도금공장 | 소년소녀가장돕기회        | 금품지원활동      |
| 64 | 도금부 2도금공장 | 불우학생장학금          | 금품지원활동      |
| 65 | 도금부 2도금공장 | 나눔터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66 | 도금부 3도금공장 | 빛초롱봉사대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67 | 도금부 3도금공장 | 소망나눔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 부서명             | 봉사 그룹명          | 활동 유형       |
|----|-----------------|-----------------|-------------|
| 68 | 도금부 3도금공장       | 이지투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69 | 도금부 3도금공장       | 행복의 동반자         | 위생봉사활동      |
| 70 | 도금부 3도금공장       | 시나브로봉사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71 | 미니밀부            | 미니밀천사회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72 | 미니밀부            | 미니밀부협의회         | 금품지원활동      |
| 73 | 미니밀부 제강공장       | 미제강이웃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74 | 미니밀부 제강공장       | 보람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75 | 미니밀부 제강공장       | 이웃사랑회           | 가정방문봉사      |
| 76 | 미니밀부 열연공장       | 열연공장 불우이웃돕기회    | 금품지원활동      |
| 77 | 환경에너지부          | 그린파워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78 | 환경에너지부 전력계통과    | 전력계통과우회         | 금품지원활동      |
| 79 | 환경에너지부 발전과      | 아사모             | 금품지원활동      |
| 80 | 환경에너지부 산소공장     | O2봉사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81 | 설비기술부           | 설비기술부 상조회       | 금품지원활동      |
| 82 | 설비기술부           | 설기봉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83 | 기계설비부 기계정비기술팀   | 공무설계사랑나눔회       | 금품지원활동      |
| 84 | 기계설비부 정비공장      | 참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85 | 기계설비부 기계수리과     | 청맥              | 가정방문봉사      |
| 86 | 기계설비부 화성기계정비과   | 원료화성봉사대         | 금품지원활동      |
| 87 | 기계설비부 제선기계정비과   | 함께하는 봉사대        | 금품지원활동      |
| 88 | 기계설비부 열연기계정비과   | 늘사랑회            | 금품지원활동      |
| 89 | 기계설비부 냉연기계정비과   | 물레방아            | 금품지원활동      |
| 90 | 전기제어설비부         | 전기제어설비부협의회      | 금품지원활동      |
| 91 | 전기제어설비부         | EIC봉사단          | 금품지원활동      |
| 92 | 전기제어설비부         | 나눔봉사대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93 | 전기제어설비부         | SOS 어린이마음 후원회   | 금품지원활동      |
| 94 | 전기제어설비부         | 니누미기쁨21         | 인명 및 재해구호   |
| 95 | 전기제어설비부         | 불우이웃돕기활동추진팀 (E) | 금품지원활동      |
| 96 | 전기제어설비부 계속제어정비과 | 계속제어정비과협의회      | 금품지원활동      |
| 97 | 전기제어설비부 제선전기정비과 | 한마음회            | 금품지원활동      |

|     | 부서명              | 봉사 그룹명      | 활동 유형       |
|-----|------------------|-------------|-------------|
| 98  | 전기제어설비부 에너지전기정비과 | 에너지전기정비과협의회 | 가정방문봉사      |
| 99  | 광양(연합)           | 3냉연물정비장학회   | 금품지원활동      |
| 100 | 광양(연합)           | 광양만 사람들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01 | 광양(연합)           | 광영자율방범대     | 공공질서 유지활동   |
| 102 | 광양(연합)           | 광철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3 | 광양(연합)           | 금호자율방범대     | 공공질서 유지활동   |
| 104 | 광양(연합)           | 기독신우회       | 금품지원활동      |
| 105 | 광양(연합)           | 나눔의 빛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6 | 광양(연합)           | 다사랑봉사대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7 | 광양(연합)           | 동사모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8 | 광양(연합)           | 마음씨 좋은 사람들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9 | 광양(연합)           | 보금자리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10 | 광양(연합)           | 빛 인형극단      | 공연 및 전시활동   |
| 111 | 광양(연합)           | 색소폰봉사단      | 공연 및 전시활동   |
| 112 | 광양(연합)           | 선한이웃봉사회     | 위생봉사활동      |
| 113 | 광양(연합)           | 아름다운 손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14 | 광양(연합)           | 여직원상조회(광양)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15 | 광양(연합)           | 운천회 나눔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16 | 광양(연합)           | 작은사랑나눔회     | 금품지원활동      |
| 117 | 광양(연합)           | 작은사랑회(광양)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18 | 광양(연합)           | 작은손 따뜻한 마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19 | 광양(연합)           | 정수배기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20 | 광양(연합)           | 제빵봉사단       | 물품지원활동      |
| 121 | 광양(연합)           | 중마자율방범대     | 공공질서 유지활동   |
| 122 | 광양(연합)           | 참사랑회(광양)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23 | 광양(연합)           | 풀뿌리봉사대      | 생활체육지원      |
| 124 | 광양(연합)           | 한국수난안전협회    | 인명 및 재해구호   |
| 125 | 광양(연합)           | 한마음봉사단(광양)  | 급식 및 식사지원   |
| 126 | 광양(연합)           | 해군봉사회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27 | 광양(연합)           | 환경사랑봉사대     | 환경정화활동      |

|     | 부서명    | 봉사 그룹명   | 활동 유형       |
|-----|--------|----------|-------------|
| 128 | 광양(연합) | 희망나눔회    | 인명 및 재해구호   |
| 129 | 광양(연합) | PMS잠수동우회 | 환경정화활동      |
| 130 | 광양(연합) | YMCA 나눔이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자원봉사 그룹 현황(서울 및 해외지역)

(2006년 6월말 기준)

|    | 부서명                     | 봉사 그룹명    | 활동 유형       |
|----|-------------------------|-----------|-------------|
| 1  | 비서실                     | 비서실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2  | 감사실/기업윤리실천사무국           | 바로맨봉사단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3  | 홍보실                     | 홍보실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4  | 석탄/광석/제강원료구매실           | 원료부문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5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6  | 경영기획실 / 철강사업 / 해외조림추진반  | 경영기획부문    | 금품지원활동      |
| 7  | 투자사업실 출자관리그룹            | 출자관리그룹    | 금품지원활동      |
| 8  | 투자사업실 신사업개발그룹           | 신사업개발그룹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9  | 재무실                     | 재무실(서울)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0 | IR그룹                    | IR그룹      | 금품지원활동      |
| 11 | 에너지사업추진반                | 에너지사업추진반  | 금품지원활동      |
| 12 | 경영혁신실/포스데이타             | 작은사랑회(서울)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3 | 법무실                     | 법무실(서울)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4 | 조직인사실                   | 조직인사실(서울)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5 | 마케팅전략실 / 판매생산계획실        | 다복술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6 | 수주공정실                   | 수주공정실     | 기타 사회복지분야   |
| 17 | 제품기술실 / 수요개발실           | 까치동아리     | 환경 정화활동     |
| 18 | 열연 / API광관 / 후관 / 선재판매실 | 니누미봉사단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19 | 냉연판매실                   | 냉연판매실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20 | 지동차강판판매실                | 지동차강판판매실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21 | 지동차강판수출실                | 지동차강판수출실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22 | 표면처리강판판매실               | 표면처리강판판매실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 부서명                  | 봉사그룹명      | 활동유형        |
|----|----------------------|------------|-------------|
| 23 | 전기강판판매실              | 전기강판판매실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24 | 설비구매실/ 자재구매실         | 구매부문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25 | 스테인리스전략실/ 판매실/ 개발판매실 | 빛나눔회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26 | 스테인리스원료구매실           | 스테인리스원료구매실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27 | 서울(연합)               | 수지침봉사회     | 의료봉사        |
| 28 | 서울(연합)               | 한미음봉사단(서울)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29 | 포스코차이나               | 포스코차이나     | 기타 지역사회분야   |

### 자매결연 현황(포항지역)

(2006년 6월말 기준)

|    | 부서명          | 결연대상        | 결연일자         |
|----|--------------|-------------|--------------|
| 1  | 선강설비투자계획실    | 동해면 마산리     | 1993. 12. 11 |
| 2  | 압연설비투자계획실    | 연일읍 택전2리    | 2005. 10. 26 |
| 3  | 사회봉사실        | 기계면 봉계2리    | 1999. 3. 6   |
| 4  | 조직인사실 조직인사그룹 | 동해면 입암1리    | 1993. 11. 20 |
| 5  | 조직인사실 노무기획그룹 | 동해면 입암2리    | 1993. 11. 20 |
| 6  | 재무실          | 동해면 발산2리    | 1994. 1. 31  |
| 7  | 외주실          | 대보면 대동배2리   | 1994. 6. 17  |
| 8  | 자재구매실        | 연일읍 오천리     | 1994. 2. 4   |
| 9  | 기술개발실        | 대보면 구만2리    | 1993. 12. 13 |
| 10 | 기술개발실 특허팀    | 동해면 약전1리    | 1993. 10. 29 |
| 11 |              | 동해면 약전2리    |              |
| 12 |              | 동해면 약전3리    |              |
| 13 | 환경에너지실       | 대송면 대각1리    | 1993. 10. 27 |
| 14 |              | 대송면 대각2리    |              |
| 15 | 인재개발원        | 장기면 영암3리    | 1998. 9. 19  |
| 16 | 행정지원부        | 대한노인회 포항시지부 | 1991. 10. 25 |
| 17 |              | 죽도1동        | 1993. 10. 30 |
| 18 | 행정지원부 자재통관팀  | 상대2동        | 1992. 8. 12  |
| 19 | 섭외부 지역협력팀    | 개인택시 포항지부   | 1991. 10. 24 |

|    | 부서명         | 결연대상     | 결연일자         |
|----|-------------|----------|--------------|
| 20 | 섭외부 지역협력팀   | 포항농협     | 1992. 2. 12  |
| 21 |             | 오천읍 문덕4리 | 1993. 12. 15 |
| 22 | 섭외부 홍보팀     | 장기면 영암2리 | 1999. 2. 6   |
| 23 |             | 포항문인협회   | 1993. 10. 22 |
| 24 | 노무안전부       | 중앙동      | 1993. 12. 8  |
| 25 |             | 연일읍 자명1리 | 1996. 3. 5   |
| 26 |             | 연일읍 자명2리 |              |
| 27 |             | 공정출하부    | 홍해읍 용한1리     |
| 28 | 홍해읍 용한2리    |          |              |
| 29 | 환여동         |          | 1993. 9. 23  |
| 30 | 동해면 도구2리    |          | 1993. 12. 21 |
| 31 | 품질기술부       | 죽도2동     | 1993. 12. 14 |
| 32 | 품질기술부 재질시험과 | 구룡포읍 장길리 | 1999. 6. 12  |
| 33 | 제선부         | 해도2동     | 1992. 6. 25  |
| 34 | 제선부 조업지원팀   | 송리면 대전1리 | 1995. 5. 11  |
| 35 |             | 송리면 대전2리 |              |
| 36 |             | 송리면 대전3리 |              |
| 37 | 제선부 원료공장    | 신광면 사정1리 | 1999. 4. 3   |
| 38 | 제선부 소결공장    | 죽장면 석계리  | 1996. 3. 14  |
| 39 | 제선부 1제선공장   | 홍해읍 곡강2리 | 1999. 3. 18  |
| 40 | 제선부 2제선공장   | 기계면 미현리  | 1999. 4. 2   |
| 41 | 화성부         | 화산동      | 1993. 10. 14 |
| 42 | 화성부 1코크스공장  | 홍해읍 용전2리 | 1999. 4. 24  |
| 43 | 화성부 2코크스공장  | 오천읍 갈평리  | 1999. 4. 29  |
| 44 | 화성부 3코크스공장  | 동해면 공당1리 | 1992. 8. 12  |
| 45 |             | 동해면 공당2리 |              |
| 46 |             | 동해면 공당3리 |              |
| 47 | 화성부 화성공장    | 홍해읍 초곡리  | 1999. 4. 11  |
| 48 | 제강부         | 송도동      | 1993. 2. 12  |
| 49 | 제강부 1제강공장   | 청하면 청진2리 | 1999. 8. 7   |

|    | 부서명           | 결연대상     | 결연일자         |
|----|---------------|----------|--------------|
| 50 | 제강부 1연주공장     | 장기면 계원2리 | 2000. 6. 17  |
| 51 | 제강부 2제강공장     | 대송면 남성1리 | 1999. 7. 31  |
| 52 | 제강부 2연주공장     | 기계면 남계리  | 1996. 3. 7   |
| 53 | 제강부 3연주공장     | 죽장면 하옥리  | 1995. 4. 26  |
| 54 | 열연부 1열연공장     | 기북면 오덕1리 | 1995. 4. 20  |
| 55 |               | 기북면 오덕2리 |              |
| 56 | 열연부 2열연공장     | 청림동      | 1993. 2. 18  |
| 57 | 후판부           | 용흥동      | 1996. 3. 26  |
| 58 | 후판부 1후판공장     | 홍해읍 우목리  | 1993. 3. 17  |
| 59 | 후판부 2후판공장     | 홍해읍 대련1리 | 1998. 11. 21 |
| 60 | 후판부 후판제품공장    | 기계면 내단3리 | 1999. 2. 9   |
| 61 | 선재부           | 동해면 임곡1리 | 1993. 6. 21  |
| 62 |               | 우창동      | 1994. 3. 29  |
| 63 | 선재부 1선재공장     | 기계면 가인2리 | 1999. 3. 3   |
| 64 | 선재부 2선재공장     | 청하면 용두1리 | 1997. 9. 25  |
| 65 | 냉연부 1냉연공장     | 장량동      | 1994. 2. 3   |
| 66 | 냉연부 2냉연공장     | 오천읍 문충1리 | 1997. 5. 8   |
| 67 | 냉연부 2도금공장     | 청하면 신흥리  | 1996. 3. 14  |
| 68 | 전기강판부         | 유강발전협의회  | 2004. 6. 17  |
| 69 | 전기강판부 전기강판공장  | 동해면 흥환1리 | 1993. 3. 24  |
| 70 |               | 동해면 흥환2리 |              |
| 71 | 환경에너지부        | 효곡동      | 1993. 2. 9   |
| 72 | 환경에너지부 자원재활용팀 | 포항어민회    | 2004. 4. 19  |
| 73 | 환경에너지부 동력과    | 죽장면 입암1리 | 1996. 4. 2   |
| 74 |               | 죽장면 입암2리 |              |
| 75 | 환경에너지부 발전과    | 신광면 만석1리 | 1996. 3. 22  |
| 76 |               | 신광면 만석2리 |              |
| 77 | 환경에너지부 수질보전과  | 해도1동     | 1992. 9. 25  |
| 78 |               | 영천시 자양면  | 2001. 8. 9   |
| 79 | 설비기술부         | 두호동      | 1993. 11. 5  |

|     | 부서명                | 결연대상      | 결연일자         |
|-----|--------------------|-----------|--------------|
| 80  | 설비기술부 투자공사팀        | 장기면 산서리   | 1995. 3. 30  |
| 81  | 기계설비부 화성기계정비과      | 청하면 방어리   | 1999. 4. 10  |
| 82  | 기계설비부 제선기계정비과      | 홍해읍 오도2리  | 1999. 4. 17  |
| 83  | 기계설비부 제강기계정비과      | 연일읍 유강1리  | 1999. 4. 24  |
| 84  | 기계설비부 연주기계정비과      | 송리면 방석1리  | 1999. 9. 4   |
| 85  | 기계설비부 열연기계정비과      | 제철동       | 1992. 9. 22  |
| 86  | 기계설비부 후판기계정비과      | 동해면 신정1리  | 2003. 10. 30 |
| 87  | 기계설비부 선재기계정비과      | 대송면 송동1리  | 1999. 5. 8   |
| 88  | 기계설비부 냉연기계정비과      | 대송면 장동1리  | 1996. 3. 9   |
| 89  |                    | 대송면 장동2리  |              |
| 90  |                    | 대송면 장동3리  |              |
| 91  | 기계설비부 STS제강기계정비과   | 대송면 흥계리   | 1999. 4. 25  |
| 92  | 기계설비부 STS냉연기계정비과   | 대송면 공수리   | 2003. 6. 26  |
| 93  | 기계설비부 기계수리과        | 상대1동      | 1992. 11. 10 |
| 94  | 기계설비부 크레인정비과       | 동해면 금광1리  | 2001. 2. 3   |
| 95  | 기계설비부 노재과          | 송리면 화진1리  | 1999. 6. 19  |
| 96  | 기계설비부 정비공장         | 신광면 기일리   | 1995. 4. 28  |
| 97  | 전기제어설비부 제어설비운영과    | 기계면 계전리   | 1995. 5. 22  |
| 98  | 전기제어설비부 화성전기정비과    | 기계면 학아리   | 1996. 3. 30  |
| 99  | 전기제어설비부 제선전기정비과    | 구룡포읍 하정3리 | 1999. 3. 19  |
| 100 | 전기제어설비부 제강전기정비과    | 청하면 청진1리  | 1999. 5. 8   |
| 101 | 전기제어설비부 열연전기정비과    | 청하면 이가리   | 1999. 8. 7   |
| 102 | 전기제어설비부 선재전기정비과    | 홍해읍 칠포1리  | 1999. 6. 19  |
| 103 | 전기제어설비부 냉연전기정비과    | 신광면 상읍1리  | 1999. 3. 6   |
| 104 | 전기제어설비부 STS제강전기정비과 | 대이동       | 1992. 8. 27  |
| 105 | 전기제어설비부 STS냉연전기정비과 | 연일읍 인주리   | 2003. 6. 20  |
| 106 | 전기제어설비부 동력전기정비과    | 오천읍 용산2리  | 2004. 5. 28  |
| 107 | 전기제어설비부 계측정비과      | 죽장면 합덕리   | 1995. 5. 16  |
| 108 | 전기제어설비부 전기수리과      | 장기면 대진리   | 1996. 7. 30  |
| 109 | 스테인리스생산부 1제강공장     | 홍해읍 죽천1리  | 1997. 8. 25  |

|     | 부서명             | 결연대상      | 결연일자        |
|-----|-----------------|-----------|-------------|
| 110 | 스테인리스생산부 2제강공장  | 홍해읍 죽천2리  | 1993. 3. 8  |
| 111 | 스테인리스생산부 3제강공장  | 대송면 제내1리  | 2004. 4. 19 |
| 112 | 스테인리스생산부 소둔산세공장 | 송라면 광천2리  | 1999. 3. 18 |
| 113 | 스테인리스생산부 냉연공장   | 양학동       | 1994. 4. 28 |
| 114 | 기술연구소           | 청하면 유계1리  | 1995. 5. 15 |
| 115 |                 | 청하면 유계2리  |             |
| 116 | FINEX연구개발추진반    | 구룡포읍 석병1리 | 1995. 6. 13 |
| 117 |                 | 구룡포읍 석병2리 |             |
| 118 | 포항제철소           | 해병대 1사단   | 2005. 9. 7  |

자매결연 현황(광양지역)

(2006년 6월말 기준)

|    | 부서명         | 결연대상           | 결연일자         |
|----|-------------|----------------|--------------|
| 1  | 인재개발원 광양교육팀 | 옥곡면 신금리 월양동마을  | 1992. 5. 1   |
| 2  | 행정지원부 행정팀   | 옥곡면 선유리 오류마을   | 1995. 5. 13  |
| 3  |             | 동광양상공인회        | 2001. 12. 18 |
| 4  | 행정지원부 재무원가팀 | 개인택시 광양지부      | 2002. 5. 23  |
| 5  |             | 골약동 군재마을       | 1992. 5. 9   |
| 6  | 행정지원부 지역협력팀 | 하동군 금성면 갈육초등학교 | 1990. 9. 18  |
| 7  | 행정지원부 홍보팀   | 개인택시 동광양지부     | 1992. 6. 23  |
| 8  | 행정지원부 자재통관팀 | 하동군 갈사리 나팔마을   | 1990. 2. 17  |
| 9  |             | 옥룡면 동곡리 답곡마을   | 1992. 5. 3   |
| 10 | 노무안전부 인사팀   | 광양시 모범운전자협회    | 1994. 4. 14  |
| 11 | 노무안전부 노무팀   | 진월면 신구리 신기마을   | 1992. 4. 25  |
| 12 | 노무안전부 안전팀   | 광양시 의용소방대      | 2001. 12. 21 |
| 13 | 노무안전부 보건지원팀 | 옥룡면 운곡리 갈곡마을   | 1992. 6. 20  |
| 14 | 노무안전부 생활문화팀 | 옥룡면 동곡리 동동마을   | 1995. 5. 15  |
| 15 |             | 옥룡면 동곡리 선동마을   |              |
| 16 |             | 옥룡면 운평리 하평마을   | 1995. 9. 15  |

|    | 부서명            | 결연대상              | 결연일자         |
|----|----------------|-------------------|--------------|
| 17 | 노무안전부 생활문화팀    | 광양시 농업경영인회        | 2002. 3. 6   |
| 18 | 노무안전부 외주지원팀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광양지대   | 2002. 6. 28  |
| 19 | 공정출하부 생산관제과    | 골약동 황곡마을          | 1994. 3. 26  |
| 20 | 공정출하부 제품출하과    | 옥곡면 대죽리 대리마을      | 1992. 5. 30  |
| 21 | 공정출하부 구내운송과    | 진상면 섬거리 섬거마을      | 1992. 5. 4   |
| 22 | 품질기술부 박판품질관리그룹 | 다압면 다압초등학교        | 1991. 2. 19  |
| 23 | 품질기술부 재질시험과    | 봉강면 조령리 덕촌마을      | 1992. 3. 17  |
| 24 | 품질기술부 화학시험과    | 광영동 도촌마을          | 1994. 2. 5   |
| 25 | 제선부 조업지원팀      | 봉강면 조령리 하조마을      | 1992. 4. 28  |
| 26 |                | 태인동 태금중학교         | 1996. 6. 26  |
| 27 | 제선부 기술개발그룹     | 골약동 금곡마을          | 1992. 4. 18  |
| 28 | 제선부 원료공장       | 진월면 진정리 선포마을      | 1992. 4. 18  |
| 29 |                | 태인동 2구(장내마을)      | 1999. 7. 15  |
| 30 | 제선부 소결공장       | 태인동 5구(명당마을)      | 2000. 11. 18 |
| 31 | 제선부 1제선공장      | 태인동 3구(용지마을)      | 1990. 3. 7   |
| 32 |                | 진월면 오사리 사평마을      | 1992. 4. 15  |
| 33 | 제선부 2제선공장      | 태인동 3구(용지마을)      | 1990. 3. 7   |
|    |                | 진상면 황죽리 구황마을      | 1992. 3.     |
| 34 | 제선부 3제선공장      | 광양읍 죽림리 호암마을      | 1997. 5. 1   |
| 35 | 화성부 조업지원팀      | 태인동 태인초등학교        | 1992. 4. 17  |
| 36 |                | 태인동 4구(궁기마을)      | 1992. 7. 10  |
| 37 |                | 태인동 1구(도촌마을)      | 1997. 1. 14  |
| 38 |                | 여수시 묘도동 도독마을      | 1999. 8. 24  |
| 39 | 화성부 1코크스공장     | 진상면 황죽리 신흥마을      | 1992. 4. 17  |
| 40 | 화성부 2코크스공장     | 진상면 금이리 외금마을      | 1992. 4. 8   |
| 41 | 화성부 화성공장       | 옥곡면 신금리 금촌마을      | 1999. 4. 17  |
| 42 | 제강부            | 진월면 진월초등학교        | 2001. 12. 18 |
| 43 |                | 진월면 선소리 선소마을      | 2001. 12. 18 |
| 44 | 제강부 기술개발부문     | 진월면 중산마을          | 1992. 4. 25  |
| 45 | 제강부 1제강공장      | 진상면 어치1구 어치(느제)마을 | 1992. 4. 11  |

|    | 부서명           | 결연대상           | 결연일자         |
|----|---------------|----------------|--------------|
| 46 | 제강부 2제강공장     | 골약동 통사마을       | 1992. 4. 22  |
| 47 | 제강부 1연주공장     | 진월면 선소리 이정마을   | 1992. 4. 23  |
| 48 | 제강부 2연주공장     | 골약동 하포마을       | 1993. 8. 15  |
| 49 | 제강부 노재운영과     | 다압면 신원리 신기마을   | 1992. 5. 7   |
| 50 | 열연부 조업지원팀     | 성황동 골약중학교      | 2003. 8. 1   |
| 51 | 열연부 기술개발부문    | 진월면 진월남초교 오신분교 | 1998. 7. 20  |
| 52 |               | 진월면 진월남초교 월길분교 | 2005. 1. 1   |
| 53 | 열연부 1열연공장     | 진월면 송금리 신송마을   | 1992. 5. 3   |
| 54 |               | 진월면 송금리 금동마을   |              |
| 55 | 열연부 2열연공장     | 진월면 월길리 중도마을   | 1992. 4. 12  |
| 56 | 열연부 3열연공장     | 옥곡면 선유리 선유마을   | 1992. 5. 15  |
| 57 | 열연부 산세공장      | 진월면 송금리 송현마을   | 1992. 5. 3   |
| 58 | 냉연부           | 진상면 진상중학교      | 1992. 3. 3   |
| 59 |               | 진상면 진상고등학교     |              |
| 60 | 냉연부 조업지원팀     | 진상면 비평리 비촌마을   | 1992. 4. 26  |
| 61 | 냉연부 1냉연공장     | 진상면 청암리 입암마을   | 1992. 5. 10  |
| 62 | 냉연부 2냉연공장     | 진상면 금이리 내금마을   | 1992. 6. 21  |
| 63 | 냉연부 3냉연공장     | 진상면 섬거리 용계마을   | 1992. 5. 5   |
| 64 | 냉연부 4냉연공장     | 진상면 청암리 삼정마을   | 1992. 5. 24  |
| 65 | 도금부 1도금공장     | 진상면 청암리 목과마을   | 1992. 7. 11  |
| 66 | 도금부 2도금공장     | 진상면 지원리 방동마을   | 1992. 5. 24  |
| 67 | 도금부 3도금공장     | 진상면 진상초등학교     | 2002. 4. 10  |
| 68 | 도금부 4도금공장     | 진상면 진상초교 황죽분교  | 2005. 4. 8   |
| 69 | 미니밀부          | 진월면 오사리 오추마을   | 1995. 5. 31  |
| 70 |               | 중마동 와우마을       | 2004. 11. 19 |
| 71 | 환경에너지부 에너지기술팀 | 진상면 황죽리 죽전마을   | 1992. 4. 14  |
| 72 | 환경에너지부 대기보전팀  | 여천시 묘도동 온동마을   | 1993. 12. 18 |
| 73 | 환경에너지부 자원재활용팀 | 여수시 묘도동 묘읍마을   | 2005. 3. 30  |
| 74 | 환경에너지부 전력계통과  | 골약동 용장마을       | 1992. 4. 23  |
| 75 | 환경에너지부 동력과    | 다압면 고사리 관동마을   | 1992. 4. 7   |

|     | 부서명              | 결연대상         | 결연일자        |
|-----|------------------|--------------|-------------|
| 76  | 환경에너지부 수질보전팀     | 진월면 신아리 신덕마을 | 1993. 4. 23 |
| 77  | 환경에너지부 산소공장      | 봉강면 조령리 부암마을 | 1999. 3. 13 |
| 78  | 설비기술부            | 광양읍 광양실업고등학교 | 1992. 4. 15 |
| 79  | 설비기술부 정비기획팀      | 진상면 어치리 지계마을 | 1992. 4. 23 |
| 80  | 설비기술부 공시팀        | 광양읍 죽림리 대실마을 | 1993. 2. 26 |
| 81  | 설비기술부 선강설비팀      | 진상면 황죽리 웅동마을 | 1992. 5. 8  |
| 82  | 설비기술부 압연설비팀      | 봉강면 봉강초등학교   | 1992. 4. 25 |
| 83  | 설비기술부 토건설비팀      | 진월면 차사리 차동마을 | 1993. 2. 20 |
| 84  | 기계설비부 기계정비기술팀    | 광영동 금호회      | 1992. 4. 15 |
| 85  | 기계설비부 정비공장       | 골약동 수동마을     | 1992. 4. 27 |
| 86  | 기계설비부 기계수리과      | 옥룡면 죽천리 죽림마을 | 1992. 5. 2  |
| 87  | 기계설비부 화성기계정비과    | 광영동 청년회      | 2002. 3. 30 |
| 88  | 기계설비부 제선기계정비과    | 다압면 도사리 다사마을 | 1992. 4. 11 |
| 89  | 기계설비부 제강기계정비과    | 옥룡면 추산리 양산마을 | 1992. 5. 9  |
| 90  | 기계설비부 열연기계정비과    | 진월면 월길리 대리마을 | 1992. 4. 25 |
| 91  | 기계설비부 냉연기계정비과    | 진월면 차사리 사동마을 | 1996. 2. 7  |
| 92  | 기계설비부 도금기계정비과    | 광영동 큰골회      | 1992. 4. 25 |
| 93  | 기계설비부 미니밀기계정비과   | 진월면 진정리 향동마을 | 1999. 4. 17 |
| 94  | 기계설비부 동력기계정비과    | 다압면 신원리 외암마을 | 1992. 4. 28 |
| 95  | 전기제어설비부 (팀연합)    | 다압면 고사리 고사마을 | 1992. 4. 29 |
| 96  | 전기제어설비부 전기수리과    | 옥룡면 추산리 외산마을 | 1992. 4. 29 |
| 97  | 전기제어설비부 계측제어정비과  | 다압면 고사리 죽천마을 | 1995. 5. 26 |
| 98  | 전기제어설비부 화성전기정비과  | 골약동 대화마을     | 2001. 7. 7  |
| 99  | 전기제어설비부 제선전기정비과  | 진상면 어치리 회두마을 | 1992. 4. 18 |
| 100 | 전기제어설비부 제강전기정비과  | 진월면 마룡리 마동마을 | 1992. 4. 25 |
| 101 | 전기제어설비부 열연전기정비과  | 다압면 금천리 직금마을 | 1996. 2. 6  |
| 102 | 전기제어설비부 냉연전기정비과  | 옥곡면 수평리 수평마을 | 1992. 4. 24 |
| 103 | 전기제어설비부 도금전기정비과  | 다압면 다압중학교    | 1992. 4. 15 |
| 104 | 전기제어설비부 미니밀전기정비과 | 다압면 금천리 동동마을 | 1998. 9. 12 |
| 105 | 전기제어설비부 에너지전기정비과 | 옥곡초등학교       | 2001. 4. 26 |

|     | 부서명   | 결연대상         | 결연일자        |
|-----|-------|--------------|-------------|
| 106 | 예비군연대 | 광영동 하광마을     | 1988. 4. 22 |
| 107 | 기술연구소 | 중미동 광양백운고등학교 | 1996. 1. 15 |

계열사 봉사단 운영 및 자매결연 현황

(2006년 6월말 기준)

| 회사명   | 대표  | 봉사단명        | 창단일          | 자매결연단체         | 결연일          |
|-------|-----|-------------|--------------|----------------|--------------|
| 포스코건설 | 한수양 | 포스코건설 봉사단   | 2004. 12. 1  | 포항시 기계면 지가1리   | 1998. 12. 22 |
|       |     |             |              | 포항시 흥해읍 덕장1리   | 1999. 3. 9   |
|       |     |             |              | 포항시 기계면 고지2리   | 1999. 3. 10  |
|       |     |             |              | 포항시 기계면 가안1리   | 1999. 3. 11  |
|       |     |             |              | 포항시 흥해읍 양백2리   | 1999. 3. 16  |
|       |     |             |              | 광양시 진월면        | 1999. 12. 26 |
| 창원특수강 | 김정원 | 창원특수강 봉사단   | 2004. 7. 15  | 포항시 죽도시장 삼가번영회 | 2004. 5. 27  |
|       |     |             |              | 창원시 귀산동 용호마을   | 2004. 8. 21  |
|       |     |             |              | 창원시 귀산동 갯마을    | 2004. 8. 21  |
|       |     |             |              | 창원시 귀산동 귀산본마을  | 2004. 8. 21  |
|       |     |             |              | 창원시 귀산동 석교마을   | 2004. 8. 21  |
|       |     |             |              | 창원시 전촌마을       | 2005. 5. 21  |
| 포항강관  | 최중두 | POCOS 봉사단   | 2004. 7. 1   | 창원시 동읍         | 2005. 5. 25  |
|       |     |             |              |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 1999. 6. 15  |
| 포스데이타 | 유병창 | 포스데이타 직원봉사단 | 2006. 5. 27  | 정애원 등 8개 복지시설  |              |
|       |     | 포스데이타 가족봉사단 | 2005. 2. 24  | 포항시 흥해읍 옥성1리   | 1999. 8. 3   |
| 포스코피워 | 이승우 |             |              | 서귀포시 남제주       | 2003. 2. 27  |
|       |     |             |              | 인천서구 노인복지회관    | 2002. 5. 1   |
| 포스틸   | 김승  | 직장발전협의회     | 2003. 12. 30 | 어깨동무 신나는 집(인천) | 2003. 5. 1   |
|       |     |             |              | 생수사랑회(경기 용인시)  | 2003. 12. 31 |
|       |     |             |              | 꿈나무의 집(경기 고양시) | 2003. 12. 31 |
|       |     |             |              | 사랑의 쉼터(경기 하남시) | 2003. 12. 31 |
|       |     |             |              | 천사의집(경기 성남시)   | 2005. 12. 17 |

| 회사명          | 대표          | 봉사단명       | 창단일          | 자매결연단체            | 결연일          |
|--------------|-------------|------------|--------------|-------------------|--------------|
| 포스틸          | 김승          | 직장발전협의회    | 2003. 12. 30 | 오류애육원 (서울 구로구)    | 2005. 12. 17 |
|              |             |            |              | 명진지역아동센터 (서울 강동구) | 2005. 12. 17 |
| 포스콘          | 최병조         | 포스콘 봉사단    | 2004. 9. 11  | 포항시 북구 장량동        | 1995. 8. 1   |
|              |             |            |              | 포항시 신광면 냉수리       | 1999. 6. 1   |
|              |             |            |              | 포항시 연일초등학교        | 1999. 10. 1  |
|              |             |            |              | 광양시 고량면 중양마을      | 1988. 8. 31  |
|              |             |            |              | 광양시 진월면 용소마을      | 2000. 1. 21  |
| 포스렉          | 황원철         | 포스렉 나누미봉사단 | 2004. 7. 29  |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3리     | 1996. 6. 11  |
|              |             |            |              | 포항시 기계면 화봉리       | 1998. 5. 19  |
|              |             |            |              | 포항시 기계면 울산리       | 1998. 8. 11  |
|              |             |            |              | 광양시 사곡리 점동마을      | 1999. 2. 12  |
| 포철산기         | 최규성         | 포철산기 봉사단   | 2004. 9. 15  | 포항시 신광면 우각1리      | 1998. 12. 1  |
|              |             |            |              | 포항시 신광면 우각2리      | 1998. 12. 1  |
|              |             |            |              | 포항시 신광면 죽성1리      | 1998. 12. 1  |
|              |             |            |              | 포항시 신광면 죽성2리      | 1998. 12. 1  |
|              |             |            |              | 포항시 구룡포읍 하정1리     | 1998. 12. 11 |
|              |             |            |              | 포항시 구룡포읍 하정2리     | 1998. 12. 11 |
| 포철기연         | 정상훈         | 포철기연 봉사단   | 2004. 10. 20 | 포항시 구룡포읍 하정3리     | 1998. 12. 11 |
|              |             |            |              | 광양시 태인동 공기마을      | 1988. 4. 30  |
|              |             |            |              | 광양시 옥곡면 묵방마을      | 2000. 2. 28  |
| 동우사          | 이우인         | 참사랑 봉사단    | 2004. 7. 21  | 광양시 다압면 평촌마을      | 2000. 3. 3   |
|              |             |            |              | 해관보육원 (경기 안양시)    |              |
|              |             |            |              | 무지개동산 (경기 성남시)    |              |
| 삼정피앤에이       | 장병기         | 삼정 봉사단     | 2003. 11. 27 | 청암요양원 (서울 성파구)    |              |
|              |             |            |              | 정애원 (경북 포항시)      |              |
|              |             |            |              | 동보원 (경남 창원시)      |              |
|              |             |            |              | 새들원 (부산 동래구)      |              |
|              |             |            |              | 포항시 기계면 봉계1리      | 1995. 2. 1   |
|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 2000. 10. 1 |            |              |                   |              |
| 광양시 옥곡면 죽양마을 | 1999. 2. 10 |            |              |                   |              |

### 외주파트너사 봉사단 운영 및 자매결연 현황

| 회사명       | 대표  | 인원(명) | 봉사단명      | 창단일          | 결연대상                   | 결연일                        |
|-----------|-----|-------|-----------|--------------|------------------------|----------------------------|
| (주)건우     | 신윤식 | 128   | 사랑 봉사단    | 2005. 10. 6  | 진월면 망덕리 내망마을           | 2001. 5. 17                |
| (주)광양기업   | 강순행 | 618   | 사랑나누기 봉사단 | 2005. 2. 20  |                        |                            |
| (주)광희     | 송병원 | 269   | 참사랑 봉사단   | 2005. 8. 10  | 봉강면 부저리 석평마을           | 2001. 5. 11                |
| (주)남양이엔에스 | 이하세 | 86    |           |              |                        |                            |
| (주)대연     | 조성준 | 65    | 한마음 봉사단   | 2005. 5. 12  | 연일읍 유강1리<br>포항 들꽃 마을   | 2004. 2. 20<br>2006. 4. 27 |
| (주)대운     | 박승대 | 36    | 대운봉사단     | 2005. 10. 20 | 한사랑의집                  | 2005.10. 22                |
| (주)대진     | 김정신 | 222   | 사랑 봉사단    | 2005. 4. 28  | 진월면 방죽마을               | 2001. 7. 27                |
| (주)덕산     | 강웅규 | 144   | 징검다리 봉사단  | 2005. 7. 8   | 진월면 오사리 추동마을           | 2001. 9. 14                |
| (주)드림피아   | 이백구 | 140   |           |              |                        |                            |
| (주)레스코    | 이정배 | 66    |           |              | 기계면 구지리                | 2000. 9. 1                 |
| (주)롤앤롤    | 김장수 | 216   | 롤사랑회      | 2006. 6. 17  |                        |                            |
| (주)만서기업   | 채양도 | 107   | 한마음 봉사단   | 2004. 5. 29  | 장기면 방산2리<br>포항시 배드민턴협회 | 2001. 8. 1<br>2005. 5. 3   |
| (주)메인테크   | 이민수 | 133   | 등불 봉사단    | 2005. 10. 14 | 진월면 구덕마을               | 2005. 6. 5                 |
| (주)무창     | 하성기 | 155   |           |              |                        |                            |
| (주)비엠에스   | 최종락 | 138   | 비엠에스 봉사단  | 2005. 8. 1   | 해도2동                   | 2005. 5. 20                |
| (주)삼부     | 최정민 | 141   |           |              | 동해면 증흥리                | 2005. 6. 22                |
| (주)서희건설   | 이원섭 | 130   | 새동지 봉사단   | 2005. 3. 1   | 동해면 신정1리               | 1997. 1. 30                |
| (주)성광     | 정두표 | 68    | 한우리 봉사단   | 2005. 3. 10  | 오천읍 세계2리               | 2006. 4. 20                |
| (주)세영기업   | 이동섭 | 201   | 나눔 봉사단    | 2004. 12. 10 | 흥해읍 원곡리                | 1994. 4. 25                |
| (주)에스앤지   | 이선중 | 130   | 초록 봉사단    | 2004. 1. 10  | 기북면 대곡2리               | 2005. 4. 7                 |
| (주)에스엠    | 이석면 | 93    | 에스엠 봉사단   | 2006. 6. 7   | 해도2동                   | 2005.12. 26                |
| (주)엠알씨    | 이관진 | 52    |           |              |                        |                            |
| (주)영국산업   | 홍선표 | 36    |           |              |                        |                            |
| (주)원창     | 문승표 | 171   |           |              |                        |                            |
| (주)유니테크   | 윤유하 | 97    | 유니테크 봉사단  | 2005. 10. 25 | 광양읍 초남리 현월마을           | 2005.10. 25                |
| (주)유일     | 조성훈 | 245   | 다사랑 봉사단   | 2005. 3. 25  | 장기면 죽정리                | 1996. 7. 5                 |
| (주)이에스테크  | 서경석 | 71    | 나눔 봉사단    | 2005. 10. 6  |                        |                            |
| (주)이엠텍    | 안중산 | 107   | 온누리 봉사단   | 2005. 9. 30  |                        |                            |

| 회사명         | 대표  | 인원(명) | 봉사단명              | 창단일                        | 결연대상                             | 결연일                        |
|-------------|-----|-------|-------------------|----------------------------|----------------------------------|----------------------------|
| (주)인앤씨      | 추성호 | 79    | 인앤씨 봉사단           | 2005. 1. 22                | 연일읍 우북2리                         | 2000. 4. 15                |
| (주)정우       | 이정묵 | 61    |                   |                            |                                  |                            |
| (주)지엔텍      | 정봉규 | 192   | 드림 봉사대<br>한우리 봉사단 | 2005. 5. 14<br>2005. 6. 18 |                                  |                            |
| (주)케이알티     | 조규용 | 56    |                   | 2005. 2. 5                 | 포항모자원                            | 2001. 3. 12                |
| (주)코렘       | 이진섭 | 89    | 나누미 봉사단           | 2005. 8. 9                 | 죽장면 매현1리                         | 2005. 8. 8                 |
| (주)포렌       | 채희명 | 149   |                   |                            |                                  |                            |
| (주)포롤텍      | 정성현 | 155   |                   |                            |                                  |                            |
| (주)포센       | 김인환 | 266   |                   |                            |                                  |                            |
| (주)포엔시      | 김대수 | 112   |                   |                            | 장기면 모포2리                         | 2006. 4. 28                |
| (주)포웰       | 이상철 | 134   |                   |                            |                                  |                            |
| (주)포텍       | 김무용 | 44    |                   |                            | 장기면 서촌1리                         | 2006. 5. 4                 |
| (주)프라임테크    | 천필지 | 40    |                   |                            |                                  |                            |
| (주)프롬스      | 황병연 | 166   | 프롬스 봉사단           | 2006. 4. 22                |                                  |                            |
| (주)피엔피      | 박병재 | 114   | 나누리 봉사단           | 2005. 6. 24                |                                  |                            |
| (주)피에스시     | 김덕균 | 248   | 피에스씨 봉사단          | 2000. 4. 7                 | 기계면 고지1리<br>포항시 탁구협회             | 1999. 7. 15<br>2005. 5. 11 |
| (주)한중       | 권유일 | 149   | 한중 봉사단            | 2005. 1. 28                | 동해면 중산리                          | 2005. 4. 13                |
| (주)해광기업     | 윤광수 | 121   | 해광 봉사단            | 2006. 4. 1                 | 기계면 인버리                          | 2006. 4. 1                 |
| (주)화인텍      | 김상수 | 146   | 화인텍 봉사단           | 2006. 6. 2                 |                                  |                            |
| (주)효석       | 김호수 | 46    | 효석 사랑봉사단          | 2006. 9. 1                 |                                  |                            |
| (주)휴렉스      | 박준석 | 65    | 휴렉스 봉사단           | 2006. 4. 28                |                                  |                            |
| (주)흥일전력     | 김강민 | 144   | 조나단 봉사단           | 2005. 1. 20                | 옥곡면 묵백리 사동마을<br>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사도마을 | 2001. 6. 27<br>2003.12. 16 |
| (주)ACETECH  | 임군택 | 183   | 자연사랑 봉사단          | 2005. 4. 1                 | 광양동부 모범운전자회                      | 2005. 4. 1                 |
| (주)EG POTEC | 하재춘 | 79    |                   |                            |                                  |                            |
| (주)EG테크     | 김선광 | 109   |                   |                            |                                  |                            |
| 광양조경(주)     | 허춘언 | 234   | 지주목 봉사단           | 2005. 9. 8                 | 광양 황금동 고길마을                      | 2001. 7. 22                |
| 광일기업(주)     | 이중우 | 43    |                   |                            | 장기면 학곡리                          | 2000.12. 15                |
| 쾌도공영(주)     | 신우기 | 71    | 쾌도공영봉사단           | 2005. 6. 1                 | 창포동 청년회                          | 1992.10. 16                |

| 회사명       | 대표  | 인원(명) | 봉사단명                | 창단일                        | 자매결연단체                           | 결연일                                     |
|-----------|-----|-------|---------------------|----------------------------|----------------------------------|---|
| 과도공영(주)   | 신우기 | 71    | 과도공영봉사단             | 2005. 6. 1                 | 창포사랑모임회<br>사랑의동산<br>봉강면 구서리 구서마을 | 2004. 6. 1<br>2004.10. 1<br>2000.11. 25 |
| 그린산업(주)   | 이광열 | 299   | 그린산업 봉사단            | 2004. 4. 17                | 장기면 모포1리                         | 2000.11. 11                             |
| 대광산기(주)   | 황윤호 | 161   | 새싹림부인회 봉사단          | 2005. 12. 11               | 성모자애원                            | 2006. 3. 31                             |
| 대성기업(주)   | 계성렬 | 186   | 대성 봉사단              | 2004. 12. 20               | 청하면 청진3리                         | 2000.12. 8                              |
| 대원(주)     | 이원국 | 273   | 대원 봉사단              | 2005. 3. 11                | 포항우수협회                           | 2005. 5. 6                              |
| 대일기업(주)   | 황중현 | 107   | 사랑모아 봉사단            | 2006. 8. 19                | 흥해읍 금장1리                         | 2000. 6. 24                             |
| 대주기업(주)   | 노진수 | 70    | 하모니 봉사단             | 2005. 12. 8                | 옥곡면 묵백리 부담마을<br>여수 안도리 서고지(어촌계)  | 2005.12. 9<br>2005.12. 23               |
| 덕일산업(주)   | 김철  | 43    | 덕일 봉사단              | 2005. 9. 30                | 광양읍 실로암마을                        | 2001. 5. 10                             |
| 동서개발(주)   | 김영동 | 36    | 쇠뚝구리 봉사단            | 2005. 11. 7                | 기북면 탐정1리                         | 2005. 4. 11                             |
| 동성계전(주)   | 나영기 | 105   | 동성계전 봉사단            | 2005. 3. 26                | 연일읍 우북1리                         | 2005. 3. 29                             |
| 동양종합건설(주) | 오석인 | 106   | 동양종합건설 봉사단          | 2004. 7. 1                 | 청하면 청계리<br>정애원                   | 2005. 7. 22<br>2005. 7. 22              |
| 동원개발(주)   | 김태갑 | 148   | 동원개발 봉사단            | 1994. 9. 1                 |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br>포항시 씨름협회           | 1993. 5. 1<br>2000.10. 1                |
| 동일기업(주)   | 김점조 | 447   | 동일기업 봉사단            | 2004. 9. 3                 | 오천읍 용산1리                         | 1997.11. 28                             |
| 동화기업(주)   | 이형팔 | 298   | 파랑새 봉사단             | 2005. 1. 19                | 연일읍 달전리                          | 2005. 3. 10                             |
| 두양산전(주)   | 김용운 | 70    | 등대 봉사단              | 2005. 9. 1                 | 광양시 마동 와우마을                      | 1998. 9. 26                             |
| 부국산업(주)   | 남상규 | 298   | 사랑나누기 봉사단<br>해피바이러스 | 2005. 6. 13<br>2005. 7. 13 | 태인초등학교<br>진월중학교                  | 1999.10. 15<br>2001. 7. 25              |
| 삼진기업(주)   | 최운용 | 154   | 삼진 자원봉사단            | 2005. 9. 30                | 진월면 망덕리 구룡마을                     | 2001. 4. 24                             |
| 삼화산업(주)   | 국경훈 | 376   | 옴시롱 봉사단             | 2005. 4. 11                | 진월면 중산마을<br>황길동 평촌마을             | 2001. 9. 20<br>2005.10. 26              |
| 서강기업(주)   | 송영수 | 134   | 서강 한마음봉사단           | 2005. 12. 5                |                                  |   |
| 성암산업(주)   | 윤관중 | 295   | 참사랑 봉사단             | 2005. 11. 16               | 진월면 장재리 장재마을                     | 2001. 7. 4                              |
| 신립공업(주)   | 박병일 | 115   | 신립공업 봉사단            | 2005. 1. 24                | 기북면 관천리<br>석병교회 하늘양로원            | 2005. 3. 26<br>2005. 2. 17              |
| 영남산업(주)   | 조영오 | 338   | 해맞이 봉사단             | 2004. 7. 31                | 들꽃마을                             | 2005. 6. 30                             |

| 회사명     | 대표  | 인원(명) | 봉사단명     | 창단일          | 자매결연단체                   | 결연일                       |
|---------|-----|-------|----------|--------------|--------------------------|---------------------------|
| 영일기업(주) | 정봉화 | 240   | 영일 봉사단   | 2002. 7. 1   | 죽장면 상사리                  | 1999. 7. 22               |
| 유양기술(주) | 김찬주 | 51    |          |              |                          |                           |
| 전남기업(주) | 정남균 | 328   | 전남 사랑봉사단 | 2005. 5. 2   | 옥곡면 대죽리 백양마을             | 2001. 7. 28               |
| 포우산업(주) | 강구선 | 145   | 포우 봉사단   | 2005. 12. 5  | 오천읍 갈평리                  | 2005. 6. 9                |
| 포트엘(주)  | 송명석 | 128   |          |              |                          |                           |
| 한진기업(주) | 이동원 | 305   | 한진기업 봉사단 | 2004. 10. 27 | 기북면 용기1,2리               | 1996. 7. 20               |
| 혁성실업(주) | 황의빈 | 225   | 혁성실업 봉사단 | 2005. 10. 14 | 중동 와우마을                  | 1995.12. 27               |
| 화일산업(주) | 박의룡 | 174   | 화일산기 봉사단 | 2006. 4. 15  | 연일읍 중명1,2리<br>포항시인라인롤러연맹 | 1996. 5. 11<br>2005. 5. 3 |

포스코 사회공헌 활동 백서

## 사랑의 손길 희망의 나눔

발 행 인 이 구 택

발 행 처 (주)포스코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054-220-0114

기 획 포스코 사회봉사실

디 자 인 패스커뮤니케이션(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9-15 타임빌딩 3층  
02-3454-0277



포스코 봉사단  
POSCO VOLUNTEERS

포스코의 이니셜 P를 네 가지 색으로 표현하여 역동하는 바람개비 형태로 형상화하였다.  
주주, 고객, 지역사회,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나눔,  
봉사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포스코 봉사단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